

■ 부산뿌리찾기2

부 산 금 석 문

2002. 12

부 산 광 역 시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목 차

부산금석문 해제 / 15

강서구 금석문

1. 대부교비(大夫橋碑)	29
2. 김해(金海) 명월사(明月寺) 사적비(事蹟碑)	32
3. 효자(孝子) 고사인(故土人) 김석숭(金碩崇) 정려비(旌閭碑)	36
4. 가덕도 척화비	38
5. 처사(處士) 조오(曹澳) 적덕불망비(積德不忘碑)	39
6. 축은(築隱) 김선생 묘(金先生墓)	42
7. 열부(烈婦) 경주 최씨(慶州崔氏) 정렬각(貞烈閣)	44
8. 효자(孝子) 어경덕(魚敬德) 정려비(旌閭碑)	48
9. 탁사대(濯斯臺)	50
10.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김해도호부사(金海都護府使) 남양(南陽) 홍여한(洪汝漢) 묘(墓)	51
11. 자헌대부(資憲大夫) 배신기(裵信己) 처(妻) 열부(烈婦) 정부인(貞夫人) 성씨(成氏) 정려비(旌閭碑)	53
12. 참봉(參奉) 김해(金海) 김홍수(金洪秀) 효사비(孝思碑)	56
13. 가선대부(嘉善大夫) 남양(南陽) 홍공 묘(洪公墓)	59
14. 가락국(駕洛國) 태조왕(太祖王) 영후유허비(迎后遺墟碑)	61
15. 남강(南岡) 조선생(曹先生) 제단비(祭壇碑)	65
16. 이조참판(吏曹參判) 문화(文化) 유공 묘(柳公墓)	69
17. 통정대부(通政大夫) 혜민원참서(惠民院參書) 낙거(洛居) 창녕(昌寧) 조공 묘(曹公墓)	74
18. 부사(府使) 가선대부(嘉善大夫) 유덕옥(柳德玉)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78
19. 가덕진(加德鎭)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한몽필(韓夢弼) 만세불망비(萬世不忘碑)	79
20. 관찰사 김상휴(金相休)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80
21. 관찰사 홍재철(洪在喆)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82

22. 절제사(節制使) 오신묵(吳信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84
23. 절제사(節制使) 이우성(李雨成)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85
24. 절제사(節制使) 이두용(李斗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86
25.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한미만(韓彌萬)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87
26. ...황여즙(黃汝楫) 청덕(淸德) 선정비(善政碑)	87
27. 첨사(僉使) 오세언(吳世彦) 청덕비(淸德碑)	88
28. ...엄애졸(嚴愛卒)...	88
29. 광정대부(匡靖大夫) 첨의평리 상호군(僉議評理上護軍) 김원현(金元鉉) 처(妻) 임해군대부인(臨海郡大夫人) 배씨묘(裴氏墓)	89
30. 황고(皇考) 조산대부(朝散大夫) 청도군수(淸道郡事) 김순생 묘(金筍生墓)	90
31. 대저(大渚) 수리공사(水利工事) 기념비(記念碑)	91
32. 흥국사(興國寺) 중건(重建) 공로자(功勞者) 기념비(紀念碑)	92
33. 이홍현(李弘鉉) 구휼기념비(救恤紀念碑)	93
34. 사령부(司令部) 발상지(發祥地)	94
35. 남강(南岡) 조정환 선생(曹正煥先生) 구국기적비(救國紀蹟碑)	95
36. 유학(幼學) 이만영(李萬榮) 신작로(新作路) 기념비	96

금정구 금석문

1. 범어사(梵魚寺) 청룡암(靑龍巖) 시(詩) (Ⅰ)	97
2. 범어사(梵魚寺) 청룡암시 (Ⅱ)	98
3. 열녀(烈女) 학생(學生) 김효문 처(金孝文妻) 김해 김씨(金海金氏) 정려비(旌閭碑)	99
4. 금정산성(金井山城) 부설비(復設碑)	100
5. 조정언비(調井堰碑)	104
6. 범어사(梵魚寺) 사적비명(事蹟碑銘)	106
7. 조탑 대시주(造塔大施主) 공덕기(功德記)	111
8. 석가여래(釋迦如來) 사리탑비명(舍利塔碑銘)	114
9. 관찰사 조엄(趙瞻) 사폐혁거(寺弊革祛) 영세불망단(永世不忘壇)	117
10. 부사(府使) 민영훈(閔永勳) 거사비(去思碑)	119
11. 관찰사 홍우길(洪祐吉) 고막영혁(痼瘼永革) 만세불망단(萬世不忘壇)	121
12. 부사 정헌교(鄭獻敎) 영혁폐막(永革弊瘼) 만세불망단(萬世不忘壇)	123
13. 부사(府使) 정현덕(鄭顯德)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24
14. 통정대부(通政大夫) 참서관(參書官) 장호진(張浩鎭)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26

남구 금석문

1. 동래(東萊) 남문비(南門碑)	128
2.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	133
3.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	135
4. 서문 밖(西門外) 석교비(石橋碑)	137
5. 척화비(斥和碑)	138
6. 호천(虎川) 석교비(石橋碑)	139
7. 유원각선생(柔遠閣先生) 매안감고비(埋案感古碑)	140
8. 부사(府使) 유심(柳潔) 청덕선정(淸德善政)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142
9. 부사(府使) 이택수(李澤遂) 만세불망비(萬世不忘碑)	143

동구 금석문

1. 자성비(子城碑)	144
2. 충장공(忠壯公) 정발(鄭撥) 전망비(戰亡碑)	148
3. 정공단비(鄭公壇碑)	151
4. 충장공(忠壯公) 정발(鄭撥) 전망유지비(戰亡遺址碑)	151
5. 증좌승지(贈左承旨) 이정현(李庭憲) 비(碑)	152
6. 전망제인비(戰亡諸人碑)	153
7. 열녀 애향비(烈女愛香碑)	154
8. 충노 용월비(忠奴龍月碑)	155
9.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서문성곽우주석(西門城郭隅柱石) (Ⅰ)	156
10.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서문성곽우주석(西門城郭隅柱石) (Ⅱ)	157
11. 총독장(摠督將) 화산군(花山君) 영양(潁陽) 천공(千公) 비(碑)	158
12. 수사 장인식(張寅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60
13. 경찰관(警察官) 박기중(朴琪淙)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61
14. 첨사(僉使) 박기중(朴琪淙) 영세송덕비(永世頌德碑)	162
15. 감리겸부윤(監理兼府尹) 이준영(李準榮)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63
16. 첨사(僉使) 홍태두(洪泰斗)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64
17. 첨사(僉使) 조세망(趙世望)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165
18. 첨사(僉使) 홍이징(洪以徵) 애졸선정비(愛卒善政碑)	166
19. 첨사(僉使) 이원룡(李源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67
20. 첨사(僉使) 조광렬(趙光烈) ...불망비(...不忘碑)	168

21. 첨사(僉使) 노흠(盧愼) 선정거사비(善政去思碑)	169
22. 첨사(僉使) 안광찬(安光贊)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170
23. 만호(萬戶) 조응석(趙應錫) 거사비(去思碑)	171
24. 부창해감(釜昌該監) 홍우인(洪祐人) 불망비(不忘碑)	171
25. 충장공(忠壯公) 정발장군비(鄭撥將軍碑)	172

동래구 금석문

1. 이섭교비(利涉橋碑)	173
2. 임진전망 유해지충(壬辰戰亡遺骸之塚)	176
3. 내주축성비기(萊州築城碑記)	178
4.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	187
5. 옛 관노(官奴) 철수(鐵壽) · 매동(邁同) 효충비(効忠碑)	189
6. 동래금강원시비(東萊金剛園詩碑)	190
7. 태평원시비(太平園詩碑)	192
8. 한량(閑良) 밀성(密城) 박춘흥 처(朴春興妻) 열녀 월성박씨(月城朴氏) 정려비	194
9. 영보단(永報壇)	195
10. 송공단(宋公壇)	196
11. 송봉수(宋鳳壽) 순난비(殉難碑)	197
12. 신여로(申汝槽) 순난비(殉難碑)	198
13. 양조한(梁朝漢) 순난비(殉難碑)	199
14. 의녀위(義女位)(1)	200
15. 의녀위(義女位)(2)	201
16. 동시사난민인위(同時死亂民人位)	202
17. 동시사난부녀위(同時死亂婦女位)	203
18. 문덕겸(文德謙) 순난비(殉難碑)	204
19. 송백(宋伯) 순난비(殉難碑)	205
20. 김상(金祥) 순난비(殉難碑)	206
21. 김희수(金希壽) 순난비(殉難碑)	207
22. 김섬(金蟾) 순난비(殉亂碑)	208
23. 노개방(盧盖邦) 순난비(殉難碑)	209
24. 조영규(趙英珪) 순난비(殉難碑)	210
25. 송공단기(宋公壇記)	211

26. 부사(府使) 정언섭(鄭彦燮) 흥학문화거사비(興學文化去思碑)	216
27. 부사(府使) 조존성(趙存性) 선정비(善政碑)	217
28. 부사(府使) 홍수만(洪秀晩) 흥학비(興學碑)	218
29. 부사(府使) 이규현(李奎鉉) 흥학평(興學坪)	219
30. 부사(府使) 김준(金鎭) 흥학비(興學碑)	221
31. 부사(府使) 이탁원(李鐸遠) 흥학비(興學碑)	222
32. 부사(府使) 서당보(徐堂輔) 흥학비(興學碑)	223
33. 부사(府使) 조규년(趙奎年) 흥학비(興學碑)	224
34. 부사(府使) 정현덕(鄭顯德) 흥학비(興學碑)	225
35. 부사(府使) 황정연(黃正淵) 흥학비(興學碑)	226
36. 부사(府使) 현명운(玄明運) 흥학비(興學碑)	227
37. 부사(府使) 강대수(姜大遂) 선정비(善政碑)	228
38. 부사(府使) 이원진(李元鎭)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229
39. 부사(府使) 황호(黃)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230
40. 부사(府使) 임의백(任義伯) 청덕선정비	231
41. 부사(府使) 이항(李沆) 생사비(生祠碑)	232
42. 부사(府使) 조태동(趙泰東) 선정비(善政碑)	233
43. 부사(府使) 조재민(趙載敏) 청덕선정만고불망 마애비(淸德善政萬古不忘磨崖碑)	235
44. 부사(府使) 임상원(林象元) 청덕선정 만고불망비(淸德善政萬古不忘碑)	237
45. 부사(府使) 이유신(李裕身) 청덕선정 만고불망비(淸德善政萬古不忘碑)	238
46. 부사(府使) 강필리(姜必履) 거사단(去思壇)	239
47. 부사(府使) 이치중(李致中) 선정비(善政碑)	240
48. 부사(府使) 이양정(李養鼎)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241
49. 부사(府使) 윤필병(尹弼秉) 거사단(去思壇)	242
50. 부사(府使) 황일하(黃一夏)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243
51. 부사(府使) 윤노동(尹魯東)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244
52. 부사(府使) 윤문거(尹文舉) 청선비(淸善碑)	245
53. 부사(府使) 오한원(吳翰源) 청덕선정비(淸德善政)	246
54. 부사(府使) 성수묵(成遂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247
55. 부사(府使) 민영훈(閔永勳) 생사비(生祠碑)	249
56. 부사(府使) 조봉진(曹鳳振)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250
57. 부사(府使) 김선근(金善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252
58. 부사(府使) 이용식(李容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254

59. 부사(府使) 이안눌(李安訥)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256
60. 부사(府使) 김학진(金鶴鎭)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257
61. 부사(府使) 윤필은(尹弼殷)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259
62. 부사(府使) 현명운(玄明運)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260
63. 부사(府使) 이휘령(李彙寧)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262
64. 부사(府使) 정종원(鄭種遠) 유애비(遺愛碑)	263
65. ...청덕선정만고불망비(...淸德善政萬古不忘碑)	263
66. 김용조(金容祚) 청덕찬성비(淸德贊成碑)	264
67. 교원(敎員) 박반구(朴盤九) 청덕찬성비(淸德贊成碑)	265
68. 전위원(前委員) 오남근(吳南根) 광혜불망비(廣惠不忘碑)	266
69. 부사(府使) 이홍망(李弘望) 선정송덕비(善政頌德碑)	267
70. 부사(府使) 한배하(韓培廈) 거사비(去思碑)	269
71. 금강원지(金剛園誌)	270

부산진구 금석문

1. 동래 정씨(東萊鄭氏) 시조(始祖) 호장(戶長) 정문도 묘(鄭文道墓)	271
2. 정묘비(鄭墓碑)	273
3. 동래 정씨(東萊鄭氏) 시조(始祖) 호장(戶長) 정문도 묘(鄭文道墓)	277
4. 유정대사(惟政大師) 충의비(忠義碑)	279

북구 금석문

1. 효자 천승호(千乘昊) · 열녀 경주 이씨 정려비	281
2. 구포동화재의연기념비(龜浦洞火災義捐紀念碑)	282
3. 증어모장군(贈禦侮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광주(廣州) 김공 묘(金公墓)	284
4. 학사대(學士臺) (각석)	287
5. 조대주인(釣臺主人) 임경택(林景澤) (각석)	288
6. 군수(郡守) 이유하(李游夏) 축은제비(築恩堤碑)	289
7. 군수(郡守) 심능섭(沈能燮) 수덕불망비(樹德不忘碑)	290
8. 군수(郡守) 손상일(孫相駟) 훈민선정비(恤民善政碑)	291
9. 군수(郡守) 이계필(李啓弼) 청덕훈민비(淸德恤民碑)	292
10. 고(故) 장우석(張禹錫) 기념비(紀念碑)	294

사상구 금석문

1. 부사(府使) 이경일(李敬一) 축제혜민비(築堤惠民碑)	296
2. 부사(府使) 박제명(朴齊明) 축제혜민비(築堤惠民碑)	299
3. 부사(府使) 이명적(李明迪) 축제혜민비(築堤惠民碑)	301
4. 효자(孝子) 구주성(具周星) 정려비(旌閭碑)	303
5. 효자(孝子) 황택룡(黃澤龍) 정려비(旌閭碑)	304
6. 사상(沙上) 구인의사(九人義士) 연구제단(戀舊祭壇)	304
7. 관찰사 김상휴(金相休)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05
8. 관찰사 홍재철(洪在喆)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05

사하구 금석문

1. 충신(忠臣) 정운(鄭運) 순의비(殉義碑)	306
2. 순란사민비(殉亂士民碑)	310
3. 첨사(僉使) 윤흥신(尹興信) 순절비(殉節碑)	311
4. 의사(義士) 윤흥제(尹興悌) 비(碑)	314
5. 첨사(僉使) 이승운(李乘運)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315
6. 첨사(僉使) 이동식(李東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16
7. 관찰사(觀察使) 이경재(李景在)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17
8. 첨사(僉使) 이동식(李東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18
9. 관찰사 홍종영(洪鍾英)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19
10. 진리(鎭吏) 한광국(韓光國) 구폐불망비(捄弊不忘碑)	320
11. 관찰사 서헌순(徐憲淳)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322
12.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응식(閔應植) 만세송덕비(萬世頌德碑)	323
13. 첨사(僉使) 정제빈(鄭濟斌) 송덕불망비(頌德不忘碑)	324
14. 첨사(僉使) 김정근(金楨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25
15. 겸목관(兼牧官) 이득형(李得馨)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326
16. 청덕선진비(淸德善賑碑)	327
17. 겸감목관(兼監牧官) 고도성(高道成) 비	328

수영구 금석문

1. 효자(孝子) 정정우(鄭正佑) 정려비	329
2.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	330

3. 안용복장군 충혼탑(安龍福將軍忠魂塔)	333
4. 의숙공(義肅公) 최강(崔綱) 유적비(遺蹟碑)	335
5. 수사(水使) 김여온(金汝溫) 선정비(善政碑)	339
6. 수사(水使) 김체건(金體乾) 청선비(淸善碑)	340
7. 수사(水使) 김중원(金重元) 청덕선진비(淸德善賑碑)	341
8. 수사(水使) 황진문(黃震文) 선정비(善政碑)	342
9. 수사(水使) 황진문(黃震文) 선정비(善政碑)	343
10. 수사(水使) 이행익(李行益) 선정비(善政碑)	344
11. 수사(水使) 이홍(李泓)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345
12. 우후(虞侯) 이선(李樞) 선정비(善政碑)	346
13. 수사(水使) 황수담(黃壽聃) 애훈군졸비(愛恤軍卒碑)	347
14. 수사(水使) 이정서(李徵瑞)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348
15. 수사(水使) 최명주(崔命柱)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349
16. 수사(水使) 이경철(李景喆)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350
17. 수사(水使) 백동의(白東毅)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351
18. 수사(水使) 유진항(柳鎭恒)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352
19. 수사(水使) 유진항(柳鎭恒)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353
20. 수사(水使) 신응주(申應周) 천추만세유전불망비(千秋萬歲流傳不忘碑)	354
21. 수사(水使) 유효원(柳孝源)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355
22. 수사(水使) 유효원(柳孝源)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356
23. 수사(水使) 이육연(李郁延) 거사단(去思壇)	357
24. 수사(水使) 조희원(趙義元)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58
25. 수사(水使) 구주원(具胄元)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59
26. 수사(水使) 김동수(金東壽)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60
27. 부사(府使) 이규현(李奎鉉)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361
28. 수사(水使) 안광찬(安光贊)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63
29. 수사(水使) 이신영(李信泳) 청덕비(淸德碑)	364
30. 수사(水使) 이용순(李容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65
31. 관찰사 서헌순(徐憲淳)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66
32. 수사(水使) 유기대(柳翼大)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67
33. 수사(水使) 윤영하(尹永夏) 거사비(去思碑)	368
34. 수사(水使) 양주화(梁柱華) 거사비(去思碑)	369
35. 수사(水使) 김인호(金寅浩)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0

36. 수사(水使) 김인호(金寅浩)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371
37. 수사(水使) 한홍렬(韓弘烈)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2
38. 수사(水使) 이종순(李鍾順)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3
39. 겸감목관(兼監牧官) 임익준(任翊準)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4
40. 수사(水使) 이희선(李熙善)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5

영도구 금석문

1. 첨사(僉使) 신응균(申膺均)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6
2. 겸감목관(兼監牧官) 임익준(任翊準)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377
3. 첨사(僉使) 임익준(任翊準)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8
4. 관찰사 이호준(李鎬俊)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379

해운대구 금석문

1. 해운대 각석(海雲臺刻石)	380
2. 부사(府使) 유심(柳愔) 만고청덕선정비(萬古淸德善政碑)	381
3. 유학(幼學) 이모준(李帽俊) 송덕비(頌德碑)	382

기장군 금석문

1. 시랑대(侍郎臺) 각석시(刻石詩)	383
2. 열녀(烈女) 월성 김씨(月城金氏) 정려비(旌閭碑)	387
3. 청강교 비문(淸江橋碑文)	388
4. 객사건성비문(客舍建成碑文)	390
5. 연과당 대사(蓮坡堂大師) 쾌주비(快涸碑)	392
6. 선암당 명열대사비	393
7. 제석동(帝釋洞) 신축제언비(新築堤堰碑)	394
8. 제석동(帝釋洞) 제언비(堤堰碑)	395
9. 선교양종(禪敎兩宗) 월조당 대선사(月照堂大禪師) 탑비(塔碑)	397
10. 수각교 중축문(水榭橋重築文)	398
11. 척화비(斥和碑)	400
12. 효자(孝子) 서홍(徐弘) 정려비(旌閭碑)	401
13. 포은 정선생(圃隱鄭先生) 유족비(遺躅碑)	402

14. 남방 소보(南方沼洑) 수보기념비(修洑紀念碑)	403
15. 현감 강유후(姜裕後) 청덕선정만세불망비(淸德善政萬世不忘碑)	405
16. 현감 백세전(白世傳)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	406
17. 현감(縣監) 최진일(崔震一) 청덕비(淸德碑)	407
18. 병방(兵房) 정태망(鄭泰望) 무휼고정 만세불망비(撫恤庫丁萬世不忘碑)	408
19. 현감(縣監) 김성뢰(金聖賚) 청정홀민비(淸政恤民碑)	409
20. 현감 김성뢰(金聖賚) 무휼해맹선정비(撫恤海氓善政碑)	410
21. 전이조참의(前吏曹參議) 현감 권적(權嫡)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411
22. 현감(縣監) 송재우(宋載遇) 홀민선정 만고불망비(恤民善政萬古不忘碑)	412
23. 현감(縣監) 이기수(李夔秀) 거사비(去思碑)	413
24. 현감(縣監) 이동설(李東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14
25. 관찰사 서희순(徐熹淳) 거사비(去思碑)	415
26. 진상색(進上色) 장성규(張性珪) 구해불망비(救海不忘碑)	416
27. 현감(縣監) 함영식(咸英錫) 거사비(去思碑)	417
28. 현감(縣監) 함영식(咸英錫) 구민선정비(揀民善政碑)	418
29. 관찰사 조병현(趙秉鉉) 거사비(去思碑)	419
30. 관찰사 홍재철(洪在喆)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20
31. 수사(水使) 이기춘(李基春)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21
32. 관찰사 오취선(吳取善) 이배유혜비(移配遺惠碑)	422
33. 현감(縣監) 오윤영(吳胤泳) 생사단(生祀壇)	423
34. 현감(縣監) 정숙(鄭塾) 거사비(去思碑)	424
35. 관찰사 김세호(金世鎬) 추사불망비(追思不忘碑)	425
36. 현감(縣監) 임백은(任百殷)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426
37. 현감(縣監) 이노우(李魯宇)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27
38. 관찰사 박제인(朴齊寅) 유애불망비(遺愛不忘碑)	428
39. 관찰사 이근필(李根弼)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29
40. 경저주부(京邸主簿) 최동진(崔東鎭) 불망비(不忘碑)	430
41. 현감(縣監) 강유후(姜裕厚) 청덕선정(淸德善政)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431
42. 현감(縣監) 홍찬영(洪讚永)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32
43. 현감(縣監) 홍찬영(洪讚永)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33
44. 진상색(進上色) 권의연(權義淵) 구해불망비(救海不忘碑)	434
45. 어사 이도재(李道宰) 생사단(生祀壇)	435
46. 현감 이규선(李圭選) 청덕불망비(淸德不忘碑)	436

47. 현감(縣監) 오영석(吳榮錫) 애민구해불망비(愛民救海不忘碑)	437
48. 현감 오영석(吳榮錫) 생사단(生祀壇)	438
49. 현감(縣監) 손경현(孫庚鉉)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439
50. 관찰사 지석영(池錫永)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440
51. 관찰사(觀察使) 지석영(池錫永) 선정비(善政碑)	441
52. 군수 이경우(李敬佑)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42
53. 군수(郡守) 이해륜(李海崙)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43
54. 군수 이해륜(李海崙)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	444
55. 군수(郡守) 엄신영(嚴信永) 유애불망비(遺愛不忘碑)	445
56. 군수 엄신영(嚴信永)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	446
57. 좌우사 반수(左右社班首) 배상기(裴常起) 홀상영세불망비(恤商永世不忘) / 전주사(前主事) 접장(接長) 김상명(金相明) 출의영세불망비(出義永世不忘碑)	447
58. 군수 홍재규(洪在圭)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449
59. 군수 구연호(具然浩) 영세불망비	450
60. 통정대부(通政大夫) 배상기(裴常起) 창계홀리비(創契恤里碑)	451
61. 통정대부(通政大夫) 배상기(裴常起) 창숙장학비(創塾獎學碑)	452
62. 동래군(東萊郡) 장안면장(長安面長) 정인주(鄭寅湊) 근무기념비(勤務紀念碑)	453
63. 금융조합 부이사 강신갑(姜信甲) 기념비(紀念碑)	454
64. 박규희(朴圭熙) 자선기념비(慈善紀念碑)	455
65. 현감 함안(咸安) 조징당(趙徵唐) 불망비	456
66. 가선대부(嘉善大夫) 전내장원경(前內藏院卿) 오기영(吳璣泳) 불망비(不忘碑)	457
67. 처사(處士) 월성(月城) 최영수(崔榮壽) 공적비(功績碑)	458

기타 금석자료 목록 / 459

탁본 사진 / 467

색 인 / 525

부 산 금 석 문

부산금석문 해제

정경주(鄭景柱)

1. 서 론

금석문은 돌이나 쇠붙이에 새겨 넣은 글씨나 그림이다. 금석에 새긴 문자나 도형은 쉽사리 마모되지 않고 오랜 세월 견뎌내기 때문에 종이나 죽백 등에 기록된 문헌보다 내구성이 높고, 특정한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현장에 건립 배치되는 현장성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고증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금석으로 기록하는 원안은 수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기록물의 기록이 매우 엄정하게 정선되어야 하고, 그것을 금석에 새기고 장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기술을 적용하여 서체와 조형 등 예술적 장치를 부가하기 때문에 높은 예술성을 가진다. 금석문은 이와 같이 내구성, 현장성, 엄정성, 예술성,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금석문은 각 지역의 문화사를 점검하고 서술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 금석학이라는 하나의 학문분과로 다루어져 왔다.

지역사 연구의 일환으로 일찌기 부산시내 소재의 금석문을 조사 정리하기로는, 1984년 부산산업대학 향토문화연구소에서 부산시내에 산재한 122기의 금석문을 조사하여 그 소재와 형태 및 원문과 역문을 첨부하여 《부산금석문》으로 간행한 것이 처음이다. 당시에 조사에 누락된 금석문이 적지 않았는데, 이후 18년이 지난 지금 부산광역시의 시역은 당시보다 배 이상 넓어졌기 때문에 금석문의 조사정리는 불가피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부산지역 금석문 학술조사용역사업을 발주하여 당년에 부산지역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의 소재와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금석문을 탁본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강서구를 비롯한 15개 구와 기장군 내의 비석 454기의 실재 상태를 파악하고, 그 중 302기의 비석을 탁본하였다. 그런 다음 2002년에는 이미 조사된 금석문의 탁본을 근거로 원문을 판독하고 거기에 번역 주석을 덧붙여 책자로 간행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여기서는 조사된 금석문을 판독 번역하는 과정에서 파악된 부산시 소재 금석문의 종류와 제작연대와 분포지역 등의 대체적인 현황과 아울러 부산지역 금석문의 규모와 내용을 개관하기로 한다.

2. 부산금석문의 내용

1) 개 관

금석문은 쇠나 돌로 된 기물(器物)에 글을 새겨 넣은 것으로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하다. 상고시대의 유적에서 종종 발견되는 암각(巖刻)을 비롯하여, 종(鍾) 정(鼎) 등의 예기(禮器)를 주조하면서 명문(銘文)을 새겨 넣거나, 또는 동경(銅鏡)이나 와당(瓦當), 봉니(封泥), 도자기 등에 문자를 새겨 넣기도 하고, 또 특별한 사적을 기념하여 금석의 비갈(碑碣)을 만들어 글을 새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이후 비갈(碑碣) 형태의 비석이나 묘지(墓誌)가 금석문의 대종을 이룬다.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현재 전하는 금석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통일신라 말기 최치원의 필적으로 전하는 “해운대(海雲臺)” 암각(巖刻)이다. 그러나 이 지역 내에서 고려조와 조선전기의 금석문은 달리 보고된 바 없고, 임진왜란 이후 각처에 건립된 비갈(碑碣)이 대부분이다. 《동래부읍지(東萊府邑誌)》의 의하면 고려 시대 효자 정조(鄭慥)의 정문(旌門)에 비석을 세웠다고 하였고, 조선 성종조의 효자 김득인(金得仁)과 효자 옥종손(玉從孫)도 정려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읍지에는 고려시대에 동래 온정(溫井)을 읊은 이규보(李奎報)와 박효수(朴孝修)의 시가 실려 있고, 조선초기 동래읍성을 축조하면서 이첨(李詹)이 지은 동래읍성기(東萊邑城記)가 있으며, 고려중엽 학사 김정(金精)이 지은 적취정기(積翠亭記)와 평장사 최유청(崔惟淸)이 글을 짓고 글씨를 쓴 적취정후기(積翠亭後記), 조선전기 신숙주가 지은 <정원루기(靖遠樓記)> 등의 명문이 실려 있는데, 필시 현판으로 새겨 전했을 것이나 지금은 모두 전하지 않는다.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지역에 건립된 비석은 대개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가나 지역사회의 중요한 역사 사적과 관련하여 세워진 사적비(事

蹟碑),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인물을 추모 기념하는 사묘(祠廟)나 제단(祭壇) 등에 건립되는 단묘비(壇廟碑), 특정 인물의 공덕을 찬양하는 송덕비(頌德碑), 개인의 무덤에 건립되는 묘표(墓表)나 묘비(墓碑), 그리고 중요한 사안을 대중에게 널리 공표하고 알리기 위한 표석(標石) 등이 그것이다.

부산지역은 임진왜란 때 가장 참혹한 화를 입었으므로 부산 동래지역에 남아 있는 사적비와 단묘비는 대체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 많다. 또한 낙동강 연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 때문에 낙동강의 제방이나 다리 등의 공사와 관련된 비석이 더러 남아 있다.

부산지역에 남아 있는 송덕비는 대개 지방 행정관청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의 부산광역시 지역에는 과거에 동래부의 부사, 좌수영의 수군절도사, 부산진의 첨사, 다대진의 첨사, 절영도의 감목관, 기장현의 현감, 김해부의 부사 등의 행정관서가 있었으므로, 지금 남아 있는 송덕비는 대개 이들 관청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세운 것으로,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지역의 행정 현안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부산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출신 명현(名賢)의 묘비(墓碑)가 상대적으로 희소하다. 고려조 이래 동래를 관향으로 하는 씨족으로 동래정씨(東萊鄭氏) 가문이 대대로 혁혁한 문벌을 자랑하였으나, 화지산 동래정씨 시조 묘역에 남아 있는 정묘비(鄭墓碑) 외에는 다른 인물의 묘비로서 크게 알려진 것이 없다. 부산지역은 조선시대 이래 일본과의 국제교역 거점이었다. 그런 관계로 일본과의 국제교역과 관련된 표석이 더러 남아 있다.

2) 국방관련사적

부산지방의 사적비로 가장 오래된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명나라 장수 만세덕(萬世德)이 자성대에 세운 기공비(紀功碑)이다. 이 비문은 명나라 장수의 한 사람인 가유약(賈維鑰)이 지었는데 본문에는 임진왜란을 평정한 명나라 천자와 장병들의 공로를 스스로 찬양하고, 마지막에 전쟁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이 비문은 동래부읍지에 그대로 전하여 오는데, 일정시대 이후 비석이 파기되어 없어졌다.

임진왜란의 경과와 관련하여 건립된 사적비 중에 몇 종의 비석은 부산지방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규정하는 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것을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동춘당(同春堂) 송준길

(宋浚吉)이 글씨를 쓴 <동래남문비(東萊南門碑)>이다. 비문의 내용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당시 부산진성과 동래성 전투의 실상을 여실히 묘사하고, 동래부사 송상현과 부산진첨사 정발이 고군분투하다 장렬하게 순절한 상황과, 좌수사 박홍 등이 비겁하게 퇴각한 사실, 그리고 동래부의 주민들이 합심하여 왜적과 대항한 사실을 대비하여 놓았다. 충렬사에 보관되어온 <동래부순절도(東萊府殉節圖)>는 이 비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이 비석은 우암의 명문과 동춘당의 명필에다 그림까지 더불어 부산지역 임진왜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물인 셈이다. 현재 부산시립박물관에 옮겨져 있는 이 비석은, 본디 동래읍성 남문이 있었던 농수산 남편에 있었는데, 일정시대에 동래읍성이 헐리면서 비석이 훼손되어 상반부 일부만 판독 가능하고, 하반부는 판독이 불가능하다. 다행히도 《우암선생문집》과 《동래부읍지》에는 이 비석의 전문이 수록되어 있다. 읍지에는 이 비석을 “충렬비(忠烈碑)”라 하여 실어 놓았다.

경상좌도수군절도사 박재하(朴載河)가 짓고 시강원사서 황간(黃幹)이 글씨를 쓴 <충장공정발전망비(忠壯公鄭撥戰亡碑)>는 임진왜란 때 부산진성을 사수하다 전사한 충장공 정발의 순국을 추모한 사적비이다. 해서로 쓴 글씨가 단정하고 서법(書法)이 정밀한데, 조선 후기 부산에 유람온 사대부 사족들이 이 비석 앞에 서서 왜관을 바라보며 절치부심하였던 사적이다. 이 비석은 본디 부산진성 전함(戰艦)이 정박하였던 영가대(永嘉臺) 곁에 세웠던 것인데, 대한제국 시대 부산항의 매축사업이 진행되면서 영가대가 헐려 없어지자 좌천동의 정공단 안으로 옮겨졌다.

부산지역에는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여러 곳의 단묘가 건립되었다. 가장 먼저 건립된 송공단(宋公壇)에는 동래부사 송상현을 위시하여 임진왜란 때 동래부에서 순절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새긴 비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송공단비(宋公壇碑)를 별도로 새겨 건립하였다. 좌천동의 정공단(鄭公壇)에는 부산진성 전투에 순절한 여러 사람의 표석이 건립되어 있고, 다대포의 윤공단(尹公壇)에는 역시 임진왜란에 순절한 다대진첨사 윤홍신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표석이 건립되어 있다.

그런 중에서도 수영공원 내의 의용사(義勇祠) 경내에 있는 <의용단비명(義勇壇碑銘)>은 왜란을 당하여 수영출신으로 전쟁에 참여하였던 민간인들의 이름을 새긴 표석과 함께 특별한 의미가 있다. 철종 4년(1853) 수군절도사 장인식(張寅植)이 비문을 짓고 승지 이형하(李亨夏)가 글씨를 쓴 이 비석의 비문 서두는 “옛 사람이 이르기를 정치가 평온하면 공경 대부가 되면서도

세상이 바뀌면 뱀이나 멧돼지나 올빼미가 되는 자 열에 여덟 아홉이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이어서 임진왜란 때 이곳 수영을 지키는 장수가 싸우다가 죽지 않았기에 수영 주민이 적의 협박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비극을 서술하고, 그럼에도 적과 맞서 싸우다가 죽은 25인 장사들의 몇몇한 공적이 있어서 주장의 수치를 다소나마 묻을 수 있는 사적이 된다고 하였다.

다대포 물운대에는 임진왜란 초기에 충무공 이순신의 막하 장수로서 왜적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하다가 전투 중에 순절한 녹도만호 정운(鄭運)의 공적을 기린 <충신정운공순의비(忠臣鄭運公殉義碑)>가 있다. 이조판서 민중현(閔鍾顯)이 비문을 짓고 병조참판 서유대(徐有大)가 글씨를 쓴 이 비석의 비문에는 정운이 이순신의 막하에서 전함을 이끌고 왜선을 격파한 공적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공의 늠름하고 의연한 혼백은 죽음을 따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다와 산 사이게 서려 있어서 바람과 우레를 몰고서 해적들의 배어 없애면서 항상 대마도를 걷어차고 에도[江戶]를 짓부수는 기상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부산지방의 금석문에는 바다 건너 일본인들의 침략에 대한 경계가 뿌리깊게 각인되어 있다.

3) 공역관련사적

지역마다 지역 행정관청은 물론 주민이 합심하여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대대적으로 동원되는 큰 공역(工役)에는 그에 따른 기록을 비석에 새겨 남기는 경우가 많다.

부산지방에서 지역주민이 대대적으로 동원된 공사 관련 금석문으로는 내주축성비(萊州築城碑), 금정산성부설비(金井山城復設碑),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와 이섭교비(利涉橋碑), 서문외석교비(西門外石橋碑),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 호천석교비(虎川石橋碑), 강수구의 대부교비(大夫橋碑), 기장군의 <청강교비(淸江橋碑)> 등 교량건축공사 관련 비석 및 기장군의 제석동제언비(帝釋洞堤堰碑), 금정구의 조정언비(調整堰碑) 등 제방공사 관련 비문이 있다.

<내주축성비>는 영조 신해년(1741)에 동래부사 정언섭(鄭彦燮)이 동래부 읍성을 수축한 경과를 기록한 비석이다. 황산도찰방 이광악(李光岳)이 비문을 짓고 동래사람 송광제(宋光濟)가 글씨를 쓰고, 현풍현감 유우기(兪宇基)가 비액(碑額)을 쓴 이 비문에는 동래부 읍성의 규모와 축조하는 데 들어간 인력과 물자의 규모, 공사의 경과가 대략 들어 있고, 아울러 공사에 동원된 인

부를 감독 관장한 지역 인사들의 명단이 열거되어 있다. 열거된 인사가 무려 수백명에 이르는 만큼 비석도 거대하고 사방에 석주를 받쳐 비각을 건립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처음에는 동래읍성 터에 건립되었던 것이 일정시대 이후 금강원의 숲 속으로 옮겨져 비각의 본디의 모습은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시대 이 지역 주요 인사의 면면을 파악하는 데 소중한 사료이다. <금정산성부설비>는 순조 무진년(1808)에 동래부사 오한원(吳翰源)이 오랫동안 폐기되어 있었던 금정산성을 다시 축조하고 그 내력을 기록한 비석이다. 금정산성은 본디 숙종 계미년(1703)에 경상도관찰사 조태동(趙泰東)의 건의로 축조하였는데 갑오년(1714)에 성이 너무 크다하여 혁파되었다. 비문은 동래부사 오한원이 짓고 글씨도 겸하여 썼다.

국방을 위한 성을 축조하는 데는 중앙정부의 승인과 국가에서 대대적인 인적 물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산지역이 일본과 교통하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런 대대적인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달리 교량이나 제방의 수축은 대체로 지역 주민의 경비부담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 도로와 교량의 보수는 인근 지역 주민의 부역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부역을 경감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사들이 더러 나타났다. <이섭교비(利涉橋碑)>는 숙종 20년(1694) 동래부의 유지 김진한과 신만제 등이 발의하여 석교를 만든 경과를 기록한 비석인데, 여기에는 공사에 참여한 지역 인사의 명단이 두루 열거되어 있다. <사처석교비>는 숙종 신축년(1781)에 고을 사람 강위성, 박도유, 박사인 등이 동래부 남문 밖에 있었던 네 곳의 다리를 석교로 고쳐 지은 경과를 기록한 비석이다. <호천석교비>는 비문이 마멸되어 그 공사 경과와 내역을 알기 어려우나 범내에 돌다리가 있었고 그 내를 범내라 하였던 내력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거이다.

4) 송덕비

송덕비는 혜택을 베푼 인물의 은덕을 칭송하는 비석이다. 지방 관아가 있었던 곳에는 관내 주민이나 관청의 관리들이 지방장관의 선정을 칭송한 송덕비가 있고, 또 지방관원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선행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끼친 인물이 있으면, 그 선행을 칭송하여 모범으로 삼고자 비석을 건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비석들은 대체로 관청으로 통하는 길목, 국가에서

관장하는 관도(官道) 곁에 줄지어 건립되었는데, 1970년대에 도시 가로를 정비하면서 일정한 장소에 모아 뒤섞어 놓았으므로 본디 건립된 장소를 알 수 없게 된 것이 많다. 이들 송덕비를 보면 해당 지역 주민의 삶에 있어서 절실한 당면 요구가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고, 또한 지역 여론을 담당하였던 신분 계층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시대 부산지역의 행정중심지였던 동래지역에 남아 있는 송덕비는 대개 향청을 중심으로 한 향반(鄕班)들이 선정을 베푼 동래부사의 공덕을 찬양하여 세운 것으로, 공덕의 내역은 대개 학교의 재정을 보조하고 지방 주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었다는 내용이다.

수영구와 동구, 사하구, 강서구의 가덕도 등지에 남아 있는 송덕비는 대개 관방(關防)을 견고하게 만든 수군(水軍) 지휘관의 공덕을 칭송하고 소속 군졸에게 내린 군역(軍役) 감면 등의 시혜(施惠) 내용을 담고 있다. 이곳은 각기 경상좌도수군절도사의 감영과 부산진첨사의 진영, 다대진첨사의 진영, 가덕진첨사의 진영이 있었던 곳이다. 이곳의 송덕비는 대개 해변 군졸이나 군녀(軍牢) 사령(使令) 등의 이름으로 건립되었다. 그 중에서도 다대포 주민의 이름으로 건립된 <진리한광국구폐불망비(鎭吏韓光國掇弊不忘碑)>는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광전(藿田)의 면세를 실현하는 데 공헌한 진영 소속 서리(胥吏)의 공적을 기린 것으로 이채롭다. 영도구에 남아 있는 조선시대의 송덕비 4기는 모두 영도에 있었던 목마장(牧馬場)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 하류 연변에 위치한 강서구 및 사상구와 북구 지역에 남아 있는 송덕비 중에는 이 지역에 있었던 염전의 운영과 제방의 수축공사 내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강서구의 <순상국김공휘상휴영세불망비(巡相國金公諱相休永世不忘碑)>와 <순상국홍공재철영세불망비(巡相國洪公在喆永世不忘碑)>는 조선말기 낙동강 하구에 있었던 염전(鹽田) 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구폐절목(掇弊節目)을 담고 있어서, 당시 이곳 염호(鹽戶)의 실태를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북구의 <행군수이후유하축은제비(行郡守李侯游夏築恩堤碑)>와 사상구의 <부사박공제명축제혜민비(府使朴公齊明築堤惠民碑)>, <부사이공경일축제혜민비(府使李公敬一築堤惠民碑)>, <부사이공명적축제혜민비(府使李公明迪築堤惠民碑)> 등은 낙동강의 범람이라는 자연 재해에 대처하여 수많은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꾸준히 제방을 축조하였던 증거로 소중한 의미를 가진다.

5) 명승고적

명승고적이 있는 곳에는 대개 석각의 제영이나 누정의 기문이 남아 있기 마련이다. 부산지역의 명승고적으로 가야시대 참시선인(崑始仙人)이 살았다는 낙동강 하구의 칠점산(七點山)과 배산(盃山)의 겸효대(謙孝臺), 소하선인(蘇遐仙人)의 유적인 소하정(蘇遐亭), 신라 태종이 놀았다는 태종대(太宗臺) 등의 유적이 읍지에 전해오지만, 현지에는 금석의 유적이 남아 있지 아니하다.

신라말기의 고운 최치원이 유적인 해운대에는 “해운대(海雲臺)”라고 새긴 석각(石刻)이 전해오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동백섬에 <고운선생사적비(孤雲先生事蹟碑)>를 비롯하여 시비(詩碑)와 가비(歌碑) 등이 건립되고 있다.

신라시대 이래 온천 휴양지로 알려진 온천동 지역에는 신라이래 고려조를 거쳐오면서 일찍부터 온정(溫井)이 운영되어 왔는데, 그 사적을 알려주는 유일한 금석문이 영조 42년(1766)에 건립된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이다. 이 비석은 숙종 16년(1691)에 고쳐 지은 온천 시설이 세월이 오래되어 낡게 되자 동래부사 강필리가 9칸의 욕탕을 세로 지은 것을 기념하여 송광적(宋光迪)이 글을 짓고 글씨를 써서 건립하였다. 동래의 온천과 관련하여 고려조 이래로 시인들의 기록이 더러 남아 있지만, 온정의 본디 위치와 유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기록물로서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의 의미가 크다.

고려시대의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로 이름난 정서(鄭敼)의 과정(瓜亭) 또한 고려조 이래 문인들의 시문에 자주 올랐던 고적이다. 그러나 그 사적이 일찍부터 인멸되고 금석문의 흔적이 없었는데, 역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에 뜻 있는 인사들이 사적지를 탐방하여 표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여, 그 주변이 공원으로 단장되었음은 지역의 명승고적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예로부터 풍광이 좋은 곳에는 시인 묵객이 유람하며 시문을 남기고 이를 바위나 현판에 새겨서 후세 사람들이 감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유람처로 해운대나 태종대 외에 일찍부터 알려진 곳이 금정산의 범어사 계곡과 기장군의 시랑대(侍郎臺), 송정의 죽도(竹島) 등이다. 여기에는 바위에 이름을 새긴 석각(石刻)이나 제명석(題名石) 또는 제시석(題詩石)이 있다. 범어사 입구 계곡에는 예로부터 유람객의 이름을 새긴 제명석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임진왜

란 직후 동래부사를 역임하였던 시인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의 시 두 편이 새겨진 제시석(題詩石)이 있어 유려한 글씨와 더불어 운치를 더한다.

기장의 사랑대는 기장현감으로 좌천된 간옹(艮翁) 권적(權檣)이 노닐던 곳으로 그가 지은 시와 그 시를 차운한 시가 바위에 새겨져 있다. 송정의 죽도(竹島) 앞에 있는 암벽에는 어부암(漁父巖)이라는 석각이 새겨져 있는데, 아마도 조선말 고종 시대에 참관을 지내고 송정에 은거하였던 노영경(盧泳敬)의 유적으로 생각된다.

조선말기 고종 시대 때 동래부사로 부임한 해소(海所) 정현덕(鄭顯德)은 시문으로 명성이 높았는데, 그는 동래읍 동남편의 작은 언덕을 태평원(太平園)이라 명명하고 두 편의 시를 바위에 새겨 두었다. 그런데 그 중 한편의 제시석은 일정시대 일본인이 별장을 경영하면서 동래부의 독진대아문과 함께 금강원 안에 떼어다 옮겨 놓아서 지금은 금강원 안에 남아 있다. 이 밖에도 이 지역 산야 곳곳에 금석의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보다 세심한 조사와 보고가 필요하다.

6) 국제교역사적

부산지역은 일본과의 교역 거점으로서 조선시대 일본인의 거류지역으로 왜관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적이 적지 않다. 그런 사적 가운데 상호교류의 외교 약조를 비석에 새겨둔 특이한 금석문으로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가 있다.

약조제찰비는 숙종 9년(1683) 통신사 윤신완(尹信完)이 대마도 도주(島主)와 체결한 교역의 조약 5개조를 한문과 일본 문자로 새겨서 각기 왜관(倭館)과 조선측 수문(守門) 안쪽에 세웠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조선측 수문 안쪽에 세웠던 것이다. 본디 두모포영(豆毛浦營)이 있었던 용두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부산시립박물관으로 옮겨 놓았다. 이 비석은 왜관을 통한 국제 교역상의 한 관례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항구도시 부산의 역사적 성격을 잘 대변하는 증거물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비록 근대에 건립되었지만 일본과의 해양 분쟁의 시말을 제기한 금석문으로 <안용복사적비(安龍福事蹟碑)>가 있다. 안용복의 사적에 대하여는 조선왕조실록의 숙종조 기록에 소상하게 수록되어 있지만, 좌수영 소속의 일개 수군 군졸로서 일본에 들어가서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사

실은 무단 월경(越境)의 죄를 모면할 수 없었기에 역사에 크게 드러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해양과 대일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관심을 가진 부산지역의 주민으로서는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사실이므로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7) 정려(旌閭)와 묘비문(墓碑文)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 이후 효자(孝子)와 충신(忠臣), 의사(義士)와 열녀(烈女)의 덕행을 숭상하여 국가에서 특별한 은전을 내려 왔다. 부산지역에도 시대마다 인륜 도덕의 실천에 충실하였던 인물을 포상한 정려에 대한 기록이 많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정려의 흔적은 그리 많지 않다.

지금 전하는 것으로 기장군의 <열녀월성김씨지려(烈女月城金氏之閭)>, <효자서홍지려(孝子徐弘之閭)>, 금정구의 <열녀학생김효문처김해김씨지려(烈女學生金孝文妻金海金氏之閭)>, 사상구의 <효자황택룡지려(孝子黃澤龍之閭)>, <효자구주성지려(孝子具周星之閭)>, 강서구의 <효자고사인김석송지려(孝子故士人金碩崇之閭)>, <효자어경덕지려(孝子魚敬德之閭)>, <경주최씨정렬각(慶州崔氏貞烈閣)>, <증자헌대부배신기처열부정부인성씨정려비(贈資憲大夫裴信己妻烈婦貞夫人成氏旌閭碑)>, 동래구의 <한량밀성박춘흥처월성박씨지려(閑良密城朴春興妻月城朴氏之閭)>, 수영구의 <효자정정우지려(孝子鄭正佑之閭)> 등이 있다.

국가의 지역사회에 공헌한 저명한 인물의 묘소에는 그 행적을 기록한 신도비(神道碑)나 묘비(墓碑) 또는 묘갈(墓碣)이 건립되어 가문은 물론 지역의 증거가 된다. 부산지역에는 신도비(神道碑)가 건립된 묘역이 보고된 바는 없다. 부산지역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 묘역인 고려시대 동래정씨의 시조 정문도(鄭文道)의 묘에 조선 후기에 건립된 <정묘비(鄭墓碑)>는 《동래부읍지》에 실려 전하는 가문의 묘비로서는 이것이 유일하다.

다만 강서구와 북구 지역에서는 묘비가 다수 보고되었다. 고종 35년(1898)에 건립된 <축은김선생지묘(築隱金先生之墓)>는 고려조 봉순대부였던 김방려(金方礪)의 무덤 묘표(墓表)이고, <가선대부첨지중추부사행김해도호부사남양홍공휘여한지묘(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行金海都護府使南陽洪公諱汝漢之墓)>는 조선 현종조에 김해부사를 역임한 모담 홍여한의 묘역에 세워진 묘갈인데, 조선 말 김해출신의 진사 금주(錦洲) 허채(許埰)가 갈명을 지었다. 북구에는 <증어모장군훈련원첨정광주김공지묘(贈禦侮將軍訓練院僉正廣州金公之墓)>가 있는데 대한제국 시대 이 지역 인사로 성균박사의 직함을 받은 경암(耕

巖) 문성준(文聲駿)이 명(銘)을 지었고 역시 이 시대 동래지역 문사인 박전필(朴鉉弼)이 글씨를 썼다.

정려(旌閭)나 묘비문(墓碑文)은 성씨와 가문의 위세를 나타낼 뿐 아니라, 지역문화의 구심체가 되는 표상 인물의 행적을 드러내는 금석문으로서 소중한 가치를 가진다. 지금 조사 보고된 것은 비록 엉성하지만 이 지역 문헌에 남아 전하는 묘비로만 헤아리더라도 아마 이 정도에 그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 정밀한 조사를 거쳐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3. 결 론 - 부산금석문 간행의 의의

지나간 역사는 기록으로 보존되고 기념물로 전해진다. 기록의 보존과 기념물의 성격을 합하여 건립되는 것이 금석문이다. 금석문은 기록되고 기념될 만한 역사 사적이 있어야 하고, 그 사적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건립 유지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석문에는 문화 사적에 대한 그 지방 사람들의 관심의 향배가 나타나고, 문화사적을 가꾸어 나가려는 정신적 지향과 문화의 수준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부산지역의 금석문은 임진왜란과 관련된 사적비와 지방 행정관청을 중심으로 건립된 송덕비가 주종을 이룬다. 그것은 이 지역이 중앙정부와 멀리 떨어진 변방에 위치하는 데다가 바다 건너 일본을 마주하고 있는 국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바다 건너 외침을 경계하는 관방(關防)이 중시된 결과로 중앙집권적 관료의 권위가 지방 향반의 고유한 문화를 압도하였음을 말해준다. 근대 이후 새로 건립된 금석문 중에는 종전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흔적이 더러 나타나는데, 이는 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무할 만한 일이다.

지역의 문화사적은 문화사적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가꾸어 지는 것이다. 금석문은 문화를 가꾸어 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건립 보존됨으로써 지역문화의 표상이 되어 왔다. 지역 문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시점과 장소는 기념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지역사가 이루어진 현장을 기념하는 금석문은 그 현장에 그대로 보존되어야 그 건립의 의의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본다면 부산지역의 중요한 역사 문화의 징표로서 금석문이 도시확장과 개발에 밀려서 본디 있던 제 자리를 지키지 못

하고 변두리로 밀려나거나 엉뚱한 곳으로 이리저리 옮겨지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아직 조사가 미진한 금석 명문과 명현의 묘비문 등은 추후 보완하여 지역의 인물사와 문화사의 자료를 확충하여야 하겠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조사 보고된 금석문을 가능한 한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고, 없어진 것은 복원함으로써 이를 지역문화의 구심체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서구 금석문

1. 대부교비(大夫橋碑)

大夫橋碑

(九行字不明)

府南五里許 有浦曰大夫 命名之義無傳 抑亦僕射坡郎官湖之類
歟 刊木爲橋 以通竹島 而竹島 卽藏戰船置漕倉之所也 人之往
來 日絡繹 而風雨以之朽傷變 數年一改 人皆病之 有善人朴起
立者 欲代以石 事鉅力綿 積歲月未舉 府使黃侯鎬 聞而惜之 於
編裨中 得能幹人劉天點 尸其事 助財力 役遊手 □□□ 始於乙
酉二月 數月而告訖 寔濟民之餘政也 於是 人得利涉 不患揭厲
此起立之功 銘諸萬口 與此石同 顧不偉哉

崇禎丙子後□□月 日

折衝將軍

大施主

嘉善 朴繼守 李達望

通政 裴繼良

業武 金振聲 姜順吉

通政 崔以義

保人 孫尙吉

司果 金繼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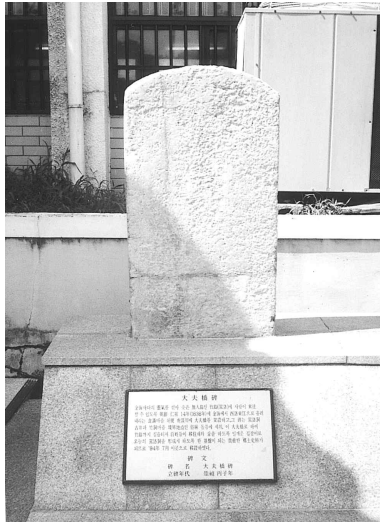
石手

李

僧 石敬

座僧 天明

供養



김해부 남쪽으로 5리쯤에 ‘대부(大夫)’라는 이름의 포구가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의미는 전하지 않지만, 어쩌면 ‘복야과(僕射坡)’¹⁾나 ‘낭관호(郎官湖)’²⁾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 거기에 나무를 베어다 다리를 만들어 죽도(竹島)와 통하게 하였는데, 죽도는 곧 전함(戰艦)을 보관하고 조창(漕倉)을 설치해둔 곳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날로 이어지는데, 비바람에 썩어 무너져 몇 년에 한번씩 개수하니, 사람들이 모두 불편해 하였다. 그래서 자선가 박기립(朴起立)이란 사람이 석재로 바꾸고자 했으나, 공사가 크고 힘은 모자라 세월이 가도 거행하지 못하였다. 이 때 김해부사 황호(黃鎬)³⁾가 이 사실을 듣고 애석해 하여, 비장 가운데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유천점(劉天點)을 뽑아 일을 주관하게 하고 재력을 도와고, 노는 인력을 시켜(…), 그리하여 을유년 2월에 시작한 것이 몇 달만에 완성을 보았으니, 이는 백성을 구제하는 넉넉한 정치라고 하겠다.

이제 사람들이 편리하게 강을 건너게 되었고, 옷을 벗어들거나 혹은 걸어올리는 불편⁴⁾을 겪지 않게 되었으니, 이는 박기립의 공로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새기는 것이 이 돌에 새기는 것과 같은 것이니, 장대한 일이 아닌가!

승정 병자년 이후 (….) 월

(비음)

절충장군

대시주

가선 박계수 이달망

통정 배계량

-
- 1) 복야과 : 중국 하남성(河南省) 정현(鄭縣)의 동남쪽에 있는 못. 지금의 성호(城湖)이다. 후위(後魏)의 효문제(孝文帝)가 복야(僕射) 이충(李沖)에게 이 못을 내려주어 붙은 이름이다.
 - 2) 낭관호 : 호북성(湖北省) 한양현(漢陽縣) 성내 동북쪽에 있는 호수. 당나라 때 이백(李白)이 야랑(夜郎)으로 좌천되었을 때, 상서랑(尙書郎) 장위(張謂)가 함께 강성(江城)의 남호(南湖)에서 주연을 베풀었다. 그 때 이백이 이 호수를 낭관호라고 이름하였다.
 - 3) 황호 : 1703년(숙종29) 10월에 부임하여 1706년 2월에 이임됨.
 - 4) 게려(揭厲) : <시경·패풍(邶風)> 「포유고엽(匏有苦葉)」장에 “깊으면 옷을 벗어 들고 건너며,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넌다.[深則厲, 淺則揭]”고 하였다. <시경>에서는 본래 예의를 차릴 상황을 살핀 다음에 행동할 것을 비유한 것인데, 여기서는 문자 그대로 따서 사용하였다.

업무 김진성 강순길

통정 최이의

보인 손상길

사과 김계운

석수

이

승 석경

좌승 천명

공양

2. 김해(金海) 명월사(明月寺) 사적비(事蹟碑)

金海明月寺事蹟碑

金山在府南四十里 而寺居峯回林密處 乃首露王所建也 漢建武十八年 創建 都盆城 國號駕洛 後七年 王與許后 相遇於是山高嶠下 設幔殿迎后 翌日 同輦還宮 后解所着綾袴 贊于山靈 王感其靈異 以明月名山 後命建寺三所 以興·鎮·新三字 弁于國而扁之 永爲邦家祝釐之所 曰新國 爲世子建 在山西崖 曰鎮國 爲后所設 在山東谷 曰興國 爲王自爲 在山中 卽是寺 至今稱三願堂 而二寺 只爲遺址 山下有夫人塘及主浦 后乃西土國王女 航海而來 維舟於此 自餘異蹟甚多 而今略之 本寺 在高嶠下乾坐 洞壑清幽 泉石爽明 峯巒蒼蔚 真人間別區也 往在壬辰 毀於兵火 萬曆戊午 有一宿德 重扶建 開士相繼立功 諸殿及像幀 乃衍·一元·德莊·宗惠·尚眞·應俊諸師所成 今年 法堂階砌又成 取石於昆陝地 舟棹運遠 又得神助云 重修時 又得一瓦頽垣 下背有建康元年甲申三月監色等字 且長遊和尚 自西域奉佛法而來 王之重道崇佛 亦可驗矣 噫 否泰交作 盛衰相遷 後來之士 勤而葺之 豈懼寺之不綿遠哉 銘曰

寶山南起	近接扶桑	天降神人	化此一方	西泛東邁
來泛大洋	王曰設幔	惟彼親迎	追思嘉耦	感及山靈
爲建招提	護我禪門	超然淨界	與世迥分	喬僧宣化
重譯來傳	宸情問道	崇彼福田	神祇擁護	佛界萬年

崇禎丙子後七十二年

太虛之後徒僧 證元 撰

守閑 書



(비음)

금산(金山)은 김해부 남쪽 40리에 있고, 명월사(明月寺)는 산봉우리 숲이 우거진 곳에 있는데, 이 절은 수로왕(首露王)이 세운 것이다. 한나라 건무(建武) 18년(42)에 나라를 세우고 분성(盆城)⁵⁾에 도읍하여 국호를 가락(駕洛)이라 하였다. 7년 뒤 왕과 허왕후가 이 산 높은 언덕 아래에서 만났는데, 장막 궁전을 설치하여 왕후를 맞이하였고, 다음날 같이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왔다. 왕후는 입고 있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폐백을 드렸다. 왕은 그 영이(靈異)함에 감응하여 명월산(明月山)이라고 이름하였다. 뒤에 세 곳에 절을 세울 것을 명령하였는데, 흥자(興字)·진자(鎭字)·신자(新字)를 국자(國字) 앞에 붙여서 편액하여 길이 나라를 위해 복을 비는 장소로 삼았다. 신국사(新國寺)는 세자를 위해 세웠는데, 산의 서쪽 벼랑에 있고, 진국사(鎭國寺)는 왕후를 위해 세웠는데, 산의 동쪽 계곡에 있고, 흥국사(興國寺)⁶⁾는 왕 자신을 위해 세웠는데, 산 가운데 있다. 이 흥국사는 지금 삼원당(三願堂)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두 절은 단지 터만 남아있다. 산 아래에는 부인당(夫人塘)과 주포(主浦)가 있다. 왕후는 서방국의 공주인데, 바다를 향해하여 와서 이 곳에 배를 매었다. 나머지 이적(異蹟)도 매우 많지만 생략하겠다.⁷⁾

본 절은 높은 언덕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있는데, 골짜기가 맑고 그윽하며 샘과 돌이 맑고 상쾌하고, 봉우리가 울창한 것이 참으로 인간세상과는 다른 곳이다. 지난 임진년에 병화로 불타 없어졌었는데, 만력(萬曆) 무오년(1618)에 한 덕망있는 사람

5) 분성 : 김해의 옛 이름.

6) 흥국사 : 1983년에 「명월산흥국사사적비(明月山興國寺事蹟碑)」를 세웠는데, 그 기록이 상세하다.

7) 동한(東漢) 건무(建武) 24년 7월에 허왕후가 아유타국으로부터 바다를 건너 왔는데, 수로왕이 유천간(留天干)에게 명령하여 망산도(望山島)에서 살피게 하고, 신귀간(神鬼干)은 승현(乘峴)에서 살피게 하였다. 이 때 비범(緋帆)과 천기(茜旗)가 바다 서남 모퉁이로부터 북으로 이르렀다. 신귀간이 달려가 아뢰니, 왕은 궁 서쪽에 만전(幔殿)을 차려놓고 맞이하였다. 왕후는 배를 매어놓고 육지에 올라 고교(高嶠)에서 쉬고, 입고왔던 비단 바지를 벗어 산신령에게 예물로 바치고 이곳에 이르렀다. 왕은 만전으로 맞아들여 이들을 보내고 같이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가 왕후로 세웠다. 나라사람들이 처음 와서 배를 매어둔 곳을 ‘주포(主浦)’라 하고, 비단바지를 벗은 곳을 ‘능현(綾峴)’이라 하며, 천기(茜旗)가 바다에서 나타난 곳을 ‘기출변(旗出邊)’이라 부른다. 기출변은 주포 왼편에 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남아있다. (<김해읍지>)

이 다시 일으켜 세워 개사(開士)⁸⁾들이 서로 이어 공덕을 세웠고, 여러 불전과 조상과 탕화들은 내연(乃衍)·일원(一元)·덕장(德莊)·종혜(宗惠)·상진(尙眞)·응준(應俊) 등 여러 선사들이 이룬 것이다. 올해 범당 계단 돌이 완성되었는데, 곤양(昆陽) 합천(陝川) 땅에서 돌을 구해 뱃길로 운송해 왔으니, 또한 신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중수(重修)할 때 무너진 담장 아래에서 등에 ‘건강(建康) 원년 갑신년(144) 3월 감색(監色)’ 등의 글자가 있는 기왓장을 주웠다. 또 장유화상(長遊和尚)⁹⁾이 서역(西域)에서 불법(佛法)을 가지고 오자 왕이 불도(佛道)를 중히 여기고 부처를 받들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아! 비운과 안녕이 바뀌어 일어나고 성쇠(盛衰)가 서로 옮겨지지만, 뒷날의 선비들이 부지런히 이어서 수리한다면, 절이 먼 훗날까지 이어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보배로운 산 남쪽에서 일어나니
해뜨는 부상(扶桑)과 가깝다네.
하늘이 신인(神人)을 내리시어
이 곳 한 지역을 변화시켰네.
서쪽에서 배를 타고 동으로 오니
큰 바다를 건너 왔다네.
왕께서 장막을 설치하라 하시니
친히 부인을 맞이하신 것이라네.
아름다운 배필을 그리워 하셨더니
감응이 산신령께 닿았던 것이라.
그녈 위해 절을 세우시니
우리 선문(禪門)을 지키셨다네.
저 초연한 정도 세계는
이 세상과는 아득히 다르다네.
훌륭하신 스님이 덕화를 펼치어
불법을 통역하여 전해왔다네.
임금께서 도를 묻는 마음은
저 복전(福田)을 숭상했던 것이네.

8) 개사 : 중생을 가르쳐 일깨워주는 보살을 지칭함.

9) 장유화상 : 허보옥(許寶玉). 아유타국의 왕자이며 허왕후의 동생으로, 왕후를 수행하여 가락국에 왔다. 수로왕이 그를 위해 서림사(西林寺, 지금의 은하사)를 세웠다. 그의 사리탑은 지금 장유암(長遊庵)에 전한다.

신께서 복으로 옹호하시니
불법의 세계가 만년토록 이어지리.

송정 병자 후 72년(1708)
태허 후도 승 증원 지음
수한 씀

3. 효자(孝子) 고사인(故士人) 김석숭(金碩崇)¹⁰⁾ 정려비(旌閭碑)

孝子故士人金碩崇之閭

公 金海人也 性孝 事親至誠 父歿 母固止 不得廬墓 而侍殯如禮 母病 嘗糞驗差 劇垂死 斷指注血 甦延七日 克葬侍墓 有泉感虎化之異 喪畢還家 有里火 反風之祥 沒後四十餘年 因士林之疏 事聞旌閭 壽六十一 配密陽朴氏 三子曰龍起・龍三・龍寬 仲無后 季九歲 隨父在墓廬 有虎舐口之事 而未冠夭 有孫曰玉敦 幼喪祖父及父 及成 以身克奉先事 人稱孝孫云

上之二十九年己丑 立閭



(비음)

공은 본관이 김해인이다. 본성이 효성스러워 부모를 지성으로 섬겼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나 어머니가 극구 만류하여 여막(廬幕)을 지어 시묘(侍墓)하지 못하고, 대신 빈소를 예법대로 지켰다. 어머니가 병드시자 변을 맛보아 차도를 살폈으며, 병이 깊어져 돌아가시려 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입에 흘려 넣어 소생시켜 7일 동안 목숨을 연명시켰다. 장사를 치르고 시묘하였는데, 샘물이 감응하고 호랑이가 감화되는 이적(異蹟)이 있었다. 삼년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바람이 역으로 부는 상서로운 일이 있었다. 그가 죽은 뒤 40여 년만에 사림(士林)의 상소로 그 사실이 보고되어 정려(旌閭)가 내려졌다.

공은 61세를 살았다. 밀양 박씨를 배필로 세 아들을 두었는데, 용기・용삼・용관이다. 둘째는 후사가 없고 막내는 아홉 살에 아버지를 따라 묘소의 여막에서 지냈

10) 김석숭 : 본관 김해. 가락면 죽도 출신. 그에 대한 기록으로 이학규(李學逵)의 「김효자실기(金孝子實記)」와 권복(權馥)의 서문과 허전(許傳)의 제(題)가 있다.

는데, 호랑이가 그의 (...)를 활아주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관례(冠禮)도 못하고 죽었다. 손자가 있는데 옥돈이다. 어려서 조부와 아버지를 잃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조상 받드는 일을 몸소 다하였다. 사람들이 효손이라고 칭찬하였다고 한다.

주상¹¹⁾ 재위 29년 기축년(1829) 정려비를 세우다.

11) 주상 : 여기서 말하는 주상은 순조(純祖)이다.

4. 가덕도 척화비

洋夷侵犯非戰則和主和賣國

戒我萬年子孫

丙寅作 辛未立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니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다.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만년 뒤의 우리 자손들에게 경계한다.

병인년(1866)에 짓고 신미년(1871)에 세우다.



5. 처사(處士) 조오(曹澳) 적덕불망비(積德不忘碑)

處士曹公澳積德不忘碑

此三義堂處士曹公之碑也 按金海鄉人所呈政府狀辭曰 邑之南德島士人曹澳 早孤 事母以孝 晚年隱居 行義於江湖之間 屬者以社長捐其任料 逐年殖利 至數千餘金 而補一島公役者 二十年矣 郭南有陸路 通于鳴海 一溝橫其間 冬夏之交人多病涉 時釣魚於其處 見一女子裸體渡水 甚悶之 卽鳩財成橋 行者至今便之 粵在丙丁大無之歲 捐財賑恤 所活幾百人 且路中暴骨如莽 一日募役人 設魚酒祭之 各具一葦席 盡收埋之 是夜 鄰人夢過所埋之處 月色荒涼 鬼語啾啾 泣謂其人曰 俺等暴露於原野 久矣 之蒙埋骸之恩 詎緩結草之圖 寄謝曹處士 天之陰報 庸有幾乎 自是 遠近之人 聞義而慕之 號曰三義堂 前所稱三事之出義以也 實行如此 不可無彰善樹風之典云云 事寢不報 先是 島民齊籲于營邑 請褒啓者 亦屢矣 公聞之 益論抑不許 僉議執之愈力是勉 又營刻石紀蹟 訴于地主 地主義而許之 傳曰 報者倦矣 施者未厭之 施者厭之 報者不倦 所謂兩盡其美矣 將樹石北津上一村士林 謁余一言曰 方爲吾林正彦甫碑 微子不能詳其事 幸勿辭 余惟公稟性寬厚 容貌俊偉 有長者風 其濟世之志 急人之義 蓋胸中素蓄也 噫 若使公需用於時 推此心及於遠邇 知一氣陶勻 萬物吐氣 而不幸身老海濱 所施 止于一島 然此有司之責也 於公亦何有哉 遂爲之記 銘曰孝且義 格幽明 石不泐 垂令名

上之三十四年丁酉十月 日 立

參奉 許 珏 謹書

進士 宋殷成 謹撰

(비음)

이것은 삼의당(三義堂) 처사 조공의 비석이다. 김해 향인(鄉人)들이 정부에 올린 장계(狀啓)의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었다.

“김해읍의 남쪽 덕도(德島)에 사는 사인(士人) 조오(曹澳)는 일찍 부친을 잃고 어머니를 효성으로 모셨으며, 만년에는 강호에 은거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마을의 장이 되자 자신의 급료를 털어 해마다 이자를 번식시켜, 그것으로 이 섬의 공역(公役)에 보태어 온 것이 20년째입니다. 읍성 남쪽으로 육로가 나 있어 명지 바다 쪽으로 통해 있는데, 큰물이 그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어 겨울과 여름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때마침 그가 그 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한 여자가 나체바람으로 물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심히 민망해 하고는, 곧장 자금을 모아 다리를 완성시켜 행인들이 지금까지도 편리를 보고 있습니다.

크게 흉년이 들었던 병·정(丙·丁)년 두 해에는 재산을 털어 구휼하여 그가 살린 사람이 몇 백 명이 되었습니다. 또 길 가운데 풀더미처럼 유골이 드러난 일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일꾼을 모집하여 고기와 술을 채려두고 제사지낸 다음 각기 짚자리 하나씩 마련하여 모두 묻어 주었습니다. 그 날 이웃 사람의 꿈에 그 묻어둔 곳을 지나는데, 달빛마저 황량한 가운데 귀신 우는소리가 들리며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그 동안 들판에 버려졌던 것이 오래였었는데, 이제 시신을 묻어주신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결초보은 할 계획을 지체하겠습니까? 조처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해주십시오.’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하늘의 은근한 보답이 있었던 것인지, 이로부터 원근의 사람들이 그의 의로움을 듣고 사모하여 ‘삼의당’이라 불렀습니다. 앞에 말한 세 가지 일이 의로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행적이 이와 같으니, 그 선행을 밝혀 풍속을 세우는 모범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일은 잠잠해져 통보받지 못하였다. 이보다 앞서 도민들이 일제히 감영에 호소하여 포상을 청하는 장계를 올린 것이 또한 여러 차례였다. 조공이 이 사실을 듣고 더 이상 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이 더욱 힘있게 고집하여 노력하고, 아울러 비석에 그 사적을 기록하여 새길 것을 계획하여 부사(府使)께 호소하니, 부사도 의로운 일이라 하여 허락하였다. 경전에 이르길, “보답하는 자가 게을리도 베푸는 자는 실증 내지 않는다.”¹²⁾하였으니, 베푸는 자가 실증 내어도 보답하는 자가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그 미덕을 모두 지키는 것이다.

장차 북쪽 나룻가에 비석을 세우고자 하여, 온 마을 사림(士林)들이 나에게 한마디 써 줄 것을 요청하기를 “이제 우리 사림들이 정언(正彦)씨의 비석을 세우고자 하는데, 그대가 아니면 그 사실을 상세히 기록할 수 없으니, 사양하지 않기를 바란

12) <좌전(左傳)·희공(僖公)24년> 「하적벌정(夏狄伐鄭)」 조

다.”고 하였다. 내가 생각컨대 조공은 성품이 너그럽고 후덕하며, 용모가 준결하여 어른의 풍모가 있어, 남을 구제하는 뜻과 남의 일에 우선하는 의리가 가슴속에 본래 쌓여 있었던 것이라고 본다. 만약 공을 이 시대에 기용해 썼더라면, 이러한 마음을 멀고 가까운 일에 미루어나가 큰 기운으로 세상을 경륜하여 만물이 기운을 토해냈을 것임을 알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닷가의 땅에서 늙어 베푸는 것이 섬 한 곳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가의 책임이지 조공이 또한 어찌겠는가? 그래서 기록해 둔다.

효성과 의리가 이 세상과 저 세상에까지 이르렀으니,
돌은 갈라지지 않고 그 이름 전하리라.

주상 재위 34년 정유년(1897) 10월에 세우다.

참봉 허 각 근서

진사 송은성¹³⁾ 근찬

13) 송은성(宋殷成) : 1836~1898. 자 원백(元伯), 호 백하(白下), 본관은 청주. 김해 진례 출신이다. 성재 허전의 문인이며, 당대에 시문으로 이름이 있었다. 저술로 <백하집>이 있다.

6. 축은(築隱) 김선생 묘(金先生墓)

築隱金先生之墓

先生 諱方礪 字汝用 號築隱 系出駕洛 今金海 麗朝 奉順大夫判宗簿寺事 建院于
長興府 考諱台德 判圖判書 祖諱元鉉 匡靖大夫僉議評理上護軍 曾祖諱敬臣 都摠
管

上之三十五年戊戌閏三月 晦日 立

幼學 昌寧 曹錫儒 謹書

後孫 有司 秉祐 炯澤 景植 漢植 錫琪

三世位畚 俯字七斗落 領字六斗落 合結三十三負一束



(비음)

선생의 휘는 방려(方礪)¹⁴요, 자는 여용(汝用), 호는 축은(築隱)이다. 세계(世系)는 가락에서 시작하였는데, 지금의 김해이다. 고려조에 봉순대부(奉順大夫)¹⁵로 관중부시사(判宗簿寺事)¹⁶를 지냈고, 장흥부(長興府)에 서원이 있다. 부친의 휘는 태덕(台德)인데, 판도판서(判圖判書)¹⁷를 지냈고, 조부의 휘는 원현(元鉉)인데, 광정대부(匡靖大夫)¹⁸로 첨의평리(僉議評理)¹⁹와 상호군(上護軍)²⁰을 지냈으며, 증조부의 휘는 경신(敬臣)인데, 도총관(都摠管)²¹을 지냈다.

14) 김방려 : 1324~ ? . 김해 한림면 퇴은리(退隱里) 출신. 이제현·이색·정몽주 등과 교류하였다.

15) 봉순대부 : 고려시대 문관 정3품 하(下)의 품계. 뒤에 통의대부(通議大夫)로 고침.

16) 관중부시사 : 고려 전기에 왕실의 보첩 등을 관장하던 중부시(宗簿寺)에 속한 종3품의 관직.

17) 판도판서 : 호부(戶部)의 역할을 했던 판도사(判圖司)에 속한 정2품의 관직.

18) 광정대부 : 고려시대 문관 중2품의 품계.

19) 첨의평리 : 고려 충렬왕 때 중서문하성과 상서도성이 병합되어 설치된 첨의부의 속관.

20) 상호군 : 고려시대 2군 6위의 지휘관.

주상 재위 35년 무술년(1898) 윤3월 그믐날 세우다.

유학 창령 조석유 삼가 쓰다.

후손 유사 병우 경택 경식 한식 석기

삼세위(三世位) 전답이 부자(俯字)에 7두락, 령자(領字)에 6두락, 합 33부(負) 1속(束)이다.

21) 도총관 : 군무(軍務)를 총괄하던 최고의 관직.

7. 열부(烈婦) 경주 최씨(慶州崔氏) 정렬각(貞烈閣)

贈資憲大夫內藏院卿金海金允世妻烈婦封貞烈夫人慶州崔氏之閭

□之二十八年

烈婦崔氏旌閭銘

烏乎 古曹□女·李節婦之凜凜義烈 三綱所扶 百世所難 然其死也 刀□經頸 猶不暇顧恤其毀體 則與其毀體 寧全歸如今金州士人金允世妻崔氏之爲哉 崔氏 慶州人 三伯之女也 在家維孝 及于歸 承順備至 夫以執孝 子姓滿前 未擬慶福 不幸丁卯所天 客隕于高靈 □承訃之日 崔氏□辭 慰舅姑 托夫弟允奎·允漢 以奉老撫孤 遂入□靈□□ 忍息而下從之 卽夫亡後五日 四月初十也 合窆眞木里負良原 噫 人之所惡 有甚於死 而視死如歸 爲難死而恐毀遺體 忍息全歸 尤爲難 以古視今 孝烈兼全 豈非難之難也哉 秉彝所同 鄉道聯章 營官褒崇 粵辛卯十二月二十七日 自上命旌其閭·復其家爲世飾 顧何如也 孝子東禹·東鎮 孫秉斗·邢斗 將營棹楔 不遠數百里 再三請爲閭銘 銘曰

天與之淑貞 歸又配其良 胡不終天之祿 而罹此不祥 惟其殉之 義與同藏 銘于棹楔 以永其光

壬辰清和節 通訓大夫 前行慶尙都事 玉山 張福樞

子 順昌院參奉 秉斗

恭陵參奉 邢斗

從子 淳斗 聖斗

孫 容基 容培 容錫 容默

監董從侄 鉉斗

前監役進士張載愍

重建石閭記

凜凜乎夫人之貞烈也 允合于□聖旨 先降命旌 □贈貞烈而建閭 才二十有八年 地卑下 海瘴□瓦桷 □□□□矣 子秉斗・邢斗 爲久建閭 圖以石代瓦桷 而重建于舊址 求余爲重建記而□□ 節行已悉於張四未先生記文 不敢更贅 一辭 而略敘其□□

己未十二月上浣 鷄林 李明洙 撰

從子 文斗 謹書



증자헌대부²²⁾ 내장원경²³⁾ 김해 김윤세 처 열부
봉정열부인 경주 최씨 정려비

주상 재위 28년

열부최씨 정려명(旌閭銘)

오호라. 옛 조□□와 이절부(李節婦)의 늠름한 의열(義烈)이 삼강(三綱)을 부식(扶植)한 것이 백세에 드문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때 칼로 목을 찢었으니, 그것이 몸을 훼손시키는 것인지는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다. 그렇게 몸을 훼손시키는 것보다는 김해땅 선비 김윤세의 처 최씨가 한 것과 같이 온전한 몸으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최씨는 경주 사람으로 삼백(三伯)의 따님이다. 친정에 있을 때도 오로지 효성을 다 하더니, 시집을 가서도 부모를 받들고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지극히 하였다. 그의 남편도 효성을 다하고 자손들이 앞에 가득하여 큰 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였는데, 불행히도 정묘년에 고령(高靈)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부음을 받는 그 날 최씨는 (...)한 말로 시부모를 위로하고 시동생 윤규와 윤한에게 노부모와 자식의 봉양을 부탁하고

22) 자헌대부 : 조선시대 정2품 하계(下階)의 문산계(文散階)의 명칭.

23) 내장원 : 왕실의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관부.

드디어 (….)에 들어가 숨을 참음으로서 남편을 따라 죽었다. 그 날은 곧 남편이 죽은 뒤 5일이 되는 4월 10일이었다. 진목리(眞木里) 언덕 간좌(艮坐) 언덕에 합장하였다.

아! 사람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다고 하지만²⁴⁾, 죽음을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기란 어렵다. 또 죽을 때 물려주신 몸을 훼손시킬까 염려되어 숨을 참아 온전한 몸으로 죽는 것은 더욱 어렵다. 옛날과 비교해 보더라도 효(孝)와 열(烈)을 같이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 중에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몇몇한 도리는 같은 것인지라, 고을과 도에서 연명으로 글을 올리고, 감영과 관청에서 포상을 내리더니, 신묘년 12월 27일에 조정에서 정려를 내리고 그 집안에 세금을 면제하도록 명령하여 세상의 귀감으로 삼으니, 또한 어떠한가? 효자 동우와 동진, 손자 병두와 형두가 정려각을 세우고자 수백리 길을 멀다않고 재삼 나에게 정려 명문(銘文)을 부탁하였다.

하늘이 정숙한 자질을 내리시어
시집가 그 남편과 짝하였네.
어찌 영원한 복록을 내리지 않고
이런 상서롭지 못한 일을 당하게 하는가.
오직 남편을 따라 죽으니
의리와 함께 묻혔네.
정려각 세워 새겨두니
그 광채 영원하리.

임진년(1892) 청화절 통훈대부²⁵⁾ 전 경상도사²⁶⁾ 옥산 장복추²⁷⁾

(비음)

자 순창원 참봉 병두

공릉참봉 형두

종자 효두 성두

손 용기 용배 용석 용묵

24) <맹자·고자상(告子上)>에 “삶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바라는 것 가운데 삶보다 더한 것이 있기에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며, 죽음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싫어하는 것 가운데 죽음보다 더한 것이 있기에 환난을 피하지 않기도 한다.[生亦我所欲, 所欲有甚於生者, 故不爲苟得也. 死亦我所惡, 所惡有甚於死者, 故患有所不辟也.]”고 하였다.

25) 통훈대부 : 조선시대 문관의 정3품 당하관의 품계명.

26) 도사 : 조선시대에 관리들을 감찰하는 직무를 맡았던 종5품의 벼슬이다. 각 도의 감영에 서는 감사(監司) 다음가는 직책으로 지방관리들의 비행을 감찰하고, 아울러 과시(科試)를 맡아보았다.

27) 장복추 : 1815~1900. 자 경하(景遐), 호 사미헌(四未軒), 본관은 인동(仁同). 저서로는 <사미헌집(四未軒集)>이 있다.

감동 종질 현두
전감역 진사 장재민

석정려 중건비

느름하다! 부인의 정렬(貞烈)이 진실로 (….)에 합치되니, 거룩하신 교지로 먼저 정려를 명령하시고, 정렬의 호칭을 내렸는데, 정려를 세운 지 겨우 28년만에 지역이 비루하여 바다의 장기(瘴氣)가 기와장을 (….) 하였다. 아들 병두와 형두가 정려를 오래 보존하기 위해 기와 대신 석재로 세울 것을 계획하여 옛 터에 중건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중건기(重建記)를 부탁해 왔다. 최씨의 절행(節行)은 이미 장사미현(張四未軒) 선생의 기문(記文)에 상세하니, 감히 군더더기 말을 덧붙일 수는 없고 간략히 (….)를 서술하였다.

기미년(1919) 12월 상완일 계림 이명수가 짓고,
종자 문두가 삼가 쓰다.

8. 효자(孝子) 어경덕(魚敬德)²⁸⁾ 정려비(旌閭碑)

孝子魚敬德之閭

顯宗乙巳命旌 后五己未 復繕移建

咸從魚公敬德 松亭先生泳濬玄孫也 考參奉 恭命於顯宗癸卯 從使對馬島
船敗而沒 公日望海而哭 三年屍自浮海而至 事聞旌閭 公自屍至後 始行三
年喪 終身不乘船 不言海 不食魚 綽楔後二百五十五年己未 移建石閭 爲
久遠圖 旁孫在源・在泳 主其事云

族孫 通政大夫學部編輯局長 勳四等 允迪 謹識

君後生 幼學 金海 金圭奭 謹書



현종 을사년(1665)에 정려할 것을 명
령했고, 그 뒤 다섯 번째 기미년(1919)
에 다시 고쳐 이건하였다.

(비음)

함중(咸從) 어경덕(魚敬德) 공은 송정
(松亭)선생 영준(泳濬)²⁹⁾의 현손(玄孫)
이다. 부친 참봉공이 현종 계묘년(1663)
에 명령을 받고 사신을 따라 대마도로
가다가 배가 부서져 가라앉고 말았다.

공이 날마다 바다를 바라보며 통곡하였는데, 3년 만에 시신이 저절로 떠올라 왔다.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旌閭)가 내렸다. 공은 시신이 떠온 뒤에 비로소 3년상을 지
냈고, 종신토록 배를 타지 않았으며 바다를 말하지도 않고 생선도 먹지 않았다.

28) 어경덕 : 1629~1701

29) 어영준 : 1483~1529. 자 언심(彦深), 호 송정(松亭). 1507년(중종2) 문과에 급제하고, 장
악원정(掌樂院正)을 지냈다. 효자로 정려되었다. 주세붕이 지은 묘지명이 있다.

정려를 내린 후 255년 되는 기미년(1919)에 석재 정려비로 옮겨 세워 오랜 세월 동안 가도록 계획하여 방손(旁孫) 재원(在源)과 재영(在泳)이 그 일을 주관하였다.

족손 통정대부 학부판집국장 공훈4등 윤적이 삼가 기록함.

후생 유학 김해 김규석 삼가 씀.

9. 탁사대(濯斯臺)

濯斯臺

春浦之陽 有老大磐石當于港 괴奇如斧鑿人造之形 而不覺天琢成之也 文君
鍾周 以竹島隱者 爲垆於上 而日常游泳之 名曰濯斯 盖寓意於魯門孺子之歌
而有所規戒於滄浪自取也夫 余亦欲與之同歸者 故忘陋而爲之記

戊辰九月 日

成均館 博士 全州 李起住 記



(비음)

용포(春浦) 남쪽에 오래된 큰 반석이 항구에 놓여있는 것이 있는데, 기괴한 모습이 마치 사람이 술 모양으로 파서 만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깎여 이루어진 것 인줄 모른다.

문종주(文鍾周)군은 죽도의 은자이다. 그는 그 위에 대(垆)를 마련하고 날마다 노닐면서 그 이름을 ‘탁사대(濯斯臺)’라고 하였다. 이는 대개 공자 문하 유자(孺子)의 노래³⁰⁾에 뜻을 붙이고, 창랑수(滄浪水)에서 본받아 스스로 취한 이름이었다. 나 또한 그와 함께 뜻을 나누고 싶은 마음에 부족한 줄도 모르고 그를 위해 기록한다.

무진년 9월

성균관 박사 전주 이기주³¹⁾ 기록.

30) 유자의 노래 : 공자의 문하에 한 유자가 노래하기를,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을 수 있고, 창랑의 물이 탁하면 내 발을 씻을 수 있다.[滄浪之水清兮 可以濯我纓 滄浪之水濁兮 可以濯我足]”고 하였다. (<맹자(孟子)·이루상(離婁上)>)

31) 이기주 : 1862~1944. 자 정화(正化), 호 각재(覺齋), 장유면(長有面) 외덕리(外德里) 출신. 1904년(광무8) 경학과(經學科)에 급제하여 성균관박사가 됨.

10. 가선대부(嘉善大夫)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³²⁾ 김해도호부사
(金海都護府使) 남양(南陽) 홍여한(洪汝漢) 묘(墓)

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行金海都護府使南陽洪公諱汝漢之墓

公諱汝漢 字道可 號慕潭 姓洪氏 貫南陽 麗朝三重大臣太師諱殷悅 其肇祖也 累傳 至諱彥修 官崇祿大夫判中樞 於公間五世 曾祖諱亨老 大護軍祖諱潛 文科官至江原道觀察使 嗣諱蔓復 贈嘉善大夫 妣貞夫人宜寧南氏貴麟女 公以顯廟辛丑四月三日 蒞金海府 明年壬寅二月四日 卒于官 事載在邑誌 墓在本府南面泛舫里後麓負子原 配貞夫人慶州申氏虞侯國珍女 酉兆焉 公有二男 曰溟朝・瑞朝 孫興昌勛 曾玄以下 繁不盡錄 今爲九世十世 噫 公之當日 宦業治績 想有所可傳者 而年代既遠 晁孫且不振 竟湮沒焉 是可慨也 舊有短碣 而苔蝕字泐 百不記一 方圖改豎 要余銘者 公九世孫仁錫也 銘曰

桐鄉南戒 水抱山拱 俾無樵牧 大夫之冢

歲柔兆執徐立夏節

進士 金海 許 埰 撰

後學 密城 朴炯勳 書

八世孫 垠悌 謹跋

康熙五己巳三月 日 改修 垠哲 謹誌

(비음)

공의 휘는 여한(汝漢)이오, 자는 도가(道可), 호는 모담(慕潭), 성은 홍씨, 관향은 남양(南陽)이다. 고려조에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³³⁾를 지낸 휘 은열(殷悅)이 그의 시

32) 첨지중추부사 : 중추부 소속의 정3품 당상관.

33) 삼중대광태사 : 고려시대 문관 품계의 하나로서 정1품직이다.

조이다. 여러 대를 내려와 휘 언수(彦修)는 숭록대부(崇祿大夫)³⁴로 판중추(判中樞)³⁵를 지냈는데, 홍공과는 5대간이다. 증조부 휘 형노(亨老)는 대호군(大護軍)³⁶이었고, 조부 휘 잠(潛)은 문과를 거쳐 강원도관찰사를 지냈다. 부친의 휘는 만복(蔓復)으로 가선대부에 추증되었고, 모친 정부인(貞夫人) 의령남씨는 귀린(貴麟)의 따님이다.

공은 현종 신축년(1661) 4월 3일 김해부에 부임하여 이듬해 임인년(1662) 2월 4일에 관사에서 죽었는데, 그 일이 읍지에 실려 있다. 묘소는 김해부 남면 범방리(泛舫里) 뒷산 자좌(子坐) 언덕에 있다. 배필인 정부인 경주신씨는 우후(虞侯)³⁷였던 국진(國珍)의 따님으로, 묘소는 서쪽에 있다. 공은 2남을 두었는데, 명조(溟朝)·서조(瑞朝)이다. 손자는 흥(興)·창(昌)·욱(勗)이다. 증손 현손 아래로는 번거로워 모두 기록하지 않는다. 지금은 9세와 10세손이 있다.

아! 공이 그 시대에 다스린 업적 가운데 전할만한 것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연대가 멀고 후손들이 부진해서 결국 인멸되고 말았으니, 개탄스러운 일이다. 예전에도 작은 비갈(碑碣)이 있었으나 이끼에 글자가 잠식되었고, 백에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였다. 이제 이 비석을 고쳐 세우기로 계획하고, 나에게 명문(銘文)을 요구한 사람은 공의 9세손인 인석(仁錫)이다.

동향(桐鄉)³⁸이 된 이 곳 남쪽 고장은
강이 안아 돌고 산이 끼고 있다네.
나무하고 풀 뜯기지 마라
이 곳은 대부(大夫)의 무덤이니라.

병진년 입하 계절
진사 김해 허채³⁹ 짓다.
후학 밀양 박경훈 쓰다.
8세손 은제 삼가 발문하다.
강희 후 다섯 번째 기사년(1929) 3월에 개수하고,
은철 삼가 기록하다.

34) 숭록대부 : 문관 종1품 상(上)의 품계.

35) 판중추 : 판중추부사. 문무 당상관이면서 특정한 관장 업무나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두었던 중추부(中樞府)의 종1품직.

36) 대호군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하는 종3품의 무관직.

37) 우후 : 조선시대에 각 도의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를 보좌하는 종3품 외관직의 무관 벼슬.

38) 동향(桐鄉): 지방관으로 나가 다스리던 고을을 가리키는 말이다.

39) 허채(許埰) : 1859~1935. 자 경무(景懋), 호 금주(錦洲), 본관은 김해. 허전(許傳)과 이종기(李鍾杞)에게 사사함. 저술로 <독례촬요(讀禮撮要)> <좌전의해(左傳疑解)> 등이 있다.

11. 자헌대부(資憲大夫)⁴⁰⁾ 배신기(裵信己) 처(妻) 열부(烈婦) 정부인(貞夫人)⁴¹⁾ 성씨(成氏) 정려비(旌閭碑)

贈資憲大夫裵信己妻烈婦貞夫人成氏旌閭碑

天地之道 誠而已 人能反身而極其誠 則可以感鬼神 可以動天地也 若故烈婦成氏 亦可謂云爾已矣 昔我肅廟戊寅 命旌其閭 在金海郡臥龍里 後移建于塔洞 高宗甲辰 重葺之 今又歲久傾圯 傍孫某某 謀欲堅固不朽 將以石代木 而碑之閣之 徵記於不佞 不佞按其板面舊題 成氏 籍昌寧 參議胤女 贈資憲大夫裵公信己之妻也 天資貞淑 在家以孝順聞 及歸 善事姑嫜 無違夫子 隣里皆稱之 不幸夫邁瘡疾 百藥無功 或云用人肉 可愈 遂割股而進 果得其效 如是者 至再 夫又患風痺 累歲沈綿 至不可醫 遂上美音山窟岩下 不畏虎豹之咆 不憚霧雨之濕 齋沐虔祭 至百日 乃瘳 又幾年 有痢疾 疾革 遂築壇于家傍淨地 夜夜禱辰 請代以延十年之命 及其盡哭 既絕而甦 親裁衣衾 送終無憾 三喪畢 乃從容就義 嗚乎 自古 夫人之烈何限而鮮有如成氏之致極其誠也 夫病而剖股焉 祭山焉 禱辰焉 累得其蘇 夫歿而忍痛焉 盡禮焉 乃隕厥命 聞于朝而王用表宅 迄于今 而傍裔盡力者 莫非至誠之動于天而感神人也 何其偉哉 顧念世壞綱淪 此閭之重建 亦足以風勵夫世之爲人婦者 使之致誠於所天也 余聞而壯之 遂奮筆以書

壬午蜡月 哉生魄

南平 文鳳鎬 記

咸安 趙定奎 書

40) 자헌대부 : 조선시대 정2품 하(下)의 문산(文散) 품계.

41) 정부인 : 조선시대에 정2품 및 중2품인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위호(位號)



(비음)

이 세상의 도리는 성실함뿐이다. 사람이 자신을 돌이켜 그 정성을 다한다면 귀신을 감화시키고 천지도 움직일 수 있다. 가령 옛 열부인 성씨는 역시 그렇게 했다고 할만하다.

전날 우리 숙종 무인년(1698)에 정려를 명령하여 김해군 와룡리(臥龍里)에 두었는데, 뒤에 탑동(塔洞)으로 옮겨 세웠다. 그리고 고종 갑진년(1904)에 보수하였는데, 지금 또한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졌다. 방손인 누구가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만들고자 해서, 목재를 석재로 바꾸고 비도 세우고 비각도 만들

면서, 나에게 기문을 요구하였다.

내가 그 판면에 새긴 옛 글을 살펴보니, 성씨는 본적이 창녕(昌寧)이요, 참의(參議)를 지낸 윤(胤)의 따님이며,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추증된 배신기(裴信己) 공의 처였다. 타고난 자질이 정숙하여 집에서는 효성과 순종으로 알려졌고, 시집가서는 시부모를 잘 섬겼으며 남편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이웃 마을에서까지도 칭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편이 학질에 걸려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인육(人肉)을 쓰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먹이니 과연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하기를 두 번이나 하였다. 남편이 다시 중풍에 걸려 여러 해 누워있어도 낫지를 앓았다. 그리하여 미음산(美音山) 굴암(窟巖) 기슭에 올라가 호랑이 울음소리도 두려워 않고 안개비의 습함도 아랑곳없이 목욕재계하며 경건히 제사 드리기를 100일이 되자 이내 병이 나았다. 또 몇 년 뒤 남편이 이질에 걸렸고, 병이 낫자 드디어 집 옆 깨끗한 땅에 제단을 쌓고 밤마다 북두칠성께 기도하기를 자신을 대신해서 십 년만 목숨을 연명케 해달라고 청하였다. 그러다 남편이 죽게 되자 통곡하며 울다 기절했다가 깨어났고, 친히 수의를 지어 마지막 보내는 길에 후회 없도록 하였다. 삼년상을 마치고는 곧장 조용히 의로운 길로 갔다.

아! 예로부터 부인들의 정열(貞烈)에 한이 없지만, 성씨처럼 정성을 극진히 다한 경우는 드물 것이다. 남편이 병들자 허벅지 살을 베고, 산에서 제사지내고, 북두칠성에 기도하여 여러 번 소생시켰으며, 남편이 죽자 슬픔을 참고 예의를 다한 뒤 결국 자기 목숨마저 버렸던 것이다. 조정에서 듣고는 왕께서 그 집을 정표(旌表)하게 하셨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그 방후손들이 노력을 다하는 것은 그 지성이 하늘을 움직이고 귀신과 사람을 감동시키지 않음이 없음이니, 그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세도(世道)가 무너지고 강상(綱常)이 몰락한 것을 생각하면 이 정려를 다시 세우는

일은 세상에 남의 부인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처럼 섬기는 것에 정성을 바치게끔
독려하는 일이 될 것이다. 내가 이 사실을 듣고는 장하게 여겨 드디어 붓을 들어
쓰노라.

임오 12월 16일

남평 문봉호가 기록하고

함안 조정규가 쓰다.

12. 참봉(參奉) 김해(金海) 김홍수(金洪秀) 효사비(孝思碑)

參奉金海金洪秀孝思碑

參奉金公孝思碑

嗚呼 此金海治南鳴旨之眞木里 孝子金公世傳之地也 今其女壻文善禧 豎碑而表世 請余記其陰 蓋以寓至誠之感也 公性孝 家累空 而溫清甘旨 無不備 至其孝養志體 豈學古人而爲也 自其天性然矣 父往來道路 欹陷則削高補低 跋涉則作板成橋 孝子路·孝子橋 人到于今 及有疾 祝天 嘗矢斷指 回甦 竟以天年終 廬墓三年 血淚不乾 晨夕省掃 有燭前導 此乃神光照應 苟非格天誠孝 安能感動得此 公以通神明之孝 宜其得聖朝之褒旌 而士林薦章 繡題營報 有重難議 今乃湮沒無稱 可勝惜哉 其付鉞登梓 傳芳名樹風教 聖蹟刊所諸執事之所感歎者也 見今遺親 幾乎皆夷獸 安得起吾公於九原·喚惺一世之耳目·用夏於下喬木之日也哉 故今於是役也 特揭夫公之孝 以與公諸族共勉 嗚呼 是奚但一家之丈尺已哉 凡天下之縉紳章甫 皆宜細繹其道 而循蹈其轍也已矣 公諱洪秀 字致烈 系出金海 慕菴先生節孝公十三世孫 濯纓先生文愍公十一世孫 諱福滿·諱有寬·諱興植 卽公三世也 妣星州李氏 公以憲宗癸卯生 高宗庚子 除孝陵參奉 不就 甲午四月十五日卒 配南原梁氏益夏女 男性舞 女卽南平文善禧 孫泰源·德源 外孫文龍春 曾孫炳殷·福殷 皆有行而無壽 公之孝之行 可以燾後無窮 而但正男·正一兩玄孫 尙在襁 天之報德 何其嗇也 以若德善 竟不得垂先於後來歟 幸有賢壻之特誠壽□ 此古亦其難矣 而況乎今 而淬礪頽俗 宜乎其慈善之褒彰於世也 嗚呼 盛矣 大雅 曰民之秉彝 好是懿德 荀侗 曰弟子好學 天不忘也 凡百君子 其尙無怠乎爲善也夫

昭陽協洽南呂之下澣邵城 李民熙撰

甲申三月 日 立



(비음)

오호라! 이 곳 김해부 남쪽 명지도(鳴旨島)의 진목리(眞木里)는 효자 김공의 집안이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곳이다. 지금 그의 사위 문선희(文善禧)가 비석을 세워 세상에 알리고자 나에게 뒷면에 쓸 기문을 요청하였으니, 대개 지성에 감격할 일이다.

공의 성품은 효성스러워, 집안이 가난했지만 따뜻하거나 시원하며 맛있는 음식이 늘 마련되었으니, 부모의 뜻과 몸을 효성으로 봉양하는 것이 어떻게 고인(古人)을 배워서 그런 것이겠는가? 천성에 따라 저절로 그런 것이리라. 부친이 오고가는 길이 경사져 내려앉아 있으면,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매

웠으며, 산과 강을 건널 곳이면 나무판을 마련하여 다리를 만들었으니, 이 ‘효자로’와 ‘효자교’는 지금도 사람들이 다닌다. 부친이 병에 들자 하늘에 기도하고 변을 맛보고 손가락을 잘라 희생시켰다. 마침내 수를 누리고 돌아가시자, 여막(廬幕)을 지어 시묘(侍墓) 3년을 하였는데, 피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아침저녁으로 묘를 보살피는데 불빛이 앞을 비추었으니, 이는 신화(神火)가 조응한 것이었다. 참으로 하늘을 감동시킨 효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감동스런 일이 있겠는가?

신명(神明)께 통한 김공의 효성은 거룩한 조정의 정려 포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여 사림들이 천거하고 어사께서도 감영에 보고하여 거듭되는 의논을 거쳤지만, 지금은 인멸되어 일컫는 사람이 없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다. 장차 인쇄에 붙여 간행하여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고 풍교(風敎)를 세우려는데, 성적간행소(聖蹟刊行所)⁴²⁾의 여러 집사(執事)들도 감탄한 일이다. 오늘날 부모도 버리는 세상을 보면 거의 짐승이나 다름없으니, 어떻게 하면 구원(九原)의 저 세상으로부터 김공을 불러 일으켜 온 세상의 이목(耳目)을 일깨움으로서 천박해져 가는 오늘날의 풍속을 옳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러므로 지금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은 특별히 공의 효성을 들춤으로서 공의 여러 친족들과 같이 노력하려는 것이다. 오호라! 이 일이 어떻게 단지 한 집안의 귀감일 뿐이겠는가? 대개 세상의 벼슬하는 관리들도 모두 그 도리를 자세히 살펴 그 전철을 따라 밟아야 할 것이다.

공의 휘는 홍수(洪秀)요, 자는 치열(致烈), 세계는 김해(金海)이다. 모암(慕菴)선생 절효공(節孝公)의 13세손이요, 탁영(濯纓)선생 문민공(文愍公)⁴³⁾의 11세손이며, 휘

42) 성적간행소 : 공자성적간행소(孔子聖蹟刊行所). 당시 이 곳에서 <동국삼강행실(東國三綱行實)>을 간행하였다.

43) 탁영 : 김일손(1464~1498)의 호. 자 계운(季雲), 본관 김해, 학자이자 문신이다.

복만(福滿)과 휘 유관(宥寬)과 휘 흥식(興植)은 공의 위로 삼대이다. 모친은 성주 이씨이다. 공은 현종 계묘년(1843) 생이고, 고종 경자년(1900)에 효릉참봉(孝陵參奉)⁴⁴⁾에 임명되었으나 나가지 않았고, 회갑년 4월 15일에 죽었다. 배필은 남원 양씨 익하(益夏)의 따님이다. 아들은 성무(性舞)요, 딸은 남평(南平) 문선희(文善禧)에게 시집갔다. 손자는 태원(泰源)과 덕원(德源)이고, 외손자는 문용춘(文龍春)이며, 증손은 병은(炳殷)과 복은(福殷)인데, 모두 행실이 있었으나 수를 누리지 못했다. 공의 효행이 후 세대를 비춘 것이 무궁하지만, 다만 정남(正南)과 정일(正一) 두 현손은 아직도 강보에 싸여 있으니, 하늘의 덕성에 대한 보답이 어찌 이리도 인색하신가. 이처럼 덕 있고 선한 사람도 필경 후세에 먼저 알려지지 못하는 것인가? 다행히 현명한 사위의 특별한 정성으로 (...)했으니, 이는 옛날에도 어려운 일이었거늘 하물며 오늘날 무너진 풍속을 가다듬는데 이 선행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 성대한 일이다. <시경·대아(大雅)>에 “백성들이 뿔뿔한 도리를 잡으니, 아름다운 덕을 좋아하도다.” 하였고, 순자(荀子)의 웨시(侘詩)에도 “제자들아 배우기를 좋아하면, 하늘도 잊지 않으시리라.” 하였다. 무릇 모든 군자들은 선행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계미년 8월 하순 소성 이민희 지음.

갑신년 3월 세움

44) 효릉참봉 : 효릉은 조선 12대 인종(仁宗)과 그 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의 묘소이다. 참봉은 왕릉을 수직하는 종9품직의 관리이다.

13. 가선대부(嘉善大夫) 남양(南陽) 홍공 묘(洪公墓)

贈嘉善大夫南陽洪公之墓

公諱蔓復 字益普 號南齋 姓洪氏 貫南陽 麗朝三重大匡太師諱殷悅 其肇祖也 門下侍中平章事・諡忠平公諱灌中祖也 累傳至諱彥修・諱約 於公爲高曾祖也 俱崇祿大夫判中樞 祖諱亨老 大護軍 考諱潛 文科・通政大夫・江原道觀察使 妣淑夫人金海金氏吏曹參議德信女 墓在府南泛舫後麓負乾原 配貞夫人宜寧南氏貴麟女 墓合窆 育四男 長汝漢 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行金海都護府使 次裕漢・起漢・國漢 俱嘉善大夫 餘不盡錄 噫 公之文學行義 有可以矜式於後 而世代久遠 著述不傳 幾至湮沒 可嘆 舊有碑銘 而歲久剝落 埋于墓側 公十世孫禮錫・斗錫・十一世孫世淵 謀于僉宗 方欲改豎 而請余爲銘 以非其人屢辭而終不獲 因爲銘曰

猗歟賢門 赫赫官爵 繼以贈秩 嘉善之職
舊碑剝落 改豎堅確 庶幾千秋 不隳不泐

歲屠維赤奮 蜡月 日
金州 許萬炆 謹撰
十一世孫 大淵 謹書
宗有司 智錫, 紋錫, 璋錫, 龍錫, 文錫, 泰淵

(비음)

공의 휘는 만복(蔓復)이요, 자는 익보(益普), 호는 남재(南齋)이며, 성은 홍씨, 관향은 남양(南陽)이다. 고려조에 삼중대광태사(三重大匡太師)⁴⁵⁾를 지낸 휘 은열(殷悅)이 그의 시조이고, 문하시중(門下侍中)⁴⁶⁾ 평장사(平章事)⁴⁷⁾로 충평공(忠平公)의 시호

45) 삼중대광태사 : 고려시대 문관 품계의 하나로서 정1품직이다.

46) 문하시중 : 중서문하성의 장관이며 수상으로서 중1품이다.

47) 평장사 : 중서문하성의 정2품직.

를 받은 휘 관(灌)이 그의 중시조(中始祖)이다. 여러 대를 내려와 휘 언수(彦修)와 휘 약(約)은 공의 고조와 증조부인데, 모두 숭록대부(崇祿大夫)⁴⁸⁾로 판중추(判中樞)⁴⁹⁾가 되었다. 조부 휘 형로(亨老)는 대호군(大護軍)⁵⁰⁾이었고, 부친 휘 잠(潛)은 문과를 거쳐 통정대부(通政大夫)로 강원도관찰사를 지냈다. 어머니는 숙부인 김해 김씨로 이조참의 덕신(德信)의 따님이다. 묘소는 김해부 남쪽 범방리(泛舫里) 뒷산 양지 언덕에 있다. 배필은 정부인(貞夫人) 의령 남씨 귀린(貴麟)의 따님인데 묘는 합장하였다. 아들 넷을 길렀는데, 장남 여한(汝漢)은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첨지중추부사⁵¹⁾가 되어 김해도호부사를 지냈다. 유한(裕漢)·기한(起漢)·국한(國漢)은 모두 가선대부가 되었는데, 상세한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아! 공은 문학과 행실은 후세에 모범이 될만한 일을 하였지만, 세대가 오래되고 저술이 전하질 않아 거의 인멸될 지경에 이르렀으니 탄식할 일이다. 옛날에 비명이 있었지만 세월에 벗겨지고 떨어져 묘소 곁에 묻었다. 공의 10세손 예석(禮錫)·두석(斗錫)과 11세손 세연(世淵)이 여러 종종 사람들과 논의하여 그 비석을 고쳐 세우기로 하고, 나에게 비명을 요청하였다. 책임자가 아니라고 누차 사양하였지만 끝내 수락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명문(銘文)을 짓노라.

아름답도다 어진 이의 문중에
 혁혁한 벼슬과 작위로다.
 연이어 관직이 추증되니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직분이로다.
 옛 비석 벗겨지고 떨어지니
 견고하고 튼튼하게 다시 고쳐 세우네.
 천추 세월 가는 동안
 떨어지고 갈라지지 않기를 바라노라.

기축년 12월

금주 허만윤 근찬

11세손 대연 근서

종유사 지석, 문석, 장석, 용석, 문석, 태연

48) 숭록대부 : 조선시대 종1품 상의 문관 품계.

49) 판중추 : 판중추부사. 문무 당상관이면서 특정한 관장 업무나 소임이 없는 자들을 소속시켜 두었던 중추부(中樞府)의 종1품직.

50) 대호군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속하는 종3품의 무관직.

51) 첨지중추부사 : 중추부 소속의 정3품 당상관.

14. 가락국(駕洛國) 태조왕(太祖王) 영후유허비(迎后遺墟碑)

駕洛國太祖王迎后遺墟碑

直金海府四十里 濱海而有山 曰明月 相傳駕洛始祖王 初遇許后於茲山 其高嶠下 盖有遺墟云 始駕洛王現生神異 爲九干所奉戴建國 卽祚之七年戊申 群臣諫揀女爲后 王曰吁 余豈無偶 當錫自天 其惟俟哉 一日命留天干 俟于望山島 有船自西南來泊 阿隄陀國公主載焉 奔告于王 王備儀仗出 設幔殿禮迎 輦而還宮 是爲許后名皇玉 時年十六 自言父王夢 上帝命 曰駕洛元君 未有伉儷 爾其遺爾女 作配 是以此 王感歎 名山以今名 創建佛寺于其址 以識之中間屢廢累興 後更鞠爲茂草者 垂數百載 後孫之數三有志 竭力重建 已告成矣 今茲諸後孫 又將豎碑以彰其蹟 盖千數百年所擬議未遑之舉也 許堪·金鍾益·金基煥三君 來屬予鐫刻之文 余惟我東人文晏闕 在王之世 比之中國 則殆若羲農邃古 原始厥初 氣化神發 事或近於孟浪 而實則有不可認爲無稽 而況公私載籍誦說歌謠 章章然曠百世而未泯者乎 余於王與后之事 信無議焉 乃撮其大要而書之 系以銘曰

南紀山河 伊昔鴻牕 紫纓金盒 神君是降 西土王女 天作之合 祥飈送帆 茜旗石塔 簇擁登帆 臣媵嬖子 王親迎之 禮儀秩秩 高嶠之下 峯回林密 蜿蟺岡阜 幔殿攸設 誕生十男 享國五百 同根之出 二從母族 曰金曰許 其麗不億 陵寢長存 復克是役 有屹豐珉 躋踏行客 主浦雲捲 綾峴月白 繫纜解袴 宛其如昨 風馬雲車 洋洋碧落 於萬斯年 永示不泐

檀紀 四千二百八十九年 丙申 歲仲春節

駕洛國 紀元 一千九百十五年 丙申 二月 日

夏山 成純永 謹撰

廣州 安秉穆 謹書

時崇善殿參奉 金載翼

發起 菴山宗親會



(비음)

김해부에서 40리쯤 바닷가에 산이 있는데, 명월산(明月山)이라고 한다. 전하기를, 가락국의 시조왕이 이 산에서 처음 허왕후를 만났으며, 그 높은 고개 아래에 그 유적이 있다고 한다. 처음 가락왕의 현생(現生)이 신이(神異)하여, 아홉 족장들이 받들어 추대하여 나라를 세웠다. 즉위한 지 7년 무신년(48)에 군신들이 여자를 간택하여 왕후로 세우기를 아뢰니, 왕이 “난들 어찌 짝이 없겠는가? 응당 하늘로부터 내릴 것이니 오직 기다릴 뿐이다.”고 하였다. 하루는 유천간(留天干)에게 명령하여 망산도(望山島)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더니, 배가 한 척

서남쪽으로부터 와서 정박하는 것이었는데, 거기엔 아유타국(阿隄陀國)의 공주가 타고 있었다. 왕에게 달려가서 보고하니, 왕은 의장(儀仗)을 갖추고 나가 장막 친임시 궁전을 설치하여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같이 수레를 타고 궁궐로 돌아왔다. 이분이 허왕후로 이름은 황옥(皇玉)이오, 나이는 16세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부친의 꿈에 상제께서 “가락국의 원군(元君)이 배필이 없으니, 네가 너의 딸을 보내어 배필이 되게 하여라.”고 하여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왕이 감탄하고 지금 그 이름으로 산을 이름하고, 그 자리에는 절을 세워 표시하였다. 그러나 중간에 여러 번 폐허가 되고 여러 번 다시 세워졌으나, 그 뒤론 다시 무성한 풀밭이 되고 만 것이 수 백년 되었다.

후손들 가운데 뜻을 가진 여러 사람이 힘을 다해 중건하여 이미 낙성(落成)하였고, 지금 여러 후손들이 다시 비석을 세워 그 사적을 알리고자 하니, 이는 천 수 백년 동안 의논만 하며 이루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리하여 허감(許堪)·김종익(金鍾益)·김기환(金基煥) 세 사람이 나를 찾아와 새겨 넣을 글을 부탁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우리나라의 문화는 늦게 열려서 왕이 재위했던 때를 중국과 비교해 보면 거의 복희씨(伏羲氏)나 신농씨(神農氏) 때와 같을 것이다. 처음 원시 때에는 기운의 조화로 신이(神異)한 일이 일어나 더러 맹랑한 일이 있기는 하지만, 실상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면이 있다. 하물며 공적·사적으로 문헌에 실려 있고 노래와 이야기로 전하여 백세동안 찬란하게 사라지지 않은 것은 어떠하랴. 나는 왕과 왕후의 일에 대해 참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이에 그 대강을 모아 기록하고, 이어 명문을 쓰노라.

남국의 터가 된 이 산하
그 옛날 아득한 시절에
자주빛 노끈에 금빛 상자
신군(神君)께서 이렇게 내려오셨네.
서방에서 온 공주는
하늘이 맺어주신 배필이라네.
상서로운 바람이 배를 보냈으니
붉은 빛 깃대 꽃고 석탑을 신고 왔네.
떼지어 둘러싸고 높은 산 오르는 건
총애와 사랑 받는 신하들이라네.
왕께서 친영(親迎)하시면서
예의가 차례차례 진행되었네.
높은 고개 아래로
봉우리 둘러싸고 숲이 빼곡하다네.
꾸불꾸불한 산언덕에
장막 친 궁전이 설치되었네.
열 명의 아들을 낳으시어
나라가 오백 년을 누렸다네.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지만
두 사람은 어머니의 성씨를 따랐다네.
그리하여 김씨와 허씨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다네.
그 능침이 길이 보존되어와
다시금 이 일도 할 수 있다네.
우뚝 높은 풍만한 옥돌은
나그네의 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네.
주포(主浦)에 구름은 걷히고
능현(綾峴)엔 달빛도 밝다네.
땃줄을 매고 바지도 벗었던 일,
그 모습 완전히 어제 일인 듯.
말과 같은 바람과 수레 같은 구름은
푸른 하늘에 가득하네.
천년 만년토록 오랜 세월
길이 사라지지 않으리.

단기 4289년 병신년(1956) 중춘절
가락국 기원 1915년 병신년(1956) 2월 일
하산 성순영 삼가 짓고,
광주 안병목 삼가 쓰다.
시충선전참봉 김재익
발기 녹산중친회

15. 남강(南岡) 조선생(曹先生) 제단비(祭壇碑)

南岡曹先生祭壇碑

吾韓之已光復 在中國臨時政府諸要人 皆卽返國 而南岡曹先生 獨不見返 詢之則曰先生曾往滿洲後 不得踪 當已故也 先生仲弟海仙先生 在美洲 而曰自某年 有寄「丹心韓日月・白骨漢山川・卸却人間事・今朝獨立年」之詩之後 音信遂斷 此恐吾兄最後絕筆也 然不敢以是遽斷 先生已去斯世 而至于今 所謂某年者 旣又幾年 而先生之年 已九十有五 殆近百歲矣 使先生而尙存 以先生之名在天下 而必無若是其無從聞耗之理 如誠不諱 而迄尙無所來食焉 是豈一日可安於懷者哉 爲 是 哲嗣奎甲 以其痛迫不得已之情 而思欲設一壇於其先妣鄭孺人之墓之近偏 因共修歲事之時 而得并祭先生於其壇 就余爲謀 因屬其壇碑之文 嗚乎 先生早以學問文章 負盛名於南中 而不幸值國淪喪 遂之海外 而圖興復之事 盡瘁一生 及夫山河再造 則不得於與樂其成 天下有心之人 其有不爲先生哀之者哉 或有謂先生之於當日 如惟自靖而不爲出焉 則以一代之儒宗 而嘉惠於後學 當尤鉅也 此固愛慕先生之至 而惜先生之 不自求安也 非有他也 顧猶有可辨者在 蓋殷之三仁 爲仁則 同 而其跡不同 儒行十五 儒爲儒則一 而其趨不一 士之在彼時也 其處而自靖 固不害於爲義 然國之存亡 耕夫紅女 亦皆有責焉 而爲士者 獨可以一趨於潔身貞隱而絕不得爲救國積極之事也乎 況吾邦本以儒術養成人材 而民族義舉 莫烈於己未唱獨 其所倡先 未見一以儒爲名者 後惟巴里長書一舉 乃僅出自儒者耳 幸有先生起於嶠南 而先生義故申丹齋先生 起於湖西 與之翱翔遠域 俱盡其形壽於族邦大義之事之中 於是 而儒者亦不至無所名於天下後世矣 然則先生之有光吾儒而 嘉惠後學 實爲至鉅矣 何必堅坐臯比 而親詔之而後 始可

爲師耶 既以謹書其事 乃系之以一詩顧於先生在天之靈 其辭曰
 三千疆土此盡頭 七百里江海接流 玉山秀當江海喉 盤鬱千載淑氣浮 大人
 天來此中投 德徽文采俱炳彪 早年聲望莫與儔 壯懷激烈賦遠遊 并力群豪
 與逗遛 大事將集身便休 韓漠同壤但路悠 白骨青山聽歸留 胞弟亦曾滯美
 洲 孔懷深情久鬱幽 帝鄉同歸更何憂 靈無不之況吾州 縱未同穴壇其丘 猿
 鶴盟存若相求 萬衆歸向爭拭眸 歲時馨香虔共修 何限千春復萬秋

大韓光復己酉三月 穀雨節 漢山 後學 安朋彦 謹撰 并書



(비움)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되었을 때 중국에 있던 임시정부의 여러 요인들이 모두 즉시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남강 조선생만은 유독 돌아오지 않았다. 물어보니 선생이 일찍이 만주로 간 뒤로 자취를 찾을 수 없는데, 아마 이미 죽었으리라고 한다. 선생의 중제(仲弟)인 해선(海仙)선생은 미국에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어느 해인가 ‘일편단심은 조국의 일월에 불이고, 백골은 중국의 산천에 묻노라. 이제 인간사를 풀어놓나니, 오늘 아침이 독립한 날일세.’라는 시를 붙여온 뒤로 소식이 두절되었지. 이는 아마 형님께서 마지막으로 절필하신 글이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감히 이것으로 선생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까지 이른바 ‘어느 해’라는 것도 지나간 것이 몇 년이니 선생의 나이가 벌써 95세로 거의 100살에 가깝다. 또 선생께서 아직 살아 있다면, 선생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니 분명 이렇게 소문의 흔적조차 없을 리가 만무하다. 만약 참으로 말못할 일을 당하였는데도 귀신이 찾아와서 먹을 곳이 없다면, 어떻게 하루라도 마음에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공의 아들 규갑(奎甲)이 괴로워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어머니 정유인(鄭孺人)의 묘소 가까이 제단을 설치할 것을 생각하고, 시제를 지낼 때 아울러 그 제단에서 선생의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나에게 와서 의논하고 아울러 제단의 비문을

요청하였다.

아! 선생은 어려서부터 학문과 문장으로 자부하여 남쪽에서 명성을 떨쳤었는데, 불행히도 나라를 잃게 되자 결국 해외로 나가 다시 국권을 회복할 일을 도모하는데 일생을 다 바친 것이다. 이제 조국의 산하가 다시 회복되었건만 그 완성을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니, 세상에 감정을 지닌 사람이라면 선생을 위해 애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혹 선생께서 그 당시에 오직 스스로 자정(自靖)하시어 나서지 않으셨다면, 한 세대의 유종(儒宗)이 되시어 후학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참으로 선생을 애모하는 것이 지극하여 선생께서 스스로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셨음을 안타까워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래도 변론할 말이 있다.

대개 은나라의 세 인자(仁者)⁵²⁾가 인을 행하는 것은 같아도 그 행적은 같지 않다. 유자(儒者)의 행실이 열다섯 가지⁵³⁾로서, 유자가 되는 것은 한 가지이지만, 각자 나아가는 것은 하나가 아닌 것이다. 선비가 저 시대에 있어서 자정하는 것으로 처신하면 분명 의를 행하는 데 해가 되지는 않겠지만, 나라의 존망에는 농부든 기생이든 모두 책무가 있는 법인데, 선비가 유독 몸을 깨끗이 해서 깨끗하게 은둔하는 것으로만 나아가 전연 나라를 구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물며 우리나라는 유학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민족의 의거로 가장 뜨거웠던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때 앞장서 선도한 사람 가운데 유자로 이름을 내건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뒤에 오로지 파리장서 사건이 겨우 유자들에 의해 일어났을 뿐이다.

다행히 선생은 교남(嶠南)에서 일어났고, 선생은 고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이 호서(湖西)에서 일어난 것을 의롭게 여겨, 함께 먼 지역에까지 가서 모두 겨레의 대의를 위한 일에 목숨을 다하였다. 이에 유자들도 또한 천하 후세에 이름을 바가 없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생께서 우리 유학을 빛내고 후학들에게 은혜를 남긴 것이 실상 지극히 큰 것이다. 하필 가르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앉아 친히 깨우쳐 준 뒤에야 스승이라고 하겠는가? 벌써 삼가 그 사실을 기록하였고, 이어 시 한 수로 하늘에 계시는 선생의 영혼께 외쳐본다.

52) 삼인(三仁) : 고대 중국 은나라 주왕(紂王)대에 현신(賢臣)인 미자(微子)·기자(箕子)·비간(比干). 주왕의 폭정에 대해 미자는 은나라를 떠나버렸고, 기자와 비간은 간언하다가 비간은 처형되고, 기자는 하옥되었다가 거짓 미친 척하여 옥을 당했다고 한다. (<논어·미자(微子)>)

53) 유행십오(儒行十五) : <예기·유행(儒行)>에 제시된 유자로서 지켜야 할 15가지 행실을 가리킨다.

삼 천년 강토가 끝나는 이곳,
 칠 백리 낙동강이 바다로 흐르는데,
 강과 바다의 인후(咽喉)에 옥산이 빼어나서,
 천년동안 울창히 서려 맑은 기운 감도네.
 대인께서 하늘로부터 이 곳으로 떨어지니,
 아름다운 덕 고운 문채 모두 밝게 드러났네.
 어릴 적엔 그 명성이 짝할 사람 없더니
 자라서는 격렬한 마음 품고 먼 곳으로 떠돌았네.
 여러 호걸들과 힘을 합쳐 함께 머물고
 큰 일 장차 이루어질 무렵 몸이 쉬었네.
 한국과 중국은 같은 땅, 길이 멀어서
 청산에 백골 되어 가는 대로 머물렀네.
 같은 어머니의 아우도 미주에 머물러
 형제간의 지극한 심정 오랫동안 답답했네.
 저 세상 같이 가면 다시 무엇 근심하랴
 영혼은 못 갈 곳 없으니 우리 땅인들 못 오랴.
 같은 무덤에 안 묻혀도 그 언덕에 제단을 만들었네.
 원학(猿鶴)의 맹세를 지켜 서로 찾으리니
 수많은 사람들 돌아와 다투어 눈 닦고 보리라.
 세시(歲時) 때면 향 피워 경건히 모시어
 천 년 또 다시 만 년 한정 없으리.

대한광복 기유년(1969) 3월 곡우절 한산 후학 안봉언⁵⁴⁾ 삼가 짓고 씀.

54) 안봉언(安朋彦) : 1904~1976. 자 장유(長兪), 호 육천(育泉), 김해 진례 곤법리(昆法里) 출신이다. 눌재(訥齋) 김병린(金柄璘)에게 사사하였고, 이학(理學)에 밝았다고 한다. 저술에 <대학도(大學圖)><육천집(育泉集)> 등이 있다.

16. 이조참판(吏曹參判) 문화(文化) 유공 묘(柳公墓)

贈吏曹參判文化柳公之墓

墓碣銘并序

匹夫而抗豕突之賊 一死而報君父之急 誓以必死 與城俱亡 苟非早辨熊魚志存社稷 則其孰能與於此哉 我東龍蛇之厄 尙忍言哉 八路魚肉 羣生波蕩 其有能犯凶鋒直向以禦者耶 矧又金官一路 當賊鋒初犯之路 蹂躪充斥 尤有甚焉 公以一布衣 奮不顧身 雪涕誓衆 竟以身殉之 其精忠偉烈 直與忠武李公·霽峯高公 同一義理 而表章之典 有所差殊焉 則志士之憾 顧當何如哉 公之十世孫興轍氏 携家藏短幅 示不佞而乞銘焉 則有非淺識蒙學所可承當 顧事契之重 不可以終辭 謹依家狀 撰次如左 公諱湜 字藥棲 文化人 左議政曼殊六代孫 文城府院君殷之五代孫 安襄公洙玄孫 府使贈領議政伯孫曾孫 中廟朝征倭功臣全羅水使號愼翁壙孫 考諱緒宗 官縣令 以明廟壬子正月十五日生公 壬辰四月二十日殉國 享年四十一 墓在府南台也面水塹山丙向原 衣履葬也 配尙州金氏節行莊 一聞變而死從 墓在府東下東面蒜山子坐之阡 生一子秀弘 是生四男 長英漢 次英湖 武萬戶 英洛·英汶 英漢生二男 時春·時泰 英湖生五男 時柱·時楨·時樑·時楫·時檀 英洛生二男 時栻·時楹 英汶生三男 時樞·時梓·時相 曾玄以下不錄 嗚乎 公以貞純之姿·慷慨之志 當國家中否之運 始賊兵之渡月堂津也 公慨然長歎 曰吾家世受國恩 豈可坐而待亡 遂與伯兄訣 率家僮入府 則府使徐禮元 已赴晉陽軍矣 遂與宋公賓·李公大亨·金公得器 撫慰士卒 曰主倖雖去 吾四人在 願一心報國 無或撓心 衆咸曰諾 已而 賊壅水上流 城中病渴 不得飲 皆言出降 公立斬言降者 一隊 軍中肅然 公於客舍階前 掘地得井 揚水示賊 賊以爲神 凡七晝夜 勤守 衆情恃而爲賴 賊相謂 曰此城中 必有能者 是日 賊刈麥 與城齊 遂攔入 公拔劍在前 手殺數百級 而賊勢漸熾 知事不濟 乃與

宋李金三公 就殿牌下 號天痛哭 北向拜闕 罵賊不屈而死之 卽四

月二十日也 客館階下井 至今名爲柳公井 亂靖後 事聞于朝 贈兵議 今上辛未 府使鄭公顯爽 閱府誌 以柳公之見漏於忠祠 深致慨惜之意 請依晉州忠烈壇・東萊宋公壇之例 請于方伯 啓聞于朝 乃設四忠壇 與宋李金三公 每年殉節之日 士林俎豆之 其後甲申 加贈亞銓 亦異數也 系以銘曰

國勢中否 島夷內訌 勢若風雨
孰抗其鋒 公時奮袂 雪涕杖刃
之死靡他 與城以殉 烈烈之光
彌亘窮宙 築壇以享 塹山之右
一片麗牲 尙闕顯刻 今謀伐石
以表偉烈 我銘示後 俾垂千億

上之三十九年壬寅四月 日
前行義禁府都事 豐山 柳道獻 謹撰
大韓民國五十二年庚戌四月 日
廣州後人 安朋彦 謹書
十三世嗣孫 震五



(비음)

필부로서 달려드는 적들에 대항하여 한번 죽음으로서 군부(君父)의 위급함에 보답하고, 반드시 죽을 것을 맹세하여 지키던 성과 함께 죽음은, 참으로 일찍부터 의리를 분별하고 사직을 보존할 것에 뜻을 둔 이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가 임진년 왜란의 곤역을 당한 것을 차마 말로 할 수 있을까? 팔도가 어육(魚肉)이 되고, 술한 생령이 파탄에 이르렀으니, 흉악한 칼날을 범하며 곧바로 마주쳐 막아낼 자가 있었겠는가? 더구나 김해는

적들이 처음으로 공격한 길목으로 온통 유린당한 것이 더욱 심하였다. 이때 공은 한낫 포의(布衣)의 선비로서 자신의 처지도 보살피지 않은 채 일어나 눈물을 흘리며 군중들에게 맹세하고, 마침내 순절하고 말았다. 그의 한결같은 충성과 위대한 절의는 충무 이순신 공과 제봉(霽峯) 고정명 공과 함께 동일한 의리인데, 표창하는 전례에서 차이가 있으니, 지사(志士)들의 감개가 웅당 어떠하겠는가?

공의 10세손인 흥철(興轍)씨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짧은 문서들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여주며 비명(碑銘)을 지어달라고 하였다. 식견이 얇고 학문이 어두운 사람이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일이 중대한 것임을 알고는 끝내 사양하지 못하고, 가지고 온 행장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었다.

공의 휘는 식(湜)이오, 자는 약서(藥棲)로 문화(文化) 유씨이다. 좌의정을 지낸 만수(曼殊)의 6대 손이며, 문성부원군(文城府院君) 은지(殷之)의 5대 손이며, 안양공(安襄公) 수(洙)의 현손이며, 부사로 영의정에 추증된 백손(伯孫)의 증손이며, 중종 때 정왜공신(征倭功臣) 전라수사(全羅水使)로 호가 신옹(愼翁)인 용(壙)의 손자이며, 부친은 휘가 서종(緒宗)으로 현령을 지냈다. 명종 임자년(1552) 정월 15일에 공을 낳았고, 임진년(1592) 4월 20일에 순국하였으니, 향년 41세이다. 묘소는 김해부 남쪽 태야면(台也面) 수참산(水塹山) 병향(丙向) 언덕에 옷과 신발을 묻었다. 배필은 상주(尙州) 김씨인데, 그 절개와 행실이 장하여 공의 변고를 듣자 따라 죽었다. 묘소는 김해부 동쪽 동하면(東下面) 산산(蒜山) 자좌(子坐) 둔덕에 있다. 아들 수홍(秀弘) 하나를 낳았고, 그는 4남을 두었는데, 장남 영한(英漢)과 차남 무관 만호(萬戶)인 영호(英湖)와 영락(英洛)·영문(英汶)이다. 영한은 2남을 낳았는데, 시춘(時春)·시태(時泰)이고, 영호는 5남을 낳았는데, 시주(時柱)·시정(時楨)·시량(時樑)·시즙(時楫)·시단(時檀)이며, 영락은 2남을 낳았는데, 시식(時栻)·시영(時楹)이고, 영문은 3남을 낳았는데, 시추(時樞)·시재(時梓)·시상(時相)이다. 증현손(曾玄孫) 이하는 기록하지 않는다.

아! 공은 정순(貞純)한 자질과 강개한 뜻으로 나라의 비운을 맞이하였다. 처음 왜적들이 월당진(月堂津)을 건너왔을 때, 공이 개연히 길게 탄식하며, “우리 집안이 대대로 나라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앉아서 망하기를 기다릴 수 있겠나.” 하고 드디어 큰형과 작별한 뒤 집의 하인들을 거느리고 김해부로 들어갔다. 그러나 부사 서예원(徐禮元)⁵⁵⁾은 이미 진주의 군영에 가고 없었다. 그리하여 송빈(宋賓) 공과 이대형(李大亨) 공과 김득기(金得器) 공과 함께 사졸들을 위로한 뒤 “사또께서 비록 갔지만 우리 네 사람이 있으니, 일심보국(一心報國)하는 마음 행여 흔들리지 마라.”고 하니, 군중들이 모두 “좋다.”고 하였다. 이윽고 적들이 상류의 물길을 막아 성안

55) 서예원 : 1592년(선조25) 1월에 김해부사로 부임하였다.

이 갈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러자 모두 나가 항복하자고 하자 공이 항복하자는 자를 칼로 베어버리니 온 군대가 숙연해졌다. 공이 객사 계단 앞에 땅을 파니 우물이 생겼고, 물을 길어 적들에게 보이니, 적들은 신이라고 여겼다. 7일 낮 밤 동안 애써 성을 지키니 군중들이 믿고 의지하였다. 적들이 서로 말하길 “이 성안에 분명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하고, 이 날로 적들은 보리를 베어 성 높이만큼 쌓아 결국 밀고 들어왔다. 공이 칼을 뽑아 앞서서 손수 수백 명을 베었으나 적의 기세가 점차 올라 구할 수 없는 일임을 알고, 송·이·김공과 함께 전패(殿牌)⁵⁶⁾ 아래에 가서 하늘을 부르며 통곡한 뒤 북쪽으로 대궐에 절을 하고, 적들을 꾸짖으며 꺾이지 않고 죽었으니, 이 날이 곧 4월 20일이었다. 객관 계단 아래 우물은 지금도 유공정(柳公井)이라고 부른다. 난이 평정된 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져 병조참의에 추증되었다.

지금 주상의 신미년(1871)에 부사 정현덕(鄭顯德)⁵⁷⁾ 공이 부지(府誌)를 살펴보다가 유공이 충사(忠祠)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대목에서 매우 감개한 생각이 들어, 진주 충렬사(忠烈祠)와 동래 송공단(宋公壇)의 전례에 의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관찰사에게도 조정에 보고해 줄 것을 청하여 이에 사충단(四忠壇)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송·이·김 세 공과 함께 매년 순절한 날에 사람들이 추모제를 지낸다. 그 이후 갑신년(1884)에는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니, 역시 특이한 일이다. 이어 명문(銘文)을 쓰노라.

나라의 운세가 비운에 빠져
 섬나라 오랑캐가 침략하였네.
 형세가 마치 비바람에 쓸린 듯
 어느 누가 그 예봉에 대항하겠나.
 유공이 이 때 분발하고 일어나
 칼을 쥐고 눈물을 씻으며
 죽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읍성과 함께 순절하였네.
 공이 남긴 열렬한 빛은
 무궁한 저 우주에까지 비추이네.
 사충단 세워서 배향하니

56) 전패(殿牌): 조선 시대 각 지방의 객관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위패를 모셔놓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지방 관원들이 이곳에 조회하였는데, 이를 전패라 한다.

57) 정현덕 : 1810~1883. 자 백순(伯純), 호 우전(雨田). 1870년(고종7) 6월에 김해부사로 부임하여 1873년 12월에 이임됨.

그 곳은 참산(塹山)의 오른쪽이라.
희생물을 매는 한 조각 비석돌에
공적을 드러낸 비문이 없었는데,
이제야 계획하여 석재를 캐어
위대한 공훈을 표양하였네.
나 또한 명문 지어 후세에 보이니
천억 년 세월동안 내려가리라.

주상 39년 임인년(1902) 4월
행전의금부도사 풍산 유도현 삼가 지음
대한민국 52년 경술년(1970) 4월
경주후인 안봉언 삼가 씀
13세 후손 진오

17. 통정대부(通政大夫) 혜민원참서(惠民院參書) 낙거(洛居) 창녕(昌寧)
조공 묘(曹公墓)

通政大夫惠民院參書洛居昌寧曹公之墓

洛居曹公之歿 已七十八年 而尙闕羨門之表 哲孫溶煥・德煥 將營石儀 責示教旨挽祭等文 求余以銘 公卽我王考鳳亭公友壻 而稔聞其風節之概 豈以泙劣辭哉 公諱旼承 字景羲 洛居號也 昌寧氏 上祖于新羅太師諱繼龍 而軒冕勳業 大顯于羅麗 入本朝 上護軍諱傑 始入金海 至諱元海 遊寒岡鄭先生門 以文行 除東部參奉 三傳諱爾樞 號四友堂 享禮巖書院 於公爲六代祖 曾祖曰儀文 祖曰湜 考曰錫孟 妣曰居昌劉氏允珽女 生公于高宗甲戌十月八日 有穎悟才豪爽氣 上學不勞程督 藝業日就 長老咸以遠大期之 弱冠志氣卓犖 恒欲有所表顯於世 而不肯作鄉里拘儒軌 奮身戾京洛 光武四年 擢科爲通信司判任官 翌年春 任遷陵都監 六年陞通訓大夫惠民院參書官 同年十月 陞正三品通政階 盖自上所甄拔也 上命朝臣申正熙・金宗漢暨公三人 而擔改革政策 有五條 一曰選拔人材 二曰減均賦稅 三曰嚴立法權 四曰擴備軍警 五曰培養儒材 尋國是轉紊 外虞日迫 而五條之策 空言無施 廟堂專縻權位 防禦沒策 公與同僚 憂歎無意榮途 逮乙巳勒約之變 痛罵諸宰之媚賊 棄紱 筮遯于洛江之湄 扁楣以洛居 矢志自靖 至庚戌之無國 北望號哭 痛不自勝 其慷慨憂憤之積于中者然也 公夙抱偉器 一躡雲衢 若將大需 而遭時板蕩 無以展所蘊 然能辦自靖 毫不染世之污穢 其志義風節 可以有辭於後世者也 自是杜門絕交遊 不屑汗漫吟著 每清夜 誦離騷 音韻淒切 顧以忠憤攸激 積痞轉劇 不幸短壽於四十二乙卯八月十七日卒 葬駕洛德島山甲坐原 三配淑夫人金海許氏煥女 淑夫人廣州安氏驥 重女 俱早歿 同公墓右雙封 淑夫人清州宋氏殷昊女 貞淑有起家之功 以五十一歲乙亥七月十五日卒 別葬于德亭案山午坐原 一男秉洵 女適張斗赫 孫男溶煥・德煥・圭崇・民虎 長房出 圭正・

圭喆・準基 次房出 胄玄孫日鉉 銘曰

弱冠釋褐 躡雲衢也 瑚璉之材 擢庸優也
山河異昔 帶慘愁也 遐邇洛湄 伴彼鷗也
挽河難洗 邦國羞也 櫟樟中摧 奄九幽也
志義風節 迥無儔也 揭辭阡道 眎千秋也

隆熙紀元後八十六年壬申三月 立

完山 李雨燮 謹撰并書

(비음)

낙거(洛居) 조공이 죽은 지 이미 78년인데, 아직도 묘소의 표석이 없다. 총명한 손자 용환(溶煥)과 덕환(德煥)이 장차 묘소에 석물들을 갖추고자 교지(敎旨)와 만장(挽章)과 제문(祭文) 등의 글을 갖고 와서 보이며 나에게 묘비명(墓碑銘)을 요청하였다. 공은 곧 내 조부 봉정공(鳳亭公)의 동서여서 그의 품모와 절의에 대해 익히 들었는데, 어떻게 줄릴하다고 사양하겠는가?

공의 휘는 민승(旻承)이요, 자는 경희(景羲)이며, 낙거는 그의 호이다. 창령조씨는 위로 신라의 태사(太師) 휘 계룡(繼龍)을 조상으로 하는데, 우뚝 높은 공훈과 업적이 신라와 고려 때에 크게 알려졌다. 본 조선에 들어와서 상호군(上護軍) 휘 걸(傑)이 비로소 김해로 들어왔고, 휘 원해(元海)⁵⁸⁾에 이르러서는 한강(寒岡) 정구(鄭述) 선생의 문하에서 배워 문행(文行)으로서 동부참봉(東部參奉)에 임명되었다. 삼대 아래로 휘 이추(爾樞)⁵⁹⁾는 호가 사우당(四友堂)으로 예암서원(禮巖書院)에 배향되었는데, 공에게 6대조가 된다. 증조는 의문(儀文)이요, 조부는 식(湜)이며, 아버지는 석맹(錫孟)이다. 어머니는 거창 유윤정(劉允珽)의 딸이다. 고종 갑술년(1874) 10월 8일에 공을 낳았다. 빼어난 재능과 시원한 기상이 있었으며, 학문을 익힘에 과정을 수고롭게 독려하지 않아도 재주와 학업이 날로 성취되어 어른들이 모두 원대(遠大)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약관(弱冠)의 나이에 지기(志氣)가 아주 높아 항상 세상에 드러내는 바가 있고자 하였으며 향리에서 구차하게 법도에 얽매이는 유자(儒者)의 전철을 따르지 않으려

58) 조원해 : 1546~1632. 자 기지(器之). 정구(鄭述)의 문인.

59) 조이추 : 1661~1707. 성리학자. 자 원경(元卿), 호 사우당(四友堂)

고 하였다. 그리하여 몸을 일으켜 서울로 갔으니, 광무 4년(1900)에 과거에서 발탁되어 통신사 판임관(通信司判任官)이 되었고, 이듬해 봄에 천릉도감(遷陵都監)⁶⁰에 선임되었으며, 광무 6년에는 통훈대부(通訓大夫)⁶¹ 혜민원(惠民院)⁶² 참서관(參書官)에 승격되었다. 같은 해 10월에 정3품 통정(通政)⁶³의 위계에 올랐으니, 이는 대개 주상께서 발탁하신 것이다. 주상께서 조신(朝臣)인 신정희(申正熙)⁶⁴와 김종한(金宗漢)⁶⁵과 조공 세 사람에게 명령하여 개혁정책을 담당케 하시어, 다섯 조항을 마련하였는데, 첫째 ‘인재를 선발함’, 둘째 ‘부세를 감면 조절함’, 셋째 ‘법과 권위를 엄격히 세움’, 넷째 ‘군경(軍警)을 확충함’, 다섯째 ‘걸출한 인재를 배양함’이다. 그러나 국시(國是)가 어지러워지고 외세의 우환이 날로 압박해 들어와 다섯 조항의 정책은 시행되지 못한 채 공언이 되고 말았다. 조정은 오로지 권위의식에 매여 외세를 방어할 계획조차 없었다. 공과 동료들은 근심하고 탄식하며 영예로운 벼슬길에 뜻이 없었다. 을사년 늑약이 체결되는 변고를 당해서는 여러 재상들이 적에게 아첨한 것을 통렬히 비난하고는, 관복을 벗어버리고 낙동강가에 터를 잡아 은둔하고, ‘낙거’라고 편액하여 상실한 뜻을 스스로 다스렸다. 경술년 나라를 잃는 일을 당해서는 북쪽을 향해 통곡하며 괴로움을 스스로 이기지 못했는데, 그것은 비분강개한 감정이 가슴에 쌓였던 때문이었다.

공은 일찍이 빼어난 기량을 갖고 한번 벼슬길에 오르자 장차 크게 쓰일려고 할 때, 시대가 뒤집히는 통에 자신이 온축한 기량을 펼치지 못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잘 다스려 조금도 세상의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았으며, 그 지의(志義)와 풍절(風節)도 후세에 전할만 하였다. 이 때부터 문을 닫은 채 교류를 끊고, 시를 읊거나 저술도 달가워하지 않으며, 매번 맑은 밤이면 <이소(離騷)>⁶⁶를 외었는데, 음운이 처절하였다. 돌이켜보면 충심의 분노가 격동하여 병이 쌓이고 점점 악화되더니 불행히도 42세 되는 을묘년(1915) 8월 17일에 짧은 나이로 죽었다.

가락 덕도산(德島山) 갑좌(甲坐) 언덕에 장사지냈다. 세 분의 배필이 있었는데, 첫째는 숙부인⁶⁷ 김해 허환(許煥)의 따님이요, 둘째는 숙부인 광주 안기중(安驥重)의

60) 천릉도감 : 조선시대에 왕실의 묘소를 옮기는 일을 맡아보았던 임시 관청.

61) 통훈대부 :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

62) 혜민원 : 조선 고종 광무5년(1901)에 왕명으로 설치된 구휼기관. 속관으로 총재(總裁) 3인, 의정관(議政官) 5인, 총무(總務) 5인, 참서관(參書官) 3인, 주사(主事) 5인이 있었다.

63) 통정 :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

64) 신정희 : 1833~1895. 문신. 자 정보(正甫), 호 서암(恕庵), 본관 평산(平山). 저서로 <서암집(恕庵集)>이 있다.

65) 김종한 : 1844~1932. 문신. 자 조경(祖卿), 호 유하(游霞), 본관 안동.

66) 이소 :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의 대부 굴원(屈原)이 소외된 자신의 억울한 심정과 국왕에 대한 충심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 노래한 시.

67) 숙부인 : 조선시대 정3품 당상관인 문무관료의 처에게 주었던 위호(位號).

따님인데,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공의 묘소 오른쪽에 쌍봉으로 같이 모셨다. 숙부인 청주 송은호(宋殷昊)의 따님은 정숙하여 집안을 일으킨 공로가 있다. 51세 되는 을해년(1935) 7월 15일에 죽었는데, 따로 덕정(德亭) 안산(案山) 오좌(午坐) 언덕에 장사하였다. 아들 하나는 병순(秉洵)이고, 딸은 장두혁(張斗赫)에게 시집갔다. 손자 용환과 덕환, 규승과 민호는 장방(長房)에게서 났고, 규정과 규철과 준기는 차방(次房)에게서 났으며, 종현손은 일현이다.

약관의 나이로 벼슬에 올라, 관직을 두루 밟았었네.
호련(瑚璉)⁶⁸⁾같은 인재로서, 발탁 등용됨에 넉넉하였네.
산하(山河)가 어제와 달라지니, 서글픈 근심만 가득하여
멀리 낙동강 가에 은둔하니, 저기 갈매기와 어울렸다네.
강물을 당겨와도 씻기 어려운 것은 이 나라의 수치라네.
녹나무 중도에 좌절되어, 문득 저 세상으로 가버렸네.
공의 지의(志義)와 풍절(風節)은 아득하여 짝할 사람 없으리.
가시는 길에 이 글을 걸어두어 천추의 훗날에 보여주리라.

윤희 기원후 86년 임신년(1992) 3월에 세움.

완산 이우섭 근찬 병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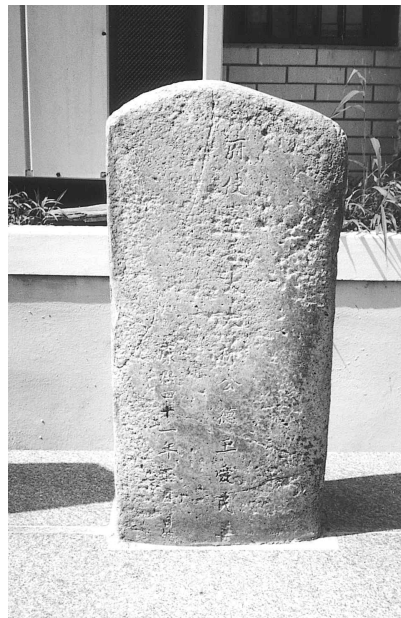
68) 호련 : 옛날 종묘제례 때 곡식을 담아 바치던 옥으로 장식한 그릇으로, 그릇 가운데 귀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일찍이 공자의 제자인 자공(子貢)에 대해 공자가 호련에 비유하여 자공의 됃됨이를 논평한 바있다. <논어·공야장(公冶長)> 참조.

18. 부사(府使) 가선대부(嘉善大夫)⁶⁹⁾ 유덕옥(柳德玉)⁷⁰⁾ 애민선정비
(愛民善政碑)

府使嘉善大夫柳公德玉愛民善政碑

康熙四十一年正月 日

강희 41년(1702) 정월 일



69) 가선대부 : 조선시대의 문관으로 중2품 하(下)의 품계.

70) 유덕옥 : 1700년(숙종26) 8월에 부임하여 1702년 2월에 이임됨.

19. 가덕진(加德鎭)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⁷¹⁾ 한몽필(韓夢弼)
만세불망비(萬世不忘碑)

加德鎭行水軍僉節制使韓公夢弼萬世不忘碑

雍正十二年甲寅仲夏 日 立

옹정 12년 갑인년(1734) 5월 세움.



71) 수군첨절제사 : 조선시대 서반(西班牙) 종3품의 외관 관직. 각 도 수군절제사 관하에 있던 거진(巨鎭)의 장수로서 각 진(鎭)의 수군만호(水軍萬戶)를 관장하였다.

20. 관찰사 김상휴(金相休)⁷²⁾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金公諱相休永世不忘碑

觀俗宣化 遍及鹽民
一祛苦瘼 百姓其蘇

本島掾弊條目

蓋鹽丁之濫雜 專由於所任鹽民 故所任則永爲革罷 當初所任之弊 亦由於蒜倉監色 故使監色 另加察飭 而自後應下 則一從新板刻節目 以首鹽民舉行 且禁松摘奸之勿入島中 既有癸酉啓下節目 漕船與公船沙工及各軍廳掌務與御禁軍之勿侵鹽民 又有己卯節目 舟師軍之勿侵島民及沿江各邑執船弊之每歲關飭 又有前後題節 而至乃咸使矯揉而永遷 故爰刻于石

道光四年甲申二月 日 立



풍속을 살피어 덕화(德化)를 베푸시니
그 은혜 염민(鹽民)들에게 두루 미쳤네.
한번에 고달픈 폐막을 없애주시니
백성들 이제야 다시 살았네.

(비음)

본 섬의 폐단을 구제하는 조목

대개 염정(鹽丁)에게 함부로 잡역을 부과하는 것은 오로지 소임염민(所任鹽民)에게서 비롯된다. 그래서 소임은 영원히 혁파하노라. 당초 소임의 폐단은 또한 산창(蒜倉)⁷³⁾의 감색(監色)⁷⁴⁾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감색에게는 별도로 찰칙(察飭)을 더하여, 이 후로 경비의 지출은 하나같이 새로 판각한 절목(節目)에 따라 수염민(首鹽民)이 거

72) 김상휴 : 문신. 자 계용(季容), 호 초천(蕉泉), 본관 광주(光州). 1822년(순조22) 2월 경상도관찰사가 되어 1823년 12월에 도총관으로 옮겨감.

73) 산창 : 蒜山倉. 김해부 동쪽에 있는 영창(營倉)이다. 고종 광무원년(1897)에 폐지하였다.

74) 감색(監色); 감독관인 감관(監官)과 담당 관리인 색리(色吏).

행토록 한다. 또한 금송(禁松)을 적간(摘奸)하는 자가 섬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계유년의 계하절목(啓下節目)⁷⁵⁾에 이미 있고, 조선(漕船)과 공선(公船)의 사공과 각 군청(軍廳)의 장무(掌務)와 어금군(御禁軍)의 선발에 염민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은 기묘년 절목이 있고, 주사군(舟師軍)⁷⁶⁾들이 섬사람을 침범하지 말 것과 강변 각 읍에서 염선을 붙잡는 병폐에 대해서는 매해 보내는 관칙(關飭)과 전후의 제절(題節)에 마련되어 있다. 이에 모두들 잘못을 바로잡아 길이 바꾸었으므로 이에 비석에 새겨두노라.

도광 4년 갑신년(1824) 2월 세움.

75) 계하절목 : 임금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公事)에 대한 관청의 규정.

76) 주사군 : 수군(水軍)을 일컫는 말.

21. 관찰사 홍재철(洪在喆)⁷⁷⁾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洪公在喆永世不忘碑

捐金三千 歲掇鹽民
於千百歲 片石堪言

粵在 英廟乙丑年 公鹽設始之初 七十二釜之鹽田 漸縮爲三十七釜 而況今柴政 其貴如金 年例納公鹽三千石 每石元本價 一兩五錢 合四千五百兩 外壬子年所創每石柴價五錢 合一千五百兩 庶幾乎萬一之補云爾 又我巡相國 按南之越明年辛丑秋 當捧鹽一千石 每石十兩式 添補柴價 而一千兩 登先劃下 春等鹽二千石 柴價二千兩 已是應行之例也 然則每年三千兩矯掇 前數百年所未有之惠 後幾百年所不朽之澤 是以被之不朽者石

崇禎紀元後上之八年辛丑十月 日 立

都監 幼學 金鴻運 謹序

幼學 崔正麟 謹書

有司 幼學 金應倬

삼천냥의 자금을 출연하시어

염민(鹽民)들의 어려움을 구해주셨네.

천년 백년 후에까지

한 조각 비석은 전해주리라.

(비음)

영조 을축년(1745)에 처음 공염(公鹽)을 설치하였을 때 72개의 솥을 건 염전을 두었는데, 점차 축소되어 37개의 솥만 남았고, 게다가 지금 땀값이 귀하기가 금과 같다. 연례로 공염(公鹽) 3천석을 바치는데, 한 석의 원가가 한 냥 5전이니, 합 4천 5백

77) 홍재철 : 자 치경(稹敬), 호 취구(醉裘), 본관 남양(南陽). 1840년(헌종6) 9월에 경상도관찰사에 부임하여 1842년 4월에 이임됨.

냥이고, 그 외 임자년에 정한 한 석의 땀감 값이 5전으로, 합이 천 오백 냥이지만 거의 만에 하나 정도 채울 뿐이라고 한다.

우리 관찰사께서 남쪽으로 오신 이듬해 신축년(1841) 가을에 걷어야 할 소금 1천 석을 매 석당 열 냥으로 땀감값을 보태어 채워주되 1천 냥을 먼저 내려 주시며, 춘등염(春等鹽) 2천 석에 땀감값 2천냥을 응당 시행할 전례로 만드셨다. 그래서 매년 3천냥으로 바로잡아 주셨으니, 이전 수백년 동안 없었던 은혜요, 뒤로 몇 백년 동안 썩지 않을 은택이다. 그러므로 썩지 않을 돌에 새겨 둔다.

송정 기원후 주상 8년 신축년(1841) 10월에 세우다.



22. 절제사(節制使)⁷⁸⁾ 오신묵(吳信默)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節制使吳侯信默永世不忘碑

甲子秋 莅茲戰艦 山祭鐔斂 自備刷納□弊 變通除革 漁基還舊
公廨重修 軍器別備 各廳各洞 捐銅球瘼 逮于丙寅 民借虛留 自
營啓聞 特蒙加一蒞之恩命 丁卯戊辰 兩闡繡啓 己巳四月 移拜□
川 弘功懋績 石面磨鐫

崇禎后五己巳五月 日 軍民等立



(비음)

갑자년 가을 이 곳 전함으로 부임해 오시어, 산제(山祭) 올려 세금을 줄이고, 스스로 비축하여 채납하니, 폐단이 변통되고 고쳐져, 어장 터는 옛날처럼 되돌리고, 관청 건물도 중수(重修)하였으며, 군기(軍器)도 따로 마련되었다. 각 청(廳)과 각 동(洞)에도 돈을 출연하여 폐막을 구제하였다. 병인년에는 도민들의 장부에 실린 공연한 부채를 수영에서 장계를 올려 보고하게 하여, 특별히 한번 더 연임되는 은혜를 받았다. 정묘년과 무진년에는 어사의 보고에 두 차례 올랐으며, 기사년 4월에 □천으로 옮겨가셨다. 크신 공로와 위대한 공적을 비석 표면에 갈아 새겼네.

승정 기원후 다섯 번째 기사년(1869) 5월 군과 도민들이 세우다.

78) 절제사 : 조선시대에 거진(巨鎭)에 임명된 정3품의 무관.

23. 절제사(節制使) 이우성(李雨成)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節制使李侯雨成永世不忘碑

莅鎮一周 光正百揆
捐贖資賑 蠲斂減需
龜翁餘德 築老遺治
弘功懋績 石面去思

光緒十二年三月 日 軍民等立



진영에 부임한 지 일년만에
공명정대히 모든 것 바로잡았네.
녹미를 털어서 진흙에 쓰게하고
세금을 덜고 비용을 줄이셨네.
구옹(龜翁)의 남은 덕성이요
축로(築老)의 남긴 정치로다.
크신 공로와 위대한 공적은
가시어도 비석은 생각하리라.

광서 12년(1886) 3월 군과 주민들이 세우다.

24. 절제사(節制使) 이두용(李斗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節制使李侯斗鎔永世不忘□

公來何暮 邊陲日新
捐廩補弊 推恩養民
千家活佛 一島陽春
山鬼功德 石面磷磷

光緒十五年己丑九月 日 軍民等立



공께서 오시는 게 왜 이리 늦으셨나
바닷가 변방이 날로 새롭네.
창고를 열고 폐단을 고치시며
은덕을 베푸시어 민생을 기르시네.
모든 집마다 활불(活佛)이시오,
온 섬에 봄별 따뜻하다.
산처럼 높으신 그 공덕이
비석 표면에 번쩍번쩍 빛나네.

광서 15년 기축년(1889) 9월 군과 도민들이 세우다.

25.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한미만(韓彌萬)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水軍僉節制使韓公彌萬永世不忘碑

26. …황여즙(黃汝楫) 청덕(淸德) 선정비(善政碑)

…黃公汝楫淸德善政碑

…色吏 鄭永□

…日立

(비음)

…색리 정영□

…일 세움.



27. 첨사(僉使) 오세언(吳世彦) 청덕비(淸德碑)

僉使吳公世彦淸德碑



28. …엄애졸(嚴愛卒)…

…嚴愛卒…



29. 광정대부(匡靖大夫)⁷⁹⁾ 첨의평리⁸⁰⁾ 상호군⁸¹⁾(僉議評理上護軍) 김원현
(金元鉉)⁸²⁾ 처(妻) 임해군대부인(臨海郡大夫人) 배씨묘(裴氏墓)

匡靖大夫僉議評理上護軍金元鉉妻臨海郡大夫人裴氏墓

玄孫 生員 係引

記事官 係熙

현손 생원 계인

기사관⁸³⁾ 계희



79) 광정대부 : 고려시대 문관 중2품의 품계.

80) 첨의평리 : 고려 충렬왕 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도성(尙書都省)이 병합되어 설치된 첨의부(僉議府)의 속관.

81) 상호군 : 고려 시대 2군(軍) 6위(衛)의 지휘관.

82) 김원현 : 자 원승(元升), 본관 김해. 1044년(정종10)에 문과 급제하고, 문종 때 양주방어사(梁州防禦使)를 지냄. 양주에 침략해 온 왜선 190척을 격파하여 양주고을에서 전승비를 세웠다. (양산 장충단에 있음)

83) 기사관 :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의 정6품에서 정9품까지의 관직명으로 주로 시사(時事)를 기록하는 업무를 맡았다.

30. 황고(皇考) 조산대부(朝散大夫)⁸⁴⁾ 청도군수(淸道郡事) 김순생 묘
(金筍生墓)

皇考朝散大夫知淸道郡事金筍生之墓

孝子 生員 係引

藝文檢閱 係熙

壻副丞 徐 混

효자 생원 계인

예문검열 계희

사위부승 서 혼



84) 조산대부 : 문관으로 종4품 상계(上階)의 품계.

31. 대저(大渚) 수리공사(水利工事) 기념비(記念碑)

大渚水利工事記念碑

慶尙南道 道知事 (……)
大正六年 一月起工
大正六年 七月竣工
蒙利地域 壹千九百七拾町步
總工事費 金貳十九萬三千圓
理事
技師
書記長



경상남도 도지사 (……)85)
대정 6년(1917) 1월 기공
대정 6년 7월 준공
이득을 입은 지역 1970정보
총공사비 금 293,000원
이사
기사
서기장

85) 일본인 도지사의 이름이 꺾여 나갔다.

32. 흥국사(興國寺) 중건(重建) 공로자(功勞者) 기념비(紀念碑)

興國寺重建功勞者紀念碑

檀紀 四二八九年

(비음)

단기 4289년(1917)



33. 이홍현(李弘鉉)⁸⁶⁾ 구휼기념비(救恤紀念碑)

李弘鉉救恤紀念碑

仁厚爲家 克追先志
屢捐糴藏 荐分田地
貧窮感恩 親戚悅義
萬口是碑 豈曰我里

氏現住 金海郡 長有面 元德亭里

金海郡 菴山面 元山陽里 一仝豎

大正十年辛酉正月十五日



인후(仁厚)하신 덕으로 집안을 다스리고

선조의 남긴 뜻을 힘써 추모하였네.

여러 번 출연하여 가진 것 말랐고

밭과 땅을 몇 번씩 나누었다네.

빈궁한 사람들 은혜에 감사하고

일가 친지들은 그 의리에 기뻐했네.

많은 입들이 바로 비석되었으니

어떻게 우리 마을만의 것이겠냐고.

(비음)

씨의 현거주지 김해군 장유면 원덕정리와

김해군 녹산면 원산양리에서 같이 세우다.

대정 10년 신유년(1921) 정월 15일

86) 이홍현 : 1867~1937. 자 덕첨(德瞻), 호 저은(渚隱), 본관 전주. 김해 장유면(長有面) 덕정(德亭) 출신. 흥년이면 곡식을 풀어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고 한다.

34. 사령부(司令部)⁸⁷⁾ 발상지(發祥地)

司令部發祥之地

明治 三十八年 四月 二十一日 編成下令
同年 五月 七日 外洋浦 上陸

昭和十一年六月建之

명치 38년(1905) 4월 21일 편성 명령이 내림.
같은 해 5월 7일 외양포에 상륙함.

(비음)

소화 11년(1936) 6월 세우다.



87) 사령부 : 가덕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해군사령부.

35. 남강(南岡) 조정환⁸⁸⁾ 선생(曹正煥先生) 구국기적비(救國紀蹟碑)

南岡曹正煥先生救國紀蹟碑



88) 조정환 : 1875~ ? . 자 의경(義卿), 호 남강(南岡), 녹산면(菴山面) 분절(粉切) 출생. 고향 옥산재(玉山齋)에서 수학하고, 밀양에서 소눌(小訥) 노상직(盧相稷)에게 사사하였다.

36. 유학(幼學)⁸⁹⁾ 이만영(李萬榮) 신작로(新作路) 기념비

幼學李萬榮新作路記…

瞻彼崔嵬 兩界衝要
巖崖傾仄 人馬顛倒
出捐千金 鑿成坦道
伊誰之力 萬口成碑

저 험준한 산을 바라보니
두 지역 경계짓는 요충지로다.
암석 벼랑 깎아지른 듯하여
사람과 말들이 미끄러져 넘어졌네.
천금의 자금을 출연하여
산을 깎아 탄탄대로 완성하였네.
이것이 그 누구의 힘이었던가
모두들 의견으로 비석 이뤘네.



89) 유학 :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통칭하는 말. 양반자손이나 사족(士族)의 신분임을 표시하는 마로도 쓰임.

금정구 금석문

1. 범어사(梵魚寺) 청룡암(靑龍巖)⁹⁰⁾ 시(詩) (I)

德水李居士 萊山晶上人
烟霞一古寺 丘壑兩閑身
掃石苔粘屐 觀松露墊巾
蒼崖百千劫 新什是傳神

萬曆己酉六月
東岳



덕수 사람 이거사
래산의 혜정상인
강호의 한 오래된 절에
산수 즐기는 한가한 두 사람
바위 밟으니 신발에 이끼 파랗고
소나무 보느라 두건에 이슬 젖는다
수만 겁 내려온 푸른 바위에
이제 새로이 문장을 새기네

만력 기유년(1609) 6월
동악⁹¹⁾

90) 청룡암 : 범어사 지장전 옆에 있는 큰 바위.

91) 동악 :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시인인 이안눌(1571~1637)의 호. 자는 자민(子敏), 본관은 덕수(德水),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1608년(선조41) 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609년(광해1) 7월에 파직됨.

2. 범어사(梵魚寺) 청룡암시 (Ⅱ)

石崖苔逕入烟霞
坐倚松根看夕暉
蜀魄一聲山寂寂
轉頭三十九年非

東谷
李子敏

바위 벼랑 이끼낀 길은 안개 속으로 접어들고
소나무 뿌리에 기대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접동새 우는 소리에 산사는 적막하고
돌이켜 생각하니 삼십구년 내 인생 어리석구나.

동곡
이자민

3. 열녀(烈女) 학생(學生) 김효문 처(金孝文妻) 김해 김씨(金海金氏)
정려비(旌閭碑)

烈女學生金孝文妻金海金氏之閭

乾隆五十四年己酉十月日立

건륭 54년 기유년(1789) 10월 세우다.



4. 금정산성(金井山城) 부설비(復設碑)

金井山城復設碑

萊之治 處東南海上 爲島夷路 東國之要衝 壬辰之變 城不守 泉谷宋公死之 遂長驅入域 搶攘殆六七年 若非神宗皇帝再造之恩 東土幾左衽矣 及其講和 守倭則以館而處 使价則以禮而享 此實聖化之綏遠 而含怨亦數百年 置守焉 廟剡而不用銓注 詰戎焉 設鎮而專制二邑 當初設施 非不威重 惟其城池之不固 未免有曩時之禍 可勝痛哉 府北之金井一山 據水陸咽喉 四面嚴阻 眞天設之險 必守之地也 在昔癸未 府使李公埜 始創山城於其上 周爲九千二百餘步 設施規模 屹然爲嶺海捍蔽 邊民恃而不恐 逮甲午 有以闊大爲言者 城遂廢 今爲九十五年 譙廨已虛 而圯堞只有形址 人莫不爲之嗟惜 上之六年丙寅 余守是邦 蓋嘗一登 周覽舊墟 彷徨之久 不能去 噫 今之府城 不過七里短堞 無險可恃 苟疆場有警 寧不凜然 昔子襄謀城郭 巫臣訓乘車 是知城郭不修以其地與敵也 士卒不鍊以其民與敵也 夫兵不可以不素養 城不可以不據險 軍旅亦不可一日去食 余於是念前人之遠慮 慨陰雨之無備 遂以一疏條陳于朝 一嚴邊禁也 二蠲軍布也 三選衛兵也 山城復築 卽其四也 既徹 俱蒙允可 而惟於築城條 特下道帥臣議久之 以便宜聞 三邑穀萬石之移作山餉 歲割二千緡之錢 限以二十年 助辦於三門廨廠及軍器守城之資者 道啓之所區劃也 東門之新建城堞之修築 本邑專當者 賤臣之疏請也 衛兵五百 先已簡取 創爲一營 勸以射放 教以親上 未暮而材可用 及至丁卯季秋 土木繼興 一月東門成 翌年孟春 運柱樑於百里 斷巉巖於崖巔 擔曳如雲 萬夫齊力 計百四十有九日 西南北譙樓成 設倉廩於四達之達 以均轉輸 導衆谷之奔流 以通江海 城起于平夷 止于山頂 橫亘三十二里 而功告訖焉 萊人之赴之者 莫不視爲依歸之所 樂趨勇往 其就也 若有神助 可見是役之成 成於衆心也 董事之

幕佐諸吏校 咸曰 記實不可闕也 余不能辭 遂略書其顛末如右云爾

崇禎紀元後 四戊辰 通政大夫 東萊府使 錦城吳翰源 撰並書

동래부의 관할 지역은 동남쪽 바닷가에 걸쳐 있어 섬오랑캐들이 들어오는 길이 되니, 우리나라의 요충지이다. 임진년의 변란 때 성이 지켜지지 못하고 천곡(泉谷)



송상현 공이 죽으니, 드디어 왜적들이 대대적으로 몰아 들이닥쳐 나라를 어지럽힌 것이 예닐곱 해가 되었었다. 만약 신종황제(神宗皇帝)⁹²⁾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 선비들은 오랑캐 복장⁹³⁾을 하였을 것이다.

강화를 맺고 난 뒤 관수왜(館守倭)⁹⁴⁾는 관사에 거처하게 하고, 사개(使价)는 예절로 접대하니, 이는 실로 성상(聖上)의 덕화가 먼 곳의 사람들을 회유하는 정책이지만, 원한을 품은 것도 또한 수백 년이 되었다. 이곳에 수령을 두는 데는 조정에서 정하되 전주(銓注)⁹⁵⁾를 거치지 않고, 군사일을 따지는 데에는 진영을 설치하여 두 고을을 전결하게 하였다. 당

초의 시설이 위엄있고 엄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다만 성곽과 못이 견고하지 못하여 지난날의 화를 면하지 못한 것이 통탄할 일이다.

동래부 북쪽의 금정산은 바다와 육지의 목에 틀어있고, 사방이 엄중하게 막혀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만들어준 험준한 곳이오,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다. 지난 계미년에 부사 이무(李棼)⁹⁶⁾가 그 위에 처음으로 산성을 창건하였는데, 둘레가 9,200여 보이다. 시설과 규모가 우뚝하게 영남 바닷가의 방패가 되어, 변방의 백성들이 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뒤 갑오년에 성이 너무 크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 결국 산성을 폐지하고 만 것이 지금까지 95년이 되었다. 초루는 이미 폐허가 되었고, 성가퀴는 단지 형적만 남아 사람들이 애석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다.

지금 주상⁹⁷⁾ 6년 병인년(1806)에 내가 이 고을의 태수가 되어, 일찍이 한번 이 산에 올라 옛터를 둘러보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방황하며 차마 떠날 수 없었다. 아! 오늘날 동래부의 읍성은 7리에 불과한 작은 성곽인데, 믿을 만한 험준한 곳이 없으니, 만약 국경에 경계해야 할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어찌 소름끼치는 일이 아니겠는가? 옛적에 자양(子襄)은 영(郢) 땅에 성을 쌓을 것을 계획하였고, 무신(巫臣)은 전차(戰車)타는 것을 가르쳤으니, 이로 보면 성곽을 수리하지 않는 것은 그 땅을 적에

92) 신종황제 : 중국 명나라 13재 황제. 연호는 만력(萬曆). 재위 기간은 1573년~1619년.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였다.

93) 좌임(左衽) : 왼쪽 옷깃을 오른쪽 깃 밑으로 넣어 입는 방식이다. 이는 북방 이민족들의 복식이라하여 야만 풍습을 상징하는 말이다.

94) 관수왜 : 조선시대에 왜관을 관리하던 왜인. 왜관 내에 출입하는 자를 검색하고, 잠상을 적발하며, 범죄를 저지른 왜인을 대마도에 통보하는 일을 하였다.

95) 전주 : 관리들의 인물을 평가하고 기록해 두어 등용에 참작하던 일.

96) 이무 : 문신. 1703년(숙종29) 4월에 부임하여 1705년 2월에 충청감사로 승직됨.

97) 지금 주상 : 순조를 가리킴.

게 주는 것이고, 병졸을 훈련하지 않는 것은 그 백성을 적에게 내어주는 것임을 알 것이다. 대개 병력이란 평소에 양성하지 않아서는 안되며, 성곽은 험준한 곳에 웅거하지 않으면 안되고, 군대에는 하루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이에 나는 옛사람들이 원대한 근심을 했던 것을 생각하고, 비가 내릴 때의 대비가 없음을 개탄하여 상소문을 지어 몇 가지 조목을 조정에 아뢰었다. 첫째는 변방의 금령을 엄중히 하는 것이요, 둘째는 군포를 덜어주는 것이고, 셋째는 위병(衛兵)을 선발하는 것이며, 산성을 다시 쌓는 것이 그 네 번째이다. 소를 올리자 모두 좋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다만 산성을 쌓는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에게 명령하여 충분히 의논하여 편의대로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세 고을의 곡식 1만섬을 옮겨 산성의 양식으로 삼고, 해마다 2천냥씩의 돈을 20년 기한으로 한정해서 지급하여 세 군문(軍門)의 건물과 군기(軍器) 및 성을 지키는 물자를 조달하는데 쓰도록 한 것은 도(道)에서 계획하여 품의한 것이고, 동문을 새로 짓고 성곽을 수리하는 것을 본 읍에서 전담하는 것은 내가 소청한 것이었다. 위병 5백 명을 먼저 선발하여 한 영(營)을 만들고, 활과 총 쏘는 것을 권장하며 임금을 섬길 것을 가르치니, 일년이 채 못되어 그 재능들이 쓸만하였다. 정묘년 늦가을에 토목공사를 잇달아 일으켜 한 달만에 동문이 완성되었고, 다음해 초봄에는 기둥과 들보를 100리 밖에서 옮겨오고, 벼랑 끝에서 험준한 바위를 깎아내어 지고 끌어당기기를 온 인부가 힘을 함께 한 지 149일만에 서남북의 초루(譙樓)가 완성되었다. 사방으로 통하는 길목에 창고를 시설하여 물자수송을 고르게 하였고, 여러 계곡의 물줄기를 이끌어 강과 바다로 통하게 하니, 성벽이 평탄한 곳에서 시작되어 산 정상에서 그치기를 가로로 32리에 다다르는 것으로 공사를 끝내었다. 동래 사람으로 부역한 사람들이 이 곳을 의지할 곳으로 여겨 즐거이 달려오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것이 이루어진 데에는 마치 신의 도움이 있는 듯하니, 이 역사의 성공은 여러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에 일을 감독한 막료들과 여러 교리들이 모두 말하기를, 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을 수 없다고 하여 내 사양하지 못하고 그 전말을 이와 같이 간략히 쓴다.

승정 기원후 네 번째 무진년(1808)

통정대부 동래부사 금성 오한원⁹⁸⁾ 짓고 쓰다.

98) 오한원 : 1806년(순조6) 2월에 부임하여 1809년 2월에 이임됨.

5. 조정언비(調井堰碑)

調井堰碑

府北調井員 有石田坪 嘆乾故曰石田 粵丙寅春 故鄉人文應彬・宋頤後 與同里姜待文・孔仁得・劉兌燮・趙完珪・姜雲文・李有大 相堰基而買土呈□ 官司而得丁 且疏且築 周回四百把 冗費二百緡 蓋役鉅而費少者 以其董役之方便也 堰下水田四百斗落 昔旱今沃 民蒙其利 文宋二公之遺澤 奚啻口碑而止 咸願記實永圖不朽 今來請余文者 幹事人朴乃英也

崇禎四丁亥 端陽 幼學 文禹海 識

幼學文道彬書

都監 幼學 文萬彬 □相標石役

□任 姜昌文 金光玉

首作 崔光仁 金光祿



동래부 북쪽 조정원(調井員)에 석전(石田)이라는 별판이 있는데, 땅이 습기 없이 말라있기에 석전이라고 하였다. 지난 병인년 봄에 이곳 사람 문응빈(文應彬)과 송이후(宋頤後)가 같은 동네의 강대문(姜待文)・공인득(孔仁得)・유태섭(劉兌燮)・조완각(趙完珪)・강운문(姜雲文)・이유대(李有大)와 함께 방죽터를 골라 땅을 사들여 바쳤다. 이에 관청에서 말아장정을 구해서 물길도 띄고 독도 쌓았는데, 둘레가 사백발이 되었다. 들어간 비용이 200페미나 되었으니, 공사는 크지만 비용이 적게 든 것은 공사를 감독하는 방편 때문이었다.

방죽 아래에 논이 사백 마지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가물었던 것이 지금은 비옥하니, 민가에서 그 이익을 본 곳이다. 이는 문응빈과

송이후 두 공이 남긴 은택이니, 어찌 입으로만 전하고 말 것인가? 모두들 사실을 기록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였다. 지금 나에게 와서 글을 청하는 이는 일을 맡아보고 있는 박내영이라는 사람이다.

(비음)

송정 기원후 네번째 정해년(1827) 단오절 유학 문우해 지음.

유학 문도빈 씀.

도감 유학 문만빈이 표석을 세우는 일을 살핌.

□임 강창문 김광옥

수작 최광인 김광록

6. 범어사(梵魚寺) 사적비명(事蹟碑銘)

梵魚寺事蹟碑銘

慶尙南道東萊郡金井山梵魚寺事蹟碑銘并序

山頂有井 昔游異魚 其來梵天云 而井光金色 盖山名金井・寺號梵魚者 其以此也 敎主千六百八十二年乙卯 新羅武烈王二年 島夷犯國境 王大憂 義湘大師 自太白來 住茲山 卽以法力却之 王大喜 遣平章事柳春雨等 勅茲寺 而先造彌勒像 建二層殿 以鎮重要之地 殿之西 立毘盧殿 安毘盧尊像 其東置大藏閣 藏八萬大經 其餘各佛像・石塔・法殿・鼓閣・鍾樓・石燈・神壇・四十法體・四天王閣・三十三層鐵幢・三百六十寮房・三百六十結菴・百戶奴婢 且無量什物之設施張大 詳載於創寺記也 想象當時 固爲東巨刹也 盖王之向佛之誠 因師而深也 師之演化之機 由王而發也 自此而茲寺之福利於人世者 盛矣 道師不繼 世情多變 所以高麗漢陽以來 其不無興廢之事 而無文可考者 二千六百十九年 壬辰李朝宣祖二十五年 兵火燒盡也 經劫餘 衆小規結構 只守空墟 過十年壬寅 住持妙全與玄鑑戒環 創大雄殿 忽一日 佛面小露於庭畔 卽開灰土侍出 乃昔造彌勒像也 其猛火裏無傷 今彌勒殿背東而坐是也 壬寅後五十六年戊戌 孝宗九年 重建大雄殿 印堅・順湜・摠悅・海寬・戒環 傾橐而出資 再默・覺敏 以均募緣而鳩財 用之不足 故自判廳出錢 而最善・大弘・最大 另力也 戊戌後四十一年己卯 肅宗二十五年 自脩・釋瓊・文印・明學 勅普濟樓 巡相李公・節度使李公 并爲檀越也 其他聖殿香閣等 且清豐・尋劒・圓應・安心・含弘・解行・枕溪・金堂八房 其重脩有功之人與其年代 各有其記 姑不更舉 獨解行一房 最善治產 間年出菴與金米 補寺補庵 多大特保此寺者 卽甲稷也 盖斯稷也 不知始於何時 而其爲公之誠・同勞之義 眞學佛之心也 其李朝斥佛之時 隱於深山 措年是難 若非斯稷之力 安有保存之道哉 二千九百三十二年乙巳 高宗光武九年 重建八相殿 繪畫諸聖像 混海・鶴庵二師

同幹其事也 現有九庵 極樂・大聖・金剛・獅子四庵 其創時不知 而極樂 海城師極力補守 大聖 蔚庵師大有功 金剛 永明師永堅固也 二千七百十一年甲子 肅宗十年 信珠師 勑青蓮 過二十九年癸巳 首座禪識施者金致鳴 創安養 此後三十年癸亥 英宗十九年 信珠又與攝揔等 勑內院也 元曉・鷄鳴 與寺同時 而元曉之中間移建 無徵其何年何人之事 然改建脩繕之功 錦海・應虛二師最也 鷄鳴房 已火 獨有二首石鷄伏東邊 二千九百二十年癸巳 高宗三十年 雨華・金峯兩長老 混海講伯 浚舊而加新 額鷄鳴庵也 按任事改革 踞今三百二十一年前 以住持 百八十年前 爲僧統 三十二年前 爲總攝 而禮峯師先被任也 十六年前 攝理 而擎山師任其任也 十三年前 還爲住持 住持惺月禪師 藤巖・湛海・晦玄・鶴庵・擎山諸師 勤於寺事 而尊崇禪法 衲子雲集 金井一局 遂爲禪刹本山 鍊道說法 無日不然也 曾於茲山 如靈源祖師・朗伯大師等諸偉人之爲道爲世之高慧淨行 多有口傳而文傳見失 是甚遺憾也 時住持湛海禪伯 同大衆之意 現寺蹟立石 而求余文以爲銘 銘曰

法力驅夷	君王檀越	寶殿雲臺	備體兀兀
擊大法鼓	燃大法燈	衆生緣淺	道師難承
麗代李朝	幾見興替	龍蛇之災	寺運大滯
自此十年	創者稍有	起寺建庵	隨時承後
道場清淨	普聞世間	衲子雲集	禪刹本山
明眼大德	踵武相連	開堂普說	於千萬年

敎主二千九百五十年癸亥八月日

牛頭山人 南泉 翰奎 撰而書

금정산의 정상에 우물이 있는데, 옛날 그 곳에 이상한 물고기가 놀았다. 그 물고기는 범천(梵天)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물에는 금빛이 났다. 대개



산의 이름을 금정산이라 하고, 절을 범어사라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불기 1682년 을묘년 신라 무열왕 2년(655)에 대마도의 왜적들이 국경을 침범하여 왕이 크게 근심하고 있던 터에 의상대사가 태백산으로부터 이 산으로 와서 머물다가 법력으로 적을 물리쳤다. 왕이 크게 기뻐하여 평장사(平章事) 유춘우(柳春雨) 등을 보내어 이 절을 창건하도록 하였다. 먼저 미륵상을 주조하고 2층의 미륵전을 건설하여 중요한 요지를 진압하였고, 미륵전 서쪽에 비로전을 세우고 비로자나존상을 안치하였다. 그 동쪽으로 대장각을 설치하여 팔만대경을 보관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각 불상과 석탑·법전·고각·종루·석등·신단(神壇)과 40개의 법체(法體)와 사천왕각과 33층의 쇠당간과 360칸의 요방(寮房)과 360결의 밭과 100호의 노비 그리고 무량한 사물들이 장대하게 마련되었다. 상세한 것은 창사기(創寺記)에 실려있다. 당시를 상상해 보면 참으로 동쪽의 거대한 사찰임을 알겠다.

이는 대개 왕이 부처를 향하는 정성이 대사로 인하여 깊어진 것이요, 대사의 연화(演化)의 기미가 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이 때부터 이 절이 사람들과 세상에 복리(福利)를 베푸는 것이 성대하였다. 그러나 도를 깨친 선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세상의 인정도 많이 변하여, 고려에서 이조로 내려오면서 흥폐(興廢)하는 일이 없지 않았고, 고찰할만한 문헌도 없어졌다.

불기 2619년 임진년 이조 선조 25년(1592)에 전쟁으로 절이 불타 없어졌다. 전쟁이 끝난 뒤 대중들이 자그마한 규모로 건물을 얻었으나 단지 빈터만을 지킬 뿐이었다. 10년이 지난 임인년(1602)에 주지승 묘전(妙全)과 현감(玄鑑)·계환(戒環)이 대웅전을 창건하였는데, 갑자기 하루는 마당가에서 부처의 얼굴이 약간 드러나 곧장 재와 흙을 파헤치고 모셔내니 바로 전날 만들었던 미륵상이었다. 사나운 불 속에서도 손상된 곳이 없었다. 지금 미륵전 동쪽을 등지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다. 임인년으로부터 56년 뒤 무술년 효종 9년(1658)에 대웅전을 중건하고 인견(印堅)과 순식(順湜)·총열(攄悅)·해관(海寬)·계환(戒環)이 주머니를 털어 자금을 출자하고, 재묵(再默)과 각민(覺敏)이 고루 모연(募緣)하여 재물을 모았으나, 비용이 부족하여 판청(判廳)으로부터 돈을 내었는데 최선(最善)과 대홍(大弘)과 최대(最大)가 힘을 썼다. 무술년으로부터 41년 뒤 기묘년 숙종 25년(1699) 자수(自脩)·석경(釋瓊)·문인(文印)·명학(明學)이 보제루(普濟樓)를 창건하였는데, 관찰사 이공과 절도사 이공이 함께 시주한 것이다. 그 외 다른 성전(聖殿)과 향각(香閣)들 그리고 청풍(淸豐)·심

검(尋劍)·원응(圓應)·안심(安心)·함홍(含弘)·해행(解行)·침계(枕溪)·금당(金堂) 등 8방을 중수할 때 공덕이 있는 사람과 그 연대는 각기 기문이 있어 다시 거론하지는 않는다. 다만 해행방(解行房)만은 최선(最善)이 재산을 다스렸다.

한 해 걸리 전답과 자금과 쌀을 내어 사찰과 암자를 보수하여 빈번히 이 절을 지키는 자는 곧 갑계(甲稷)이다. 이 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이 공심(公心)을 위하는 정성과 수고를 함께 나누는 의리는 참으로 불교를 배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조에서 불교를 배척할 때 깊은 산속에 은거하여 한 해를 건디기도 어려웠는데, 이 갑계의 힘이 아니었다면 보존할 도리가 있었겠는가.

불기 2932년 을사년 고종 광무 9년(1905)에 팔상전을 다시 세우고 여러 성상(聖像)에 그림을 그렸는데, 혼해(混海)와 학암(鶴庵) 두 선사가 같이 이 일을 맡았다. 현재 아홉 곳의 암자가 있는데, 극락암(極樂庵)·대성암(大聖庵)·금강암(金剛庵)·사자암(獅子庵) 네 암자는 그 창건 시기를 알 수 없지만, 그 중 극락암은 해성(海城)선사가 힘을 다해 보수하였고, 대성암은 울암(蔚庵)선사가 큰 공력을 들였으며, 금강암은 영명(永明)선사가 길이 견고하게 하였다. 불기 2711년 갑자년 숙종 10년(1684) 신주(信珠)선사가 청련암(靑蓮庵)을 창건하였고, 29년이 지난 계사년(1713)에 수좌(首座) 선식(禪識)과 시주자 김치명(金致鳴)이 안양암(安養庵)을 세웠으며, 그 뒤 30년 계해년 영조 19년(1743)에는 신주(信珠)와 섭총(攝摠) 등이 내원암(內院庵)을 창건하였다. 원효암(元曉庵)과 계명암(鷄鳴庵)은 본사와 함께 지어졌는데, 원효암은 중간에 이겼지만 어느 해 누가 한 일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옮겨 세우고 수선하는 공로로는 금해(錦海)와 응허(應虛) 두 선사가 으뜸이다. 계명방(鷄鳴房)이 이미 불탔는데, 유독 두 마리의 석계가 동쪽 가장자리에 얹어져 있었다. 불기 2920년 계사년 고종 30년(1893)에 우화(雨華)와 금봉(金峯) 두 장노와 혼해(混海) 강백(講伯)이 옛 자국을 파내고 새 칠을 더하여 계명암(鷄鳴庵)이라고 편액하였다.

일을 맡은 소임이 바뀌었던 것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321년 전엔 주지(住持)가 담당하였고, 180년 전에는 승통(僧統)⁹⁹⁾이 담당하였으며, 32년 전에는 총섭(總攝)¹⁰⁰⁾이 맡았는데, 예봉(禮峯)선사가 먼저 임명되었다. 16년 전에는 섭리(攝理)가 맡았는데, 경산(擎山)선사가 그 임무를 맡았다. 13년 전에 다시 주지에게 돌아왔는데, 주지 성월(惺月)선사·등암(藤巖)·담해(湛海)·회현(晦玄)·학암(鶴庵)·경산(擎山) 등 여러 선사들이 사찰 일에 부지런하여 선법(禪法)을 존중하자 스님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어 금정산 일대가 선찰본산(禪刹本山)이 되어 도를 연마하고 불법을 강설하는 것이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99) 승통 : 고려시대 이후 승계(僧階)의 제1위로 교종 계통에서 최고의 지위이다.

100) 총섭 : 고려·조선시대 승직(僧職)의 하나. 8도에 2인씩의 총섭을 두어 전국의 승려를 관장하였다.

일찍이 이 산에는 영원조사(靈源祖師)와 낭백대사(朗伯大師)와 같은 여러 위대한 인물들의 불도(佛道)와 세상을 위하는 높은 지혜와 맑은 행실이 대부분 구전으로 전해질 뿐 문헌은 사라졌으니, 이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금 주지 담해(湛海) 선사가 대중들의 뜻과 같이 사적을 알리는 비석을 세우고자 나에게 글을 구하여 새기고자 하였다.

높으신 법력으로 오랑캐를 몰아내니
임금께서 몸소 시주하셨네.
보배로운 불전과 구름같은 루대가
우뚝하니 그 모습 갖추었다네.
큰 법고를 울리고
큰 법등을 밝혀라.
중생들의 인연은 알고
법사는 이어가기 어려워
고려와 이조를 거치며
거의 흥망성쇠를 겪었네.
임진년 전쟁의 재앙으로
사찰의 운명이 크게 막혔네.
이로부터 십 년 뒤
창건하는 자가 비로소 생겨
사찰을 일으키고 암자를 세우니
시대를 따라 그 뒤를 이었네.
불법 도량은 맑고 깨끗해
세간에 두루 알려졌네.
스님들 구름처럼 모여드니
선종 대찰이요 불법 본산이라.
명안(明眼)을 지닌 대덕(大德)들
뒤를 쫓아 서로 연이으니
강당을 열어 두루 펴는 설법이
천년 만년 퍼지리라.

불기 2950년 계해년 8월
우두산인 남천 한규 짓고 씀.

7. 조탑 대시주(造塔大施主) 공덕기(功德記)

造塔大施主功德記

原夫盡大地 都盧是釋迦眞身 徧蒼海 無一非寂滅寶宮 不必別事於建立精舍也 亦不必別事於造成塔廟也 然而衆生仰慕之地 不可無方便 故須達長者 布金買園 建立精舍而後感天宮之報 阿育大王 用施七寶 造成塔廟而乃登轉輪之位 此乃古賢已行之實驗也 爰有大檀信鄭禧朝公 仰慕古賢 首作檀那 萬施響應 造成塔廟 儼然卓立 夷希焉 釋尊眞像 從地湧出也 雙林示滅間幾秋 二千九百加六四 如此遠代 得覩吾佛眞身塔廟 曷勝慶躍哉 噫 人之嗜利也 不教且學 而蠅營狗苟無所不至 其巧甚者 剖身藏之 今鄭公芥捨珍財 若視諸剖身藏之者 其相去 果何如哉 若非宿緣之深 焉能如是 便是今之須達 亦是今之阿育也 其爲福報已昭於我薄伽梵光明之中 以恒沙爲數量 則不必待蠶臼而爲揚也 感應道交 休徵自至 壽山高屹 福海汪洋 四海咸登 萬流同樂 於戲 鄭公偉績 不能枚舉 故但抄略歷以列于左 公之出生地 釜山佐川町也 姓鄭氏 貫東萊 名禧朝 字永化 乙丑八月九日生 舊韓國光武三年五月十日 任順陵參奉敍判任官 全五年十月二十三日 中樞院議官敍奏任官六等 隆熙元年一月十六日 仁川紳商會社社長再選 全二年一月五日 仁川朝鮮商業會議所會頭再選 大正元年十一月八日 仁川保健組合長 全二年九月分 仁川信用組合理事被選 全三年四月分 仁川府協議員被選 昭和八年分 東萊郡西面堂甘里夜學校建築及教授料全担 全十二年分 溫泉里夜學校建築 其他教育及勤務 普施德行具備 受賞品亦多 不能盡記

佛紀二千九百六十四年丁丑 十月六日 立冬

金下 崔一海 謹識

본래 온 대지가 모두 석가모니의 진신(眞身)이요, 두루 푸른 바다가 적멸보궁 아닌 곳이 없으니, 별도로 정사(精舍)를 건립할 일도 없으며, 따로 탑묘(塔廟)를 조성할 일도 없다. 그러나 중생들이 우리러 사모하는 일에는 방편이 없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수달장자(須達長者)¹⁰¹⁾가 금을 풀어 동산을 사들여 정사를 건립하니, 뒤에 천궁(天宮)의 보답으로 감화되었고, 아육대왕(阿育大王)¹⁰²⁾이 칠보를 시주하여 탑묘를 조성하니 이에 전륜왕(轉輪王)¹⁰³⁾의 지위에 올랐었다. 이것은 옛 현자들에게서 이미 이루어졌던 실제 징험들이다.

이에 대시주 정희조(鄭禧朝) 공이 옛 현자들을 우리러 사모하여 시주의 우두머리가 되니 수많은 시주자들이 호응하여 탑묘를 조성하는 일이 엄연히 우뚝 이루어졌고, 소리도 모습도 없다가 석존의 진상(眞像)이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석존께서 바라쌍수에서 열반에 드신 것이 몇 년인가? 거의 이천 구백 육십 사 년이다. 이와 같이 먼 후대에 우리 부처님의 진신사리 탑묘를 보게되었으니, 어찌 뛰며 경축할 일이 아니겠는가?

아! 사람이 이(利)를 좋아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는 것으로, 파리나 개가 먹는 것을 탐하듯 조그만 이익까지 찾아 이르지 않는 곳이 없고, 그 방법이 심한 경우는 몸도 쪼개어 보관하기도 한다. 지금 정공이 귀중한 재산을 초개처럼 희사한 것을 몸까지 쪼개어 보관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서로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되는 일인가? 만약 전생의 깊은 인연이 있지 않았다면 능히 이럴 수 있겠는가? 이는 오늘날의 수달장자요, 오늘날의 아육대왕이라고 하겠다. 그 복의 보답이 이미 우리에게 드러나 가범(伽梵)¹⁰⁴⁾의 광명 가운데 펼쳐져 항하사(恒河沙)¹⁰⁵⁾의 숫자만큼 무한하니, 굳이 비석의 글을 새겨 선양하지 않더라도 도의의 만남에 감응하여 좋은 징조가 절로 이르고, 수명은 산처럼 높고 복은 바다처럼 넘실거리, 사해(四海)가 모두 오르고 수많은 물질이 같이 즐거워한다. 아! 정공의 위대한 공적을 일일이 들 수 없다. 그래서 단지 그의 약력을 추려 다음에 열거한다.

정공의 출생지는 부산 좌천정(佐川町)이다. 성은 정씨요, 관향은 동래이며, 이름은 희조(禧朝), 자는 영화(永化)이다. 을축년 8월 9일생이다. 구한국 광무 3년 5월 10일

101) 수달장자 : sudalta. 수달다(須達多). 번역하여 선여(善與)·선급(善給)·선수(善授)라고 한다. 사위국 급고독 장자의 본명으로 기원정사(祇園精舍)의 시주(施主)이다.

102) 아육대왕 : Asoka. B.C.2세기경 전 인도를 통일하고 불교를 보호한 왕이다. 그는 인도에 8만 4천의 절과 8만 4천의 보탑을 세웠다고 한다.

103) 전륜왕 : 전륜성왕(轉輪聖王). 몸에 32상을 갖추고, 즉위할 때 하늘로부터 룬보(輪寶)를 감득(感得)하고 그 룬보를 굴러 사방을 항복시킨다고 한다.

104) 가범 : 바가범(婆伽梵) = Bhagavat의 약칭. 부처의 존칭이다.

105) 항하사 : 항하는 갠지스강이다. 갠지스강의 모래는 그 수의 무한함을 비유하는 뜻으로 쓰였다.

에 순릉참봉(順陵參奉)¹⁰⁶⁾에 임명되어 판임관(判任官)이 되었고, 동 5년 10월 23일에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에 임명되어 주임관(奏任官) 6등이 되었다. 융희 원년 1월 16일에 인천신상회사(仁川紳商會社) 사장에 재선되었고, 동 2년 1월 5일엔 인천조선상업회의소 회두(會頭)에 피선되었으며, 대정 원년 11월 8일에 인천보건조합장이 되었고, 동 2년 9월엔 인천신용조합이사에 피선되었고, 동 3년 4월에 인천부 협의원에 피선되었으며, 소화 8년엔 동래군 서면 당감리야학교의 건축과 교수료를 전담하였고, 동 12년엔 온천리야학교를 건축하였다. 그 외 교육과 근무에서도 보시와 덕행을 구비하고 수상품도 많지만, 다 기록하지는 못한다.

불기 2964년 정축년(1937) 10월 6일 입동

금하 최일해 삼가 기록하다.

106) 순릉 : 조선 제9대 왕인 성종의 원비(元妃) 공혜왕후 한씨의릉.

8. 석가여래(釋迦如來) 사리탑비명(舍利塔碑銘)

釋迦如來舍利塔碑銘並序

一峯佛 在泥蓮河畔婆羅雙樹間 示入槃涅槃 以三昧火荼毘 出舍利八斛四斗 澄澈光潤 一一靈妙 世間所有 一切無有可比者 人天歎未曾有 爭先踴躍 隨分各得 寡無不足 多無踰量 夫此卽色卽空 無去無來 殊妙不可思議之靈珠 示離鶴樹 昇大浚海 隨緣度生 無有已時 有緣國土 信心衆生 咸得受益 證此者 得無生忍 受持者 不墮惡道 若非多劫宿植善根者 安能得此 往在癸丑海印寺沙彌英煥甫 以齠齡負笈東京時 天竺沙門達摩婆羅 遊錫四海 到日本英煥往見 師一見而奇之 心有所契 以所藏佛舍利二顆 慇懃相傳 英煥寶藏之 後梵魚寺僧尙昊 屢請於英煥 己亥秋 以其舍利獻納梵魚寺 知寺梨山 大爲歡喜 誓願起塔 不幸以命未果 遽歸蓮垵而後 知寺雲湖繼其志 丙子春始工起七層塔 翌年冬竣工 以安舍利 聖地不在於名區勝境 在於靈躅 名刹不在於金殿華閣 在於聖蹟 一抹鹿苑 青青未了 十笏方丈 廣大無邊 良有以也 梵魚寺 至是而理事獲彰 福慧兩舉 可垂靡終 銘曰

我佛垂教 恒沙其門 分身百億 隨緣對根
一一舍利 百千釋迦 無說而說 聲震娑婆
斷石于山 以安獅座 小而無小 大而無大
人天咸集 隨喜讚歎 以是功德 度生無算

世尊應化 二千九百六十五年戊寅 三月望

龍雲 奉玩 撰

萊山蕭人 桐□ 金鍾遠 書



한때 부처님께서 니런하 물가 바라쌍수 사이에 계실 때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삼매(三昧)의 불길¹⁰⁷⁾로 다비장(荼毘葬)을 치르고 나니 여덟 섬 네 말의 사리가 나왔다. 맑고 영롱하며 윤택하게 빛나는 것이 하나 하나가 영묘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 그것에 비길 만한 것은 일체 없었다. 사람과 하늘이 이 미증유의 사실에 탄복하여 앞다투어 용약하고, 각기 나누어 가져가니 적더라도 부족하게 여기지 않았고 많더라도 량에 넘치지 않았다. 대개 이는 색(色)이며 곧 공(空)이오,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는 것으로, 다만 묘하여 생각하거나 따질 수 없는 신비한 구슬이었다. 떠남으로서 학수(鶴

樹)¹⁰⁸⁾를 보여주시며, 크고 깊은 바다로 올라 인연을 따라 중생을 제도하기를 그칠 때가 없으니, 인연이 있는 나라의 신심깊은 중생들은 모두 그 이로움을 입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은 무생법인(無生法忍)¹⁰⁹⁾을 얻었고, 이것을 받아 지킨 자는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오랜 겁 동안 선근(善根)을 심어둔 사람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지난 계축년에 해인사 사미 영환(英煥)이 어린 나이에 동경으로 공부하러 갔을 때, 인도의 사문 달마바라(達摩婆羅)가 사해를 유람하다가 일본에 도착해 있었다. 영환이 가서 대사를 뵈었는데, 한번 보자 기이하게도 마음에 맞는 점이 있어, 지니고 있던 부처의 사리 두 개를 은근히 그에게 전해주었고, 영환은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였다. 그 뒤 범어사의 승 상호(尙昊)가 여러 번 영환에게 간청하였더니, 기해년 가을에 그 사리를 범어사에 헌납하게 되었다. 주지 이산(梨山)이 크게 기뻐하여 탑을 세울 것을 서원하였으나, 불행하게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극락세계로 가버렸다. 그 뒤 주지인 운호(雲湖)가 그 뜻을 이어 병자년 가을에 비로소 칠층탑을 기공하여 이듬해 겨울에 준공하고 그 곳에 사리를 안치하였다. 성지(聖地)는 이름난 지

107) 삼매화(三昧火) : 석가모니가 열반의 때가 다가오자 제자 가섭에게 청정법안(淸淨法眼)과 금루승가이의(金縷僧伽梨衣)를 맡을 것을 명령하였는데, 구시나성(拘尸那城)에 가서 그것을 금관에 넣어두고 우협(右脇)으로 누워 가섭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삼매화가 타오르며 사리광(舍利光)이 천지를 훑듯 밝혔다고 한다.

108) 학수 : 학림(鶴林)이라고도 한다. 여래가 바라쌍수(雙樹)에서 열반에 들자 쌍수(雙樹)가 모두 백색으로 변하였는데, 마치 학의 색과 같다고 하여 학수라고 하였다.

109) 무생법인 : 무생인(無生忍) 또는 무생법(無生法)이라고도 한다. 생멸(生滅)을 떠난 진여(眞如, 實相)의 이체(理體)이다. 진지(眞智)는 이 이체에 안주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보살이 초지(初地) 또는 칠·팔·구지(地)에서 증득(證得)하는 깨달음이다.

역이나 빼어난 경치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신비한 자취가 있어야 하며, 명찰(名刹)은 금빛 화려한 전각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행적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한낱 녹야원(鹿野苑)¹¹⁰⁾이 끝없이 푸르디 푸르며, 십홀(十笏)¹¹¹⁾의 방장(方丈)이 광대무변(廣大無邊)한 것은 참으로 까닭이 있다. 범어사도 이 탑을 세움으로서 도리와 사적이 빛나게 되었으며, 복과 지혜가 모두 드러나 끝없는 후대에 드리우게 되었다.

우리 부처께서 가르침을 내리시니
 그 문도들 모래알처럼 퍼져갔네.
 백억 갈래로 몸을 나누시니
 인연에 따라 근본을 마주했네.
 하나 하나의 사리마다
 백 개 천 개의 석가모니로다.
 말없이 설법하시니
 그 소리 사바세계에 울리도다.
 산에서 돌을 캐어
 사자좌(獅子座)¹¹²⁾로 안치했네.
 작지만 작은 것이 아니오
 크지만 큰 것도 아니라네.
 사람과 하늘이 모두 모여
 기뻐하며 찬탄하네.
 이러한 공덕으로
 셀 수 없이 중생을 제도하였네.

세존 응화 2965년 무인년(1938) 3월 보름
 용운 봉완 지음
 래산소인 동 김종원 씀

110) 녹야원 : 부처가 성도(成道)한 뒤 처음으로 사체(四諦)의 법을 설하여 다섯 비구를 제도했던 곳이다.

111) 홀(笏) : 선승이 가지고 있는 법구(法具)의 하나. 선승의 위엄을 표시하는 법구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방장실(方丈室)의 길이를 재는 단위로 쓰였다. 사홀(四笏)이 한 자정도 되었기에 방장이란 명칭이 생겼다.

112) 사자좌 : simhasana. 부처가 사람 중에 사자(獅子)가 되므로 부처가 머무는 자리를 곧 사자좌라고 한다.

9. 관찰사 조엄(趙曦)¹¹³⁾ 사폐혁거(寺弊革祛) 영세불망단(永世不忘壇)

巡相國趙公曦革祛寺弊永世不忘壇

公於乾隆丁丑秋 來莅本府 以在境寺刹 皆爲山城捍衛而彫殘 先
除府中諸弊 越三年己卯春 移按嶺藩 萊境各寺義僧番債及本寺
納左水營紙倉錢 報籌司革罷後 凡自水營責役者 一切蠲減 保障
遠慮 既救殘寺 恤民餘澤 又覃貧僧 今之居者 雖未能盡承公顏
傳聞盛德如雷灌耳 愈久愈感 別設此壇 以爲永頌永祝之地 而公
之下車也 我先君爲鴈班領袖 故衆衲來問往蹟 請誌于余 余亦追
感謹記以歸之

嘉慶十三年戊辰七月上浣趙重呂拜手撰

監役八道都糾正僧統前同知 釋就洽

時任都僧統前僉知 釋志有和尚 釋道眼

조공께서 건륭 정축년(1757) 가을에 동래부에 부임해 오셨는데, 경내에 있는 사찰들은 모두 산성의 방위를 위하느라 피폐해져 있었다. 먼저 부중(府中)의 여러 가지 폐단을 제거하고, 3년이 지난 기묘년(1759) 봄에 경상도 관찰사로 옮겨가셨다. 동래부 경내 각 사찰의 의승번채(義僧番債)¹¹⁴⁾와 본사에서 좌수영에 헌납하는 지창전(紙倉錢)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혁파한 뒤로 대개 수영에서 요구하는 노역을 일체 감면하였다. 보장(保障)¹¹⁵⁾을 원대히 생각하고 이미 피폐한 사찰을 구제할 데다가 백성을 불쌍히 여기던 나머지 은택을 가난한 승려들에게까지 뻗게 하였다. 오늘날의 거주자들은 비록 공의 얼굴을 모두 보지 못하였으나, 성대한 은택을 전해들은 것이 우리가 귀에 쏴아 내리듯 하여, 그 시간이 오래면 오랏수록 더욱 감동되어 별도로 이 제단을 설치하여 길이 송축하는 곳으로 삼는다. 공께서 부임하셨을 때 나의 부친께서 서리(胥吏) 반열의 우두머리였기에 많은 승려들이 찾아와 옛 일에 관해 묻

113) 조엄 : 1719~1777. 문신. 자 명서(明瑞), 호 영호(永湖), 본관은 풍양,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1759년(영조35) 1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하였다.

114) 의승번채 : 의승방번전(義僧防番錢). 조선시대에 각 도의 승려들로 하여금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방비를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1761년(영조37)에 산성에 거주하는 승려들이 이것을 전담하고, 대신 그들에게 지급할 급료를 지방 승려들에게 징수했던 돈이다.

115) 보장 :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돌이나 흙으로 쌓은 보루와 성.

고 나에게 기문을 요청하였다. 나 또한 추억하며, 삼가 기록하여 돌려보낸다.

가경 13년 무진년(1808) 7월 상완일 조중려가 절하며 지음.

감역 팔도도규정 승통 전동지 석 취흡

시임 도승통전첨지 석 지유화상 석 도안

10. 부사(府使) 민영훈(閔永勳)¹¹⁶⁾ 거사비(去思碑)

府使閔公永勳去思

迺設屯祛

活萬人命 百世歌詠

三洞句管幼學鄭潤和

□□□□□□□□□□歎捐千包米活萬人命防□

□□□□□□□□□□□□於三洞以除使客迎

□□□□□□□□□□□□既歸邑民豎碑□

□□□□□□□□□□□□民心於斯可見村人請□

崇禎紀元後四戊戌暮春李之□謹□

□□幼學文□□都監幼學朴乃英監官司□

豆口鵲掌南山并

(.....)

둔전을 설치하여 (...)를 없앴다네.

만인의 목숨을 살리셨으니,

백세 뒷날까지 노래하리라.

삼동 구관 유학 정윤화

(비음)

(.....) 천 포대의 쌀을 내어 만인의 목숨을 살렸다. (.....) 읍민들이 비석을 세웠다. (.....) 민심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마을 사람들이 청하여

116) 민영훈 : 1835년(헌종1) 9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837년 3월에 이임하였다.

(...)

송정 기원후 네 번째 무술년(1838) 늦봄 이지□가 삼가 (...)

□□ 유학 문□□ 도감 유학 박내영 (...)



11. 관찰사 홍우길(洪祐吉)¹¹⁷⁾ 고막영혁(痼瘼永革) 만세불망단(萬世不忘壇)

巡相國洪公祐吉永革痼瘼萬世不忘壇

己未春 公以觀察使來鎮嶺營 恩威并行 厥施斯□ 而其年秋 巡節南爲 所過存誠 邑之□民之痼 悉以醫正而歷入本寺 曲詢寺瘼 僧列條錄上 公覽畢 嘆曰寺之不在此矣 一一無餘革祛□ 若非賢君子一視同仁之化者 能及於白雲流水之間哉 夫恩之深者 澈人之骨髓 切於心則發於外 發於外則必有以詠嘆之不禁者矣 今僧徒之□一片石 以表萬世不忘者 此其意之主□ 僧囑余以記事 余自驚□ 在寺之香室中 參見此事 不勝其感祝之誠 與于焚香謹書

崇禎紀元後四庚申 四月日

九鳳堂 智□ 謹誌

기미년(1859) 봄 홍공께서 관찰사로 영남의 감영에 오시어 은택과 위엄을 아울러 행하시어 그 베품이 (...) 그 해 가을 남쪽을 순행하셨는데, 지나는 곳마다 정성을 다하여 고을 백성들의 고통을 모두 고쳐 바로잡아 주시고, 이 곳 범어사를 들리시어 사찰의 폐단을 곡진히 물으셨다. 승들이 조목을 열거하여 기록해 올리니, 공께서 살펴보시고는 탄식하며 “사찰이 남아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이구나.”하시고는 하나 하나 남김없이 고쳐 주셨다. 현군자가 베푸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교화가 아니었다면 이 깊은 산골짜기까지 그 교화가 미칠 수 있었겠는가? 대개 은혜가 깊으면 사람의 골수에까지 꿰고 드는데, 마음에 절실하면 길으로 드러나고, 길으로 드러나면 반드시 노래로 읊조리고 싶은 것을 막을 수 없다. 지금 승도(僧徒)들이 한 조각의 비석으로 만세토록 잊지 못할 뜻을 드러내고자 하여, 그 의견을 주창한 승이 나에게 그 일을 기록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나도 영축산에서 와서 이 사찰의 향실(香

117) 홍우길 : 1809~1890. 문신. 자는 성여(成汝), 호는 애사(靄士), 본관은 풍양, 시호는 효문(孝文)이다. 1859년(철종10) 3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室)¹¹⁸⁾에 머물면서 이 일을 보았고, 그 감축할 정성을 견디지 못하여 분향하고 삼가 기록한다.

승정 기원후 네 번째 경신년(1860) 4월 일

구봉당 지□가 삼가 기록하다.

118) 향실 : 본래 부처가 계시던 방을 일컫던 말인데, 뒤에 불전이나 승려들의 거처를 지칭하게 되었다.

12. 부사 정헌교(鄭獻敎)¹¹⁹⁾ 영혁폐막(永革弊瘼) 만세불망단(萬世不忘壇)

府伯鄭公獻敎永革弊瘼萬世不忘壇

119) 정헌교 : 문관. 1859년(철종10) 8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860년 5월에 승지로 이직 됨.

13. 부사(府使) 정현덕(鄭顯德)¹²⁰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使鄭公顯德永世不忘碑

自我公來 弊局頓革 今世循良 古家清白
 崇墉傑構 積費籌畫 澤民餘波 爰及山釋
 特軫寺瘼 永鑄結役 重建國清 固我邊場
 繕甲參操 軍容丕赫 設餼勸射 廣場大闢
 名茲念茲 閱劫千百 於乎可忘 視此刻石

梵魚寺中 立

崇禎紀元後五壬申仲春 通德郎 李基永 謹書

座首 金燾 公兄 尹浩權

時僧統 善寬

都監 浩隱堂 玆榮

和尚 禧彦

書記 正添

우리 공께서 이 고을에 오시니
 잘못된 일들이 한번에 고쳐졌네.
 오늘날 세상의 순량(循良)한 관리요
 고가(古家)의 청백리로다.
 높은 성채를 웅결차게 쌓고자
 비용을 모으고 신중히 계획했네.
 부민에게 배푼 은택의 여파가
 어느덧 산 속의 중들에게 미쳤네.
 사찰의 폐막을 불쌍히 여기어
 전결과 부역을 덜어주셨네.

120) 정현덕 : 1810~1883. 자 백순(伯純), 호 우전(雨田). 1870년(고종7) 6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873년 12월에 이임됨.

국청사(國淸寺)를 중건하시어
우리 변방의 도량을 다져주셨네.
병사를 정비하여 조련을 시키니
군대의 사기가 크게 빛났네.
희생을 마련하여 활쏘기를 권면하니
넓은 사장(射場)이 크게 열렸네.
이 사실 칭송하고 기념하기를
천겁 백겁 이어가리라.
어떻게 가히 잊을 수 있으랴
새겨둔 이 비석을 보면 되리라.

범어사에서 세움.
승정 기원후 다섯 번째 임신년(1872) 중춘 통덕랑 이기영 삼가 지음.
좌수 김도
공형 윤호권
시승통 선관
도감 호은당 현찬
화상 희언
서기 정첨

14. 통정대부(通政大夫) 참서관(參書官) 장호진(張浩鎭) 영세불망비
(永世不忘碑)

通政大夫參書官張公浩鎭永世不忘碑

奉佛護寺 惟公之恩
弊癘一祛 佛化孔敦
青山不老 綠水長存
勒碑作偈 永耀山門

總攝 普明 智讚
和尚 典有
書記 秉錫
寺主 錦溪 性律
佛都監 龍谷 典昕
都監 典佑
內監董 湛海 德基
外監董 鶴庵 聖箴
大韓光武七年 癸卯十一月日 立

부처를 받들며 사찰을 호위하니
이것은 오로지 장공의 은덕이라.
잘못된 폐단을 한번에 제거하니
부처의 교화가 크고 두터웠네.
청산은 늙지 않고
녹수는 영원하리.
게송(偈頌)을 지어서 비석에 새기니
길이길이 산문(山門)을 비추오리다.

총섭 보명 지찬

화상 전유
서기 병석
사주 금계 성률
불도감 용곡 전흔
도감 전우
내감동 담해 덕기
외감동 학암 성잠

대한광무 7년 계묘년(1903) 11월 일 세움.

남구 금석문

1. 동래(東萊) 남문비(南門碑)¹²¹⁾

東萊南門碑

神宗皇帝萬曆壬辰四月十三日 倭賊數十萬犯境 釜山僉使鄭侯撥以戰艦三艘 下海拒戰 俄頃之間 賊船蔽海 侯且戰且退 入城治守禦具 且令瞽吹簫 晏閑如平日 軍民和靜不驚 十四日曉 賊薄城 公厲氣巡城 士卒奮踴 射殪賊無數賊三處 積尸如山 日午侯忽中丸絕 城遂陷 妾愛香季十八 亦自剄死 賊仍直擣東萊城 兵使李珏 見賊盛 與其別將開門遁去 府使宋公象賢 莅職未久 上南門樓 率軍民 以禦賊 賊軍于聚兵場 先遣木板書立城外 曰戰則戰 不戰則假我道 公亦書木板 投賊 曰死易假道難 賊遂圍之三匝 十五日朝 賊自城後山破城入 公据胡床 索朝衣穿甲上 有賊平調益者 公曾欵接之 急趨公 目之使避 公不應 又牽衣指隙竇 則公已下床 北向拜矣 拜訖修書訣 其父謂其下曰 汝以吾腹下痣驗我 公裨將宋鳳壽·金希壽等四五人 及鄉吏宋伯等 力鬪皆死 公遂遇害 公妾金蟾 咸興妓也 欲就公併命 踰垣走被執 罵賊三日不絕口 賊遂殺之 僉人申汝櫓 有母 公迫令歸 中路聞事急 還與公同死 教授盧盖邦 適寧親密陽 急歸鄉校 則先聖位板已移城中靖遠樓矣 叩城門大哭 公義而納之 則遂詣位板前行禮 仍侍立不少離 與諸生文德謙·梁通漢同死 其妻亦遇賊於密陽 懷其夫紅牌 投崖死 府民金祥 乘瓦屋擊賊 有二村女 同乘撤瓦以助之 賊去 祥母往視 則祥與二女 相枕死 而三賊 亦橫尸其側矣 於是府吏小宋伯 官奴鐵壽·邁同 收公尸 瘞于北山栗林 賊助其喪 爲文以祭之 亦以蟾同瘞之 遂引賊之害公者戮之 自

121) 동래남문비 : 이 비석은 현재 석면이 모두 떨어져 나가 글씨를 볼 수 없다. 다행히 석면이 온전할 때 탁본한 것이 남아있어, 그 탁본자료를 저본으로 판독하고 번역하였다. <대구방 소장 고탁본목록> 참고.

是南門上 常有紫氣 亘天數年不滅 甲午朝廷令帥臣 言于賊將 而使其家人入賊中 昇公柩以還 賊將遇之 下馬致敬焉 又謂釜山之戰 黑衣將軍 最可畏 若城固兵多 終不可破 盖鄭侯 穿黑衣也 後六十七年崇禎戊戌 閔侯鼎重 爲東萊府使 訪問當時 事其老人 尙有遺在者 其涕泣言如此 遂伐石 將其事 又將立屋 圖畫之并著 李珣遁走之狀 使人有勸懲之心 則其所以樹風聲裨民彝者不小 而金湯之固 亦無以逾焉 然事未就而閔侯遞去 府人咸惜之 今上戊申 李侯之翼 以閔侯所錄一通 并以書來曰 閔侯之事 今欲踵而成之 請爲文 詳記之 遂就加櫟括以遺之 先是尹公暄爲府使 爲立宋公廟 而鄭侯配食 賜額曰忠烈 後尹公文舉 移建於萊山下安樂原 士民并將以盧教授齎享云 時烈既述此碑 續聞 梁山郡守趙侯英圭 其節亦卓卓 其家乘云 侯聞變 赴萊城十三日 告宋公 歸郡泣辭其母 日此時 不可顧私 托其子廷老 以避兵策旋 卽馳還則城圍已急矣 侯衝突入城 與宋公誓與同死 城陷 不離頃步而死 今見嶺伯閔公著重所云 公牒及所得於萊府者與家乘 相符故錄之 托萊府伯鄭公哲 追刻焉 侯性至孝 有孝感 今上朝用筵臣宋浚吉 言特旌其節 又長城人 立祠以祀之 廷老 自以不忍與賊戴天 作一土室塞竇不出而死云云 時烈既述此碑 以下當作別段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世子傳
宋時烈記

正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成均館祭酒 世子贊善 宋浚吉書

嘉善大夫漢城府右尹 李正英篆

庚戌 六月 日立

신종(神宗) 황제 만력(萬曆) 임진년(壬辰年,1592) 4월 13일에 왜적(倭賊) 수십만이 국경을 침범하였다. 부산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 공은 전함(戰艦) 3척으로 바다에 내려가 저항하여 싸웠으나 잠깐 사이에 적선(賊船)이 바다를 뒤덮었다. 공은 한편 싸



우면서 퇴각하여 성으로 들어가 방어 준비를 하고 한편으로 장님으로 하여금 통소를 불게 하면서 평일처럼 태연하게 처신하니 군사와 백성이 화평하여 놀라지 않았다. 14일 새벽 적이 성에 다가오자 공은 사기를 올리며 성을 순시하니 사졸(士卒)들이 용맹을 떨쳐서 활을 쏘아 적을 무수히 맞추어 죽이니 세 곳에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정오 무렵 공이 홀연 탄환에 맞아 절명하니 성은 그대로 함락되었다. 첩 애향(愛香)은 나이 열 여덟으로 또한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다.

적은 내쳐 곧바로 동래성을 부수러 갔다. 병사(兵使)

이각(李珣)은 적이 많은 것을 보고는 별장(別將)과 더불어 성문을 열고 도망가 버렸다. 부사(府使) 송상현(宋象賢) 공은 부임한지 오래지 않았지만 남문 문루(門樓)에 올라가서 군사와 주민을 거느리고 적을 막았다. 적은 취병장(聚兵場)에 진을 치고 먼저 나무 판자에다 글을 써서 성문 밖에 세우게 하였는데, “싸울테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길을 내어 달라[戰則戰 不戰則假我道]”고 하였다. 공 역시 나무 판자에다 글을 써서 적에게 던져 이르기를, “죽기는 쉬우나 길을 내어주는 것은 어렵다[死易假道難]”고 하였다. 적은 이에 세 겹으로 포위하였다. 15일 아침 적은 성의 뒷산으로부터 성을 깨고 들어왔다. 공은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조복(朝服)을 찾아오게 하여 갑옷 위에 꿰어 입었다. 왜적 중 평조익(平調益)이라는 자는 공이 일찍이 잘 대접하였던 자였다. 급히 공에게 다가와서 눈짓으로 피하게 하였으나, 공은 응하지 않았다. 또 옷을 끌어 빈틈 있는 구멍을 가리켰으나 공은 이미 호상(胡床)에서 내려와 북향하여 절을 하였다. 절을 마치자 서찰을 써서 그 부친에게 영결하고는 수하 사람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내 허리 아래 점으로 나를 알아 보라”고 하였다.

공의 비장(裨將)인 송봉수(宋鳳壽)와 김희수(金希壽) 등 너댓 사람과 향리(鄉吏) 송백(宋伯) 등이 힘써 싸우다가 모두 죽자 공은 마침내 해를 당하였다. 공의 첩인 금섬(金蟾)은 함흥 기생이었다. 공이 있는 곳에 가서 함께 죽고자 담을 넘어 달려가다가 사로잡혔는데 사흘 동안 끊임없이 적을 꾸짖으니 적이 마침내 죽었다. 겸인(僉人)¹²²⁾ 신여로(申汝櫓)는 모친이 있었다. 공이 다그쳐서 돌아가게 하였더니 도중에 일이 급박하게 되었음을 듣고는 되돌아와서 공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 교수(敎授) 노개방(盧盖邦)은 마침 부모님을 뵈러 갔다가 밀양에서 급히 돌아왔는데, 향교(鄕校)에서는 선성(先聖)의 위판(位版)을 이미 성 안의 정원루(靖遠樓)에 옮겨 놓았기

122) 겸인(僉人); 시종을 드는 사람.

에 성문을 두드리며 대성통곡을 하였다. 공이 의롭게 여겨 성 안에 들이니, 곧장 위관 앞에 가서 예를 행하고 그대로 시립(侍立)하여 잠시도 떠나지 않다가, 유생(儒生)인 문덕겸(文德謙) 양통한(梁通漢)과 더불어 함께 죽었다. 그의 처 또한 밀양 땅에서 적을 만나자 제 남편의 홍패(紅牌)¹²³를 품고 절벽에서 몸을 던져 죽었다. 동래부의 주민인 김상(金祥)은 기와집에 올라가서 적을 쫓았는데, 두 명의 마을 여자가 함께 기와를 뜯어서 거들었다. 적이 떠난 뒤 김상의 모친이 가서 보았더니 김상은 두 여자와 함께 서로 베고 죽었는데 왜적 셋의 시신 또한 그 사이에 가로놓여 있었다.

이에 동래부의 소리(小吏) 송백(宋伯)과 관노(官奴) 철수(鐵守)와 매동(邁同)이 공의 시신을 수습하여 북산 밤숲에 파묻었는데 왜적이 그 상을 거들어 제문을 지어 제사하고, 금섬 또한 같이 묻고는, 그런 다음 적 중에 공을 해친 자를 끌어내어 죽였다. 이로부터 남문 위에는 항상 붉은 기운이 하늘에 뻗어 있으면서 수년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갑오년에 조정에서 수신(帥臣)에게 명하여 적장(賊將)에게 말을 하고 그 집사람으로 하여금 적진 중에 들어가서 공의 영구를 모시고 돌아왔는데, 적장이 그 행렬을 만나자 말에서 내려 경의를 표하였다. 또 이르기를 “부산의 전투에서는 흑의장군(黑衣將軍)이 가장 두려웠다. 만약 성이 견고하고 병력이 많았다면 끝까지 성을 깰 수 없었으리라”고 하였다. 대개 정공(鄭公)이 검은 옷을 입었던 것이다.

그 뒤 67년 숭정 무술(1658)년에 민정중(閔鼎重)¹²⁴ 공이 동래부사가 되어 당시 사정을 캐물었는데 그 때 노인 중에 아직 남아 있는 이가 있었다. 그 울며 하는 말이 이러하였다. 그리하여 돌을 캐어 장차 그 사적을 신고 또 집을 세워 그림으로 그려 이각(李珣)이 도망가던 꼴을 아울러 드러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권하고 징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 하였다. 그렇게 했더라면 풍성(風聲)을 수립하고 백성의 바른 마음을 일깨우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며 금성탕지(金城湯池)의 견고함도 또한 이보다 더할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민공의 직책이 바뀌어 가니 동래부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지금 주상¹²⁵ 무신(1668)년에 이지익(李之翼)¹²⁶공이 민공이 기록한 바 글 한 통을 서찰과 함께 보내와서 이르기를, “민공이 하려던 일을 이제 뒤따라 완성하려 하니 청컨대 글을 지어 상세히 기록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이에 그 글을 수정하여 주었다. 이에 앞서 윤환(尹暄)¹²⁷ 공이 부사가 되어서 송공(宋

123) 홍패 : 문과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는 증서.

124) 민정중(閔鼎重) : 1628~1692, 1649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658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해에 예조참의로 갈라갔으며, 관직이 좌의정에 이르렀다.

125) 지금 주상[當寧] : 당시의 임금. 여기서는 현종(顯宗)을 가리킨다.

126) 이지익(李之翼) : 1625~1694, 1652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668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다.

127) 윤환(尹暄) : 1573~1627, 1590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1605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

公)의 묘(廟)를 세우고 정공(鄭公)을 배식(配食)하였는데 사액(賜額)을 충렬사(忠烈祠)라 하였다. 그 뒤 윤문거(尹文舉)¹²⁸⁾ 공이 내산(萊山) 아래 안락(安樂) 언덕으로 옮겨 건립하였는데, 사민(士民)들이 노교수(盧敎授)도 아울러 철향(脲享)¹²⁹⁾을 하리라고 한다.

시열(時烈)¹³⁰⁾이 기왕에 이 비문을 서술하고 나서 이어서 들으니 양산군수(梁山郡守) 조영규(趙英圭)의 절의(節義) 또한 탁월하다 한다. 그 가승(家乘)에 이르기를 공은 변고를 듣고는 동래성으로 가서 13일에 송공(宋公)에게 고하고 군(郡)으로 돌아가서는 그 모친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때는 사사로운 정을 돌볼 수 없다”고 하고는 그 아들 정로(廷老)에게 군사를 피할 방법을 부탁하고, 곧장 말을 달려 되돌아 왔는데 성이 이미 다급하게 포위되어 있었다. 공은 위험을 무릅쓰고 성으로 들어가서 송공(宋公)과 더불어 같이 죽기로 맹세하고 성이 함락되자 반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죽었다. 이제 경상도 관찰사 민시중(閔蓍重)¹³¹⁾공이 보여준 공첩(公牒)과 동래부에서 얻은 기록을 보니 가승(家乘)과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를 기록하여 동래부사 정석(鄭皙)¹³²⁾ 공에게 부탁하여 추가하게 한다. 공의 성품은 지극히 효성스러워, 효성으로 임금을 감동시켜 연신(筵臣)¹³³⁾ 송준길(宋浚吉)¹³⁴⁾의 말에 따라 특별히 그 절의를 포상하여 정려(旌閭)를 내렸다. 또 장성(長城) 사람들이 사당을 지어 제사한다. 정로(廷老)는 차마 적과 더불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고 토실(土室) 하나를 지어서 구멍을 막고는 나오지 않은 채 죽었다고 한다. ‘시열이 이 비문을 이미 서술하고’ 이하의 글은 다른 단락으로 하여야 한다.

대광보국승록대부행판중추부사겸영경연사감춘추관사 세자부 송시열 기록함.

정헌대부의정부좌참찬겸성균관좌주 세자찬선 송준길 씀.

가선대부한성부우윤 이정영 전서

강희(康熙) 경술(庚戌, 1670)년 세움.

-
- 며 경상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해평인(海平人). 문집으로 <백사집(白沙集)>이 전한다.
- 128) 윤문거(尹文舉) : 1606~1672, 1633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1651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관직이 부제학(副提學)에 이르렀다.
- 129) 철향(脲享) : 배향(配享). 사당에 함께 모시고 제사를 드림.
- 130) 송시열 : 1607~1689. 노론의 영수. 자 영보(英甫), 호 우암(尤庵), 본관은 은진(恩津), 시호는 문정(文正). 저서로 <우암집(尤庵集)>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劄疑)> 등이 있다.
- 131) 민시중 : 1625~1677. 자 공서(公瑞), 호 인재(叵齋), 본관 여흥(驪興). 1669년(현종10) 6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1672년 정월이 이임됨.
- 132) 정석(鄭皙) : 1619~1677, 1648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1669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으며, 관직에 예조참의에 이르렀다.
- 133) 연신 : 경연(經筵)이나 서연(書筵)에서 국왕에게 경전 등의 내용을 강의하는 신하.
- 134) 송준길 : 1606~1672. 학자. 자 명보(明甫), 호 동춘당(同春堂), 본관 은진(恩津), 시호 문정(文正).

2. 약조제찰비(約條制札碑)¹³⁵⁾

約條制札

- 一 禁標定界外毋論大小事闌出犯越者論以一罪事
 - 一 路浮稅現捉之後與者受者同施一罪事
 - 一 開市時潛入各房密相買賣者彼此各施一罪事
 - 一 五日雜物入給之時色吏庫子小通事等和人切勿扶曳毆打事
 - 一 彼此犯罪之人俱於館門外施刑事
- 在館諸人若辦諸用告事館司直持通札以於訓導別差處可爲往來者也各條制札書立館中以此爲明鑑者也

癸亥八月 日

1. 금지 표시한 정계(定界) 밖으로는 대소사를 막론하고 체멋대로 넘어 나오는 자는 죄로 다스릴 것.

1. 노부세(路浮稅)¹³⁶⁾를 주고 받다가 현장에서 불잡히게 되면, 준 자와 받은 자 모두 죄로 다스릴 것.

1. 개시(開市)¹³⁷⁾할 때 각방에 몰래 들어가 숨어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자는 피차 모두 죄로 다스릴 것.

1. 5일마다 잡물들을 공급할 때 색리(色吏)¹³⁸⁾ · 고자(庫子)¹³⁹⁾ · 소통사(小通事)¹⁴⁰⁾들은 화인(和人)¹⁴¹⁾을 끌고다니며 구타하지 말 것.

1. 피차 양쪽의 범죄인은 모두 왜관문 바깥에서 형을 집행할 것.

왜관에 있는 여러 사람으로서 만약 일용품을 마련코자 한다면, 왜관의 사직(司

135) 이 약조는 <숙종실록>에 의하면, 동래부사 남익훈(南益勳, 1681년 2월에 부임하여 1683년 3월에 교체됨)이 계문(啓聞)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36) 노부세(路浮稅) : 우리 나라 사람이 왜인에게 지는 빚

137) 개시(開市) : 왜관개시(倭館開市). 조선시대 때 일본인에게 삼포(부산포 내이포 염포)를 개방하여 무역하던 일.

138) 색리(色吏) : 감영이나 군아(郡衙)에 소속된 아전.

139) 고자(庫子) : 창고를 지키며 출납을 맡아보는 사람.

140) 소통사(小通事) : 역관의 한 사람으로 하급 통역관에 해당한다.

141) 화인(和人) : 일본인

直)¹⁴²⁾에게 알린 다음 통찰(通札)을 가지고 훈도(訓導)¹⁴³⁾와 별차(別差)¹⁴⁴⁾가 있는
곳에는 왕래할 수 있다. 각 조의 제찰을 써서 왜관 안에 세워두어 이것을 밝게 살
피도록 하라.

(비음)

계해년(1683) 8월



142) 사직(司直) : 조선시대에 오위(五衛)에 속하는 정5품의 무관직이다.

143) 훈도(訓導) : 조선시대 종9품의 벼슬로 사역원(司譯院) 등의 관청이나 지방에 소속되어
전문기술교육을 담당하였다. 특히 동래에는 왜관개시 때 특별히 파견되어 일본어 통역
을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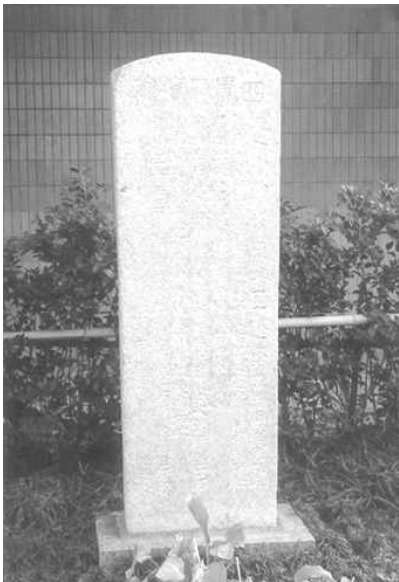
144) 별차(別差) : 왜관개시 때 중앙에서 내려보냈던 별정직의 통역관.

3.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

四處石橋碑

府之南門外 有木橋四處 每一二歲一改 而費出於民 民病之 久矣 嘉善姜渭聖發謀 言宜改以石 人皆善之 遂與朴道裕・朴師仁等四五人 赴緣境內 轉勸募財 以伐石于山 府伯李侯文源 捐俸俾卽盡運 橋旣成 民頌侯之德 請紀于石 且冀後之念 今隨圯輒改 使斯民永賴焉 故迺書如此

崇禎三辛丑三月 日
前成均典籍 洪愼猷記
幼學 卞 璞書
綠募 金秀泰
秋遇堅



동래부 남문 밖에 나무다리 네 곳이 있었다. 매년 일 이년마다 한번씩 고쳐야 했고, 그 비용을 부민(府民)들에게서 거두었으니, 부민들이 힘들어한 것이 오래되었다. 가선대부(嘉善大夫)¹⁴⁵⁾姜渭聖(姜渭聖)이 의견을 내어 돌다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모두들 좋다고 하였다. 드디어 박도유(朴道裕)와 박사인(朴師仁) 등 4, 5명이 경내에 연고자를 찾아 돌아다니며, 자금을 모금하여 산에서 석재를 캐어왔다. 이 때 부사 이문원(李文源)¹⁴⁶⁾이 자신의 녹봉을 기부하며 곧장 석재를 운송해오게 하였다.

다리가 완성되자 부민들은 부사의 덕을 칭송하고, 비석에 그 덕을 새겨 후일에까지 기억되기를 바랬

145) 가선대부(嘉善大夫) : 문관으로서 종2품에게 주어지는 품계.

146) 이문원(李文源) : 문관. 1780년(정조4) 정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감영의 장계로 파직됨.

다. 이제 나무다리가 무너진 자리에 돌다리로 고쳐 세웠으니, 이곳 백성들이 길이
덕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둔다.

승정 후 세 번째 신축년(1781) 3월

전 성균전적 홍신유¹⁴⁷⁾가 기록하고

유학 변 박이 쓰다.

모연 김수태

추우견

147) 홍신유(洪愼猷) : 1722~ ?. 서예가. 자 휘지(徽之), 호 백화자(白華子), 본관은 남양(南陽).

4. 서문 밖(西門外) 석교비(石橋碑)

西門外石橋碑

□□□□ 今改石橋 萬禩不遑 列□□苦 以垂永世

嘉善 白殷彦

折衝 房應輔

折衝 鄭道化

幼學 徐暎釋

通德郎 朴道灝

責應 崔廷岌

大施主 朴奉大 寫 王相身

乾隆五十年乙巳十月日 立



(...) 이제 석교로 바꾸니, 만년토록 교체하는 일 없을 것이오, (...) 길이 내려가리라.

가선 백은언

절충 방응보

절충 정도화

유학 서영치

통덕랑 박도호

책응 최정급

대시주 박동대 사 왕상신

(비음)

건륭 50년 을사년(1785) 10월에 세우다.

5. 척화비(斥和碑)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我萬年子孫 丙寅作辛未立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으니 싸우지 않는 자는 화친하는 것이다.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만년 뒤의 우리 자손들에게 경계한다.

병인년(1866)에 짓고 신미년(1871)에 세우다.



6. 호천(虎川) 석교비(石橋碑)

虎川石橋碑



7. 유원각선생(柔遠閣先生) 매안감고비(埋案感古碑)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
積累攸勤 歷世乃光
迺瘞舊珍 翼翼斯堂
一片堪語 丹篆輝煌
悠久勿墜 水碧山蒼

國家 寘柔遠閣于四屏山下 選才良幹局之人 以充職 盖交隣 國之大事 而非其人 不能擔任是責 古之卿大夫 交接隣國 以微言相感者 良以此也 昔吾祖先生 長于斯 從事于斯 恪勤奉公 盡其職分 歷數百年久 而今其雲仍 通籍于朝 冠盖相望 是豈非祖先積累之遺蔭歟 然祖先積累之蔭 乃發於子孫昌熾 則爲今日子孫者 烏可忘祖先舊蹟也耶 相與協議 僉謀允同 遂建閣于遺址 曰柔遠 又斲石顯銘曰感古 圖所以永世不忘 而凡吾各家子孫者 入是閣 益加戒飭 傳之悠久 以寓敬慕之懷云爾

光武拾年丙午九月 日 金健斗謹書

禋長 從二品 辦理公使 朴琪淙

監督 正三品 參書官 金洛駿

正三品 參奉 金重浩

公員 參奉 鄭東律

有司 參奉 朴龍奎

李龍澤

石工 安養寺 定藏

쌓아오신 업적이 근면도 하시어
세월이 지났어도 더욱 빛나여라.
보배로운 옛 자취 이 곳에 묻으니
이 사당도 엄숙히 모양 갖췄네.

한 조각 비석 위의 새겨둔 말은
 붉은 색 전서(篆書)로 휘황찬란하다네.
 오랜 세월 떨어지는 일 없이
 푸른 물 울창한 산과 같아라.



(비음)

나라에서 사병산(四屏山) 아래에 유원각(柔遠閣)을 설치하여¹⁴⁸⁾ 업무를 관장할 좋은 인재를 선발하여 직책에 충원하였다. 대개 교린(交隣)은 나라의 큰 일로서, 책임자가 아니면 이 책무를 맡아 담당할 수 없다. 옛날 공경대부(公卿大夫)들이 이웃 나라와 교린할 때 은미한 말도 서로 감응했던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다.

옛날 나의 선조 선생께서는 이 곳에서 자라 이 일에서 종사하였는데, 성실하고 부지런히 공무를 수행하여 그 직분을 다하였다. 수백년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그 후손들이 조정의 관직에 올라 관모(冠帽)와 산개(傘蓋)¹⁴⁹⁾가 서로 이었으니, 이것은 바로 선조가 쌓은 공적이 남긴 음덕(蔭德)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선조가 쌓은 공적의 음덕이 곧 자손들에게 나타나 창성하였는데, 오늘날 자손들이 어떻게 선조의 옛 업적을 잇을 수 있겠는가? 이에 서로 함께 협의한 결과 여러 사람이 동의하여, 드디어 그 유지(遺址)에 전각을 건립하고 ‘유원각’이라고 이름하였다. 또한 돌을 깎아 드러내어 새기기를 ‘감고(感古)’라고 하여 길이 잊지 않을 것을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대개 우리 각 집안의 자손들이 전각에 들어오면 더욱 경계하고 조심하여, 유구한 세월동안 전함으로서 공경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붙여둘 일이다.

광무10년 병오년(1906) 9월

148) 유원각(柔遠閣) : 조선시대에 함경도 종성(鐘城)·온성(穩城)·부령(富寧)·경흥(慶興) 네 곳의 도호부(都護府)에 서반토관(西班牙官)의 직소인 유원위(柔遠衛)를 설치하였던 일을 가리킨다.

149) 관모·산개 : 관모는 벼슬아치들이 쓰는 모자이고, 산개는 그들이 타는 수레의 양산이다. 높은 벼슬을 상징하는 물건들로서 그것이 서로 이어졌다는 것은 벼슬이 끊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8. 부사(府使) 유심(柳滄)¹⁵⁰ 청덕선정(淸德善政)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府使柳滄淸德善政萬古不忘碑



¹⁵⁰ 유심(柳滄) : 1649년(인조27) 11월에 부임하여 1651년(효종2) 7월에 경상도 감사로 이임함.

9. 부사(府使) 이택수(李澤遂)¹⁵¹⁾ 만세불망비(萬世不忘碑)

府使李公澤遂萬世不忘碑



151) 이택수(李澤遂) : 문신. 1773년(영조49) 8월에 부임하여 1774년 6월 관찰사와 매서(妹婿)인 관계로 교체되어 감.

동구 금석문

1. 자성비(子城碑)¹⁵²⁾

子城碑

維明皇萬曆 歲在屠維淵獻之次 八月上浣 經理大中丞 萬公世德 受命專征 至于三韓 廓清倭氛 保定屬藩 乘秋南獮 放于東海 遂偕大將軍李公承勛 率文武將吏 登釜山之巔 而喟然歎曰 於鑠哉 聖仁神武 丕揚流鬯 一至于斯乎 乃授簡外史氏 前兵部職方司郎中 薊門賈維鑰 叙其事而銘之曰 盖維朝鮮內附 稱藩與國同久 倭奴不道 螫其山川 宗廟鞠爲丘墟 旄倪俱轉于丘壑 箕封板蕩 狀極慘楚 天子悶而授之王師 渡江平壤克捷 關酋懼禍 狡僞革面 乞受命封 朝廷推誠柔遠 是信是予 顧使節甫旋 盟寒口血 是奚異夫 有苗之逆虞 鬼方之負殷 玁狁之猾周者哉 天怒震疊 義在必討 以大司馬邢公玠行總督諸軍事 擢參政楊公鎬 爲御史中丞 經理朝鮮 亡何以行間事齟齬去 而萬公自天津移鎮焉 則寵命邳隆 肩任益鉅矣 先是朝廷鄭重關役 頒四大將軍印綬 於是麻將軍貴 董將軍一元 以薊遼雲谷步騎之銳 至劉將軍綰 陳將軍璘 以吳越閩蜀 水陸之雄 至簡詰兵戎 則左右道參政王士琦 參議梁祖齡 副使杜潛 而督餉則民部郎董漢儒 有專責焉 至于守職獻宣猷 則運同吳良璽等分陴 戮力則副總兵解生等 各有司存 共襄機務 惟是御史陳公效 躬膺特簡 以繡斧按治弗戒 吁嗟乎 七萃賅 百職備 如雲如林 太原之戎 細柳之屯 庸詎肅於斯耶 於是克日誓師 四路競進 擊斗 則空谷翻雷 揚帆 則洪濤浴日 搗抗中竅 排縋斯窮 奮螳臂者 授首膏原 悲狐丘者 扶傷夜遁 海截山殲 京觀岳峙 除殘拓境 水國風清 上以紓九重霄旰之憂 下以洩八道神人之憤 黍離不作 鴻雁興謠 猗歟至矣 國家德濡窮壤 而威加日出

152) <동래부읍지>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였다.

之域 考鏡三五 曷以加焉 因封山刊石勒名 以昭鴻烈 以示無窮
其辭曰 維皇仁覆 怙遐荒兮 蠢茲凶梟 侵侯疆兮 爰整六師 以遏
徂征兮 執禽獲醜 孰逆顏行兮 取殘植弱 靜海邦兮 讐遠柔邇 風
四方兮 瞻彼嶄巖兮 天威有赫 酌彼溟渤兮 帝德罔極 拜手題石
兮 揮昭鴻烈 萬世千秋兮 永奠王國

명(明)나라 만력(萬曆) 기해(己亥)년(1599, 선조32) 8월 상순에 경리(經理) 대중승(大中丞) 만세덕(萬世德) 공(公)은 황제의 원정 명령을 받고 조선에 와서 왜인의 기운을 쓸어내고 조선을 지켜주었다. 가을이 되어 남쪽으로 이동했다가 동해에 이르러서 드디어 대장군인 이승훈(李承勛) 공(公)과 함께 문무장리(文武將吏)를 거느리고 부산의 언덕에 올라 탄식하며 말하기를 “아! 아름답구나. 성스러운 어지심과 신통한 무예로 향기를 남기셔서¹⁵³⁾ 여기에까지 이르렀도다.”라고 하였다. 이에 외사씨(外史氏) 전병부직방사낭중(前兵部職方司郎中) 계문(薊門) 가유약(賈維鑰)에게 임시로 임무를 주어 그 일을 서술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명(銘)을 지어 말한다.

대개 조선이 내부(內附)하여 제후의 나라로 칭하여 온지가 나라와 함께 오래 되었는데, 왜노(倭奴)들이 무도하여 그 산천에다 독을 퍼뜨리자 종묘는 허물어져 폐허가 되었고, 노인과 어린아이는 골짜기에 모두 굴러 떨어지니 조선의 강토가 흔들려 그 형세가 매우 참혹하게 되었다. 천자가 민망하게 생각해서 천자의 군대를 주었으니 강을 건너 평양에서 싸워 크게 이겼다. 왜(倭)의 관백(關白)이 화가 미칠까 두려워 교활하게 거짓으로 얼굴을 바꾸어 명(明)나라의 봉작(封爵)을 구걸하니 조정에서는 그 정성을 미루어 먼 나라를 회유하려는 생각으로 이 말을 믿고 봉작을 내렸다. 그런데 사절이 돌아오자마자 맹세 한 것을 저버리니 이것이 어찌 묘족(苗族)¹⁵⁴⁾이 순(舜) 임금에게 거역하고 귀방(鬼方)¹⁵⁵⁾이 은(殷)나라를 배반하고 험윤(獫狁)이 주(周)나라를 어지럽힌 것과 다름이 있겠는가? 황제가 크게 노하여 의리상 반드시 토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대사마(大司馬) 형개(邢玠) 공(公)을 총독제군사(總督諸軍事)로 삼고, 참정(參政) 양호(楊鎬) 공(公)을 발탁하여 어사중승(御使中丞)으로 삼아

153) 류창(流鬯) : 향기를 남긴다는 뜻이다. 창(鬯)은 향기로운 술.

154) 유묘씨(有苗氏) : 중국 상고시대 때 묘족(苗族)이 귀순하지 않자, 순(舜)이 우(禹)로 하여금 이를 정벌하게 하였다.

155) 귀방(鬼方) : 중국 청해성에 살았던 서융족(西戎族).

조선을 경략(經略)하게 하였다. 얼마 후 행간¹⁵⁶⁾의 일로 서로 맞지 않아 떠나고 만공(萬公)이 천진(天津)에서 옮겨와 진무(鎭撫)하니 총애하는 명령이 매우 융숭하였고 맡은 책임도 더욱 무거웠다. 이에 앞서 조정에서는 출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4명의 대장군에게 명령을 내렸다. 마귀(麻貴)장군과 동일원(董一元)장군은 계(薊)·료(遼)·운(雲)·곡(谷)의 정예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왔고, 유정(劉綎)장군과 진린(陳璘)장군은 오(吳)·월(越)·민(閩)·촉(蜀)의 용맹한 해군과 육군을 거느리고 왔고, 병기를 검사하는 것은 좌우도참정(左右道參政) 왕사기(王士琦)와 참의(參議) 양조령(梁祖齡)과 부사(副使) 두잠(杜潛)이 맡았으며, 군량미를 감독하는 것은 민부랑(民部郎) 동한유(董漢儒)가 모든 책임을 맡았다. 직책에 따라 계책을 세우는 것은¹⁵⁷⁾ 운동(運同) 오양새(吳良璽) 등이 했고, 성곽을 맡아 힘을 다하는 일은 부총병(副總兵) 해생(解生) 등이 맡았다. 각기 유사(有司)가 있어 서로 업무를 도왔는데 오직 어사(御使) 진공(陳公)만이 몸소 천자의 특별한 명령을 받아 군율을 다스렸다.¹⁵⁸⁾ 아! 주(周)나라의 금위군(禁衛軍)¹⁵⁹⁾처럼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고 온갖 직책이 구비되니, 구름과 같고 숲과 같아 시경(詩經)의 태원(太原)에 출정하는 군사나¹⁶⁰⁾ 한(漢)나라 주아보(周亞父)의 세류(細柳)의 진영¹⁶¹⁾이 이보다 엄숙하겠는가? 이에 날짜를 정하여 군사들과 맹세하고 사방으로 다투어 진군하면서, 징을 울리니 빈 골짜기에 천둥이 진동하였고 뜻을 울리니 태양이 파도에 씻기었다. 대항하는 자를 치니 몸통이 뚫렸고 매달린 자를 밀치니 궁지로 떨어졌다. 당낭거철(螳螂車轍)¹⁶²⁾처럼 팔을 휘두르는 자는 기름진 이 땅에 목을 내놓았고, 수구초심(首邱初心)¹⁶³⁾으로 슬프게 고향을 그리워하던 자는 부상한 몸을 부축해 밤에 도망갔다. 바다에서 배고 산에서 섬멸하니 시체를 쌓은 무덤이 산더미 같았고¹⁶⁴⁾, 잔악한 자를

156) 행간(行間): 간첩을 통하여 적군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간(離間)의 술책을 행함.

157) 1740년 동래부사 박사창(朴師昌)이 지은 동래부지에는 ‘至于守職獻猷’로 되어 있고, 1850년 경상좌수사 이형하(李亨夏)가 지은 래영지(萊營誌)에는 ‘至于守職獻宣猷’로 되어 있다.

158) 수부(繡斧): 수의(繡衣)를 입고 부월(斧鉞)을 짊고서 법을 집행함.

159) 칠채(七萃)는 주나라 때의 금위군(禁衛軍)을 말한다.

160) 태원지용(太原之戎): 시경의 소아(小雅)에 나오는 말로, 윤길보(尹吉甫) 장군이 험윤(獫狁)을 치면서 태원까지 출정하는 엄숙한 행렬을 노래한 것이다.

161) 세류지둔(細柳之屯):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주아보(周亞父)가 세류(細柳)에서 진을 칠 때 규율이 엄숙했던 것을 말한다.

162) 당낭거철(螳螂拒轍): 사마귀가 수레를 가로막는다는 뜻으로, 자기 힘을 생각하지 않고 분수없이 날뛰는 것을 말한다.

163) 수구초심(首邱初心): 여우가 죽을 때 고향을 그리며 자기가 살던 쪽으로 머리를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한다.

164) 경관(京觀): 전쟁이 끝난 뒤 적의 시신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어 높은 언덕처럼 만들어, 이를 사방 사람들과 후세에 보임으로써 흉악한 일을 경계하는데 이를 경관이라 한다.

물리치고 국토를 회복하니 바다에는 바람도 맑았다. 위로는 구중궁궐의 황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아래로는 팔도의 신인(神人)의 울분을 풀리게 하니 사직(社稷)의 황폐함을 노래하지 않고¹⁶⁵⁾ 재난을 끝내고 편안히 모여 사는 노래가 나왔으니¹⁶⁶⁾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다. 국가의 은덕이 먼 지방에 미치게 되자 위엄이 해뜨는 지역까지 더해지게 되었으니 삼광(三光)이나 오악(五嶽)¹⁶⁷⁾과 비교해보더라도 어찌 이것보다 더하겠는가? 이런 까닭으로 봉산(封山)에서 돌을 캐어 이름을 새겨 커다란 공로를 밝혀서 무궁한 후세에 보이고자 한다. 그 말은 이렇다.

황제의 어지심이 먼 이 곳까지 덮어 편안하게 하였는데 흉측한 올빼미 무리가 조선을 침범하였다. 이에 황제의 군대를 정비하여 막아주고 정벌하노라. 짐승을 잡듯이 적들을 잡으니 누가 선봉을 거역하리요? 생존한 자를 거두고 약한 자를 보살피니 조선이 조용해졌고, 먼 곳은 복종하고 가까운 곳은 회유하니 사망이 교화되었다. 저 높은 바위를 바라보듯, 이렇게 황제의 위엄이 빛난다. 저 깊은 바닷물을 따르듯, 이렇게 황제의 덕은 망극하다. 손 모아 절하고 비석에 이름을 새겨 큰 공로를 밝히니, 천만년 동안 영원히 왕국(王國)에 바치노라.

165) 서리(黍離) : 시경의 편명이다. 동주(東周)의 대부(大夫)가 여행하며 서주(西周)의 도읍인 호경(鎬京)을 지나다가 서주(西周)의 종묘와 궁실이 황폐해져 있음을 보고 슬퍼하며 지은 시이다.

166) 홍안(鴻雁) : 시경의 편명이다. 주나라 선왕(宣王)이 재난 때문에 흩어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아와 편안하게 살게 한 덕을 노래한 시이다.

167) 삼광·오악 : 삼광(三光)은 해와 달과 별이고, 오악(五嶽)은 천하의 중간과 사망의 이름난 명산 다섯을 가리킨다.

2. 충장공(忠壯公) 정발(鄭撥) 전망비(戰亡碑)

忠壯公鄭撥戰亡碑

粵在壬辰之亂 釜山僉使鄭公撥 勵氣巡城 射殪賊無數 一日之內 賊屍之山積者 凡三處矣 乃矢盡 偏裨請跳出 待援兵 公曰 吾當爲此城之鬼 敢復言棄城者斬 士卒皆泣 莫敢離次 俄而公中丸絕 城遂陷 公之幕賓 副司猛李公庭憲 不去而亦死之 公之妾愛香 聞公死 奔哭自剄於屍旁 公之奴龍月 亦赴賊死 其後倭將言 貴國之將 惟釜山黑衣將軍 最可畏也 盖公臨戰時 穿黑衣故也 亂定後 朝家贈公左贊成 諡曰忠壯 又與東萊府使宋忠烈公象賢 並享於忠烈祠 又有碑於東萊南門 詳載公殉節時事 凡所以表揚公者 殆可謂靡有遺矣 然釜城卽 公死綬之地 而獨無片石之記焉 後壬辰百七十年 載河受命 按嶺左水軍 駐節於萊上 一登釜山而 挹公之遺躅 遂慨然歎曰 此地安可無忠壯公戰亡碑也 於是伐石而豎之永嘉臺傍 記蹟於碑陰 噫 釜鎮乃我國南徼之咽喉 蠻船往來之初程也 刻公之名而 記公之事 立之於此地者 將欲以激邊心而 破賊膽也 三尺貞珉 未必無助於金湯之固 衣裯之備云爾 皇明萬曆 壬辰後一百七十年 辛巳之夏 折衝將軍 慶尙左道水軍 節度使 朴載河 撰銘曰

山嶽之峯 不足爲高 日月之光 不足爲昭 惟公之節 撐柱宇宙 孤城一片 綱常萬古 僕妾之烈 並峯一室 矧又賓幕 凜乎南八 短碑難摸 溟海不竭

通訓大夫 前行侍講院司書 春秋館記事官 黃幹書

辛巳 七月 日立



(비음)

지난 임진년의 왜란 때에 부산의 첨사 정발공(鄭撥公)은 사기를 돋우며 성을 돌아다니면서 왜적을 무수히 쏘아 맞추어 하루만에 적의 시체가 산처럼 쌓인 곳이 세 곳이나 되었다. 화살이 떨어지자 부하 장수들이 성을 빠져나가 구원병을 기다리자고 간청하였다. 공은 “나는 이 성의 귀신이 될 것이다. 또 다시 성을 포기하자고 하는 자는 목을 베겠다.”고 하니 군사들이 모두 흐느끼며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얼마 후 공이 탄환에 맞아 절명하니 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공의 막료인 부사맹(副司猛)¹⁶⁸⁾ 이정헌(李庭憲)공도 곁을 떠나지 않고서 죽었고, 공의 애첩인 애향(愛香)도 공의 죽음을 듣고 달려와 곡하고 시신 곁에서 스스로 목을 찢어 죽었으며, 공의 노복인 용월(龍月)도 또한 적에게 달려들다 죽었다. 그 후에 왜장은 “귀국의 장수 중에 부산의 흑의장군(黑衣將軍)이 가장 두려웠다.”고 하였다. 이는 공이 싸울 때에 검은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난이 평정된 뒤에 조정에서는 공에게 좌찬성의 벼슬을 추증하고 시호를 충장(忠壯)이라 하였으며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¹⁶⁹⁾과 함께 충렬사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또 동래성 남문에 비석이 있어 공이 순절할 때의 일을 상세히 적어 놓았으니 공을 찬양하는 일은 이것으로 거의 남김없이 다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진성은 공이 목숨을 바친 곳인데도 돌에 새긴 기록이 한 점도 없었다. 임진왜란 후 170년만에 박재하(朴載河)가 왕명을 받들어 경상좌도 수군을 거느리고 동래에 머물게 되었다. 한 번 부산진성에 올라 공의 남긴 자취를 돌아보고 개연히 탄식하며 “이 곳에 어찌 충장공의 전망비가 없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돌을 캐어 영가대(永嘉臺) 옆에 세우고 사적을 비석 뒤에 새긴다. 아! 부산진은 나라의 목에 해당되는 남쪽 요새이고 섬의 오랑캐 배가 오가는 첫 지점이다. 공의 이름을 새기고 공의 사적을 기록하여 이 곳에 세우는 것은 변방의 민심을 격동하게 하고 적의 간담이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세 자(尺)의 끈은 비석이 견고한 성곽과 물살 틈 없는 방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으리라. 만력(萬曆) 임진(壬辰)년 170년 뒤 신사(辛巳)년(1761, 영조37) 여름에 절충장군¹⁷⁰⁾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박재하는 명(銘)을 지어 말한다.

168) 부사맹 : 조선시대 오위(五衛)에 소속된 종8품의 부관직.

169) 송상현 : 1551~1592. 1591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가 임진왜란에 순절하였다.

170) 절충장군 : 조선시대 서반 정3품 당상관의 품계명.

산악이 우뚝 솟은 것 높다할 것 없고
해와 달이 빛나는 것 밝다할 것 없네
오직 공의 절개만이 세상의 기둥이 되니
고립된 성의 일편단심 만고의 모범일세
노복과 첩의 충직함¹⁷¹⁾도 한 집안에 우뚝하고
막료인 이공(李公)¹⁷²⁾도 당(唐)나라 남팔(南八)¹⁷³⁾처럼 늠름하였으니
짧은 비석에 적기 어려워도 깊은 바다처럼 다하지 않으리

통훈대부 전행시강원사서 춘추관기서관 황간이 쓰다.

신사년 7월 일 세움.

171) 노복과 첩 : 정발의 노복인 용월(龍月)과 애첩인 애향(愛香).

172) 이공(李公) : 이정현(李庭憲).

173) 남팔(南八) : 남팔은 남씨의 팔남(八男)으로 태어난 남제운(南霽雲)을 일컬음. 그는 장순(張巡)과 함께 전쟁터에서 절개를 지켜 죽었다.

3. 정공단비(鄭公壇碑)

鄭公壇碑

4. 충장공(忠壯公) 정발(鄭撥) 전 망유지비(戰亡遺址碑)

忠壯鄭公撥戰亡遺址

址卽古鎮南門也 公於壬辰四月十四日 殉節此地
崇禎紀元後三丙戌 二月日 節制使李光國 記書豎壇

(비음)

이 곳이 바로 옛날의 진남문(鎭南門) 자리이다. 공은 임진년 4월 14일에 이 곳에서 순절하셨다. 숭정(崇禎) 기원(紀元)후 세 번째 병술(丙戌)년(1766, 영조42) 2월에 절제사 이광국(李光國)은 글을 쓰고 단을 세운다.



5. 증좌승지(贈左承旨) 이정헌(李庭憲)¹⁷⁴⁾ 비(碑)

贈左承旨李公庭憲之碑

己巳 孟春立

기사년 1월 세움.



174) 이정헌(李庭憲) : 부산 첨사(僉使) 정발(鄭撥) 장군의 휘하로 정발과 함께 왜군을 맞아 싸우다 순직하였다.

6. 전망제인비(戰亡諸人碑)

戰亡諸人碑



7. 열녀 애향비(烈女愛香碑)175)

烈女愛香碑

甲辰 四月 日立

(비음)

갑진년 4월 일 세움.



175) 애향 : 정발 장군의 애첩. 정발을 따라 자결하였다.

8. 충노 용월비(忠奴龍月碑)176)

忠奴龍月碑



176) 용월 : 정발 장군의 노복, 왜군과 싸우다 죽음.

9.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서문성곽우주석(西門城郭隅柱石) (I)

南徼咽喉

나라의 목에 해당되는 남쪽 요새.



10. 부산진지성(釜山鎭支城) 서문성곽우주석(西門城郭隅柱石) (Ⅱ)

西門鎖鑰

나라의 자물쇠가 되는 서쪽 대문.



11. 총독장(摠督將) 화산군(花山君) 영양(潁陽) 천공(千公) 비(碑)

摠督將花山君潁陽千公之碑

公諱萬里 號思庵 諡忠莊公 肇祖中華版圖丞相公 諱岩□代孫
也 去壬辰 以摠督 將五軍 帥調兵 領糧使 奉命東征 來救朝
鮮 三戰三捷 仍留箕城 策勳資憲大夫 奉朝賀 封花山君
凱還之日 舉國官民 永慕功德 立石于釜山子城垓 歲久湮沒
苔蝕篆泐 不意前年 枉被倭兵拔去 嗟我後孫輩 不勝憾愴 追
古增新

檀紀 四千二百八十年 丁亥 三月三日
慶鎮 琪準 基烈 鳳儀 亨植 明窩 英華
基祚 尚卿 應鎮 致萬 潤億 有洪 敏燮



(비음)

공의 이름은 만리(萬里)¹⁷⁷⁾이고 호는 사암(思庵)이며, 시호는 충장공(忠莊公)이다. 시조는 중국 판도승상(版圖丞相) 암(岩)의 □대 후손이다. 임진왜란 때 총독으로 오군(五軍)을 이끌고 군사들을 인솔하여 식량을 수송하며 명을 받아 동쪽으로 와서 조선을 구원하였다. 세 번 싸워 세 번 모두 이겨서 평양에 머물렀으며, 그 공로로 자헌대부(資憲大夫)¹⁷⁸⁾ 봉조하(奉朝賀)¹⁷⁹⁾가 되었으며 화산군(花山君)에 봉해졌다.

개신해 돌아오던 날에 온 나라의 관민(官民)들이

177) 천만리 :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에서 와서 울산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머물러 천씨(千氏)의 시조가 됨.

178) 자헌대부 : 조선시대 정2품 하계의 문산계의 품계명.

179) 봉조하 : 조선시대에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사임하면 특별히 내려주었던 벼슬.

공덕을 길이 추모하여 부산 자성대에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세월이 오래되어 문혀 버렸으며, 이끼가 끼고 글자가 부서졌다. 뜻하지 않게 몇 년 전에는 일본군들이 비석을 철거하였으니 우리 후손들은 슬픔을 이길 수 없어 옛날을 추모하여 새롭게 비석을 세운다.

단기 4284년(1947) 정해년 3월 3일

경진 기준 기열 봉의 형식 명와 영화

기조 상경 응진 치만 윤억 유흥 민섭

12. 수사 장인식(張寅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相國張公寅植永世不忘碑

恤邊調防 茹強扶弱
恩重如山 惠壽于石

丁巳 七月 日 開雲鎮卒 立
監役 朴重亨
色 金井洵

변방을 구휼하여 방비를 고르게 하였고
강한 자 누르고 약한 자 부축하였으니
은혜는 산처럼 무거워라
그 덕을 돌에 새겨 오래도록 남긴다.

(비음)

정사년 7월 일 개운진 군졸이 세움.

감역 박중형

색 김정순



13. 경찰관(警察官) 박기중(朴琪淙)¹⁸⁰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警察官朴公琪淙永世不忘碑

綏港罄心 補廨均恩
公雖解歸 片石堪言

光緒十九年 九月 日 巡查廳 立

항구를 맡으시어 마음을 기울이고
건물을 고쳐주고 은혜를 고루 펼쳤다
공은 비록 돌아가셨지만
조각 돌이 말해주리라

광서 19년(1893) 9월 일 순사청에서 세우다.



180) 박기중 : 1836~1904. 1839년 다대첨사(多大僉使)를 지냈고 이듬해 절영첨사(絶影僉使) 겸 부산경무관(釜山警務官)을 역임함.<동구향토지>

14. 첨사(僉使) 박기중(朴淇琮) 영세송덕비(永世頌德碑)

行僉使朴公淇琮永世頌德碑

莅初運穀 曠餘濟民
鎮務漸蘇 巷謠益新

歲在乙未 三月 日 校吏軍民等 立

부임하여 곡식을 운반해서
남김없이 백성들을 구제했다.
진(鎭)의 업무 점점 회복되고
거리의 노래 더욱 새로워졌네

(비음)

을미년(1895) 3월 일 교리군민 등이 세움.



15. 감리겸부윤(監理兼府尹) 이준영(李準榮)¹⁸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監理兼府尹李公準榮永世不忘碑

頌溢來暮 波及于我
治合去思 港樹含滋

光武四年 七月 日 草梁洞中立

늦게 오셨다 청송이 넘쳐나서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파급되었다.
화합으로 다스려 떠난 후에도 생각나니
항구의 나무들도 윤택을 머금었네

(비음)

광무 4년(1900) 7월 초량동에서 세우다.



181) 이준영 : 1900년 3월 동래부사로 재직시에 초량에 해산물 보관창고를 건축하였다.<동구향토지>

16. 첨사(僉使) 홍태두(洪泰斗)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僉使洪公泰斗永世不忘碑

丙戌 六月 日 三鎭 將士 立

(비음)

병술년 6월 일 세 진의 장사들이 세움.



17. 첨사(僉使) 조세망(趙世望)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僉使趙公世望淸德善政碑

丁酉 四月 日 立

各廳立

監役 辛之寬 柳世輝 金益重

정유년 4월 일 세움.

(비음)

각청 세움.

감역 신지관 유세휘 김익중



18. 첨사(僉使) 홍이징(洪以徵) 애졸선정비(愛卒善政碑)

僉使洪公以徵愛卒善政碑



19. 첨사(僉使) 이원룡(李源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僉使李公源龍永世不忘碑

甲辰 八月 日 立

갑진년 8월 일 세움.



20. 첨사(僉使) 조광렬(趙光烈) …불망비(…不忘碑)

僉使趙公光烈…不忘碑



21. 첨사(僉使) 노흠(盧恰) 선정거사비(善政去思碑)

僉使盧公恰善政去思碑

□子夏立

(비음)

□자년 여름에 세우다.



22. 첨사(僉使) 안광찬(安光贊)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僉使安公光贊永世不忘碑

己卯 十月 日 鎭屬 立

(비음)

기묘년 10월 일 진속이 세우다.



23. 만호(萬戶) 조응석(趙應錫) 거사비(去思碑)

萬戶趙公應錫去思碑

24. 부창해감(釜昌該監) 홍우인(洪祐人) 불망비(不忘碑)

釜昌該監洪公祐人不忘碑

25. 충장공(忠壯公) 정발¹⁸²⁾장군비(鄭撥將軍碑)

忠壯公鄭撥將軍碑

址卽古鎮南門也 公於壬辰四月十四日 殉節此地 國紀 三千九百七十九年 丙戌 二月日 節制使李光國 受國命豎壇

國紀 四千二百八十一年 戊子 十月 日重建

(비음)

이 곳이 바로 옛날의 진남문(鎭南門) 자리이다. 공은 임진년(壬辰年) 4월 14일에 이 곳에서 순절하셨다. 국기(國紀) 3979년 병술(丙戌)년(1766) 2월에 절제사 이광국(李光國)은 국명(國命)을 받아 단을 세운다.

국기 4281년(1948) 무자년 10월 일 중건.



182) 정발 : 1553~1592. 임진왜란 때 부산첨사(釜山僉使)로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동래구 금석문

1. 이섭교비(利涉橋碑)

利涉橋

深厲淺揭人皆病涉則此橋之所以作也 然以板爲橋易致朽腐 故逐年因舊貫 改作實爲民弊病矣 曾在廣梯之役 欲勦曰 是也 有意未就 甲戌冬 府中數三人 慨然追前之志 招集化禪 募緣財力 運石之役 民自來趨 翌年春訖其功 此實踵前將營未畢志而成後 不日成功之矣 豈非金振漢始基之 而辛萬齋成之者乎 所謂江流而石不轉 濟盈而不濡軌 則登茲橋者 亦當嘆美而頌功永有辭於千億矣

幼學 金振海 記書

府使 李公

座首 辛萬齋

別監 文承昌 李命老

大施主 張次善 姜希望 丁萬宗

嘉善 洪仁漢 張吉士

通政 金守貞

嘉善 李介弗 金件里同 鄭特峰 朴是成

李永直 張次水 崔區加金 盧有文

通政 金玉得 金萬世 □□明

司果 白之元 白應宗 白業仲 白□之 鄭忠坐 文戒榮

白太石 申分男 僧文印 姜致可 朴以迪 宋時雄

都□手 □□□ 朴整□

副□手 金世元 白□ 景靈 萬芑伊 海清 金拳男

眞輝 應宙 應默 金碧純

化主 □□ □□ □□ □□

供養 □□ □□ 普□ 空彦 空敏

緣化 淸隱 雪淸 省念 擇林 敏海 英照

覺軒 典形 空湛 壇俊 雲惠 金處益

崇禎 後 乙亥 季春 日 別坐釋尙裕



물이 깊으면 그냥 건너고 물이 얕으면 건고 건너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힘들어했으니 이것이 이 다리를 만들게 된 까닭이다. 그러나 나무판으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썩어버렸다. 그래서 해마다 예전 방법을 써서 고쳐 만들었으니 실로 백성들에게는 큰 병폐가 되었다. 일찍이 이 다리를 넓히는 역사를 하는 것이 다들 옳다고 하였으나 생각만 있었지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갑술(甲戌)년(1634, 인조12) 겨울에 부(府) 안의 몇 사람이 개연(慨然)히 앞사람들의 뜻을 이어 화주(化主)¹⁸³⁾를 불러모으고 재물을 모금하니 돌을 옮기는 부역은 주민들이 스스로 달려와서 다음에 봄에 그 일을 마쳤다. 이는 실로 지난날에 하려다 끝내지 못한 뜻을 뒤에 와서 하루도 안되어 완공한 것이다. 김진한(金振漢)이 이 일을 시작하고 신만재(辛萬齋)가 이 일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른바 강물이 흘러도 돌은 구르지 않고 나무가 넘쳐도 수레바퀴는 찢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 다리에 오르는 자는 의당 그 공을 찬미하고 칭송할 것이며 천억 년이 지나도 길이 감사의 말이 있을 것이다.

(비음)

유학 김진해 기서

부사 이공

183) 화주(化主) : 시주자(施主者)

좌수 신만재
별감 문승창 이명노
대시주 장차선 강희망 정만중
가선 홍인한 장길사
통정 김수정
가선 이개불 김건이동 정특봉 박시성
이영직 장차수 최구가금 노유문
통정 김옥득 김만세 □□명
사과 백지원 백응중 백업중 백□지 정충좌 문계영
백태석 신분남 승문인 강치가 박이적 송시웅
도□수 □□□ 박정□
부□수 김세원 백□ 경영 만돌이 해청 김권남
진취 응주 응묵 김벽순
화주 □□ □□ □□ □□
공양 □□ □□ 보□ 공언 공민
연화 청은 설청 성념 택림 민해 영조
각헌 전형 공담 단준 운혜 김처익

승정 후 을유년(1635) 3월 일 별좌 승 상유

2. 임진전망 유해지총(壬辰戰亡遺骸之塚)

壬辰戰亡遺骸之塚

嗚呼 此六塚卽壬辰戰亡遺骸之葬也 今去壬辰百四十餘年 而矢鏃不鏹 折戟未銷 賊砲石丸多在骸間 見之 絕可悲惋也 盖此南城之畔 卽泉谷宋先生殉節之墟也 歲辛亥適以朝命 始築邑城 開拓故址 此骸之出 皆在於舊城南門之左右 是皆壬亂守堞投命重圍 並從泉谷 而同日立愷者 獨其姓名無以考據 不得與於忠烈俎豆之列 重可惜也 前後所發 凡十二骸 然此特其形骨宛然者爾 其殘骸之片片零落者 又不可勝計 斂匣移瘞於府南三星臺之西麓 凡我州人尙識其爲忠義之葬 而勿踐勿夷 亦願每年弄珠山四月之祭 別祭於此塚 以行邑中故事可也 若夫表章之方 以俟後之任衰世之責者云爾

東萊府使 東萊 鄭彦燮 書

監官 鄭元僑

上之七年辛亥 七月 立



(비음)

아! 이 여섯 개의 무덤은 바로 임진(壬辰)년에 돌아가신 유해의 장지(葬地)이다. 지금부터 임진년까지는 140여 년이나 되었는데 화살촉이 녹아 없어지지 않고 부러진 창이 삭지 않은 채, 왜적이 쏜 돌과 탄환이 유해 사이에 많이 남아 있으니 정말로 슬픈 일이다. 대개 이 남쪽 성 근처는 바로 천곡(泉谷) 송상현(宋象賢)선생이 순절한 곳이다. 신해(辛亥)년(1731, 영조7)에 마침 조정의 명령으로 처음으로 동래읍성을 쌓으면서 옛 성터를 넓혔는데 이들의 유해가 옛 성 남문의 좌우에서 모두 나왔다. 이들은 모두 임진

년의 난리에 성을 지키며 목숨을 던져 겹겹이 포위된 속에서도 천곡(泉谷)선생을 따라 같은 날에 절개를 지켜 돌아가신 사람들인데 유독 그 이름을 상고(詳考)할 수 없어 충렬사 제향(祭享)의 반열에 참여시키지 못하니 매우 애석하도다. 전후로 발견된 유해는 모두 12구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그 형체와 뼈가 온전한 것이고 그 잔해가 조각조각 떨어져 부서진 것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이를 거두어 상자에 넣어 동래부의 남쪽 삼성대(三星臺)의 서쪽 산기슭에 옮겨 묻어주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은 바라건대 충신 의사의 장지인 것을 알고 밟지도 말고 훼손시키지도 말아라. 또한 바라건대 해마다 농주산(弄珠山) 4월의 제사 때에는 이 무덤에 따로 제사를 지내서 마을의 고사(故事)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표창하는 방법 같은 것은 훗날 쇠퇴한 세상을 진작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을 기다릴 뿐이다.

동래부사 동래 정언섭¹⁸⁴⁾ 서
감관 정원교

지금 주상 7年 신해년(1731) 7월에 세움.

184) 정언섭 : 1686~1748, 1725년(영조원년)에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730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

3. 내주축성비기(萊州築城碑記)

萊州築城碑記

承訓郎行黃山道察訪 金光岳 記

幼學 宋光濟 書

通訓大夫行玄風縣監 俞宇基 篆

上之九年 癸丑冬 光岳忝居堂后 因得入侍筵席 有重臣 於上前
畫平陽築城事曰 若如鄭彥燮之築東萊城事 聽守臣自爲則 不費
國廩 不殫民力而 事可成矣 光岳謹書日記 藏之院中 其明年春
爲丞黃山時 得接見萊人 萊人稱鄭公治績多赫赫焉 有萊儒宋生
光洵 携築城事蹟二冊來 要余作碑記 其請至五六而不捨 余竟不
能辭 按其圖記 盖萊州自壬辰城陷 百四十餘年之間 其周遭舊址
夷而爲民居無復一片藩籬之設 公始至 大懼邊圉之疎虞 而陰雨
綢繆之策 不可以時平而忽也 慨然有意於修治 一日夜 以微服潛
行 周覽城址而還 外人不知也 遂定計 封發狀啓 時則觀察使趙
公 議以克合 助其成之 辛亥正月丁卯 尺量城基 分定各任牌將
其器機物力 宿已儲備 無一之不給焉 乃發號出令 烈如風火 無
敢違拒者 其開基也 有積骸 傍帶箭鏃 盖壬亂戰亡士也 斂以布
楮 納之櫃 致祭以□之 後有骸骨發者咸如之 日巡役處 課其勤
惰 罰不少貸 當賞必賞 饋以酒食 賜以錢布 棄若土芥 由是 將
士爭奮 歡已踊躍 咸致死力 厥四月城成 五月城門成 七月門樓成
自始役百餘日 而屹屹堅城 若神施而鬼設焉 周回二千八百八十步
爲八里許 高可數十尺 袤過於舊而石皆用新 用役丁五萬二千人
用財米穀四千五百餘石 布一千五百五十疋 錢一萬三千四百餘兩
皆公所自料辦 信非剝於民 而靡於國廩者 功既告訖 賜宴將士 優
給錢穀 令四所將校 各於其門樓置酒張樂 極遊而罷 以八月己酉
燕飲以落之 觀察使趙公顯命 左兵使李公復休 諸守宰列鎮 皆來
會焉 既又謂城守不可以無餉 別備米租四千餘石 設置倉舍 名曰
守城倉 以爲軍儲緩急之須 使勤敏

武夫五人 主其事 給以廩料 特差守堞軍官二百人 蠲其役以守之 其所施設可固而久也 猶謂武備之不可徒修也 迺於治之西數里 建齋名曰時述 以爲邑子 肄業之所 教導有方 庖廩有具 若公可謂知所本哉 余乃掩卷而嘆曰 智以謀始 勇以決機 惠以得衆約己聚財 而用於國 身任一時之勞 而爲邦家千百年固圉之圖 武備旣飭而歸本於文教卽 此一事而衆美焉 嚮也筵席之所陳 特其一二之狀耳 孫順邁聖上所褒 予無南顧之憂者 豈偶爾也 旣而按節湖西 貫銀臺方尹東都有以也哉

崇禎紀元後 九十二年歲乙卯 十月 日立

乾隆 乙酉 秋自弄珠山移豎

監官 朴師演

座首 李重烈

色 金應潤

後庚辰 秋移豎

都監 鄭相彥

座首 辛兌奎

監官 張宇一

東萊築城時差任

使員 多大浦僉使 權順性 閑良 金碩重

都廳 出身 崔晟 幼學 鄭之濟

申璆 朴桂□

責應 前僉使 許掄 司果 李萬漢

出身 蔡德洪 出身 咸有一

閑良 李益泰 閑良 尹崇殷

浮石都監 宋東源 司果 金尙重

座首 朴就夏 閑良 金潤河
別監 文世南 通德郎 崔天柱
碑石都監 朴就夏 司果 白尙米
監官 出身 丁泰希 閑良 黃時白
東所將 出身 李是瞻 朴震英
都牌將兼東門監 文有徵
出身 姜尙望 南所將 幼學 朴敏聖
牌將 宋斗星 都牌將兼南門監
兼司僕 劉再興 出身 金昌夏
牌將兼司僕 徐起札 出身 宋世基
朴泰星 司果 崔載崗
司果 金起聲 出身 李友栢
閑良 金聲重 兼司僕 全命采
司果 方鎮觀 司果 仇世康
判官 崔錫漢 文重章
兼司僕 裴致績 宋尙俊
出身 皮泰成 北所將 幼學 朴就夏
閑良 趙世良 都牌將兼北門監
司果 李昌庭 折衝 洪天漢
出身 尹聖任 牌將幼學 宋挺濂
兼司果 金麗輝 判官 宋尙逸
出身 姜世望 幼學 李仁瑞
閑良 金允珍 李星濂
鄭元祥 鄭載瑞
司果 梁秀東 閑良 朴泰基
西所將 幼學 辛□ 出身 朴泰森
都牌將兼西門監 閑良 李德蔓
出身 金重鳴 出身 徐後逢
兼暗門監折衝 趙世逸 兼司僕尹徵殷

牌將 幼學 宋奎彩 閑良 金致榮
金萬兼 宋載心
文必弘 司果 李翊夏
辛致榮 金輔漢
司果 宋致萬 判官 金得漢
李芝興 一所將 幼學 朴始漢
判官 梁秀夫 閑良 姜聖之
閑良 金星一 司果 崔載崑
閑良 金雪峰
安如石
兼司僕 鄭時和
二所將 幼學 朴明彩
牌將 閑良 南道貞
司果 金再昌
閑良 洪萬澤
玉命順
金次傑
三所將 幼學 朴文純
牌將 司果 崔雲漢
木物監 閑良 金禹三
質鐵監 兼司僕 趙寬壁
折衝 安和松
潘瓦監 金成劔
質炭監 韓瑞善
各所色
都色 姜致豪 辛重彩 尹喜聖
責應色 尹喜昌 李友相 崔東豪 朴致夏 尹喜長
木物色 孫萬彩
東所色 黃龜泰

南所色 崔萬長
 西所色 黃斗億
 北所色 秋月明
 暗門色 金益河
 浮石色 辛汝元 姜興周 吳漢敬



승훈랑행황산도찰방 김광악 기
 유 학 송광제 서
 통훈대부행현풍현감 유우기 전

금상(今上) 9년 계축(癸丑)년(1733, 영조9) 겨울에 광악(光岳)은 승정원의 당후(堂后)에 있게 되어 경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떤 중신이 임금 앞에서 평양에 성을 쌓는 일을 계획하며 “만약 정언섭(鄭彦燮)이 동래성을 쌓았던 일과 같이 그 고을 신하가 스스로 하도록 청을 들어준다면 국고를 쓰지 않고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지 않아도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나는 그것을 일기에 적

어 승정원에 보관하였다. 이듬해 봄에 황산(黃山)의 역승(驛丞)¹⁸⁵이 되었을 때 동래사람을 만날 수 있었는데 동래사람은 정공의 치적에 훌륭한 것이 많다고 칭송하였다. 동래의 선비 중에 송광순(宋光洵)이 성을 쌓을 때의 사적을 기록한 책 2권을 가져와서 나에게 비문을 청하였는데 대여섯 번이나 청하여 포기하지 않으므로 나는 결국 사양할 수 없었다. 그 도면과 기록을 살펴보니 동래는 임진년에 성이 함락된 후부터 140여 년 사이에 그 주변의 옛 터가 무너져 백성들의 집이 되어 한 조각의 울타리를 친 설비도 없게 되었다. 공이 처음 이곳에 와서 변방의 설비가 어설픈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장마에 대비하여 보수하는 계획은 시절이 태평하더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하여 개연히 보수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어느 날 밤 바깥사람 모르게 미복(微服)으로 몰래 나가 성터를 두루 살펴보고 돌아왔다. 드디어 계획을 확

185) 역승 : 역로(驛路)와 마정(馬政)을 관리하고, 역리(驛吏)의 진퇴와 유민(流民)의 금방(禁防)을 맡았던 직책으로 찰방(察訪)이라고도 한다.

정하고 장계(狀啓)를 띄우니 당시의 관찰사 조공(趙公)¹⁸⁶과 뜻이 잘 맞아 그것을 도와주었다. 신해(辛亥)년(1731) 정월 정묘에 성터를 측량하고 일을 분담하여 각 패장(牌將)에게 맡기니 기기와 물자와 인력은 오래 전부터 비축해두었던 것이라 한 가지도 모자란 것이 없었다. 이에 바람 만난 불처럼 명령을 내리니 감히 거역하는 자가 없었다. 땅을 파니 해골이 쌓여 있었고 옆에 화살촉이 있었으니 임진왜란 때 전사한 병사들이었다. 종이와 베로 엮을 하여 관에 넣어 제사를 지내고 묻어주었다. 그 후에 발견된 해골은 모두 이렇게 해주었다. 날마다 일하는 곳을 돌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의 작업을 살펴 벌할 것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상줄 것은 반드시 상을 주었고 술과 음식을 먹이고 돈과 베를 아낌없이 주었다. 그래서 장수와 병사들이 다투어 힘을 내고 기뻐 뛰어다니며 모두 사력을 다하였다. 그 해 4월 성이 완성되고 5월에 성문이 완성되었으며 7월에는 문루가 완성되니 공사를 시작한지 백여 일 만에 견고하게 우뚝 솟은 성이 마치 귀신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둘레가 2,280보(步)로서 8리(里) 정도 되고 높이가 수십 자 되었으며 길이는 전보다 길어졌고 돌도 모두 새 것을 썼다. 일꾼 52,000명, 쌀 4,500섬, 베 1,550필, 돈 13,000냥을 썼는데 모두 공이 낸 것이니 정말로 백성에게 걷은 것도 아니고 국고를 축낸 것도 아니다. 공사를 다 마치자 장수와 병사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돈과 곡식을 넉넉히 나누어주었으며, 네 곳의 장교들에게 각기 문루에 술자리를 설치하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여 마음껏 놀게 하였다. 8월 기유에 잔치를 열어 낙성하니 관찰사 조현명(趙顯命)¹⁸⁷공과 좌병사(左兵使) 이복휴(李復休)공, 그리고 여러 고을 수령과 각 진(鎭)에서 모두 와서 모였다. 얼마 후 또 성을 지키는데 양식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따로 조미(租米) 4,000여 섬을 준비하여 창고를 설치하고 ‘수성창(守成倉)’이라 이름을 붙이고 군대가 필요할 때 쓰게 하였다. 부지런하고 민첩한 무인 5명에게 그 일을 맡기고 급료를 주었으며 특별히 수첩군관(守堞軍官) 200명을 뽑아 부역을 덜어주고 성을 지키게 하였다. 시설이 견고하고 오래가지만 그래도 무비(武備)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읍의 서쪽 몇 리 되는 곳에 서재를 세워 ‘시술재(時述齋)’라 이름을 붙이고 읍의 자제들이 공부하는 곳으로 삼으니 가르침에 요령이 있었고 음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다. 공과 같은 이는 근본이 되는 것을 알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나는 책을 덮고 탄식하며 말한다. 지혜로서 계획을 시작했고 용단으로 일을 결정했으며 은혜로서 무리를 모았고 검약하게 재물을 모아 나라 일에 썼으니 몸은 한 때 수고로운 일을 맡았지만 나라 위해 천 백 년의 굳은 방비를 도모한 것이다. 무비(武備)를 갖추고 나서 문교(文教)로 근본을 돌려놓았으니 이 한

186) 조공(趙公) : 조현명(趙顯命)

187) 조현명 : 1690~1752. 문신. 자 치회(稚晦), 호 귀록(歸鹿), 본관 풍양(豐壤), 시호 충효(忠孝).

가지 일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었다. 지난 날 경연 자리에서 이야기 된 것은 그 중 한 두 가지 뿐 이었다. 손순(孫順)이 임금의 포상을 받을 때, 임금이 “나는 이제 남쪽을 근심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그 후에 호서절도사로 나아갔고 승정원을 거쳐 동도(東都)의 책임자가 되었으니 이유가 있다.

승정 기원후 92년 을묘(1735년) 10월 일 세움.

건륭 을유(1765년) 가을 농주산에서 이전해 세움.

감관 박사연

좌수 이중열

색 김응윤

후에 경진(1820년) 가을에 이전해 세움.

도감 정상언

좌수 신태규

감관 장우일

동래축성시차임

사원 다대포첨사 권순성 한량 김석중

도청 출신 최성 유학 정지제

신구 박계□

책응 전첨사 허념 사과 이만한

출신 채덕홍 출신 함유일

한량 이익태 한량 윤승은

부석도감 송동원 사과 김상중

좌수 박취하 한량 김윤하

별감 문세남 통덕랑 최천주

비석도감 박취하 사과 백상미

감관 출신 정태희 한량 황시백

동소장 출신 이시첨 박진영

도패장겸동문감 문유징

출신 강상망 남소장 유학 박민성

패장 송두성 도패장겸남문감

겸사복 유재홍 출신 김창하
 패장겸사복 서기찰 출신 송세기
 박태성 사과 최재강
 사과 김기성 출신 이우백
 한량 김성중 겸사복 전명채
 사과 방진관 사과 구세강
 판관 최석한 문중장
 겸사복 배치적 송상준
 출신 피태성 북소장 유학 박취하
 한량 조세량 도패장겸북문감
 사과 이창정 절충 홍천한
 출신 윤성임 패장유학 송정렴
 겸사과 김려휘 판관 송상일
 출신 강세망 유학 이인서
 한량 김윤진 이성렴
 정원상 정재서
 사과 양수동 한량 박태기
 서소장 유학 신□ 출신 박태삼
 도패장겸서문감한량 이덕만
 출신 김중명 출신 서후봉
 겸암문감절충 조세일 겸사복 윤정은
 패장 유학 송규채 한량 김치영
 김만겸 송재심
 문필홍 사과 이익하
 신치영 김보한
 사과 송치만 판관 김득한
 이지홍 일소장 유학 박시한
 판관 양수부 한량 강성지
 한량 김성일 사과 최재곤
 한량 김설봉
 안여석
 겸사복 정시화
 이소장 유학 박명채

패장 한량 남도정
사과 김재창
한량 홍만택
옥명순
김차결
삼소장 유학 박문순
패장 사과 최운한
목물감 한량 김우삼
무철감 겸사복 조관벽
절충 안화송
반와감 김성검
무탄감 한서선
각소색
도색 강치호 신중채 윤희성
책응색 윤희창 이우상 최동호 박치하 윤희장
목물색 손만채
동소색 황구태
남소색 최만장
서소색 황두억
북소색 추월명
암문색 김익하
부석색 신여원 강홍주 오한경

4. 온정개건비(溫井改建碑)

溫井改建碑

井在治北五里 源金井引 入湯浴之瘳百疾 古碑剝罔徵 康熙辛未
石作兩湯覆以屋 屋老湯陞 姜公必履以醫國手 甦萊民 明七事
興百廢 爰相治井 命監改作 迤東故地 易西坐壬 寫島城材 以七
月上弦基 八月廿四柱 九月初七梁 凡九間區男女湯 爽麗如翬飛
作守家 立大門內樹碑 噫 微公無此井 微監無此舍 銘曰 公治邑
民賴活 公修井 人無疾 千萬古 口又碣

聖上 四十二年 丙戌 十月 望
麗山 宋光迪 書



온정(溫井)은 읍 북쪽 5리에 있는데 금정산에서 발원한다. 탕에 들어가 목욕을 하면 온갖 질병이 낫는다. 옛날 비석은 글자가 마모되어서 징거(徵據)할 수가 없다. 강희(康熙) 신미(辛未)년(1691, 숙종17)에 돌로 두 개의 탕을 만들고 건물로 덮었는데 건물이 낡아져서 탕이 막혀버렸다. 강필리(姜必履)¹⁸⁸⁾ 공(公)은 나라의 어려움을 치료하는 솜씨로 동래의 백성을 소생시켜 일곱 가지 일을 밝히고 백 가지 폐한 것을 부흥시켰는데 이에 온정을 다스려서 감관(監官)¹⁸⁹⁾에게 명령하여 고쳐짓도록 했다. 동쪽 옛 터로 내려가서 유좌(西坐)를 고쳐 임좌(壬坐)로 앉히고, 도산성(島山城)의 석재를 빼어와서 7월 상현에 개기(開基)

하여 8월 24일에 입주하고 9월 7일에 상량을 했다. 무릇 9간이나 되는데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였으니 상쾌하고 화려하여 마치 평이 날아가는 것 같았다. 지키는 집을

188) 강필리 : 1713년 강진에서 태어남. 1764년(영조 40년) 8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766년 11월까지 재임함.

189) 감관 : 감공관(監工官) 또는 감역관(監役官). 공사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임시 관원.

짓고 대문을 만들고 안에는 비를 세웠다. 아! 강공이 아니면 이 온정은 없었을 것이고 감관이 아니면 이 건물은 없었을 것이다. 명(銘)을 지어 말한다. 공께서 고을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이에 힘을 입어 잘 살게되고 공께서 온정을 수리하니 사람들이 질병이 없게 되었다. 천만년 동안 입으로 비석으로 전하라.

(비음)

성상 42년 병술년(1766) 10월 보름

여산 송광적 서

5. 옛 관노(官奴) 철수(鐵壽)·매동(邁同) 효충비(効忠碑)

故官奴鐵壽邁同効忠碑

噫 仁固殺身而成 義固捨生而取 然唯能盡夫面前道理 則雖全身而圖生 亦不可不謂之仁與義也 惟此二僕 侍府君於干戈矢石之際 受驗瘞收骨之托 則其捨生而殉公者義乎 全身而斂公者仁乎 必有識道理君子斟酌乎其間 而足以知夫二僕不死之心 然則烏可已乎今日表旌之舉 而亦云晚矣夫

歲萬曆 壬辰後四庚申 四月 日 知府贅翁識



(비음)

아! 인(仁)이란 본래 자신을 죽임으로서 이루는 것이고, 의(義)는 삶을 버림으로서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당면한 도리를 능히 다할 수 있다면, 비록 자신을 보전하고 삶을 도모하더라도 또한 인과 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명의 관노(官奴)는 송상현(宋象賢) 부사(府使)을 전쟁터에서 모시면서 사마귀를 징표로 자신의 시신을 수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런즉 삶을 버리고 공을 따라 죽는 것은 의이겠는가? 자신을 보전하여 공의 시신을 거둔 것은 인이겠는가? 도리를 아는 군자가 그 사이에서 헤아려보면 두 관노가 죽지 않은 마음을 만드시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정려(旌閭)를 세워 기리는 것도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또한 늦었다고 할 수 있도다!

만력 임진년 후 네 번째 경신년(1800) 4월 일 부사 채옹¹⁹⁰⁾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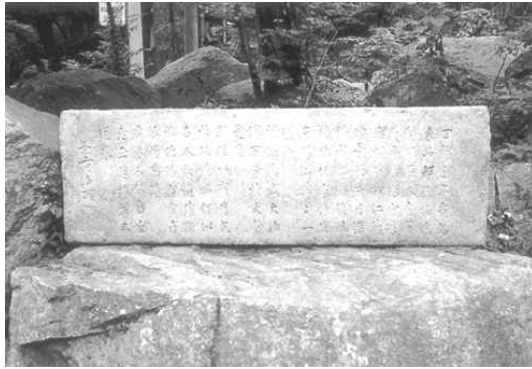
190) 채옹(贅翁) : 김관주(金觀柱)의 호. 1799년(정조23) 5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800년 7월에 교체되었다.

6. 동래금강원시비(東萊金剛園詩碑)

東萊金剛園詩碑

丁卯之年我馬東 此邦民物見繁雄
居人盡有昇平樂 老守殊無捍蔽功
紅藕池臺歌扇月 綠楊城郭酒旗風
鷄林古事依然在 萬萬波波一簾中

趣絕高城大海濱 百年煙火靜邊塵
朝廷以我爲民牧 政績如何似古人
敢道蒲鞍能化俗 羞言卉服與爲隣
君恩未報身空老 玉筵梅花又送春
知府海所 鄭顯德



정묘년¹⁹¹⁾에 나 동쪽으로 오니
이 고을 백성과 물자가 번성하구나
주민은 모두 태평한 시절을 즐기고 있지만
늙은 태수만이 폐단 막은 공적이 없네
붉은 연꽃 연꽃 루대에서는 달을 노래하고
푸른 버들 성곽에서는 술집 깃발 날린다네

191) 서기 1867년. 고종 4년.

계림의 옛이야기 의연히 남아 있으니
만파식적¹⁹²⁾ 피리 아직도 소리가 들리는구나

커다란 바다 옆의 높다란 성곽에는
백년 동안 변방의 봉화불 조용했었지
조정에선 나를 목민관으로 삼았지만
치적이야 어찌 옛사람과 같을 수 있나
감히 관대한 정치로 풍속을 교화한다 하겠는가
오랑캐와 이웃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부끄럽네
임금의 은혜 갚지 못한 채 몸은 덧없이 늙어가고
옥 피리와 매화꽃에서 또 봄을 보내는구나

부사 해소 정현덕

192) 만파식적(萬波息笛) : 신라의 보물이었던 피리.

7. 태평원시비(太平園詩碑)

太平園詩碑

太平橋下太平園 園艸園花日以繁
石上新題三大字 路傍多得一方言
征輪不作邊城苦 耕稼皆知聖主恩
督見村翁頭似雪 野常榆落戲兒孫

太平園裏萬年臺 都護外營近水開
勝地煙霞易自管 續堤花木手新栽
青袖好作風流事 白面殊非將帥才
近日邊門無警急 畫橋看月夜深回

萬年台下萬年橋 架水長虹影動搖
芳艸晴川看洗酌 綠陰明月教吹簫
頻開翠幕臨官道 肯着烏巾臥郡朝
沙步行人休怪我 此間無事日逍遙



태평교(太平橋) 아래 태평원(太平園)에는
정원의 풀과 꽃 날마다 무성해지네
돌 위에는 큰 글자 세 개 새로 새겨져있고

길가에선 지방 방언 많이 듣는다네
멀리 가는 수레도 변방이 괴롭지 않으니
농가에서도 모두 성군(聖君)의 은혜를 안다네
머리가 눈처럼 흰 농촌 노인 살펴보니
느릅나무 우거진 곳에서 손자와 유희하네

태평원 안의 만년대(萬年臺)에는
도호부사¹⁹³⁾가 외영(外營)을 물가에 열었네
명승지에 아지랑이 안개를 쉽게 관장하고
언덕 둘러 꽃나무도 새로 심었네
젊은 학생 풍류거리 잘도 만들고
백면서생 장수의 재질 아니라네
요즈음 변방에는 급한 경보 없어
그럼 다리에 얹어 달을 보고 밤늦게 돌아오네

만년대 아래 만년교(萬年橋)에는
물에 걸린 긴 무지개 그림자 흔들리니
방초 핀 맑은 시내에서 술잔 씻는 것 바라보고
녹음 진 밝은 달 아래 통소를 불게 하네
자주 푸른 장막 열어 관가 길 바라보지만
어찌 검은 두건 눌러 쓰고 군(郡)의 조회에 누우리오
길가는 행인들아 괴이하게 생각 말아라
요사이 일이 없이 날마다 소요한단다

193) 도호부사 : 당시 동래는 군사적 요충지라 하여 도호부를 설치하였으므로, 동래부사를 도호부사라고 하였다.

8. 한량(閑良) 밀성(密城) 박춘흥 처(朴春興妻) 열녀 월성박씨(月城朴氏) 정려비

閑良密城朴春興妻烈女月城朴氏之閭



9. 영보단(永報壇)

永報壇

乙卯 四月 日 郡民共立

(비음)

을묘년(1915) 4월 일 군민이 함께 세움.



10. 송공단(宋公壇)

宋公壇



11. 송봉수(宋鳳壽) 순난비(殉難碑)

宋公鳳壽殉難碑



12. 신여로(申汝櫓) 순난비(殉難碑)

申公汝櫓殉難碑



13. 양조한(梁朝漢) 순난비(殉難碑)

梁公朝漢殉難碑



14. 의녀위(義女位)(1)

義女位(1)



15. 의녀위(義女位)(2)

義女位(2)



16. 동시사난민인위(同時死亂民人位)

同時死亂民人位



17. 동시사난부녀위(同時死亂婦女位)

同時死亂婦女位



18. 문덕겸(文德謙) 순난비(殉難碑)

文公德謙殉難碑



19. 송백(宋伯) 순난비(殉難碑)

宋公伯殉難碑



20. 김상(金祥) 순난비(殉難碑)

金公祥殉難碑



21. 김희수(金希壽) 순난비(殉難碑)

金公希壽殉難碑



22. 김섬(金蟾) 순난비(殉亂碑)

金蟾殉亂碑



23. 노개방(盧盖邦) 순난비(殉難碑)

盧公盖邦殉難碑



24. 조영규(趙英珪) 순난비(殉難碑)

趙公英珪殉難碑



25. 송공단기(宋公壇記)

宋公壇記

壬辰倭亂을 想起할 때 忠奮이 치솟아 淒然한 感懷를 禁할 수 없다. 당시 우리 나라는 二百年平和와 歷代의 崇文으로 文弱이 成風하고 黨論이 分裂하여 國防이 輕視되고 邊備가 소홀하였는데, 저 豐臣秀吉이 射天의 稔惡을 放恣히 하여 조총으로 武裝한 鯨鯢를 몰아 창졸간에 疆土를 침범하니 한 때 天地가 晦暗하고 綱常이 泯沒하여 陰雲이 日月을 가리고 蠻風이 江山을 휩쓸었다. 三都가 함몰되고 八道를 유린하여 蜂蠆의 毒과 梟獍의 惡을 極하니 저 忠武公의 偉功과 義兵의 抗戰과 明軍의 支援이 없었다면 거의 否塞한 國運을 挽回할 수 없었을 것이다. 釜鎭이 없으면 萊府가 없고 萊府가 없으면 嶺南이 없으며 嶺南이 없으면 國家가 위태하다는 것을 鄭撥僉使나 宋相賢府使가 共感한 바이라 淸野의 計와 籠城의 策으로 緒戰에 당하여 兩三日間에 屍山血河를 이루고 끝내 散運의 節을 擇하여 元述의 悔를 남기지 않음은 賊을 此地에서 殲멸하고자 함이었으나 衆寡不敵의 日暈孤城으로 어찌 李郭의 忠을 다할 수 있으리오. 헛되이 巡遠의 恨을 남길 따름이었다. 그러나 몸은 비록 殉節하여도 그 黑衣의 勇猛과 官服의 忠義는 길이 民心을 聳動하여 鴻毛의 一身으로 泰山의 義理를 成就케 하고 또한 賊膽을 摧折하여 저로 하여금 敬慕의 情과 慕化의 뜻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死生을 超越한 거룩한 殉國精神은 萬古에 길이 빛나리라. 당시의 事蹟은 内外의 史書와 忠烈志 등에 상세하여 생략하거니와 綱常을 扶樹하고 節義를 권장함은 언제나 治國의 大本이요, 休戚의 매인 바라 經亂後 恤政으로 殘民을 安集하고 爵賞으로 功勳에 보답하여 奉祭로 忠魂을 달랠은 王政의 先務이나

丁酉再亂이 끝날 때까지는 이곳이 賊의 巢窟이 되어 王化가 미치지 못하다가 亂後 十三年만에 비로소 府使 尹暄이 城內에 宋公祠를 세워 春秋로 享祀하였고 다시 十六年을 지난 光海君 元년에 府使 李安訥이 城陷日에 滿城遺民이 設奠哭祭함을 보고 宋公祠에도 諱辰祭를 舉行할 것을 下帖하였다. 다음해에 宣慰使 李敏求가 鄭僉使를 宋公祠에 合祀케 하였고 仁祖 二年에는 朝家에서 忠烈祠로 賜額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隘陋하여 先烈의 妥靈地로 不適하므로 다시 壬辰周甲年인 孝宗 三年에 府使 尹文舉가 忠烈祠를 城東의 安樂原에 옮기고 書院의 宣額을 받아 宋公을 專享하고 鄭公을 配하였다. 그 뒤 五十八年을 지나 英祖 四十五年 己丑에 府使 權以鎭이 城內의 舊祠에 別祠를 두고 宋公과 함께 殉節한 梁山郡守 趙英圭公과 東萊敎授 盧蓋邦公에 校生 文德謙을 配하여 祭하고 裨將 金希壽 宋鳳壽 僉人 申汝櫓 戶長 宋伯 府民 金祥 등 五人을 東廡에 並祀하였는데 뒤에 鄭公은 武人이고 盧公은 文儒라 하여 鄭公을 別祠로 옮기고 盧公을 書院으로 옮겼다가 正祖 十九年 乙卯에는 府使 崔命相의 報狀으로 同節士人을 賓主 逆行하여 分祠함은 不合理한 일이라 하니 朝命으로 分祠를 撤毀하고 神主를 書院으로 合祀하였는데 이때에 兩廡의 位次도 확정되고 春秋의 享祀도 儀節이 具備되어 忠魂을 奉祭하는 朝家の 恩典이 이에서 具現되었다. 그러나 書院의 享祀는 禮典에 따라 舉行함이니 亂中 積屍下에서 九死一生으로 戰亡諱辰에 哭長哭親하는 追慕의 情을 달래지 못하였다. 壇祭의 原委를 상고하건데 宋公祠의 諱辰祭가 곧 그 濫觴이 될 것이나 忠烈祠가 安樂原으로 옮겨감에 이 追慕의 諱辰祭는 城民의 要請과 民風의 振作을 勘案하여 따로 南門밖 弄珠山上에 戰亡祭壇을 新設하고 宋, 鄭兩公의 戰亡忌祭를 여기에서 軍禮로 舉行케 하여 春秋享

祀와 諱辰壇祭를 나누게 된 것이 壇祭의 처음이라 하겠다. 이리하여 忠烈祠와 別祠와 書院에서 次第로 追加享祀한 祭位에 따라 壇祭에서도 順次로 一体行祭하게 되니 春秋의 享祀는 士林에 의하여 書院에서 行하고 諱辰의 忌祭는 城中父老들에 의하여 弄珠山 戰亡祭壇에서 行하게 된 것이다. 弄珠山祭壇은 北東西三壇으로 設하고 北正壇에는 宋, 鄭, 趙, 盧 四公을 모시고 東西壇에는 戰亡諸人과 無名國傷者를 配食시켰다. 祭典은 中軍이 具軍服하고 獻官이 되어 旗幟를 排列하고 軍樂을 잡히며 府使의 祝文을 읽고 軍禮로 行하였다. 英祖 十八年 壬戌 府使 金錫一이 客舍東便인 舊靖遠樓址가 諸公의 殉節處라 하여 이곳에 새로 東西南北四壇을 設하고 壇名을 宋公壇이라 하여 弄珠山 戰亡 祭壇을 옮겨오니 上壇에는 宋, 鄭, 趙, 盧 四公을 모시고 東壇에는 校生 文德謙과 裨將 金希壽, 宋鳳壽, 僉人 申汝櫓 등을 配하고 西壇에는 盧公夫人과 金蟾, 愛香 등을 배하였으며, 南壇에는 戶長 宋伯과 府民 金祥和 二村女 및 其他 戰亡諸人을 配하여 祭典에 軍禮를 廢하고 常典을 좇게하니 이것이 現在의 宋公壇이 된다. 英祖 三十六年 庚辰에 府使 洪命漢은 士林의 公議를 따라 釜山城에서 殉節한 司猛 李庭憲公을 配壇하였고 全 四十二年 丙戌에는 府使 姜必履가 多大僉使 尹興信公과 校生 梁潮漢을 追享하고 壇을 크게 改築하여 正壇을 左右로 나누고 東西로 五壇을 設하여 宋, 鄭 二公을 左右正壇에 分하였으며 東一壇에는 趙梁山, 盧教授, 李司猛, 尹多大를, 西一壇에는 文, 梁 兩校生과 金, 宋 兩裨將을, 東二壇에는 盧公夫人과 金蟾, 愛香 및 二村女를, 西二壇에는 申僉人, 宋戶長, 府民 金祥을, 西三壇에는 死難諸民人으로 하였다. 全四十三年 丁亥에 鄭公壇과 尹公壇이 各其 殉節地에 新設됨으로 府使 嚴璘이 鄭, 李, 尹 諸公과 鄭公妾 愛香을 本壇으로

돌리고 盧公夫人 李氏를 除하여 正壇에는 宋公만을 모시고, 東一壇에는 趙, 盧二公을 配하고 第二祭壇은 撤毀하였으며 西三壇은 그대로 하되 약간 東으로 옮기고 西壇 西쪽에 다시 二壇을 別設하여 一壇에 金祥和 二村女를 一壇에 同時死難婦女를 祭하고 西壇과 別壇사이에 小牆을 세워 內外를 區分하였으며, 또 官奴 鐵壽와 邁同의 効忠碑를 壇側一隅에 세워 官奴로 하여금 行祭케 하니 壇祭의 位次도 따라 多少의 변동이 있었던 것이다. 庚戌國恥 以後로 山河가 失主하여 壇廟의 香火마저 어려워지매 耆英會에서 壇祭를 主管하여 先烈의 祭享을 계속 嚴修하게 되니 그 동안 客舍가 學校로 되었다가 헐리고 廟門이 閉鎖되기도 하였으나 北으로 後門을 내어 壇祭를 舉行하였다. 祖國이 光復되어 含靈이 生氣를 돌렸으나 解放後의 混亂과 六.二五 事變 등 多難한 國事와 急激한 思潮變遷으로 因하여 壇廟의 改新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先烈의 遺蹟을 保全하고 거룩한 殉國精神을 繼承함은 後生이 마땅히 할 일이라 이에 市費와 國費補助金으로 壇設 門牆 廟宇 造景 등을 煥然히 改新하니 다시 白砂淨域에 壇廟가 整齊하고 芬苾節祀에 忠魂이 歆饗하게 되었다. 이는 오로지 戰亡追慕의 壇祭精神을 繼承하여 壇域의 補修淨化를 念願한 耆英會僉位의 至誠과 李安訥府使의 下帖遺意를 따라 九原의 忠魂을 慰勞하고 市民의 綱常을 振作하려는 朴市長의 盛意로 이루어짐이라. 先烈의 殉國精神은 이로 因하여 다시 빛나게 되었다. 二百萬市民과 子孫萬代에 이 事緣을 傳하고자 이에 壇祭의 來歷과 補修의 大略을 적어 이를 貞珉에 顯刻한다.

一九七五年 五月 二十五日

東亞大學校教授 釜山市文化財委員 文學博士 丁仲煥 謹記

東萊書藝院院長 朴明讚 謹書

財團法人東萊耆英會理事長 金仁浩 謹校

釜山直轄市長 朴英秀 謹立



26. 부사(府使) 정언섭(鄭彦燮)¹⁹⁴ 흥학문화거사비(興學文化去思碑)

府使鄭公諱彦燮興學文化去思碑

學闡蜀郡 風變潮陽
天南一域 儒化洋洋
豈惟止斯 崇墉百雉
文武之治 萬代受賜

崇禎紀元後乙卯 五月日 時述齋 立
都監 朴敏求
座首 金夏三



변방고을에 촉군(蜀郡)¹⁹⁵의 학풍을 일으켜
풍속이 조양(潮陽)¹⁹⁶처럼 변했네
남녘 하늘 이 지역에
유자(儒者)의 교화 드높아라
어찌 다만 여기에서 그치리
백치(白雉)의 음성 높게 쌓았네
문무의 다스림은
만대로 칭송을 받으리라

(비음)

승정 기원후 을묘년(1735) 5월 일 시술재 세움.
도감 박민구
좌수 김하삼

194) 정언섭 : 1686~1748. 1730년(영조 6년) 11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733년 1월까지 재임하였다.

195) 촉군(蜀郡) : 한(漢)나라 때 문옹(文翁)이 촉군태수가 되어 문교(文教)를 진흥했던 고사.

196) 조양(潮陽) : 중국 광둥성(廣東省)에 있는 지명이다. 당(唐)나라 때 한유(韓愈) 이곳에 좌천되어 자사(刺史)를 지낸 곳으로, ‘풍변조양(風變潮陽)’은 풍속이 한유가 다스리던 조양처럼 교화되어 변했다는 것이다.

27. 부사(府使) 조존성(趙存性)¹⁹⁷⁾ 선정비(善政碑)

府使趙公存性善政碑

公萬曆庚戌秋莅任 癸丑冬遞歸 邑人立去恩碑 後八十七年戊寅 曾孫泰東忝守本府 仍舊碑改刻 建閣以奉□

六世祖昭敏公 萬曆莅茲府 邑民立碑頌德後八十七年 文憲公重修 又一百十五年 壬申秋 同喆繼來而復新之云

都監 卞持淳

監官 尹璣衡

色吏 趙重呂



공은 만력(萬曆) 경술(庚戌)년(1610, 광해2) 가을에 부임하셔서 계축년(1613) 겨울에 바뀌어 돌아가셨다. 읍의 사람들이 추모비를 세웠는데 그 후 87년이 되는 무인(戊寅)년(1698, 숙종24)에 증손 태동(泰東)이 이 부(府)를 다시 지키게 되어 옛 비에 고쳐 새기고 비각을 지어 □을 받든다.

(비음)

6세조(世祖) 소민공(昭敏公)이 만력(萬曆) 년간에 이 부에 부임하니 읍민이 비를 세워 덕을 칭송하였다. 87년 이후 무술년에 문헌공(文憲公)이 중수(重修)하고, 또 115년 이후 임신(壬申)년(1812, 순조12) 가을에 동철(同喆)이 이어 와서 다시 새로 만들었다.

도감 변지순

감관 윤기형

색리 조중여

197) 조존성 : 1553~1627. 문신. 자 수초(守初), 호 정곡(鼎谷), 본관은 양주(楊州), 시호는 소민(昭敏). 1610년(광해3) 9월에 부임함.

28. 부사(府使) 홍수만(洪秀晩)¹⁹⁸ 흥학비(興學碑)

府使洪公秀晩興學碑

崇禎四丙子 五月日立

(비음)

승정후 네 번째 갑자년(1816) 5월 일 세움.



198) 홍수만 : 1813년(순조13) 5월에 부임하여 1816년 2월에 참판으로 승직됨.

29. 부사(府使) 이규현(李奎鉉) 흥학평(興學坪)199)

府使李公奎鉉興學坪

歲壬午 公下車時 校宮承移建之後 財儲枵枵然 公有志興學 捐廩料理 越明年買上坪 又明年買下坪 俾作校宮屯土 前後所墾凡一百斗落 於戲此坪 將與校宮 而相終始 此石又將與此坪 而相終始 公之清德 亦將與此石 而永世不泐 萊人追慕爲 營如峴山一片石而已哉

道光乙酉 南至

文禹海謹識

上坪都監 辛台鼎

下坪都監 文萬彬

標石都監 孫星駟

鄉校別任 郭相洛



(비음)

임오(壬午)년(1821년)에 공이 부임하였을 때는 교궁(校宮)²⁰⁰⁾을 옮겨 지은 다음이었고 비축된 재물은 텅비어 있었다. 공은 학문을 진흥시킬 뜻이 있어 재정을 털어 일을 추진했다. 다음 해에 웃들(上坪)을 매입하고 또 이듬해에 아래들(下坪)을 매입하여 교궁의 둔전(屯田)²⁰¹⁾으로 했으니, 전후로 개간한 땅이 모두 일 백 두락(斗落)이나 되었다. 아! 이 땅은 교궁과 시작과 끝을 같이 할 것이고, 또한 이 비석은 이 땅과 시작과 끝을 같이 할 것이다. 공의 맑으신 덕도 이 비석과 함께 영원토록 닳지 않으리라. 우리

199) 수영구 ‘부사(府使) 이규현(李奎鉉)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참조.

200) 교궁(校宮) : 향교

201) 둔전(屯田) : 본래 변경지방이나 군사요지에 설치하여 군량미를 충당하기 위한 토지인데, 뒤에 관청 등지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래 사람들이 공을 추모하는 것이, 어찌 다만 현산(峴山)의 타루비(墮淚碑)²⁰²⁾ 비
석 하나에 그치겠는가?

도광 을유년(1825) 동지

문우해 삼가 적음.

상평도감 신태정

하평도감 문만빈

표석도감 손성일

향교별임 곽상낙

202) 타루비 : 진(晉)나라 양양태수(襄陽太守) 양호(羊祜)의 덕을 사모하여 주민들이 현산(峴山)에 세운 비. 이 비를 보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타루비(墮淚碑)’라고 하였다.

30. 부사(府使) 김준(金鎭)²⁰³ 흥학비(興學碑)

府使金公鎭興學碑

崇禎四甲午 正月 日立

(비음)

승정후 네 번째 갑오년(1834) 정월 일 세움.



203) 김준 : 1855(철종6) 7월에 부임하여 1857년 1월에 승지로 승직됨.

31. 부사(府使) 이탁원(李鐸遠)²⁰⁴ 흥학비(興學碑)

府使李公鐸遠興學碑

崇禎四庚子年 十月初八日立

(비음)

승정후 네 번째 갑자년(1840) 10월 8일 세움.



204) 이탁원 : 1834년(순조34) 7월에 부임하여 1835년 8월에 사직함.

32. 부사(府使) 서당보(徐堂輔)²⁰⁵ 흥학비(興學碑)

府使徐公堂輔興學碑

辛酉 六月 日立

都監 鄭箕鎭

(비음)

신유년(1861) 육월 일 세움.

도감 정기진



205) 서당보 : 1855년(철종 6년) 7월부터 1857년 1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직함.

33. 부사(府使) 조규년(趙奎年)²⁰⁶⁾ 흥학비(興學碑)

府使趙公奎年興學碑

崇禎後四甲子 十月日豎

都監 文奎滢

(비음)

승정 기원후 네 번째 갑자년(1864) 10월 일에 세움.

도감 문규형



206) 조규년 : 1861년(철종12) 5월에 부임하여 1862년 3월 승지로 옮겨감.

34. 부사(府使) 정현덕(鄭顯德)²⁰⁷⁾ 흥학비(興學碑)

府使鄭公顯德興學碑

崇禎紀元後五甲戌 六月 日立
都監 文奎滢

(비음)

송정 기원후 다섯 번째 갑술년(1874) 6월 일 세움.

도감 문규형



207) 정현덕 : 1810~1883. 자 백순(伯純), 호 우전(雨田). 1870년(고종7) 6월에 부임하여 1873년 12월에 이임됨.

35. 부사(府使) 황정연(黃正淵)208) 흥학비(興學碑)

府使黃公正淵興學碑

政淸鎮海 難書碑辭

戊寅 七月 日

都監 金穆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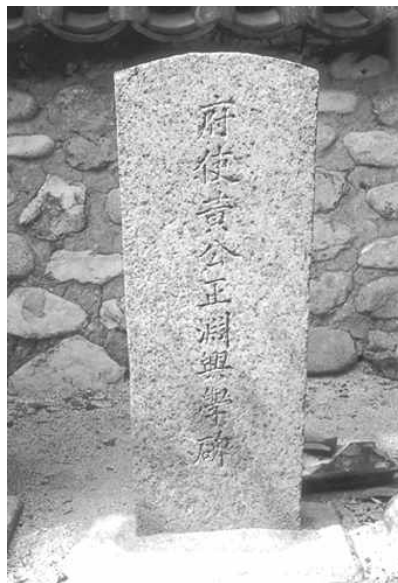
(비음)

정치가 맑았고 바다를 진압했으니

비문의 말을 쓰기 어렵다네

무인년 7월 일

도감 김목현



208) 황정연 : 1874년(고종11) 12월에 부임하여 1875년 8월에 승지로 옮겨감.

36. 부사(府使) 현명운(玄明運)²⁰⁹⁾ 흥학비(興學碑)

府使玄公明運興學碑

光武五年 十二月 日 豎

都監時別任 文有鳳

(비음)

광무 5년(1901) 12월 일 세움.

도감시별임 문유봉



209) 현명운 : 1900년(고종37) 11월에 부임하여 1902년 1월 17일에 관사에서 순직함.

37. 부사(府使) 강대수(姜大遂)²¹⁰⁾ 선정비(善政碑)

府使姜公大遂善政碑

庚辰 月 日 立

都監 金俊英 李順良

座首 金綵鍾

別監 文啓俊 文汝郁

(비음)

경진년 월 일 세움.

도감 김준영 이순량

좌수 김채추

별감 문계준 문여욱



210) 강대수 : 1639년(인조17) 10월에 부임하여 1640년 9월에 퇴임함.

38. 부사(府使) 이원진(李元鎭)²¹¹⁾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府使李公元鎭淸德善政碑

乙酉 十月 日

座首 文啓後

別監 宋繼商 朴友桂

都監 文啓昌

工 金光元

色 宋星生

(비음)

을유년 10월 일

좌수 문계후

별감 송계상 박우계

도감 문계창

공 김광원

색 송성생



211) 이원진 : 1644년(인조22)에 부임하여 1645년에 사임함.

39. 부사(府使) 황호(黃昊)²¹²⁾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府使黃公昊 淸德善政碑

丙戌 十月 日
座首 文啓後
別監 朴友桂 宋繼商
大同 金□聲
□□ □□□

(비음)

병술년 10월 일
좌수 문계후
별감 박우계 송계상
대동 김□성
□□ □□□



212) 황호 : 1645년(인조23)에 부임하여 1646년에 파직됨.

40. 부사(府使) 임의백(任義伯)²¹³ 청덕선정비

府使任公義伯淸…

公以…
冬解歸邑…
埋土中後…
密陽求得…

(해독불능)



213) 임의백 : 1652년(효종3) 11월에 부임하여 1654년 12월에 병으로 사직함.

41. 부사(府使) 이항(李沆)²¹⁴ 생사비(生祠碑)

府使李公沆生祠

崇禎後五丁亥 改豎

(비음)

승정 후 다섯 번째 정해년(1887) 고쳐 세움.



214) 이항 : 1686년(숙종12) 4월에 부임하여 1688년 1월에 퇴임함.

42. 부사(府使) 조태동(趙泰東)²¹⁵ 선정비(善政碑)

府使趙公泰東善政碑

仁深蠲稅 化成興學

去思遺愛 其永千億

公康熙戊寅莅任 己卯遞歸 邑人豎碑 後百五十年丁未 六世孫
徽林 忝守本府 仍舊改刻 重修碑閣

康熙四十年辛巳 九月 日立

丁未九月 日

監董 鄉廳 金□

吏房 趙仁赫

鄉 李萬齊 李命老 文斗心

石手 僧應默



인자함이 깊어 세금을 덜어주었고
교화 이루어 학문을 일으켰네
남기신 은혜 떠나가도 생각나니
길이 천억 년을 가리라

공은 강희(康熙) 무인(戊寅)년(1698, 숙종24)에 부
임하여 기묘(己卯)년(1699)에 바뀌어 돌아가셨고, 읍
사람들이 비석을 세웠다. 150년 후인 정미(丁未)년
(1847, 헌종13)에 6세손 휘림(徽林)²¹⁶이 이 부를 지
키게 되어 옛 글을 비석을 세워 고쳐 새기고 비각을
중수했다.

215) 조태동 : 1698년(숙종24) 9월에 부임하여 1699년 4월에 병으로 사직함. 뒤에 경상도 관
찰사를 지냄.

216) 조휘림 : 1847년(헌종 13년) 6월부터 1849년 4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직함.

강희 40년 신사년(1701) 9월 일 세움.

정미년 9月 日

감동 향청 김□

이방 조인혁

향 이만제 이명노 문두심

석수 승응묵

43. 부사(府使) 조재민(趙載敏)²¹⁷ 청덕선정만고불망 마애비(淸德善政

萬古不忘磨崖碑)

府使趙公載敏淸德善政萬古不忘磨崖

歲壬申春 西面

都監 朴敏規

賑窮錫徭	邵農創學
肇舉古禮	遐鄉悅服
琢涪溪石	擬峴首碑
於千萬年	不傾不虧



(비음)

임신년 봄 서면

도감 박민규

217) 조재민 : 1750년(영조26) 7월에 부임하여 1751년에 퇴임함.

곤궁한 자 구휼하고 부역을 덜어주며
농업을 장려하고 학교를 만드셨다
옛날의 예법을 일으키셔서
먼 변방 고을 사람이 기뻐 감복하였다
부계(涪溪)의 돌²¹⁸⁾을 쪼아서
언덕 위에 타루비(墮淚碑)²¹⁹⁾ 세우니
아! 천만년 동안이나
기울지 말고 깨지지 말아라.

218) 부계(涪溪)의 돌 : 당(唐)나라 원결(元結)이 부계의 태수로 있으면서 어진 정사를 베풀어, 이 곳 사람들이 부계의 돌로 그의 비석을 세웠다.

219) 타루비 : 진(晉)나라 양양태수(襄陽太守) 양호(羊祜)의 덕을 사모하여 주민들이 현산(峴山)에 세운 비. 이 비를 보는 사람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하여 ‘타루비(墮淚碑)’라고 하였다.

44. 부사(府使) 임상원(林象元)²²⁰⁾ 청덕선정 만고불망비(淸德善政萬古不忘碑)

府使林公象元淸德善政萬古不忘

歲丁丑冬 西面

정축년 겨울 서면



220) 임상원 : 1754년(영조30) 1월에 부임하여 1755년 12월에 퇴임함.

45. 부사(府使) 이유신(李裕身)²²¹⁾ 청덕선정 만고불망비(淸德善政萬古不忘碑)

府使李公裕身淸德善政萬古不忘碑

歲丁丑冬 北面 文秉禧

정축년(1757) 겨울 북면 문병희



221) 이유신 : 1755년(영조 31년) 12월부터 1756년 10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직함.

46. 부사(府使) 강필리(姜必履)²²²⁾ 거사단(去思壇)

府使姜公必履去思壇



222) 강필리 : 1706년(숙종32) 10월에 부임하여 1708년 11월에 퇴임함.

47. 부사(府使) 이치중(李致中)²²³⁾ 선정비(善政碑)

府使李公致中善政碑

崇禎三甲辰 四月 日立

監役 劉尙純

승정후 세 번째 갑진년(1784) 4월 일 세움.

감역 유상순



223) 이치중 : 1778년(정조2) 10월에 부임하여 1780년 정월에 파직됨.

48. 부사(府使) 이양정(李養鼎)²²⁴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府使李公養鼎善政不忘碑

崇禎三甲辰 四月 日 武各廳作廳並立
監役 崔應極

(비음)

송정후 세 번째 갑진년(1784) 4월 일 무청 각 청과 작청이 함께 세움.

감역 최응극



224) 이양정 : 1782년(정조6) 7월에 부임하여 1783년 6월에 퇴임함.

49. 부사(府使) 윤필병(尹弼秉)²²⁵⁾ 거사단(去思壇)

府使尹公弼秉去思壇



225) 윤필병 : 1792년(정조16) 7월에 부임하여 1795년 3월에 퇴임함.

50. 부사(府使) 황일하(黃一夏)²²⁶⁾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使黃公一夏永世不忘碑

特軫吏役 永蠲民瘼
恩遍一邦 德垂千億

崇禎紀元後二丁亥 吏民豎立 年久剝落 四辛卯 孟夏 作廳改建
座首 鄭有一
別監 辛東珪 文鳳來
公兄 宋儒殷 孫禧彦 李重倓 尹師翰
監役 具鳳祥 李思勳 李正民



특별히 아전들의 부역을 가엽게 여기셔서
영원히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주셨네
은혜가 온 마을에 두루 퍼지고
덕이 천억 년을 남아 있으리라

숭정(崇禎) 기원 후 두 번째 정해년(1707)에 아전
들과 백성들이 비석을 세웠다. 세월이 오래되어 글
자가 벗겨지고 떨어져서 숭정(崇禎) 기원후 네 번째
신묘년(1811) 4월에 작청(作廳)²²⁷⁾에서 다시 세운다.

좌수 정유일
별감 신동규 문봉래
공형 송유은 손희언 이중담 윤사한
감역 구봉상 이사훈 이정민

226) 황일하 : 1705년(숙종31) 1월에 부임하여 1706년 8월에 파직됨.

227) 작청(作廳) : 아전들이 모여 집무하는 청사. 길청(吉廳) 또는 연청(掾廳)이라고도 한다.

51. 부사(府使) 윤노동(尹魯東)²²⁸⁾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府使尹公魯東淸德善政碑

崇禎紀元後四戊寅 八月各面立

座首 金天鍵

都監 辛宅晚

別監 文禹海 鄭夏珪

監官 李濩

色 具鳳祥



(비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무인년(1818) 8월 각 면에서 세움.

좌수 김천건

도감 신태만

별감 문우해 정하규

감관 이호

색 구봉상

228) 윤노동 : 1809년(순조9) 정월에 부임하여 1812년 4월에 사직함.

52. 부사(府使) 윤문거(尹文舉)²²⁹ 청선비(淸善碑)

府使尹公文舉淸善碑

229) 윤문거 : 1651년(효종2) 8월에 부임하여 1652년 11월에 파직됨.

53. 부사(府使) 오한원(吳翰源)²³⁰ 청덕선정비(淸德善政)

府使吳公翰源淸德善政碑

崇禎紀元後四戊寅 八月各面立

座首 辛台鼎

別監 宋載禧 文禹海

都監 辛宅晚

監官 李濩

色 具鳳祥

(비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무인년(1818) 8월 각 면에서 세움.

좌수 신태정

별감 송재희 문우해

도감 신태만

감관 이호

색 구봉상



230) 오한원 : 1806년(순조6) 2월에 부임하여 1809년 2월에 이임함.

54. 부사(府使) 성수묵(成遂默)²³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使成公遂默永世不忘碑

公之莅府 丁酉歉春 捐廩而賑 濟活窮民 羅料放本 痼瘼已久
別備千緡 設屯矯救 左營武試 人無願往 申報上司 自邑主榜
釜鎮排料 遇荒莫繼 限年請劃 以掄其弊 海戶漁錢 殖債館供
添給三面 買土支用 邊堞頽圯 未免疎虞 千金出捐 一新改圖
六政斯舉 闔境其蘇 公車還朝 不忘遺澤 勒石請記 謹述其略

都監 郭必元 金亨進 朴在淳

監官 鄭碩憲 朴志演

責應 具鳳祥 李晉浩 尹師勛

崇禎紀元後四己亥 五月 日 武各廳立



231) 성수묵 : 1837년(헌종 3년) 3월부터 1838년 11월까지 동래부사로 재임함.

(비음)

공이 동래에 부임해 온 것은 정유(丁酉)년(1837, 헌종3) 늦봄이었다. 창고를 열어 곤궁한 백성들을 먹여 살렸고, 나락 급료 본전 농기 등이 병폐된 지 오래더니 따로 천 냥의 돈을 마련하여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그것을 고쳤다. 좌수영 무관시험에 가려는 자가 없어서 상사(上司)에게 보고하여 읍에서 방(榜)을 주관했다. 부산진의 급료 배당을 흉년이 되어 대기 어렵게 되자 년도(年度)를 한정하여 조처할 것을 청하여 폐단을 해결하였다. 어민들의 고기잡는 비용을 왜관 지공미(支供米) 빚을 놓아 3개 면에 보태주고 땅을 사서 비용을 유지하게 하였다. 변방 성채가 무너져서 영성하게 되자 천금을 출연하여 새롭게 고쳐 놓았다. 여섯 가지 정사(政事)가 이렇게 부흥되자 온 경내(境內)가 소생하였다. 공이 조정으로 돌아가자 남기신 은혜를 잊지 못해 돌에 새겨 기록할 것을 청하여 그 대강을 삼가 적어둔다.

도감 곽필원 김형진 박재순

감관 정석현 박지연

책응 구봉상 이진호 윤사훈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기해년(1839) 5월 일 무청 각 청에서 세움.

55. 부사(府使) 민영훈(閔永勳)²³²⁾ 생사비(生祠碑)

府使閔公永勳生祠



232) 민영훈 : 1835년(헌종1) 9월에 부임하여 1837년 3월에 이임됨.

56. 부사(府使) 조봉진(曹鳳振)²³³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使曹公鳳振永世不忘碑

粵在丙子 公節南莅 恩遍窮鄙 威懾異類 南橋北路 利涉萬人
簽丁無闕 履畝惟均 永鐫墓陳 澤及枯骨 不忘遺愛 爰豎短碣

崇禎紀元後四己亥 七月日各面立

座首 孫星駟

吏房 李之淳

都監 金漢柱

有司 劉景昌

色 李之亨



233) 조봉진 : 1816년(순조16) 4월에 부임하여 1817년 10월에 강원도관찰사로 옮겨감.

(비음)

병자년(1816)에 공께서 남쪽 이곳에 부임하셔서 곤궁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두루 베푸셨고 이민족들에게도 위엄과 두려움을 보여주었다. 남쪽 다리나 북쪽 길에 만인들이 다닐 수 있게 하였고, 병역장부를 빠뜨리지 않았으며, 토지조사를 고르게 하였고, 묘소와 묵은 밭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여 혜택이 죽은 사람들에까지 미쳤다. 이에 남기신 은혜를 잊지 않고 여기에 작은 비석을 세운다.

충정 기원 후 네 번째 기해년(1839) 7월 일 각 면에서 세움.

좌수 손성일

이방 이지순

도감 김한주

유사 유경창

색 이지형

57. 부사(府使) 김선근(金善根)²³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使金公善根永世不忘碑

績著列郡 威重邊門
永給堡復 廣置砲屯
戶口播頌 旗手懷恩
此石可語 厥施長存

光緒 十年甲申 三月 日 邑內面立
前僉使面首 李雨慶
監董 金瑬畦 鄭漢奎
座首 文秉喜
風憲 金振珪
公員 李寅堉
有司 劉道完
吏房 李相昕
戶長 尹浩珍

공적은 여러 군(郡)에서 뛰어났고
위엄은 변방 관문에서 엄중하였다.
영급전(永給田) 대지를 면세하고
포대 둔전(屯田)을 넓게 설치하였다.
집집마다 칭송이 퍼져가고
기수(旗手)들이 은혜를 생각하네
이 돌이 말하리니
그의 은혜는 길이 남으리

234) 김선근 : 1880년(고종17) 12월에 부임하여 1883년 정월에 이임됨.

(비음)

광서 10년 갑신년(1884) 삼월 일 읍내 면에서 세움.

전첨사면수 이우경

감동 김용휴 정한규

좌수 문병희

풍헌 김진규

공원 이인후

유사 유도완

이방 이상흔

호장 윤호진



58. 부사(府使) 이용식(李容植)²³⁵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使李公容植永世不忘碑

三載莅政 一副規劃
礮射逞技 城廨完役
惠洽活青 志切保赤
於乎可忘 視此刻石

光緒十六年庚寅 正月 日 鄉武作三廳 立
別砲別將 折衝 姜渭俊
行首軍官 司果 李靖元
面首 前僉使 李雨慶
座首 幼學 文有鳳
吏房 金啓演
戶長 李相旭
行首執事 折衝 辛明鉉
中軍 嘉善 鄭漢榮

3년 동안 정사에 임하셔서
모두 계획한대로 맞았다
총포 군사 재능을 발휘하고
성곽과 관아의 역사(役事)를 완성했네
파랗게 살려낸 은혜 흠족하고
적자(赤子) 보호한 뜻 간절했네
아! 잊을 수 있겠는가
이곳에 새긴 비석을 보아라

235) 이용식 : 1887년(고종24) 윤4월에 부임하여 1889년 5월에 부승지로 승직됨.

(비음)

광서 16년 경인년(1890) 정월 일 향청·무청·작청에서 세움.

별포별장 절충 강위준

행수군관 사과 이정원

면수 전첨사 이우경

좌수 유학 문유봉

이방 김계연

호장 이상욱

행수집사 절충 신명모

중군 가선 정한영



59. 부사(府使) 이안눌(李安訥)²³⁶⁾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府使李公安訥淸德善政碑

豎在萬曆己酉 失在中年 己酉後百七十四年壬寅 幸得斷碑 續而改豎

光緒十七年辛卯 六月 日 改豎

八代孫 元信 亨信

九代孫 敏龜 敏秀 敏洪 敏俊 敏化 敏國

十代孫 永基 永堍



비석을 만력(萬曆) 기유(己酉)년(1609, 광해1)에 세웠으나 중간에 잃어버렸다. 174년 뒤인 임인(壬寅)년(1782, 정조6)에 다행히 잘려진 비를 찾아서 이어서 다시 세웠다.

(비음)

광서 17년 신묘년(1891) 6월 일 고쳐 세움.

팔대손 원신 형신

구대손 민구 민수 민홍 민준 민화 민국

십대손 영기 영후

236) 이안눌 : 1571~1637. 1608년(선조 41년) 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609년 7월까지 재임함.

60. 부사(府使) 김학진(金鶴鎭)²³⁷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使金公鶴鎭永世不忘碑

出鎭南服 瞻依北宸
辦數萬鎚 活千百人
屯牛散野 豐稔盈囷
績著三載 頌播仟春

光緒 十八年壬辰 六月 日 各面豎

監董 時鄉首 鄭始民

座首 朴銓海

守城中軍 鄭孝根

行首軍官 辛明錄

吏房 李相旭

戶長 尹浩鎔

남쪽 지방 지키러 나오셔서
북쪽 궁궐을 바라보았네
수 만금을 마련하셔서
많은 사람 살려냈네
둔전(屯田)의 소는 들에 널려 있고
풍년이룬 곡식 곳간에 가득
삼 년 동안 공적이 빛나서
칭송하는 소리 천년을 가리라.

(비음)

광서 18년 임진년(1892) 6월 일 각 면에서 세움.

감동 시향수 정시민

237) 김학진 : 1885년(고종22) 6월에 부임하여 1887년 윤4월에 이임됨.

좌수 박전해
수성중군 정효근
행수군관 신명록
이방 이상욱
호장 윤호용



61. 부사(府使) 윤필은(尹弼殷)²³⁸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府尹尹公弼殷淸德善政碑

桑梓荷榮 擬酬鴻霈
心淸氷蘂 政簡裘帶
誦恩婦孺 紀績耆艾
鄰邦競賀 永傳圖繪

光武 四年 八月 日 邑內面各洞民人等 立



우리 마을 영화로운 은혜 입어
큰비와 같은 보답을 생각하였네
마음은 얼음과 황벽(黃蘗)처럼 청렴하시고
정사는 느슨하고 편하게 하셨네
아녀자와 아이들 송덕하고
노인들은 공적을 기록하네
이웃마을 다투어 축하드리니
그 모습 그려 영원히 전하리라

(비음)

광무 4년(1900) 8월 일 읍내 면 각 동민 등이 세움.

238) 윤필은 : 1900년(고종37) 5월에 부임하여 같은 해 8월에 교체됨.

62. 부사(府使) 현명운(玄明運)²³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府尹玄公明運永世不忘碑

自公尹茲 鎮我南服
惠民揀瘼 興校樂育
政如烹鮮 俗無佩犢
片石堪言 存之於目

光武五年 十二月 日 十二面立

行首軍官 司果 鄭道根

鄉長幼學 孫在熙

首書記 秋翰中

掌庫書記 李時膺

戶長書記 文正路

監董 五衛將 秋斗永

中軍知事 鄭漢榮



239) 현명운 : 1900년(고종37) 11월에 부임하여 1902년 정월에 죽음.

공이 이곳에 부윤(府尹)이 되어
우리 남방을 다스리셨네
백성에게 은혜로워 폐단을 구해주고
학교를 일으키고 육성하기 즐기셨다네
정사(政事)는 생선 삶듯 조심하셔서
사나운 풍속들이 사라졌네
이 조그만 돌이 말해줄 것이니
눈에 새겨 들지어다.

(비음)

광무 5년(1901) 12월 일 12면에서 세움.
행수군관 사과 정도근
향장유학 손재희
수서기 추한중
장고서기 이시응
호장서기 문정로
감동 오위장 추두영
중군지사 정한영

63. 부사(府使) 이휘령(李彙寧)²⁴⁰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府使李公彙寧淸德善政碑

積弊虛留 悉心淸帳
文武農獎 復捐廩貺

幼學 金玟浹
別監 幼學 文翊祥
座首 幼學 文秉憲
都監 幼學 鄭存一
監官 嘉善 文進烈
色吏戶長 尹碩老
崇禎紀後四丙辰 六月 日 各面立
光武六年壬寅 二月 日 外孫 府尹 趙鍾緒 建閣



(비음)

장부에 허위로 남아있던 적폐(積弊)를
마음 쏟아 깨끗이 정리하셨다
문무와 농업을 장려하셨고
또한 창고를 풀어 구휼해주셨다.

유학 김민협
별감 유학 문익상
좌수 유학 문병헌
도감 유학 정준일
감관 가선 문진열
색이호장 윤석노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병진년(1856) 6월 일 각 면에서 세움.
광무 6년 임인년(1902) 2월 일 외손 부윤 조종서 비각을 세움.

240) 이휘령 : 1851년(철종2) 5월에 부임하여 1852년 7월에 이임됨.

64. 부사(府使) 정종원(鄭種遠) 유애비(遺愛碑)

府使鄭公種遠遺愛碑

65. …청덕선정 만고불망비(…淸德善政萬古不忘碑)

…淸德善政萬古不忘碑

座首 李命老
別監 金重台 金昌熙
監官 張之碩



(비음)

좌수 이명노
별감 김중태 김창희
감관 장지석

66. 김용조(金容祚) 청덕찬성비(淸德贊成碑)

金容祚淸德贊成碑

□□校稅 廉正均施

茲揭片石 衆□以記

大正十年 壬戌 書

書院里鳴藏蓮山 □□人 一同

(비음)

□□ 세금을 바로 잡아 주시고

청렴과 바름으로 고르게 베푸셨다

이 곳에 작은 비석 세워

여러 □을 기록하네

대정 10년(1922) 임술년 서

서원리 명장 연산 □□인 일동



67. 교원(敎員) 박반구(朴盤九) 청덕찬성비(淸德贊成碑)

敎員朴盤九淸德贊成碑

多年之間 茲揚片石
無給敎授 萬口傳播

院里夜學校
設立 金鳳浩
校長 梁泰□
學監 文士一
甲子三月三日 立



여러 해 동안에
이 곳에 작은 비석하나 세워졌다
보수 없이 가르쳐 주셨으니
만 명이 입으로 전파한다네

(비음)

원리야학교
설립 김봉호
교장 양태□
학감 문사일
갑자년 3월 3일 세움.

68. 전위원(前委員) 오남근(吳南根) 광혜불망비(廣惠不忘碑)

前委員吳南根廣惠不忘碑

萬口稱頌 十里堤築
秋有服力 川無襄陸
績既夏淮 土肥秦沃
酬德維何 豎此片石

歲在乙丑至月日 院里一同



모든 사람 칭송하는 것
십 리의 제방 쌓은 일
농사는 풍년이 들고
하천은 넘쳐흐를 걱정 없네
공적은 우(禹)임금과 같고
토지는 중원(中原)처럼 비옥하네
이 덕을 어떻게 보답하나
작은 비석 하나 세워 드리네

을축년 11월 일 원리 일동

69. 부사(府使) 이홍망(李弘望)²⁴¹⁾ 선정송덕비(善政頌德碑)

府使李公弘望善政頌德碑

公의 諱은 弘望이요 號는 虎巖이니 龍仁李氏라. 始祖諱는 吉□이니 麗太祖佐理功臣駒城伯이요 傳十二世諱中仁은 門下左侍中駒城府院君諡忠肅인데 杜門洞六先生의 一이니 卽公의 七代祖이다. 公은 萬曆壬申生이요 文科承旨修撰이요 外任은 安邊東萊諸郡에 治蹟多著라 江都胡亂에 副信使가 되어 累被威誘호대 正責不屈하니 醜類敬服하고 君命이 賴以無辱이다. 仁祖十五年丁丑卒이요 墓在京畿道利川郡夫鉢面白山艮坐원이라 傳至諱菡甲은 純宗朝文科司憲府監察司諫院正言이니 卽公의 八世孫이다. 不肖先考諱成鉉府君께서 平素에 公의 碑가 東萊에 있음을 알고 荒城草萊中에 搜索하였으나 誠意를 貫徹치 못하시었다. 近日에 小子가 偶然히 東萊에서 極東鐵鋼會社를 設立하게 됨을 機會로 先考의 遺志를 成就할가하여 틈있는대로 周圍를 探查한 結果에 累累列立한 古碑에서 府使公의 善政碑를 發見하였음은 實로 先蔭이 있음을 生覺하겠다. 그러나 碑文이 三百餘年을 經過하여 風磨雨洗에 殘存文字의 可解할 것이 稀少하므로 不肖가 새로히 一大石을 治하여 公의 世代와 行蹟과 尋得한 大略을 記錄하고 또 本碑를 함께 세우고 現存 글자만 下方에 옮겨 쓴다. 前面은 府使李公弘望善政頌德碑 側面은 公箇滿加七朔而遙民樹石客達里後七十 玄孫呂必重義使 扃閣移立 宋徽曾孫 后面은 ‘宋’ ‘金’ ‘柱’ ‘文’ ‘□’ ‘後’ ‘日’ 檀紀四二九六年 癸卯 三月 日 十一世孫 源宰 謹識

241) 이홍망 : 1632년(인조23) 12월에 부임하여 1635년 3월에 교체됨.

後記

始祖太師公은 距今七十四年前 收錄한 判官公派德相家所藏
世錄 및 其他 門宗諸錄을 綜合하여 볼 때 古朝鮮에 舜國君
인 舜國李氏始祖諱尙白의 一百二十二世孫임이 確認됨으로
茲에 附識함. 菁南 吳濟峯書



70. 부사(府使) 한배하(韓培廈)²⁴²⁾ 거사비(去思碑)

府使韓公培廈去思碑

一九七五年乙卯十月 改豎

(비음)

1975년 을묘 10월 고쳐 세움.



242) 한배하 : 1706년(숙종32) 10월에 부임하여 1708년 11월에 퇴임함.

71. 금강원지(金剛園誌)

金剛園誌

園ハ 金井連峰南ニ 盡クル 處ニ 在リ 山ヲ 負ヒ 谷ヲ 抱キ
奇巖累積翠松鬱蒼別乾坤ニ 遊ブガ 如シ 昭和六年 釜山東原嘉
次郎君ノ 有トナルヤ 苑池ヲ 開キ 樓門ヲ 設ケ 巨資ヲ 投シ
經營頗 ルカム 今年 皇紀二千六百年ニ 當リ 全園ヲ 舉ケチ
本邑ニ 寄贈ス 邑乃チ此ノ 舉ヲ 讃シ 整理擴張山城東南兩門
ニ 通スル 回遊林道ヲ 併ヤ以テ 溫泉公園ト 爲シ 遊覽觀光ノ
勝地タラシメントス 因テ 記念碑ヲ 建テ 由來ヲ 勒シ 之ヲ
後昆ニ 傳フ 云爾

皇紀 二千六百年 昭和 十五年 十一月 十日 東來邑長從七位
山口 精



금강원은 금정산 연봉(連峰) 남쪽
이 다하는 곳에 있다. 산을 등지고 골
짜기를 끼고, 기이한 바위들이 쌓여있
으며 푸른 소나무가 울창해서 별천지
에 노니는 것과 같다. 소화(昭和) 6년
(1931) 부산의 동원가차랑(東原嘉次郎)
군이 가지고 있던 동산과 못을 개방하
고 누각의 문을 설치해서 거금을 투자

하여 경영이 자못 순조로웠다. 금년에 황기(皇紀) 2600년을 맞이하여 전 동산을 들
어 본읍(本邑)에 기증했다. 읍에서는 이것을 칭찬하고 정리하고 확장하여, 산성 동
남쪽 양문으로 통하는 회유(回遊)하는 숲길과 함께 온천공원을 만들어, 유람관광의
명승지를 만들려고 한다. 이에 기념비를 세우고 유래를 새겨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하고자 하노라.

황기 2600년 소화 15년(1940) 11월 10일 동래읍장 종칠위 산구 정

부산진구 금석문

1. 동래 정씨(東萊鄭氏) 시조(始祖) 호장(戶長) 정문도 묘(鄭文道墓)

東萊鄭氏始祖戶長鄭文道之墓

公諱文道 爲鄭氏始祖 葬在東萊華池山子坐原 而其上 世無文可徵 至我孝宗大王時 長端松林山下 有古墓 毀而幽 誌出 乃禮部尙書文安公鄭沆墓也 有曰其先 東萊人 考諱穆 攝太府卿 祖諱文道 曾祖諱之遠 皆爲本郡戶長 沆年廿三 以高麗肅宗壬午登科 卒于仁宗丙辰 卽宋之紹興六年 沆三兄 濟早卒 漸・澤 皆以文章材幹 有名于朝云 公之年代 此可槩見 謹追記於表陰 俾後有歿

皇明崇禎甲申後五十八年辛巳 冬至日
密陽府使鄭是先改豎



공의 휘는 문도(文道)요 정씨의 시조로서, 묘소가 동래 화지산(華池山) 자좌(子坐) 언덕에 있는데, 그 위에 여태 글 하나 남아있지 않아 세계(世系)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효종대왕 시대에 장단면(長湍面) 송림산(松林山) 아래에서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다 허물어진데다 으스스하였다. 거기서 묘지문이 나왔는데 곧 예부상서(禮部尙書)²⁴³⁾ 문안공(文安公) 정항(鄭沆)의 묘소였다. 기록하기를 “그의 선조는 동래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정목(鄭穆)은 태부경(太府卿)²⁴⁴⁾에 올랐었고, 할아버지 정문도(鄭文道)와 증조부 정지원(鄭之遠)은 본 동래군의

243) 예부상서 : 예부는 공민왕 5년(1356) 의조(儀曹)를 개칭한 관청으로, 예의·제향·조회·학교·교빙·과거 등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이 곳의 주장이 상서(尙書)이다.

244) 태부경 : 태부는 삼공(三公)이 정사를 맡아보던 곳으로, 곧 의정부의 공경을 가리킨다.

호장(戶長)을 지냈다. 정항은 나이 23세에 고려 숙종 임오년(1102) 과거에 등과하였고, 인종 병진년(1136)에 죽었으니, 곧 송나라 소흥(紹興) 6년이다. 정항에게 형이 셋이 있었는데, 정제(鄭濟)는 일찍 죽었고, 정점(鄭漸)과 정택(鄭澤)은 문장의 재능으로 조정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공에 대한 연대기를 이 글에서 대략 볼 수 있으니, 후에 사라질 것에 대비하여 삼가 묘표(墓表)의 비음(碑陰)에 추가해 둔다.

(비음)

명 세종 갑신년 58년 뒤 신사년(1701) 겨울 동짓날
밀양부사 정시선 개수

2. 정묘비(鄭墓碑)

鄭墓碑

有明朝鮮國東萊鄭氏始祖高麗安逸戶長府君墓碣
二十二代孫通政大夫東萊都護府使彥燮敬書

世之譚氏族者 皆以東萊之鄭 爲世家大姓 堪輿家 又以華池鄭墓 爲東國名墓云 盖自勝國 逮于我朝 千有餘年之間 封域宛然 香火不絕 子孫愈久綿昌 累公累卿 國史家譜 爛燁相望 其始皆出於此墓種德之報也 噫 根深則枝茂 川豐則流遠 此豈無所本而然哉 墓前 舊有短碑 歲久殘缺 我肅宗大王二十七年辛巳 二十代孫監司是先 爲密陽府使時 伐石改豎 略記其陰 謹按其記曰公諱文道 爲鄭氏始祖 葬在東萊華池山子坐原 而其上世 無文可徵 至我孝宗大王時 長湍松林山下 有古墓 毀而幽誌出 乃禮部尙書文安公鄭沆墓也 有曰 其先東萊人 考諱穆 攝太府卿祖諱文道 曾祖諱之遠 皆爲本郡戶長 沆年廿三 高麗肅宗壬午登科 卒于仁宗丙辰 卽宋之紹興六年 沆三兄 濟早卒 漸・澤皆以文章材幹有名于朝云 嗚呼 公之年代 此可槩見 而獨其謹厚忠懿之德・謙恭贊儉之風 宜其爲人家肇始之祖 爲後世子孫之法者 闕而無傳 郡志曰 公以縣吏 老而家居 每月朔 聞吹角聲 則以爲官長開衙 輒下庭拜伏 其恭如此 郡志又曰 公歿而葬也 行喪 至于此山 適有雪消虎踞之異 故就而葬之云 至今鄉里家閭 皆知鄭戶長之名 而指其墓曰鄭墓 樵牧不入 立木無恙 地 在南邊 燹劫屢經 而亦不敢犯逼 豈非公之積德厚善有以致是也歟 按譜 公之孫四人 侍郎濟 御史雜端 漸子孫無傳 沆卽幽誌所謂文安公也 □□□無 傳 惟門下僉議贊成事給事中諱澤 有名麗朝 在仁宗時 以禮賓少卿 奉使如金 事載麗史 公之子孫至贊成公 尤益昌大 至于今 殆遍一國 代出名公碩卿 輔佐王室爲國世臣者 不可盡錄 大率以忠厚恭謹爲法 其流風餘韻 尙今不衰

世稱鄭氏世 傳之家範云

彦燮 世受國恩 獲蒙先蔭 來守茲土 瞻掃塋域 不勝一氣流通之感 遂與宗長密陽府使赫先 通告於姓族之爲旁近邑宰者 各割官俸 增置祭田 又與此鄉同宗 修契於墓下 以爲收宗族護丘墓之圖 尙懼夫過此千百世之後 陵谷易變表記難認 卽墓階之南十許步 治石而碣之 記文則盡用表陰全文 又以郡志所載 徵信於後世 見漏於表陰者 略爲添錄 至若墓前石儀 太近簡樸 宜在修改者 亦不敢一一增新以取觀美者 恐傷忠厚質儉之遺德也 凡爲此墓之子孫者 其敢有荒墜先德違棄家風者乎 噫 湧山如砥 蓬海如瀆 拱手以俟後人之來讀云爾

監役後孫幼學震僑

崇禎甲申後八十九年壬子 十一月日 立
折衝 金昌夏

조선국 동래정씨 시조 고려 안일호장 부군 묘갈

22대손 통정대부 동래도호부사 언섭(彦燮)²⁴⁵ 삼가 씀

세상에서 씨족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래 정씨를 세가(世家)의 대성(大姓)이라고 한다. 풍수가들도 또한 화지산(華池山)의 정묘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름난 묘소라고 한다. 대개 고려로부터 우리 조선에 이르기까지 천여년 사이에 붕괴 묘역이 완전하고 제사가 끊이지 않으며, 자손들도 유구히 번창하여 공경대부가 쌓였고, 국사(國史)와 가보(家譜)에 찬란히 서로 이어졌으니, 그 근원은 모두 이 묘소가 덕을 심어놓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 뿌리가 깊으면 가지가 무성하고 냇물이 풍성하면 먼 곳까지 흐르는 법이니, 이 어찌 근본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겠는가?

묘소 앞에는 옛부터 작은 비석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닳고 말았다. 우리

245) 정언섭(鄭彦燮) : 1686~1748, 1725년(영조원년)에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730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



숙종대왕 27년 신사년(1701)에 20대손인 감사 시선(是先)이 밀양부사가 되었을 때, 돌을 캐어다 고쳐 세웠는데, 그 뒷면에 간략히 기록한 것이 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공의 휘는 문도요, 정씨의 시조로서 묘소가 동래 화지산 자좌(子坐) 언덕에 있는데, 그 옷대는 징험할 문헌이 없다. 그러나 우리 조정의 효종대왕 시대에 장단면 송림산 아래에서 오래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다 허물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묘지문이 나왔는데 곧 예부상서 문안공 정항의 묘소였다. 기록하기를 ‘그의 선조는 동래 사람이다. 그의 아버지 정목은 태부경에 올랐었고, 할아버지 정문도와 증조부 정지원은 본 동래군의 호장을 지냈다. 정

항은 나이 23세에 고려 숙종 임오년(1102) 과거에 등과하였고, 인종 병진년(1136)에 죽었으니, 곧 송나라 소흥 6년이다. 정항에게 형이 셋이 있었는데, 정제는 일찍 죽었고, 정점과 정택은 문장의 재능으로 조정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하였다.

슬프다! 공에 대한 연대기를 이 글에서 대략 볼 수는 있지만, 유독 근후하고 충성스러운 덕성과 겸손하고 검소한 풍격이 한 가문을 일으킨 시조가 되어 후세 자손들의 모범이 될만한데도 사라져 전해지는 것이 없다. 군지(郡誌)에 “공은 동래현의 향리로서, 늙어 집에 거주할 때 매월 초하루마다 나발부는 소리를 들으면 관장이 관아에 개정(開庭)한다고 여겨 곧장 마당으로 내려와 절하며 엎드렸으니, 이처럼 공손하였던 것이다.”고 하였다. 군지에서 또 이르길 “공이 죽어 장례를 지내는데, 상여가 가다가 이 산에 이르렀을 때 마침 눈이 녹은 곳에 호랑이가 앉아있는 이상한 광경을 만났다. 그래서 그 곳에 장사를 치렀다”고 한다. 지금도 향리에서는 집과 골목마다 정호장(鄭戶長)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 묘소를 가르켜 ‘정묘(鄭墓)’라고 한다. 나무꾼들도 들어가지 않으며 나무를 심어도 아무런 탈이 없다. 이 곳은 남쪽 변방에 있는데, 전란을 몇 차례 겪었어도 감히 침범하지 못했으니, 이는 공께서 덕을 쌓고 선행을 두텁게 행했던 것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족보를 보면 공의 손자가 넷인데, 시랑(侍郎)인 정제(鄭濟)와 어사잡단(御史雜端)²⁴⁶⁾ 정점(鄭漸)은 자손이 잇지 못했고, 정항(鄭沆)은 곧 무덤의 묘지석에서 말한 문안공(文安公)인데, 그 자손이 역시 잇지 못했다. 오직 문하첨의(門下僉議)²⁴⁷⁾ 찬성

246) 어사잡단 : 고려시대에 정사(政事)에 대한 언론과 풍속의 단속, 비위와 불법을 규찰하고 탄핵하던 어사대(御史臺)에 소속된 중5품의 관직.

247) 문하첨의 : 고려 충렬왕 원년(1275)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과 상서도성(尙書都省)이 병합되어 설치되었던 관청.

사(贊成事)²⁴⁸⁾ 급사중(給事中)²⁴⁹⁾ 정택(鄭澤)은 고려 조정에 이름이 있어 인종 때 예빈(禮賓)의 소경(少卿)으로 금나라에 사신을 다녀왔는데, 그 일이 <고려사>에 실려 있다. 공의 자손들은 찬성공에 이르러 더욱 번창하여, 지금까지 두루 온 나라에 대대로 이름난 큰 공경을 배출하였고, 왕실을 보좌하여 나라의 세신(世臣)이 된 것은 이루다 기록할 수 없다. 대개 충성과 공경함을 모범으로 삼아 그 유풍(流風)과 여운이 지금껏 시들지 않고 있으니, 세상에서도 정씨를 세세로 전하는 가문의 모범이라고들 한다.

나 언섭(彦燮)이 나라의 은혜를 받고 선조의 음덕을 입어 이 곳에 부사로 와서 선영의 땅을 바라보자니 온몸에 기운이 유통하는 감회를 이길 수 없다. 드디어 종장(宗長)이신 밀양부사 혁선(赫先)이 먼저 일족 가운데 가까운 고을의 수령을 지내는 자들에게 통보하여 각자 녹봉을 털어서 제전(祭田)을 더 마련토록 하고, 아울러 이 곳의 같은 종친들과 함께 묘소 아래에서 모임을 조직하여 종족을 모으고 묘소를 보호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으니, 이는 지금으로부터 천년 백년이 지나 구릉과 골짜기가 변하여 표시와 기록을 알아보지 못할까 두려워한 때문이다.

이제 묘소 계단 남쪽으로 열보 쭉에 돌을 깎아 세우고, 기문(記文)은 묘표(墓表) 비음의 글 전문을 사용하고, 거기다 군지(郡誌)에 실린 기록으로 후세에 신용이 될 만하고, 묘표 비음에 누락된 것을 대략 더 보태어 기록해 둔다. 묘소 앞의 석물이 너무 간결 소박한 듯 하여 개수해야 하겠지만, 감히 일일이 새롭게 만들어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충후하며 질박 검소한 유덕을 손상시킬까 염려해서이다. 이 묘소의 자손된 자로서 감히 선조의 덕을 떨어뜨리고 가풍을 어겨서야 되겠는가? 아! 금용산(金湧山)²⁵⁰⁾이 솟돌처럼 닳고 봉래 바다가 도랑처럼 마르도록 손을 깎은 채 후인들이 와서 읽기를 기다리노라.

감역 후손 유학 진교

(비음)

승정 갑신년 89년 뒤 임자년(1732) 11월에 세우다.

절충 김창하

248) 찬성사 :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관직.

249) 급사중 : 중서문하성의 종4품 관직.

250) 금용산 : 화지산(華池山) 뒤의 조산(祖山) 이름이 금용산(金湧山, 쇠미산)이다.

3. 동래 정씨(東萊鄭氏) 시조(始祖) 호장(戶長) 정문도 묘(鄭文道墓)

東萊鄭氏始祖戶長鄭文道之墓

先祖戶長府君 墓碣改豎文

府君 諱文道 東萊人 高麗安逸戶長 事行載神道碑 考諱之遠 戊辰春 發見滎陽公長湍墓誌石 文云 郡長子穆 朝散大夫檢校禮賓卿 行攝太府卿 賜紫金魚袋・滎陽公 先祖戶長孫 濟以吏術就仕 衛尉主簿通判靈光郡 漸衛尉主簿同正 澤雜織署丞 沆禮部尙書 諡文安 曰有碣苔蝕 不可識 埋于墓西 後孫右議政芝衍 爲本道觀察使時 改豎 又爲風雨所泐 後孫監司是先 宰密陽時 改豎 又歲久殘缺 二十九世孫珍榮 以林塘相國惟吉公所撰 □□□□□ □ 宗孫得男之後裔 累歲奉祀之餘 尤不勝感慕 □□□□ 謹改豎時

檀紀四千二百八十八年乙未七月清秋也

主董東萊鄭氏宗約所

所長東萊郡守慶浩

副所長準謨昇謨潤謨

常務庚三寅弼敬來

선조 호장부군(戶長府君)의 묘갈문(墓碣文)을 고쳐 세우는 글.

부군의 휘는 문도(文道)로 동래 사람이다. 고려 때 안일호장(安逸戶長)²⁵¹⁾을 지냈는데, 그 사실과 행적이 신도비에 실려 있다. 부친의 휘가 지원(之遠)이다.

무진년 봄에 형양공(滎陽公)의 장단군(長湍郡) 묘지석이 발견되었는데, 그 비문에 “군(郡)의 장자 목(穆)은 조산대부(朝散大夫)²⁵²⁾ 검교예빈경(檢校禮賓卿)²⁵³⁾으로 태

251) 안일호장 : 고려시대에 나이 70세 이상되는 호장(戶長)에게 주었던 칭호. 안일호장은 퇴역전(退役田)으로 직전(職田)의 절반을 받았다.

252) 조산대부 : 고려 문산계(文散階)에 있는 품계의 하나로서 문종30년에 종5품 하계(下階)로 정해졌고, 공민왕 5년(1356)에는 종4품으로 올려졌다.

253) 검교예빈경 : 예빈경은 고려시대 예빈시(禮賓寺)에 속했던 종3품의 관직이나, 앞에 붙

부경(太府卿)²⁵⁴에 올라 자금색의 어대(魚袋)²⁵⁵와 형양공(滎陽公)의 호칭을 하사받았다. 선조 호장의 손자 가운데 정제(鄭濟)는 리(吏)로 벼슬을 살아 위위주부(衛尉主簿)²⁵⁶ 통판영광군(通判靈光郡)²⁵⁷을 지냈고, 정점(鄭漸)은 위위주부동정(衛尉主簿同正)²⁵⁸을, 정택(鄭澤)은 잡직서 승(雜織署丞)²⁵⁹을 지냈고, 정항(鄭沆)은 예부상서(禮部尙書)²⁶⁰를 지내 문안(文安)의 시호를 받았다. 묘갈이 있는데, 이끼에 잠식되어 글을 알아볼 수 없어 묘소의 서쪽에 묻었다. 후손인 우의정 지연(芝衍)이 본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을 때 고쳐 세웠고, 또 비바람에 손상되어 후손인 감사 시선(是先)이 밀양부사 시절에 고쳐 세웠다. 또 다시 세월이 오래되어 마모되자 29세손인 진영(珍榮)이 재상 임당(林塘) 유길(惟吉) 공이 지은 글로 (...) 종손 득남(得男)의 후예들이 해마다 제사를 받드는 나머지 더욱 그 사모하는 감회를 이기지 못하고 (...) 삼가 고쳐 세운다. 때는 단기 4288년 을미년(1955) 7월 맑은 가을날.

주동 동래정씨 종약소
 소장 동래군수 경호
 부소장 준모 승모 윤모
 상무 경삼 인필 경래



-
- 은 ‘검교’는 실제 사무는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도록 한 산직(散職)의 명칭이다.
- 254) 태부경 : 태부는 삼공(三公)이 정사를 맡아보던 곳으로, 곧 의정부의 공경을 가리킨다.
- 255) 자금어대(紫金魚袋) : 물고기 모양의 장식이 붙은 주머니로 공복(公服)의 띠에 매달아 관직의 높낮이를 표시하였다. 이는 국왕이 하사하는 물건이다.
- 256) 위위주부 : 고려시대 의장(儀仗)에 쓰이는 예기(禮器)와 병기 등을 맡아보던 위위시(衛尉寺)의 속관으로, 종7품의 관직이다.
- 257) 통판영광군 : 고려시대 대도호부의 지방관을 통판이라 하였는데, 예종 11년(1116)에는 목(牧)의 판관(判官)을 통판이라고 고쳤다. 그러므로 통판영광군은 영광군이 수령이다.
- 258) 동정 : 시재(試才)한 뒤 아직 기용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영직(影職).
- 259) 잡직서승 : 직조(織造)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던 잡직서(雜織署)의 속관으로, 승(丞)은 종9품직이다.
- 260) 예부상서 : 예부는 공민왕 5년(1356) 의조(儀曹)를 개칭한 관청으로, 예의·제향·조회·학교·교빙·과거 등의 일을 담당하였는데, 이 곳의 주장이 상서(尙書)이다.

4. 유정대사(惟政大師) 충의비(忠義碑)

惟政大師忠義碑

鳴呼 龍蛇之變 可勝言哉 卓爾松雲之名 久益彰也 倡義危難
之際 竟推源於孝忠 覺道慈悲之教 素得力於經史 三入虎穴
寶首願賅 遠涉鯨波 孤魂普濟 交隣兩國 豫定幾千年之約條
雨露一天 咸賴億萬生之繁息 追恩承闕 身已擬於寵深 抗章乞
骸 志不易於富貴 謝宜藥於伽倻 大化將順 祥光燭天 勅祠宇
於密州 盛典攸暨 風聲永樹 四鎮築役 既完此城 十載勲勞 最
著茲土 歲月滋久 往迹蒼茫 迺昔未遑 勒此不泯 堂堂忠義 儒
釋同光 嗟嗟後昆 鑑茲爲則
慈通弘濟階嘉義 號泗溟鍾峰松雲
庚辰夏釜山僉使任衡準書



(비음)

오호라, 임진년의 변고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드높은 송운(松雲)²⁶¹⁾이란 이름은 오렐수록 더욱 빛난다. 위급하고 어려울 때 승의병(僧義兵)을 일으킨 것은 필경 호와 충에서 근본을 추구했던 것이고, 자비의 종교에서 도를 깨달은 것은 본래 경전과 역사서에 힘입었던 것이다.

세 차례나 호랑이 굴에 들어가 보배로운 적장의 머리를 얻고자 했으며²⁶²⁾, 멀리 사나운 파도를 건너가 외로운 혼령들을 널리 구제하였다. 조선과 일본 두 나라가 서로 교린(交隣)토록 하였으니 몇 천년 지켜나갈 조약을 미리 정해 놓았고, 온 하늘에 은혜 가득하니 수 없는 생명들의 번식이 이것에 힘입었다. 옛일을 생각하여 벼슬자리에 있었던 것은 몸이 이미 깊은 충애를 받았기 때문이요, 상소문을 올려 사직을 요청한 것은 뜻이 부귀에 따라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⁶³⁾ 가야산에서 임금으로부터 내린 의약을 받고 사례하고²⁶⁴⁾, 죽음에 장차 순응하니, 상서로운 빛이 하늘을 비추었다. 밀양에 사우(祠宇)를 창건하여 성대한 제전(祭典)이 마련되니, 풍성(風聲)을 영구히 수립하였다. 네 곳의 진영을 축조하는 부역으로 부산성이 완성되고, 십 년 동안의 공로 가운데 이 곳이 가장 현저하다. 세월이 오래되어 지나간 자취는 아득하고, 흘러간 시간은 돌아볼 겨를 없으니, 사라지지 않도록 이 돌에 새겨둔다. 당당한 충의는 유·불(儒佛)에 같이 빛이되리니, 아! 후생들은 이 글을 거울삼아 모범으로 삼을 것이다.

대사는 자통홍제존자(慈通弘濟尊者)요 품계는 가의대부(嘉義大夫)²⁶⁵⁾이다. 호는 사명(四溟)·종봉(鍾峰)·송운(松雲)이다.

경진년 여름 부산첨사 임형준 쓰다.

261) 송운 : 사명당 유정의 별호.

262) 사명당은 부산에 주둔해 있던 적진을 찾아가 가등청정(加藤清正)을 만나 적정(賊情)을 탐지하면서, 조선의 보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네 목이 우리나라의 보배다”고 답한 일이 있었다. (許筠, 『有明朝鮮國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

263) 1605년 서산대사가 죽자 스승의 상을 지낸다는 이유로 묘향산으로 들어가 공직에서 사직하게 된다.

264) 선조가 죽자 사명당은 대궐에 가서 곡을 하고, 이어 곧바로 해인사로 들어가 그 곳에서 3년을 보낸 뒤 67세의 나이로 입적하게 된다. 광해군은 그에게 팔도도총섭·승병대장·비호장군의 직첩을 내리고, 신병의 치료를 위해 의원과 약을 하사하였다.

265) 가의대부 : 조선시대 문관 중2품 문산계의 품계명.

북구 금석문

1. 효자 천승호(千乘昊) · 열녀 경주 이씨 정려비

孝子 贈通訓大夫司憲府監察 潁陽千公乘昊之閭 烈女監察千乘
昊妻 贈淑人慶州李氏之閭 子致淳

同治十一年壬申 十一月十六日豎

효자 증통훈대부²⁶⁶⁾ 사헌부감찰²⁶⁷⁾ 영양 천승호 정려비
열녀 감찰 천승호처 증숙인²⁶⁸⁾ 경주 이씨 정려비
아들 치순

(비음)

동치 11년 임신년(1872) 11월 16일에 세움.



266) 통훈대부 :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하관의 품계명.

267) 사헌부감찰 : 사헌부는 조선시대 삼사(三司)의 하나로서, 시정(時政)을 평론하고 관리의 감찰과 풍속의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감찰은 정6품의 사헌부 속관이다.

268) 숙인 : 정3품 당하관 및 종3품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작호.

2. 구포동화재의연기념비(龜浦洞火災義捐紀念碑)

龜浦洞火災義捐紀念碑

許 攝	正百六十円	龜浦銀行	正百五十円
金容台	正百三十円	張禹錫	五十円
尹相殷	四十円	許 鳳	四十円
平田幸治郎	三十円	小宮龜介	三十円
裴敬和	三十円	徐衲圭	二十円
鄭容直	二十円	姜信鎬	二十円
李圭直	二十円	尹相八	二十円
金龍采	二十円	金溶瑾	二十円
金斗昊	二十円	木下辰次	二十円
洛東學校組合	十五円	金喜權	十五円
金永權	十三円	植田義□	十円
米本義□人	十円	八木茂一□	十円

大正三年甲寅 三月十六日 回祿□□

大正三年八月 日立

發起人 崔□□

外 七十□…

허 섭	160엔	구포은행	150엔
김용태	300엔	장우석	50엔
윤상은	40엔	허 봉	40엔
평전행치랑	30엔	소궁귀개	30엔
배경화	30엔	서납규	20엔
정용직	20엔	강신호	20엔

이규직	20엔	윤상팔	20엔
김용채	20엔	김용근	20엔
김두호	20엔	목하진차	20엔
낙동학교조합	15엔	김희권	15엔
김영권	13엔	식전의□	10엔
미본의□인	10엔	팔목무일□	10엔

대정 3년 갑인년(1914) 3월 16일 회록□□

대정 3년 8월 일 세움.

발기인 최□□

외 칠십□...



3. 증어모장군(贈禦侮將軍) 훈련원첨정(訓鍊院僉正) 광주(廣州)
김공 묘(金公墓)

贈禦侮將軍訓鍊院僉正廣州金公之墓

公之卓節偉功 史書而人誦之 奚以碣爲 然碣者所以表其墓 碣亦不可不爲也 公之十世孫琪振 都事琪福 袖家狀屬余曰 吾先祖之藏 久未克誌 盖猶有待也 且不朽之託 不敢輕以屬人 願子哀而志之 余辭不獲 按公諱琦 字和卿 貫廣州 高麗有諱暉 官門下贊成事 號鍊村 是爲公十三世祖也 高祖諱命鉉 宣武郎中眞大夫 曾祖諱敬寶 祖諱受伯 考諱連平 妣靈山辛氏進安女 公生得忠義根天 英邁絕人 當壬亂 人皆離散 公以判官 終不背官 與倡義功臣二十四人 竝力討賊 公亦同功之一也 自朝家旌褒 贈繕工監副正 加贈禦侮將軍訓鍊院僉正 聖朝崇報至矣 及歿 萬德九岩子坐原 配延安李氏麗明女 合塋 有三男 長蘭吉 次□慶 入東萊鄉案孫潤德洪德 曾孫益兼世兼 玄孫振麗始麗天柱 五□孫起兌成兌 六世汝賢汝華汝宗 七世漢澤之澤翊澤鼎澤 八世道□光周良周斗泓斗權 九世奎祥七祥仁祥快元快逸東海 十世淇守□泰聖觀琪學琪元 諸孫蕃不載 姑錄其譜系 後之君子有以考爲銘 顯允廣金 世德孔彰 公乃挺持 忠義堂堂 錄券揭板 日星輝煌□劍同阡 九岩之岡 儀衛新賁 邃道增光 昭茲來許 視此銘章

成均館博士 南平 文聲駿 謹撰

承訓郎參奉 竹山 朴銓弼 謹書

戊辰二月日 董役 十一世孫永根 邦雨 英壽 碩文 萬石

(비음)

공의 뛰어난 절개와 위대한 공로는 역사책과 사람들이 칭송하고 있는데 어째서 비석을 세우는가? 비석이란 묘소를 표시하기 위해 세우는 것이니, 비석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공의 10세손(世孫)인 기진(琪振)과 기복(琪福)이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부탁하기를 “우리 선조의 무덤에 오래도록 지문(誌文)을 짓지 못한 것은 때를 기다려서 였고, 또한 소중한 글을 부탁함에 감히 경솔히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가엾게 여기시고 기록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 나는 사양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공은 이름이 기(琦), 자가 화경(和卿), 본관(本貫)이 광주(廣州)로 고려의 문하찬성사(門下贊成事) 호가 이촌(鎭村)인 환(暉)²⁶⁹이 13세조(世祖)이다. 고조는 선무랑중진대부(宣武郎中眞大夫) 명현(命鉉)이고, 증조는 경보(敬寶)이며, 할아버지는 수백(受伯)이고, 아버지는 연평(連平)이며, 어머니는 영산(靈山) 신진안(辛進安)의 딸이다. 공은 나면서부터 충의를 하늘에서 타고났으며, 영특하고 비범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지만 공은 판관으로 끝까지 관직을 버리지 않고 창의공신(倡義功臣) 24인과 더불어 힘을 합쳐 적을 토벌했으니, 공 또한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이다. 조정에서 공을 표창하여 선공감 부정(繕工監副正)²⁷⁰의 벼슬을 내리고 어모장군(禦侮將軍)²⁷¹ 훈련원첨정(訓練院僉正)²⁷²을 더하여 주니 성스런 조정의 높은 보답이 지극하였다. 공이 죽자 만덕(萬德)의 구암(龜巖) 자좌(子坐) 언덕에 안치하고 부인 연안(延安) 이여명(李麗明)의 딸과 합장하였다.

3남이 있었으니 장남은 난길, 차남은 □경으로 동래의 향안(鄉案)에 들었다. 손자는 윤덕 흥덕이고, 증손은 익겸 세겸이며, 현손은 진려 시려 천주이다. 5세손(世孫)은 기태 성태이고, 6세손(世孫)은 여현 여화 여종이고, 7세손(世孫)은 한택 지택 우택 정택이고, 8세손(世孫)은 도□ 광주 양주 두홍 두권이고, 9세손(世孫)은 규상 칠상 인상 쾌원 쾌일 동해이고, 10세손(世孫)은 기수 □태 성관 기학 기원이다. 여러 후손들은 번다하여 모두 기재하지 못하고 다만 계보만 기록해둔다. 훗날 군자들이 살펴볼 수 있도록 명(銘)을 짓는다.

뛰어난 광주 김씨 대대로 덕이 빛났었다.

공은 이런 가풍을 받으셔서 충의가 당당하셨다.

책에 기록되고 현판에 걸린 공로는 해와 별처럼 찬란하리라.

□ 같은 무덤이니 구암(龜巖)의 언덕이라네.

법도에 맞게 새로 단장했으니 무덤 길에 빛을 더하리라.

후세에 이렇게 환하게 밝히나니 이 비명을 보아라.

269) 김 환 : 1234~1305. 문신. 자가 용晦(用晦).

270) 선공감부정 : 토목과 영선(營繕)을 맡아보던 선공감 소속의 종4품직.

271) 어모장군 : 조선시대 서반 정3품 당하관의 품계명.

272) 훈련원첨정 : 조선시대 군사의 시재(試才)와 무예훈련 및 병서 습득 등을 관장하던 훈련원 소속의 종4품직.

성균관박사 남평 문성준 근찬

승훈랑참봉 죽산 박전필 근서

무진 2월 일 동역 십일세손 영근 방우 영수 석문 만석



4. 학사대(學士臺) (각석)

學士臺
一心秋月 四面春風

禮曹佐郎 金載鎭

한결 같은 마음은 가을달과 같고
사방에서 봄바람이 불어오네

예조좌랑 김재진



5. 조대주인(釣臺主人) 임경택(林景澤) (각석)

釣臺主人林景澤



6. 군수(郡守) 이유하(李游夏)²⁷³ 축은제비(築恩堤碑)

行郡守李侯游夏築恩堤碑

親審役處 劃給千丁
非徒恩堤 一郡咸寧

崇禎紀元後四己巳 三月日

都監 幼學 鄭□□

監官 閑良 李□三

兼司僕 金泰應

幼學 羅興洙

幹役 兩里上任 盧文再

收物 金廈宗



몸소 부역을 살피시고
일천 장정을 뽑아주셨네
제방을 쌓아준 은혜만이 아니니
고을 모두 편안하게 해주셨네

승정 기원 후 네번째 기사년(1809) 3월 일

도감 유학 정□□

감관 한량 이□삼

검사복 김태응

유학 나홍수

간역 양리상임 노문재

수물 김하중

273) 이유하 : 1808년(순조8) 양산군수로 부임하여 1810년에 파직됨.

7. 군수(郡守) 심능섭(沈能燮)²⁷⁴ 수덕불망비(樹德不忘碑)

行郡守沈侯能燮樹德不忘碑

軍政旣修 賦役公平
暮年遄歸 百世難忘

道光 七年 丁亥 八月 日 境內立
尊位 幼學 金有儀
知事人 幼學 吳錫國



군정을 다스리고
부역을 공정하게 하였네
일 년만에 갑자기 떠나셨지만
백 세대 동안 잊지 않으리라.

(비음)

도광 7년 정해년(1827) 8월 일 경내에 세움.
존위 유학 김유의
지사인 유학 오석국

274) 심능섭 : 1826년(순조26)에 양산군수로 부임하여 1827년에 파직됨.

8. 군수(郡守) 손상일(孫相駟) 홀민선정비(恤民善政碑)

郡守孫侯相駟恤民善政碑

川浦沙陳 瘼我境民
捐廩蠲徭 爲政以仁

同治十二年癸酉 二月 日 南 三二 立

넷가에 모래밭 목정밭(陳田) 때문에
우리 마을 백성들에게 병폐였다네
창고를 열어 구휼해주셨으니
인(仁)으로 정치를 하셨도다

(비음)

동치 12년 계유년(1873) 2월 일 남 삼이에 세움



9. 군수(郡守) 이계필(李啓弼) 청덕홀민비(淸德恤民碑)

行郡守李侯啓弼淸德恤民碑

鋪錢巨途 捐金醫病
斂刷從容 訟決淸淨
孰不蒙恩 吾最咸喜
靡泐靡磨 與郡終始

光武陸年壬寅 三月日立

鄉長 崔應健

前首校 池尚壕

首書記 鄭憲植

戶長 全昌祿

首 刑吏 金仁埴

都監 徐在權

時首校 許 宣

都監 金德鉉

公昌里尊位 愼敬澤

知事人 姜大璜

東院知事 崔有瑛

尊位 尹學文

은혜를 베푸신 돈이 길에 널려있고
재정을 털어 병든 이 고쳐주셨네
세금을 조용히 거두셨고
송사를 깨끗이 판결하셨네
누구인들 은혜를 입지 않았겠는가
우리 고을이 가장 기뻐하네
이 비석 부서지고 닳지도 말아라

고을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하리라.

(비음)

광무 6년 임인년(1902) 3월 일에 세움.

향장 최응건

전수교 지상호

수서기 정헌직

호장 전창록

수형리 김인식

도감 서재권

시수교 허 선

도감 김덕현

공창리존위 신경택

지사인 강대황

동원지사 최유영

존위 윤학문



10. 고(故) 장우석(張禹錫) 기념비(紀念碑)

故張禹錫紀念碑

昭和五年 十月日

白浦員地主小作一同立

當時功勞者

尹永蘭 尹大儀 崔有壽 楊基澤 林璋遠

建設委員

尹 溶 尹 涇 尹永原 柳慶春

石工

三宅宇吉 金南文

白浦一野 新堰成峨

直通曲川 圓坊拒河

賴誰竣役 公力居多

同務五人 始終靡他

소화 5년(1930) 10월 일

백포원 지주소작 일동 세움.

(비음)

당시 공로자

윤영란 윤대의 최유수 양기택 임장원

건설위원

윤 용 윤 경 윤영원 유경춘

석공

삼택우길 김남문

백포(白浦)의 벌판에
새로 독을 높이 쌓았다네
굽은 시냇물 바로 통하고
둥근 제방 강물을 막았다네
누구 도움으로 공사를 마쳤는가
공의 힘이 대부분이라네
함께 힘쓴 분 다섯 명은
시종(始終) 다른 의견 없었다네



사상구 금석문

1. 부사(府使) 이경일(李敬一)²⁷⁵ 축제혜민비(築堤惠民碑)

府使李公敬一築堤惠民碑

惟我沙面 處洛江下流 稻田被水患 年年有播無穫 且有人家沈沒
難保之患 侯臨府 雖未遑於大逋收殺 而聞此民情 報巡營 頃免
梁堤劃赴之役 發各面 下遣別騎衛別將李命天 終始董役 盖毛羅
村後 石築如箕形者二百七十把 同里上注乙山員防堰七百把 下
注乙山三百把 德浦里大巖員三百五十把 倉去里富商浦以下 至
茅田末端各員合一千五十把 又甘同島員 立石新開水道 左右堰
七百把 掛乃周禮兩里前司牧浦 新開都水道左邊堰七百把 摠計
之 則其役之浩大可知 而商浦上下各植二桶 以便水之灌與退 大
抵十里之內 五千餘斗地 水田之曾所免灾者 不過稍高處千餘斗
地 今則歷歷 上 其害乃去 築堤當年已見成 效侯之功 可謂神且
速 而堤內之將新墾者 可爲千餘斗地 且於不多年間 蘆田必盡爲
稻田 而俱作免害之良土矣 噫 侯之澤 及於闔境者 何限 而至
於沙面 尤也 微侯 吾其魚矣 而今有萬世永賴之利 且甘島司浦
水道及德浦商浦新堰等處 皆割入水田 旱田且開且防 其價爲六
十緡銅 當斂之於蒙利者 累百許人 而未及拮据矣 轅回之際 猶
加軫念 如數區劃 侯之恤我沙民 何至此極 而其得人而完事者
尤可見鑑識之炯遠也 聊識短碣 以寓萬古不忘之輿情云爾

乾隆五十三年十二月日 沙上面 立

座首 文命顯 記

幼學 鄭 榆 書

監官 黃河淨

275) 이경일(李敬一) : 1734~1820. 1775년에 문과 급제. 1787년(정조11) 2월에 부임하여 1788년 9월에 파면됨. <청헌유고(聽軒遺稿)>가 있다.



(비음)

우리 사면(沙面)은 낙동강의 하류에 닿아 있어 논밭이 수해를 입는 통에 해마다 씨를 뿌리고도 수확이 없었을 뿐 아니라, 또한 인가마저 물에 잠겨 건디기 어려운 근심이 있었다. 부사가 동래부에 부임하여 비록 포흙으로 축난 곡식을 거두는데도 여가가 없었지만, 이러한 실정을 듣고는 감영에 보고하여 양산 제방 쌓는 일에 나누어 가던 부역을 특별히 면제케 하고, 각 면에서 조발(調發)한 다음 별기위(別騎衛)²⁷⁶ 별장(別將)²⁷⁷ 이명천(李命天)을 보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모라촌 뒤쪽 키 모양의 석축이 270발, 같은 동네 상주을산 일원의 방죽이 700발, 하주을산 쪽 300발, 덕포리 대암 일원이 350발, 창거리 부상포 아래에서 모전 말단의 각 지역에 이르는 곳 모두 1,050발, 그리고 감동도 일원에 돌을 세워 새로 물길을 낸 그 좌우의 방죽이 700발, 패내와 주례 두 동네 앞의 사목포에 새로 도수로를 연 그 오른쪽 방죽이 700발이다. 모두 계산해 보면 그 공사가 넓고 큰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포 아래위로 각각 2개의 통을 묻어 물을 대고 빼는 데 편리하게 하였다. 대개 10리 안에 있는 5,000여 마지기의 땅 가운데 예전에 재난을 면했던 논은 조금 높은 곳에 있는 1,000여 마지기의 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늘어난 것이 역력하다. 수해도 사라졌고 독을 쌓는 일도 그 해에 완성을 보았으니 부사께서 공덕을 이루신 것이 신통하고 신속하다고 할만하다. 독 안쪽 앞으로 새로 개간 할 수 있는 땅이 1,000여 마지기가 될 것이요, 또 몇 해 지나지 않는 사이에 갈대밭이 모두 논이 될 것이며 이 모두가 수해없는 좋은 땅이 될 것이다. 아! 부사의 은택이 이 지역에 미침에 어찌 한정된 곳이 있을까마는 사면은 더욱 깊다고 하겠다. 만약 부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분명 물고기 신세가 되었을 것인데, 이제 만세토록 길이 의지할 편리함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감동도와 사목포의 수로와 덕포 상포의 새 방죽 등지의 땅이 모두 논으로 편입되고, 마른 밭들은 개간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여, 그 값이 동전 60페미가 되었다. 그 이익을 얻은 수 백 명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여야 마땅했지만 들추어 따지지 않았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도 오히려 더욱 염려하는 마음으로 수량대로 회계 조치하였다. 부사께서 우리 사면의 면민들을 보살피심이 어찌 이리도 지극

276) 별기위 : 조선시대 동래부에 설치되었던 기병대로 3백명으로 구성되었다.

277) 별장 : 종9품의 무관직.

하신지. 적합한 사람을 뽑아 일을 완성시킨 것으로도 그의 감식안이 밝고 원대함을 볼 수 있었다. 이에 작은 돌에 적어 만고에 잊지 못할 부민들의 마음을 붙여둔다.

건륭 53년(1788) 12월 사상면에서 세우다.

좌수 문명현 기록

유학 정 유 쓰다.

감관 황하정

2. 부사(府使) 박제명(朴齊明)278) 축제혜민비(築堤惠民碑)

府使朴公齊明築堤惠民碑

沙州一面 處洛江下流要衝地 沃壤空閑 越乾隆戊申 新築堤堰
 蒙利大矣 甲戌大水 在在潰缺 歲患浸墊 民不安堵 無計堤防 何
 幸我賢侯 特軫民艱食 關白巡營 劃得機張丁五百 梁山丁七百
 金海丁八百 本邑丁六千八百 貸下釜倉米七十包 別遣監色 是年
 二月十二日 肇役于毛羅後防築 填塞其崩 添築其夷 三月十六日
 告功于周禮司牧浦 於是乎千十有餘里七千把堤堰 屹狀若捍海城
 其害乃去 厥土復闢 我侯之功 不下蘇堤杜原 斯民之業 復有支
 麥祥稼 猗歟盛哉 爰志于石 垂于永世云爾

崇禎紀元後 四壬辰重九 原州 邊鎮和 識

永川 李思勳 書

都監 中軍 金亨進

別任 崔翼憲

申聖述 朴致彥

都色 戶長 李重倓

邑牌將 金處權 金光秀

書契色 李廷出

李時幹 房致祥

鄭錫勛

面牌將 金國信 金得瑞

黃雲宗 李祥敬

姜啓煜 崔大崙

金煥鼎 金奎赫, 兼監

黃海錄

사주(沙州) 한쪽 면은 낙동강 하류의 요충지에 닿아있어 비옥한 땅이 비어 놓고 있었다. 지난 건륭 무신년(1788)에 이 곳에 제방을 새로 쌓아 큰 이익을 얻었다.

278) 박제명(朴齊明) : 1831년 2월에 부임하여 1833년 6월에 이임함.



그러나 갑술년 큰 물난리로 곳곳이 무너져 내려 해마다 침수되는 근심으로 백성들이 안도하지 못했으나 제방을 쌓을 계획조차 못 세웠었다.

다행히도 우리 어지신 부사께서 특별히 먹고살기 어려운 부민들의 형편을 관문(關文)을 통해 감영에 보고하여, 기장 장정 500인, 양산 장정 700인, 김해 장정 800인, 본 동래읍 장정 6,800인을 확보하고, 부창(釜倉)의 미곡 70포를 빌린 다음 별도로 감독할 색리(色吏)²⁷⁹를 파견해 주었다. 이 해 2월 12일에 모라 뒤쪽 방축에서 공사를 시작하여 무너진 곳을 메우고, 내려앉은 곳을 돋우어서 3월 16일에 주례의 사목포(司牧浦)에서 일을 마쳤다.

이렇게 10여 리 7,000발의 독이 마치 바다를 막은 성처럼 우뚝 서니 물의 피해는 사라지고 그 땅도 다시 열리게 되었다. 우리 부사의 공로는 소제(蘇堤)²⁸⁰나 두원(杜原)에 못지 않고, 이곳 부민들의 본업도 다시 보리 농사라도 지탱할 수 있게 되었으니 아름답고 성대하구나! 이에 돌에다 새겨 영세토록 남기노라.

순정 후 네 번째 임진년(1832) 중구일 원주 변진화 기록

영천 이사훈 쓰다.

도감 중군 김형진

별임 최익헌

신성술 박치언

도색 호장 이중담

읍패장 김처권 김광수

서계색 이정출

이시간 방치상

정석훈

면패장 김국신 김득서

황운중 이상경

강계욱 최대륜

김환정 김규혁, 겸감

황해록

279) 색리(色吏) :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에 소속된 아전

280) 소제(蘇堤) :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 서호(西湖)에 있는 제방으로 소공제(蘇公堤)라고도 한다. 북송때 소식이 항주를 다스릴 때 서호를 띄어 진흙을 가라앉히고 제방을 쌓았는데, 남쪽 남병산(南屏山)에서 북쪽 악왕묘(岳王廟)에까지 이어져 있다.

3. 부사(府使) 이명적(李明迪)²⁸¹ 축제혜민비(築堤惠民碑)

府使李公明迪築堤惠民碑

惟沙一面 濱于江海交衝之地 歲被沈墊 戊申新堤之後 民有安堤之樂 而其後堤顛 築與壬辰重修之蹟 詳悉於前述碑文 今不架贅而匪意 己亥之水 十里長堤 □潰□□ 旱田水田 盡爲魚□之居 哀此一面 獨被慘歉 遑急景色 若將盡劉 我侯懷保 賑濟其窮 翌年之春 請于巡營 劃隣邑丁二千六百 本邑丁五千 同年三月初一日 肇役 廿六日 功告訖 而綱子島堤 又沒 新築 屹然捍海 其害乃去 微吾侯 何以致此 惠存來後 議純去思 遂刻于石 以永其不忘云爾

崇禎 紀元後 四辛丑 十月日 南平文進烈謹識

別監官 黃海祥

都監 守城別將 辛應白

邑吏 戶長 李思勳 朴玉根

面牌將 崔建遠 崔大崙 金煥鼎 黃致問 李長元

金奎赫 李聖曄 朴致連 黃海珠 李禎寬

豎碑都監 幼學 趙光珪 徐炯堂

사면(沙面) 한쪽은 강과 바다가 교차되는 곳에 접해있어 해마다 침수를 겪었다. 무신년 새 독을 쌓은 뒤로 주민들이 안전한 제방이 있음을 즐거워하였는데 그 후에 다시 독이 무너졌다. 이것을 수축한 일과 임진년에 중수한 사실은 앞에 적은 비문에 상세하므로 지금 군말을 보태지는 않겠다.

그러나 뜻밖에도 기해년 물난리로 십리나 되는 긴 독이 (...) 무너지고 (...) 마른 밭 진 논 할 것 없이 모조리 물고기 (...) 거처가 되어 버렸다. 애석하게도 이 사면만이 홀로 참담하고 황급한 지경을 당해 장차 모두 죽을뻔 하던 차, 우리 부사께서 품고 보호하여 그 어려움을 구제해 주셨다.

281) 이명적(李明迪) : 1795~ ? , 1839년(헌종5) 1월에 부임하여 1840년에 퇴임함.

이듬해 봄에 감영에 요청하여 이웃 읍의 장정 2,600인과 본 읍의 장정 5,000인을 뽑아 같은 해 3월 초하루에 공사를 시작하여 26일에 공사를 끝냈다. 그리고 강자도(綱子島)의 독이 또 침몰해서 새로 쌓았더니 우뚝히 솟아 바다 물을 밀어내고 그 피해를 사라졌다.

우리 부사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었겠는가? 은혜롭게 머물렀다 가신 후로, 떠나신 뒤의 그리움을 생각하여 드디어 돌에다 새겨 영원토록 잊지 않고 자 하노라.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신축년(1841) 10월 남평 문진열 삼가 적다.

별감관 황해상

도감 수성별장 신응백

읍리 호장 이사훈 박옥근

면패장 최건원 최대륜 김환정 황치문 이장원

김규혁 이성엽 박치연 황해주 이정관

수비도감 유학 조광규 서형후



4. 효자(孝子) 구주성(具周星)²⁸²⁾ 정려비(旌閭碑)

孝子具周星之閭

崇禎紀元後四壬寅二月日改豎

(비음)

송정 기원 후 네 번째 임인년(1842) 2월 새로 세우다.



282) 구주성(具周星) : <동래부지·효자효녀조>에는 구주성(仇周星)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친이 병이 들자 손가락을 잘라 목숨을 살렸으며, 만력 경술년(1610)에 보고되어 정려가 내려졌다고 한다.

5. 효자(孝子) 황택룡(黃澤龍)²⁸³⁾ 정려비(旌閭碑)

孝子黃澤龍之閭

6. 사상(沙上) 구인의사(九人義士) 연구제단(戀舊祭壇)

沙上九人義士戀舊祭壇



283) 황택룡(黃澤龍) : <동래부지·효자효녀조>에 의하면 ‘황택룡(黃擇龍)’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가 병이 들어 기절하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로 목숨을 살렸는데, 만력 경술년(1610)에 이 사실이 알려져 정려가 내려졌다고 한다.

7. 관찰사 김상휴(金相休)²⁸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金公諱相休永世不忘碑

8. 관찰사 홍재철(洪在喆)²⁸⁵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洪公在喆永世不忘碑

284) 김상휴 : 자 계용(季容), 호 초천(蕉泉), 본관은 광주(光州). 1822년(순조22) 2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1823년 12월에 도총관(都摠管)으로 이임.

285) 홍재철 : 자 치경(稚敬), 호 취구(醉裘), 본관 남양(南陽). 1840년(헌종6) 9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1842년 이임함.

사하구 금석문

1. 충신(忠臣) 정운(鄭運)²⁸⁶ 순의비(殉義碑)

忠臣鄭公運殉義碑

東萊之沒雲臺者 故鹿島萬戶贈兵曹判書鄭公運殉義之地也 公始任鹿島 倭賊傾國來寇 先陷嶺南路 上聞警急 西幸龍灣以避之時李忠武公舜臣 爲湖南左道水使 會屬鎮及將佐 與計事 衆各異見 公獨奮然請于李公曰 今賊陷嶺南 而坐視不救 是行自及也 賊未至吾境 而急引兵擊之 士氣可壯 亦所以固吾守也 況今君父蒙塵 此正主辱臣死之秋 我當以一死爲諸將先 李公壯其言而從其策 卽日下令諸軍 乘船向嶺南 遇倭船於玉浦 我師初見賊 莫敢先試 其鋒 公促櫓鳴鼓 出諸將前 擊劍勵士 士無不殊死戰 遂破其五十餘艘而焚之 進至泗川 破賊船 前後近百艘 戰必先登爲之倡 又出遇賊於固城巨濟之間 氛甚盛 公請於李公 誘賊至閑山大洋 麾旗回櫓 以與賊薄 枹鼓盪海 矢石彌空 賊氣奪 不敢戰 遂奮擊大破之 盡燒其船 蓋自寇亂以後 剋捷之盛 未之有也 報聞行朝 上超授折衝將軍 將大用之 公則不有其功 益勵志滅賊 進趨釜山 未至 遇賊于沒雲臺下 公忽心動 覺沒雲之雲 方音與公名相似 因自畫必死 處置軍事曰 我死 勿令賊知而生氣 會日暮風急 將領欲退 公不肯曰 吾已與賊誓不俱生矣 遂進力戰 中流丸以歿 此爲公立功殉身之大略也 嗚呼 公之在平時 不自表見官最卑 及其臨亂奮發 辭壯而烈 義嚴而正 決計倡勇 至死不悔 用能摧賊鋒而捍國難 以基中興之偉績 雖其身先殞 而功莫與爲倫 昔唐之張巡許遠 以一睢陽而藩蔽江淮 卒以身死之 議者 以天下之不亡 爲二人之力

286) 정운(鄭運) : 1543-1592, 임진왜란 때 녹도만호(鹿島萬戶)로서 전라좌도수군절도사 이순신(李舜臣)의 휘하 장수로 전쟁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다대포의 물운대 앞 바다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後之視李公及公者 必不在張與許之下 若公之微而能首事 尤可謂奇偉特絕非常之士矣 今上二十年 下教褒公忠勇凡數百言 昭揭若日星 仍訪公之八世孫燦 超授多大鎮僉使 鎮在萊府地 臺爲其所管 既至 懼無以發揮舊蹟以揚朝家顯忠之殊典 於是 將豎碑臺上

特書當時事 俾觀瞻咸聳 馳書至京師 徵余爲文 噫 公烈丈夫也 意其英靈毅魄 不隨死以亡 蟠結於海山之間 驅駕風霆 斬截鯨鯢 常若有蹴馬島搗江戶之氣 臺卽海上之一小阜爾 然於息兵二百年之後 過是地而想其人之偉烈 則惟此一片石 爲南極之銅柱 使蠻夷自讐 海陲永鞏 豈但爲殉義之地而已哉 遂書以記之 峇

崇禎紀元後三戊午三月八日也

崇政大夫行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五衛都摠府都摠管 閔鍾顯 撰

訓練大將嘉義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訓練院都正 徐有大 書



(비음)

동래 물운대는 옛날 녹도만호(鹿島萬戶)²⁸⁷⁾ 증병조판서(贈兵曹判書) 정운(鄭運) 공이 순절한 곳이다. 공이 처음 녹도에 부임하였을 때 왜적이 나라의 병사를 모두 모아 침략해 와서 먼저 영남지방을 함락시키니 임금께서 급보를 듣고 놀라시고 서쪽 의주로 피해 가셨다.

그 때 충무공 이순신이 호남좌도수사로 있었는데, 소속 진영의 장수와 보좌관들을 모아 일을 의논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각기 의견이 다르자, 공이 혼자 분연히 일어나 이공에게 청하기를 “지금 적들이 영남을 함락했는데 앉아서 보기만 하고 구하지 않

으면 이는 적의 행군을 스스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적이 아직 우리 지경에 이르지 않았으니 급히 병사를 끌고 가서 공격하면 우리 군사의 사기도 등등해질 것이

287) 만호 : 조선시대 각 도에 속한 여러 진(鎭)에 두었던 서반 중4품의 외관직이다.

오, 또한 우리 수비를 견고하게 하는 일도 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임금께서 피난가 계시니, 이는 분명 군주가 옥될 적에 신하가 목숨을 바치는 때입니다. 제 한 몸 죽음으로써 여러 장수들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이공이 그 말을 장하게 여기고 그의 계책을 따라 그 날로 모든 부대에 명령을 내려 배를 타고 영남으로 향하였다. 왜선을 옥포에서 만났는데 우리 군사들이 적을 처음 보는지라 감히 누구도 나서서 그 예봉을 시험해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공이 노를 재촉하며 북을 울리게 하고, 여러 장수들의 앞에 나가 칼을 치며 사기를 돋우니 군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그리하여 50여 척을 깨뜨려 불사르고 다시 사천으로 진격하여 적선을 격파하니 모두 합쳐 거의 100여 척에 가까웠다. 싸울 때는 공이 반드시 먼저 올라 선창이 되었다.

또 고성과 거제 사이에서 적을 만났는데, 적의 사기가 매우 높았다. 공은 이공에게 청하여 적을 한산도 큰바다로 유인한 다음 깃발을 휘둘러 노를 돌린 뒤 적에게 육박해 가니, 대포와 북소리가 바다를 들끓게 하고 화살과 돌이 공중에 가득 차 적들은 사기가 꺾여 감히 싸우지를 못하였다. 그러자 모두 일어나 공격하여 크게 격파하고 그 배를 모조리 불살랐다. 대개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렇게 크게 이긴 적이 없었다. 첩보가 행재소(行在所)²⁸⁸에 알려지자 임금께서 절충장군(折衝將軍)²⁸⁹으로 올려 임명하고 장차 크게 쓰려고 하였으나, 공은 그 공로를 차지하지 않고 더욱 뜻을 가다듬어 적을 섬멸하였다.

다시 부산으로 진격하였는데, 채 도달하기도 전에 몰운대 아래에서 적을 만났다. 공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려서 알아보니 몰운대의 ‘운(雲)’ 자 발음이 공의 이름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여기서 반드시 죽을 것을 각오하고, 군사 일을 부탁하며, “내가 죽더라도 적들이 그 사실을 알아 사기가 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였다. 마침 해가 지고 바람이 급해지자 장수들이 퇴각하려고 하였으나, 공은 “내 이미 적과 함께 같이 죽기로 맹세하였다.”고 하며 따르지 않았다. 결국 나가서 힘써 싸우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이것이 공이 공훈을 세우고 순절한 사실의 대략이다.

그렇다! 공은 평소에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 벼슬이 가장 낮았으나, 난리를 당해서는 분발하여 말은 장렬하고 의리는 엄정하였으며, 계책을 결정하고 용맹을 선창하여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으니, 적의 예봉을 꺾어 국난을 막아냄으로써 중흥의 기틀을 마련한 위대한 공적은 비록 그 몸은 먼저 운명했다 할지라도 그 공로는 짝할 바 없다고 하겠다. 옛날 당나라의 장순(張巡)과 허원(許遠)이 수양(睢陽) 땅 하나

288) 행재소 : 임금이 행차하여 머무는 임시 거처. 여기서는 선조가 피난가 있던 의주를 가리킨다.

289) 절충장군(折衝將軍) : 무관(武官) 정3품의 관계(官階).

를 지킴으로서 강회(江淮) 지방을 보호하고 마침내 죽었는데, 사람들은 천하가 망하지 않은 것은 두 사람의 힘이라고 평가하였다. 뒷날 이공과 공에 대한 평가도 분명 장순과 허원보다 낮지 않을 것이다. 또한 공과 같이 낮은 관직의 사람으로써 일에 앞장설 수 있었으니, 공은 더욱 더 위대하고 빼어나며 비상한 사람이었다고 할 것이다.

지금 임금께서 재위 20년에 교지를 내려 공의 충성과 용맹을 포상하신 것이 수백 마디이니, 이제 해와 별처럼 밝게 드러났다. 아울러 공의 8대손 혁(赫)을 찾아 다대진 첨사로 임명하였다. 다대진은 동래부에 속한 땅이오, 물운대는 그 곳 관할이다. 그가 부임하자 옛 사적을 발굴하여 충신을 현양하는 조정의 특별한 은전을 드러내지 못할까 걱정하였다. 이에 물운대 위에 비석을 세우고 당시의 사실을 특서(特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러보며 공경토록 하려고 하여 서울로 편지를 보내어 나에게 비문을 요청하였다.

아! 공은 장렬한 사람이다. 그 영결찬 혼령과 굳센 혼백이 죽음을 따라 사라지지 않고 바다와 산 사이에 서려 바람과 천둥을 몰아 못된 고래를 베어버리고 항상 대마도를 건너차고 강호(江戶)를 깃부수는 기상이 있는 듯이 여겨진다. 물운대는 바다 위의 자그만 언덕일 뿐이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200년 뒤에 이 곳을 지나가며 그 사람의 위대한 의열을 생각하면, 오직 이 한 조각 비석이 남쪽 끝의 구리기둥²⁹⁰⁾이 되어 오랑캐로 하여금 스스로 두려워하여 바닷가를 길이 굳건하게 할 것이니, 어찌 이 곳이 다만 의열로 순절한 땅에 그치고 말겠는가! 이 일들을 써서 기록하노라.

승정 기원 후 세 번째 무오년(1798) 3월 8일.

승정대부 행이조판서 겸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홍문관제학 오위도총부 도총관 민중현 지음.

훈련대장 가의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훈련원도정 서유대²⁹¹⁾ 씀.

290) 구리기둥[銅柱] : 후한(後漢)의 장군 마원(馬援)이 중국 남방을 평정한 뒤, 교지(交趾) 땅에 이르러 구리기둥을 세워서 한나라의 남쪽 끝 경계로 삼았다는 고사가 있다.

291) 서유대 : 1732~1802. 무신. 자 자겸(子謙), 본관은 달성, 시호는 무익(武翼)

2. 순란사민비(殉亂士民碑)

殉亂士民碑

崇禎紀元後四甲午八月日七□

(비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갑오년(1834) 8월



3. 첨사(僉使) 윤흥신(尹興信)²⁹² 순절비(殉節碑)

僉使尹公興信殉節碑

昔在龍蛇之變 東萊首嬰其鋒 環東萊鎮守之臣十數 其殉節最著者 地主宋象賢 釜山鄭撥 多大浦則尹公興信 是爲東萊□□臣府人立忠烈祠 祀宋鄭兩公 公則旌于家 始倭陷釜山 分兵圍多大 公力却之 軍吏進曰 賊必悉至 莫如避 公叱曰 有死而已 明日賊大集 軍遂潰 公獨終日射賊 城陷死之 其後 八谷具公思孟 爲吊亡錄 紀其事甚備云 公 贊成任之子 兄弟六人 其三人者 與於乙巳之禍 其赴鎮也 有庶弟興悌 從焉 及賊逼公 白刃亂下 興悌抱公同死 握固終不釋 遂同棺而窆 何其奇且烈也 後百有餘年 我先大夫 守萊府 繼泛東槎 知公事甚熟 愍其闕於宋鄭之祠 白于朝 久之事竟施 李侯海文 槎上客也 及莅此鎮 先大夫記公蹟與之 旣揭壁 又將豎碑 會海文去官 其後守鎮者 皆俗吏 不足語此事 不佞 嘗訪李侯之石 而鎮人無知者 懼斯役之不成 作此文 俟夫慕義如李侯者云

輔國崇祿大夫判敦寧府事兼吏曹判書判義禁府事 知經筵春秋館事 趙鎮寬撰

鍾應出守葭山 今相國雲石趙公 贈之以言曰 萊府有忠烈祠 舊享宋鄭兩臣 其竝膺尹公 自吾先大父始 先君子實紀其事 惜貞珉之刻 尙此闕焉 子其爲我圖之 及莅是地 感念遺蹟 亟伐石以豎 噫 修墜典補軼事 盖雲石所以克濟先志 闡忠表節 亦守臣責 遂樂與之成

崇禎紀元後四辛丑四月日 知府洪鍾應書

292) 윤흥신(尹興信) : ? ~1592, 임진왜란 때 다대첨사(多大僉使)로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지난 임진년의 변란이 있었을 때 동래가 처음으로 그 창날을 맞았는데, 동래 주변 진영을 지킨 십여 명의 신하들 가운데 순절로 가장 알려진 사람이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과 부산진의 정발(鄭撥)이라고 한다면 다대포에는 곧 윤흥신(尹興信) 공이 있다. 이 분들은 동래의 순절한 신료들이다. 그래서 동래부 사람들이 충렬사를 세워 송공과 정공 두 분을 제향하고 있지만, 윤공은 그 집에 정려(旌閭)를 내렸다.

처음 왜적이 부산을 함락했을 때 군사를 나누어 다대진을 포위하자 공은 힘을 다해 이를 물리쳤다. 그때 부하가 아뢰기를 “적이 반드시 다 물려올 것이니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자, 공은 그를 꾸짖으며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다음날 적병이 크게 모여들자 군진이 결국 무너졌고, 공 혼자 종일토록 적을 향해 쏘다가 성이 함락되자 죽었다. 그 뒤 팔곡(八谷) 구사맹(具思孟)²⁹³이 <조망록(弔忘錄)>을 만들어 그 일을 매우 상세히 기록했다고 한다.

공은 찬성공(贊成公) 윤임(尹任)의 아들이다. 형제가 여섯인데 그 중 셋째가 을사년의 사화에 관여되었다. 공이 다대진에 부임할 때 서제(庶弟)인 흥제(興悌)가 따라왔다. 적들이 공을 포위하여 칼날이 어지럽게 떨어질 때 흥제가 공을 껴안고 함께 죽었는데, 껴안은 것이 너무 견고하여 끝내 풀지 못하고 같은 관에 넣어 묻었으니, 그 얼마나 기이하고 장렬한 일인가!

100여 년 뒤에 나의 선대부(先大夫)께서 동래부사가 되셨고, 이어서 바다 건너 일본으로 사신을 다녀왔으므로 공의 일을 매우 익숙하게 알고 계셨다. 송공과 정공의 사당에 공이 빠져 있는 사실을 안타깝게 여겨 조정에 아뢰었는데, 오래 뒤에 마침내 그 일이 시행되었다. 첨사(僉使) 이해문(李海文)은 일본으로 사신 갈 때 당시 부사(副使)였다. 그가 이 다대진으로 부임할 때 선대부께서 공의 사적을 기록하여 주었는데, 그 글을 벽에다 걸어놓고 또 비석을 세우려고도 하였다. 그러나 마침 해문이 관직에서 떠나버렸고, 그 뒤에 이 진을 맡은 자들이 모두 속된 관리들이어서 이 일에 관해 말할 위인들이 못되었다. 못난 내가 일찍이 이첨사가 남긴 비석을 찾아보았으나 다대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없었다. 향후 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까 염려되어 이 글을 지어 두고 이첨사(李僉使)와 같이 절의(節義)를 사모하는 사람을

293) 구사맹 : 1531~1604. 자 경시(景時), 호 팔곡(八谷), 본관 룡성(綾城), 시호는 문의(文懿). 저서로 <팔곡집(八谷集)>이 있다.

기다린다.

보국승녹대부 판돈령부사 겸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지경연춘추관사 조진관²⁹⁴⁾ 지음.

나 종응(鍾應)이 옛 장산국(莒山國)²⁹⁵⁾의 수령으로 나올 적에 지금의 재상이신 운석(雲石)²⁹⁶⁾ 조공(趙公)께서 글을 써서 주시기를 “동래부에 충렬사가 있는데, 예로부터 송공과 정공 두 충신을 배향해 왔고, 거기에 윤공을 함께 모신 것은 나의 선대부 때부터 시작되었다. 선군자(先君子)께서 그 사실을 기록해 두었는데 돌에 새기는 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해 애석하다. 그대는 나를 위해 이 일을 시도해 달라.” 하였다. 내가 이 곳에 부임해 와서는 전해오는 사적(史蹟)에 감동되어 급히 돌을 캐어 세운다. 그렇다! 실추된 전범(典範)을 고치고 빠뜨려진 일을 보충하는데 있어 대개 운석공이 선인의 뜻을 잘 이어받았고, 충성과 절의를 드러내는 일은 수령의 책임이니, 이것을 함께 이룬 것을 기뻐하노라.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신축년(1841) 4월 부사 홍종응²⁹⁷⁾이 쓰다.

294) 조진관(趙鎭寬) : 1739~1808, 자 유숙(裕叔), 호 가정(柯汀), 본관은 풍양(豐壤), 시호는 효문(孝文). 문집 <가정집(柯汀集)>이 있다.

295) 장산국 : 동래의 옛 지명. 고대 동래 지역에 있던 부족국의 명칭.

296) 운석 :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의 호. 자는 희경(羲卿), 본관은 풍양(豐壤),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저서로 <운석유고(雲石遺稿)>가 있다.

297) 홍종응 : 1840년(헌종6) 8월에 부임하여 1841년 4월에 사임함.

4. 의사(義士) 윤흥제(尹興悌)²⁹⁸ 비(碑)

義士尹興悌碑



²⁹⁸ 윤흥제 : 다대침사 윤흥신의 서제(庶弟)인데, 임진년 전쟁 때 윤흥신과 함께 의절하였다.

5. 첨사(僉使) 이승운(李乘運)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行僉使李公乘運萬古不忘碑
自備千石 濟活軍民
報蠲疊役 歌頌日新

崇禎紀元後四戊寅五月日多西兩洞
尊位 金尚宜
都監 李和原
洞首 孫亮述
色 裴慶俊



스스로 천 섬 식량 마련하시어
군사와 주민들을 구제하셨네.
공문 올려 거듭되는 부역을 덜어주니
칭송하는 노래소리 나날이 새롭다네.

(비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무인년(1818) 5월 다대 ·
서동 두 동네가.

존위 김상의
도감 이화원
동수 손량술
색 배경준

6. 첨사(僉使) 이동식(李東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僉使李公東植永世不忘碑
千里路銀 始自官衙
煌煌片石 惟德之華

崇禎紀元後四癸卯二月日使令等立
都監役 李仁相
都使令 林得中
公員 崔尚祿
掌務 金國新



천리 길 노자돈을
관아에서 비로소 감당하였네.
찬란하게 빛나는 한 조각 비석은
오로지 공덕으로 피워낸 꽃이로다.

(비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계묘년(1843) 2월 사령
등이 세우다.

도감역 이인상
도사령 임득중
공원 최상록
장무 김국신

7. 관찰사(觀察使) 이경재(李景在)²⁹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觀察使李公景在永世不忘碑

艙新繫鷁 廳始修雉

棠陰蔽芾 承宣有自

崇禎紀元後四癸卯十一月日校吏舟卒等立



선창에 새로이 익조³⁰⁰배 매어두고
관청엔 비로소 담장을 수리했네.
산앵도 나무그늘 가지도 무성하니
승선(承宣)³⁰¹의 책무에 출처가 있도다.

(비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계묘년(1843) 11월
군교·인리·주졸 등이 세우다.

299) 이경재 : 1800~1873, 자 계행(季行), 호 송서(松西)·소은(紹隱), 본관 한산(韓山), 시호 문간(文簡). 1842년(헌종9) 11월에 부임하여 1845년 11월에 이임함.

300) 익조(鷁鳥); 바람을 거슬러서 능히 날아간다는 새이다. 뱃전에 흔히 이 새의 그림을 장식하였다.

301) 승선 : 왕명을 출납하고, 기주(記注)·기사(記事)·검사(檢査) 등의 직무를 맡은 궁내부 소속 승선원(承宣院)의 관직과 그 업무를 가리킨다.

8. 첨사(僉使) 이동식(李東植)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僉使李公東植永世不忘碑

築艚修堞 蠲役繕廨

書之刻石 觀者興喟

崇禎紀元後四甲辰七月日校吏舟卒等立



선창을 축조하고 성벽을 수리하며
부역을 덜어주고 관청건물 고쳤다네.
그 공로 기록하여 돌에 새기니
이 비석 보는 자들 칭송하리라.

(비음)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갑진년(1844) 7월 군교·
인리·주졸 등이 세우다.

9. 관찰사 홍종영(洪鍾英)³⁰²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洪公鍾英永世不忘碑

艚完艦成 伊誰之力

鎭支民保 吾伯之德

乙巳七月日西平鎭校吏舟卒等立

監役 吏房 朴枝成

校吏 李錫寅

色 李根宅



선창이 완공되고 군함이 낙성되니
이것이 모두 누구의 공로인가.
진영이 지탱하고 민생이 보호되니
우리 감사 덕이로다.

(비음)

을사년 7월 서평진 군교·인리·주졸 등이
세우다.

감역 이방 박지성

교리 이석인

색 이근택

302) 홍종영 : 1843년(헌종9) 11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1845년 11월에 이임함.

10. 진리(鎭吏) 한광국(韓光國) 구폐불망비(揀弊不忘碑)

鎭吏韓光國揀弊不忘碑

三不朽 立功立德 居其二 疇有功德而不酬 茲州之有藿田 固非連□□珠之往復 而實是涪荔武芽之瘡痍 數些浦戶 以此幾無 公病之 呈營呈京司 累濱死境 始蒙朝家允旨 乃乾隆二十八年秋八月也 至今受賜 爲如何哉 本鎭關防 古有候望之弊 并此俱革 然則公之功德 在山在水間 殆壽於峴漢之碑也夫

崇禎紀元後四辛酉八月日浦民立

李元福 王先雄 李漢東

金正之 金時天 金一元

權 允 金作沙 金東完

化主 崔尙運 金正元 田仁福



(비음)

세 가지 씹지 않는 것 가운데 공로를 이루는 것과 덕을 베푸는 것이 그 둘을 차지하지만, 지난 날 공로와 덕이 있었는데도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고을에는 미역밭이 있는데(……) 이는 실로 부주(涪州)의 여지(荔枝) 공납³⁰³⁾ 이과 같은 병폐인지라, 포구의 여러 민가들이 이 때문에 거의 사라져 버렸다. 공이 이것을 병폐로 여겨 감영과 서울 관청에 진정하면서, 여러 번 빈사할 지경을 겪으면서 비로소 조정의 허가를 받게 되었으니, 이 때가 건륭(乾隆) 28년(1763) 가을 8월

303) 부주(涪州)의 여지(荔枝) 공납: 당나라 현종 때 양귀비(楊貴妃)는 남방에서 생산되는 여지(荔枝) 과일을 좋아하였는데, 이 과일을 익으면 곧 부패하기 때문에 부주(涪州)의 주민들은 이를 공납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었다. 지금까지 그 혜택을 받은 것이 그 얼마인가? 우리 다대진의 관문 방비도 예로부터 후망(候望)³⁰⁴하기 힘든 폐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고쳐졌다. 그러므로 공의 공로와 덕은 산수간에 가득하니 아마 현한(峴漢)의 비석³⁰⁵보다 더 오래 갈 것이다.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신유년(1861) 8월 포구 주민들이 세우다.

이원복 왕선웅 이한동

김정지 김시천 김일원

권 윤 김작사 김동완

화주 최상운 김정원 전인복

304) 후망 :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의 동정을 살피며 경계하는 일.

305) 현한비(峴漢碑) : 현산비(峴山碑)를 가리킨다. 중국 진나라의 양호(羊祜)가 양양태수(襄陽太守)로 부임했을 때 고을을 잘 다스린 공적이 있었는데, 후대 사람들이 그가 현산에 자주 유람했기 때문에 현산에 기념비와 사당을 세워 그를 기려 해마다 향제를 지냈다고 한다. 이 비석을 보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두예(杜預)가 ‘타루비(墮淚碑)’라고 이름하였다고 한다.

11. 관찰사 서헌순(徐憲淳)³⁰⁶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巡相國徐公憲淳萬古不忘碑

流來還弊 捐廩蕩逋

鎮旣成樣 民亦安堵

恩山德海 何以褒揚

煒煌片石 惟伯之光

同治十一年壬申五月日西平校吏還民等立

責應 朴淙寬

首校 黃俊清

監役 兵校 安裕錫

吏房 金熙純



전부터 내려오던 환곡의 폐단
 녹미(祿米)를 내놓아 포함을 탕감했네.
 다대진 이제 제 모습 갖췄으니
 주민들도 또한 안도하게 되었네.
 산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덕택을
 어떻게 선양할 수 있을까.

휘황찬란 빛나는 한 조각 비석엔
 오로지 감사의 광채로 덮혔도다.

(비음)

동치 11년 임신년(1872) 오월 서평진 군교·
 인리·환민 등이 세우다.

책응 박종관

수교 황준청

감역 병교 안유석

이방 김희순

306) 서헌순 : 1801~1868, 자 치장(稹章), 호 석운(石耘), 본관 달성(達城), 시호 효문(孝文).
 1863년(철종14) 3월에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여 1865년(고종2)에 이임함.

12. 병조판서(兵曹判書) 민응식(閔應植)³⁰⁷ 만세송덕비(萬世頌德碑)

兵曹判書閔公應植萬世頌德碑
推爲國誠 復已革鎮
軍民再蘇 關防重振
勳如山屹 德同海流
咸頌記石 丙戌仲秋

나라 위해 충성을 다하더니
다시금 진영을 혁신하였네.
군사와 주민들 다시 소생하였고
나라의 관문도 거둬 위용 떨쳤네.
그 공훈은 산과 같이 우뚝하고
그 은덕 바다처럼 출렁이네.
모두들 칭송하여 비석에 새겨두니
때는 바야흐로 병술년(1886) 중추(仲秋)로다.



307) 민응식 : 1844~ ? , 자 성문(性文), 호 우당(藕堂), 본관 여흥(驪興), 시호 충문(忠文).

13. 첨사(僉使) 정제빈(鄭濟斌) 송덕불망비(頌德不忘碑)

僉使鄭公濟斌頌德不忘碑
百弊除根 一心從規
來何暮也 去益思之

歲在乙未三月日校吏舟卒等立

수많은 폐단의 뿌리를 없애시고
오랫한 마음으로 규범을 쫓으셨네.
이 곳에 오시는 길 왜 그리도 늦으셨나
가고 나면 더 더욱 그리우리라.
(비음)
을미년 3월 군교·인리·주졸 등이 세우다.



14. 첨사(僉使) 김정근(金楨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僉使金公楨根永世不忘碑

鎭牧合復 繕四十廨

敬新萊戍 軍民頌祝

丙戌仲秋校吏軍民等立

兵校 韓佑壽

吏房 李璇弘

진영(鎭營)과 목장(牧場)을 다시금 합하여
마흔 곳 관청건물 수리하였네.

신중히 동래 방비 새롭게 단장하니
군사와 주민들 칭송하며 축하하네.

(비음)

병술년 중추 군교와 인리와 군민들이 세우다.

병교 한우수

이방 이선흥



15. 검목관(兼牧官) 이득형(李得馨) 애민선정비(愛民善政碑)

兼牧官李公得馨愛民善政碑



16. 청덕선진비(淸德善賑碑)

…淸德善賑碑			
□□□□	□□□□		
熟□救命		千秋不忘	

□□年□□九月日			

신중히 (…) 목숨을 구원하니
천추토록 영원히 잊지 않으리.
(비음)
□□년 □□ 9월 일



17. 겸감목관(兼監牧官)³⁰⁸ 고도성(高道成) 비

兼監牧官高公道成壬癸...



308) 겸감목관 : 감목관은 지방의 목장을 관장하던 종6품의 관직이다. ‘겸’은 결원된 자리를 겸임토록 하는 것이다.

수영구 금석문

1. 효자(孝子) 정정우(鄭正佑) 정려비

孝子鄭正佑之閭

公延日人 養親以孝 事聞褒旌 爲題蝕沒 今茲豎石

旁孫 錫僑 子 存洙 敏洙

錫教 子 在洙 來洙

崇禎紀元後四癸卯 八月 日立



(비음)

공은 연일(延日) 사람으로 부모를 효성으로 봉양했다. 그 일이 알려져 정려(旌閭)의 포장(褒獎)을 받았다. 비석의 제액(題額)이 마모되었기에 말을 듣고 지금 여기에 새로 비석을 세운다.

방손 석교 자 존수 민수

석교 자 재수 내수

숭정 기원 후 네 번째 계묘년(1843) 8월 일에 세움.

2. 의용제인비(義勇諸人碑)

義勇諸人碑

(義勇壇碑銘)

古人云 理平則爲公爲卿 世變則爲蛇爲豕爲獍爲梟者 十常八九焉 昔在宣廟 當龍蛇島夷之亂 東萊首受賊鋒 府鎮次第陷沒 殉節死義者 備載史乘 昭若日星 惟此水營將 不死於鼓 故脅從假命服斑斕 而言侏離者 良無足怪 雖有若爾人 奮忠殺賊 泯而無傳 是甚慨惜 亂後十七年 東岳李公 知府事 因士民狀 採訪二十五人七年水陸戰陣之蹟 以義勇二字 扁插諸家門首 錄以旌榜 時有餘生幾人 而必得其詳 厥後 吳公翰源伯于府 蠲役以賞 撰文而褒 蓋忠義者 人心之同得乎天也 然此廿五人 以遐陬校列 誓死報國 憤恨帥臣之退陣 奮不顧身 慷慨從軍 一心金石 終始討賊 或殉身於鋒鏑之下 或迎新帥於中道功勞積著 義烈凜然 疾風知勁草者 此之謂也 上年春 余以匪材 叩居是樞先訪忠孝 始見旌榜錄 知有義勇諸人 瞿然於心曰 二公之褒義旌勇 宜無餘憾 而二公遺意 若有待於今日 則任其責者 豈非余歟 乃擇地築壇 豎碑勒名 因構齋舍 以春秋祀之 噫 此營 南徼咽喉 嶺左要衝之地也 壇以祭 碑而記者 欲闡幽而勸後則 奚翅觀瞻咸聳而已 經費則勸助者多 故役不擾民 祭不弊官矣 咸願刻壇石 以樹風聲 而繫以詩 乃作詩曰 築義勇壇 立廿五碑 葭山之陽 英海之湄 擬忠烈誌 作旌榜錄 慕李東岳 感吳府伯 始薦芬苾 毅魄攸依 山高海深 永世無替

崇禎紀元後四癸丑 四月 日

通政大夫 前承旨 完山李亨夏篆

監董官 僉正 白采絢

(비음)

옛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이 잘 다스려지면 공(公)도 되고 경(卿)도 되지만 세상이 어지러우면 뱀이나 돼지 경(獍)이나 올빼미처럼 되는 자가 열에 여덟 아홉이다.”라고 하였다. 임진(壬辰)년 섬나라 오랑캐의 난리에 동래부가 처음 적의 예봉(銳鋒)을 받아서 부(府)와 진(鎭)이 차례로 함락되었으니 절의(節義)로 순절(殉節)한 사람들은 역사책에 실려져 있어 해나 별처럼 뚜렷하다. 오직 이곳 수영(水營)의 장수는 싸움터에서 죽지 않았으니 적병의 협박에 따라 그 명령을 듣고 오랑캐 옷을 입고 오랑캐 말을 하게 된 것도 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중에 충성을 떨쳐서 죽었더라도 잊혀져 전해지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난리가 끝난지 17년 뒤에 동악(東岳) 이안눌(李安訥)³⁰⁹ 공이 부사로 와서 백성들의 탄원서에 따라 25인의 행적과 7년 동안 육지와 바다에서의 전투 행적을 탐문하고 의용 두 글자를 여러 집의 대문에 걸게 하며 <정방록(旌榜錄)>에 먼저 기록하였다. 이 때는 살아 남은 사람이 몇 사람 있었으니 반드시 상세하게 조사했을 것이다. 그 뒤 오한원(吳翰源)³¹⁰공이 부역을 면제해줌으로서 포상하고 글을 지어 표창하였다. 무릇 충의(忠義)라는 것은 사람이 천지로부터 다 함께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25명은 먼변방의 군교(軍校)로서 죽음으로 나라에 보답할 것을 맹서하였고, 장수가 퇴진하여 버린 것을 분개하면서도 몸을 돌보지 않고 비분강개하여 종군하고, 금석과 같이 굳센 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적과 싸워 적의 칼날 아래 죽기도 하고 길에서 새 장수를 맞아들이기도 하였으니, 그 공로는 쌓이고 드러났으며 의기와 충열(忠烈)은 넘칠하였다. 거센 바람이 불어야 굳센 풀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일컫는 말이다. 지난 해 봄에 능력도 없는 내가 이 진영을 맡게 되자 먼저 충신과 효자를 방문하다 처음으로 <정방록>을 보고 의용(義勇) 여러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마음속으로 놀라며 “두 분이 충의와 용맹을 포상한 것에는 더 이상의 유감이 없지만, 두 분이 남긴 뜻에는 오늘을 기다린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맡을 자는 내가 아닐까?”라고 했다. 이에 땅을 골라 단을 쌓고 비석을 세워 이름을 새기기고 재실(齎室)을 만들어 봄가을로 제사지내게 하였다. 아! 수영은 나라의 목에 해당되는 남쪽 요새이고 경상좌도의 요충지이다. 단을 쌓아 제사지내고 비석을 세워 기록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뒷사람에게 권장하기 위한 것이니 어찌 다만 보기만 하고 입을 다물고 있겠는가? 경비는 돕는 사람이 많아서 백성들을 소란하게 하지 않았으며 제사에도 관가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 제단의 돌에 글을 새겨 교화

309) 이안눌 : 1571~1637. 1608년(선조 41년) 2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609년 7월까지 재임함.

310) 오한원 : 1750~ ? . 1775년(영조 5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1806년(순조 6년)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였다.

시키는 비석을 세우고 여기에 시를 덧붙인다. 시를 지어 말한다.

의용(義勇)의 단을 쌓고
스물 다섯 개의 비석을 세운다
장산(叢山)³¹¹의 양지이고
영해(英海)의 물가로다
<충렬지(忠烈誌)>를 본받아
<정방록(旌榜錄)>을 지었으니
동악(東岳) 이공(李公)을 사모하고
부사(府使) 오공(吳公)에게 감사드리네
비로소 제수를 올리니
굳굳한 혼백 의지하리라
높은 산 깊은 물처럼
영원토록 변함없으리

숭정 기원 후 네 번째 계축년(1853) 4월 일
통정대부 전승지 완산 이형하 전
감동관 첨정 백채현



311) 장산(叢山) : 동래의 동쪽에 위치한 산. 동래의 옛 지명인 장산국(叢山國)의 명칭이 유래된 산이다.

3. 안용복장군 충혼탑(安龍福將軍忠魂塔)

安龍福將軍忠魂塔

슬프다 역사를 상고해 보면 매양 숨겨진 속에 큰 인물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니 저 東萊사람 安龍福님이 바로 그 한 분이시다. 그는 본시 本營 군졸로 李朝肅宗十九年癸酉 西紀一六九三年 여름 鬱陵島에 표착하여 국경을 넘어온 倭들과 싸운 끝에 강제로 끌려가 五浪島로 伯耆州로 다니면서도 끝까지 항쟁하여 日本이 鬱陵島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江戶關伯의 서약서를 받아 쥐었으나 對馬島에 이르러 도로 빼앗기고 五十日 동안 구류까지 당한 뒤에 東萊倭館으로 와서 또 四十日을 갇혔다가 東萊府使에게 인도되었던 바 府使 또한 월경하였다 하여 도리어 형벌을 가하는 것이었다. 비분한 속에 二年이 지난 乙亥年 여름 그는 興海人 劉日夫 樂安人 金成吉 寧海人 劉奉石 延安人 金順立 平山浦人 李仁成 順天僧雷憲 勝淡 連習 靈律 丹責 등 열사람의 동지를 데리고 다시 鬱陵島를 찾아가 도적질하는 왜선을 추격하여 伯耆州에 이르러 스스로 鬱陵島搜捕將이라 일컫고 對馬島主의 야심과 죄상을 추궁하여 마침내 다시는 침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 받은 뒤에 江原道 襄陽으로 돌아왔든 바 監司 沈枰은 도리어 그들을 묶어 서울로 올려보냈고 조정에는 월경했다는 죄목으로 처형하려 했는데 尹趾完 南九萬 등 원로대신의 변호로 겨우 죽음을 면하고 귀양만 갔던 것이다.

여기 그의 행적을 대강 적고 다시 헤아리매 저 섬이 오늘 우리 판도 속에 들어 있음은 오직 그의 은공이다. 남쪽 선비들이 찬양회를 결성하고 겨레의 이름으로 鬱陵君을 봉한다함은 진실로 느껴운 일이다. 그를 위하여 한덩이 돌을 세움에 미쳐 내 이제 노래를 붙이노니

東海 구름 밖에 한 조각 외로운 섬
아무도 내 땅이라 돌아보지 않을 적에
적굴 속 넘나들면서 저 님 혼자 애쓰던가
상이야 못드릴망정 형벌 귀양 어인 말고
이름이 숨겨지다 공로조차 묻히리까
이제 와 鬱陵君 봉하오니 웃고 받으옵소서

西紀一九六七年 七月 日

이은상 지음

오제봉 글썸

안재구 시공



4. 의숙공(義肅公) 최강(崔綱) 유적비(遺蹟碑)

宣武原從一等功臣嘉善大夫行慶尙左道水軍節度使兼五衛都摠府副摠管 贈資憲大夫兵曹判書兼知義禁府訓練院事 諡義肅公崔綱遺蹟碑

公諱綱字汝堅號蘇溪姓崔氏貫全州高麗門下侍中諡文成公諱阿之後也요 以明廟十四年己未生이시다. 天挺英俊하고 家傳忠孝라 卓絶勇略이요 豪爽形貌라 少始知學하야 藝游經明이라 長閱兵家하야 有意功名이라 筆慕班投하고 札擬養穿이라 乃魁甲科하야 氣節益堅이라 不虞蠻夷 匪茹孔棘이라 兄及第矣 同心同力이라 奮忠敵愾하야 兵以義募라 扼虎之士 響應景附라 首事噉鋒하야 一舉大舌沓이라 救晋陽陷하고 潰熊川匝이라 殲彼平酋하고 又復三城이라 廷議曰嘉하니 功莫與爭이라 遂除摠歷이라 가 旋移浦鎮이라 璽書繼獎하야 超階而進이라 再轉節度하고 爰登亞將이라 咸出心簡하야 苑有時望 純祖紀功하야 贈以顯位라 今我聖明이 贈之美諡라 一時之榮요 百代之勸이라하니 此는 文憲公性齋許傳所撰也요 七年干戈에 竟成中興之烈은 亦惟諸道倡義之力이라 當其時하야 蘇溪崔公이 卽其一也라하니 此는 議政府領議政金炳學所撰也라 盖公之偉勳壯烈을 觀於國朝記事名將錄中興誌及諸賢之所推詡면 斯可以知公이라 此釜山南區水營洞은 卽宣武三十九年에 水軍節度使蘇溪公之令域也라 雖百世之下나 後生雲仍이 尙有所愀然隔晨之感矣라 迺者에 不肖正蘊이 與諸族으로 累年爛商하야 謀表遺蹟이로되 事鉅力綿하야 幾乎湮沒不傳而幸也 宗論이 歸一하야 盡誠醵金하야 伐石樹碑하니 噫라 此事有待而亦時有期歟아 況又遠邇章甫相率呼籲하야 追慕如是鄭重하니 貞忠大義有入人深者歟아 要使後之人으로 有所觀感而

興起也夫저

檀紀 四三一八 西紀 一九八四 歲乙丑正月 日

胄孫 然雄

後孫 監役 尙鎬

從後孫 元鎬

儒林 梁命煥 李興俊 朴載淑



공의 이름은 강(岡)이고 자는 여견(汝堅)이며, 호는 소계(蘇溪)이고 성은 최씨이며, 관향은 전주이다. 고려 문하시중(門下侍中) 문성공(文成公) 아지(阿之)의 후손이오, 명종(明宗) 14년 을미(乙未)생(1559)이다. 하늘에서 영준(英俊)함을 타고났고, 집안에는 충효(忠孝)가 전해졌다. 뛰어난 용략(勇略)과 호협(豪俠)의 용모로 처음에 어려서부터 학문을 알아 예(藝)에서 노닐며 경전에 밝았다. 자라서는 병가(兵家)책을 보아서 공명(功名)에 뜻을 두었으며, 붓은 반고(班固)처럼 던지고 활숨씨는 양유기(養由基)³¹²처럼 과녁을 꿰뚫었다. 이어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기절(氣節)이 더욱 굳건해졌다.

312) 양유기(養由基) :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궁술의 명인.

뜻밖에 오랑캐³¹³들이 침략을 하자, 형³¹⁴과 아우가 동심동력(同心同力)으로 충성을 일으켜 적에게 대항하여 의병을 모집했다. 그러자 호랑이를 누를만한 인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르며 향응(響應)하니, 앞장서서 군대를 일으켜 한 번 움직여 크게 이겼다. 진주(晋州)성이 함락되는 것을 구하고 웅천(熊川)의 포위를 궤멸시켰으며, 저들의 두목을 죽이고 세 성을 수복했다. 조정의 논의가 “가상하다”고 하여 그 공을 다룰만한 자가 없었다. 드디어 오위도총부경력(五衛都摠府經歷)³¹⁵에 제수되었다가 가리포첨절제사(加里浦僉節制使)로 옮겨갔고, 왕명이 계속 이어져 단계를 뛰어 넘어 승진하였다.

“절도사를 두 번 거쳐 부총관(副摠管)에 올랐는데, 충성을 다 바치니 당시에 명망이 자자하였고, 순조(純祖)께서 공로를 기려 높은 관직을 추증하고³¹⁶ 지금 우리 임금께서도 아름다운 시호를 내려주셨으니,³¹⁷ 한 때의 영광이요 백 대(代)를 권면함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문헌공(文憲公) 성재(性齋) 허전(許傳)³¹⁸이 지은 것이다. “칠 년 동안의 전쟁 속에서도 마침내 중흥을 이룬 공렬(功烈)은 또한 오로지 여러 도(道)에서 의병을 창의(倡義)했던 힘 덕택이다. 이러한 때에 소계(蘇溪) 최공이 바로 그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의정부 영의정 김병학(金炳學)³¹⁹이 지은 것이다. 대개 공의 위대한 공훈과 커다란 공렬은 <국조기사(國朝記事)>와 <명장록(名將錄)> <중흥지(中興誌)>와 여러 선현들의 추앙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곳 부산시 남구 수영동은 바로 선무(宣武) 39년에 수군절도사로 소개공이 임명받았던 곳이다. 비록 백 대가 지나더라도, 뒤에 태어난 후손들은 아직도 지난 새벽일인 듯 서글픈 감회가 있을 것이다. 근자에 불초(不肖) 정온(正蘊)이 집안의 여러 사람과 여러 해 동안 상의하여 선생의 유적을 기릴 것을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업은 크고 힘은 모자라서 거의 인멸되어 전해지지 않으려다가, 다행히도 집안의 의론이 하나로 모아져서 정성을 다하여 모금하여 돌을 캐어 비석을 세운다. 아! 이러한 일이란 기다리는 때가 있고 시기도 기약함이 있다. 하물며 또 멀고 가까운 선비

313) 만이비여(蠻夷匪茹) : 남북의 오랑캐.

314) 형 : 의병장 최균(崔均)을 가리킨다. 자는 여평(汝平), 호는 소호(蘇湖)이다.

315) 오위도총부 : 조선시대에 오위(五衛)의 군사업무를 담당하던 관서. 소속관원으로는 도총관(都摠管), 부총관(副摠管), 경력(經歷), 도사(都事)가 있다.

316) 순조 때에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317) 시호는 의숙(義肅).

318) 허전 : 1797~1886. 문신이자 학자. 자 이노(而老), 호 성재(性齋), 본관 양천(陽川), 시호 문헌(文憲). 저술로 <성재집(性齋集)> <종요록(宗堯錄)> <철명편(哲命篇)> <사의(士儀)> 등이 있다.

319) 김병학 : 1821~1879. 문신. 자 경교(景敎), 호 영초(穎樵), 본관 안동(安東), 시호 문헌(文獻).

들이 서로 불러모아서 이렇게 정중하게 추모하니, 정렬(貞烈)과 충성, 대의(大義)가 사람들에게 깊이 파고드는 것이 있도다. 후세 사람들이 보고 느끼며 흥기(興起)함이 있기를 바랄 뿐이다.

단기 4318 서기 1984 을축 정월 일

주손 연웅

후손 감역 상호

종후손 원호

유림 양명환 이흥준 박재숙

5. 수사(水使) 김여온(金汝溫)³²⁰⁾ 선정비(善政碑)

水使金公汝溫善政碑

順治乙酉 十二月 日

순치 을유년(1645) 11월 일



320) 김여온 : 1643년 10월 13일에 도입. 1645년 10월에 과만으로 교체됨.

6. 수사(水使) 김체건(金體乾)³²¹⁾ 청선비(淸善碑)

水使金公體乾淸善碑

順治乙酉 十二月 日

傍五代孫□建閣

순치 을유년(1645) 12월 일
방오대손 □ 비각을 만들.



³²¹⁾ 김체건 : 1643년 8월 3일에 도입. 같은 해 10월에 우병사로 옮겨 임용됨.

7. 수사(水使) 김중원(金重元)³²²⁾ 청덕선진비(淸德善賑碑)

水使金公重元淸德善賑...

崇禎再丙子 十一月 立

송정후 두 번째 병자년(1696) 11월에 세움.



322) 김중원 : 1695년 2월 2일에 도임. 1696년 12월에 과만으로 교체됨.

8. 수사(水使) 황진문(黃震文)³²³⁾ 선정비(善政碑)

水使黃公震文善政碑

康熙壬午 三月 日 鎮撫

강희 임오년(1702) 3월 일 진무



323) 황진문 : 1700년 5월 6일에 도입. 1702년 4월에 과만으로 교체됨.

9. 수사(水使) 황진문(黃震文) 선정비(善政碑)

水使黃公震文善政碑

康熙四十一年壬午 三月 日 軍卒等 立

강희 41년 임오년(1702) 3월 일 군졸 등이 세움.



10. 수사(水使) 이행익(李行益)³²⁴ 선정비(善政碑)

水使李公行益善政碑

康熙四十五年丙戌六月 日 三秋等 改立

강희 45년 병술년(1706) 6월 일 삼추 등이 고쳐 세움.



324) 이행익 : 1696년 12월 8일에 도입. 1698년 9월에 과만으로 교체됨.

11. 수사(水使) 이홍(李泓)³²⁵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水使李公泓淸德善政碑

居官三載 虎渡南河
拮据補軍 恩及千秋

康熙戊子 九月 日 立

관직에 계신 삼 년 동안
범이 남쪽 물가를 건넜네
비용을 마련하여 군비를 보충하니
은혜가 천년까지 가리라.

강희 무자년(1708) 9월 일에 세움.



325) 이홍 : 여주목사(驪州牧使)에서 승진하여 임용됨. 1706년 9월 17일에 도임. 1708년 6월에 회령부사(會寧府使)로 옮겨 임용됨.

12. 우후(虞侯) 이선(李樞) 선정비(善政碑)

虞侯李公樞善政碑

志存恭儉 愛卒如傷
拮据補軍 永賴其慶

康熙五十一年壬辰 九月 日 二衙一帶 立

공손과 검약에 마음을 쓰시고
자신이 아픈 것처럼 군졸들을 아끼셨네
부지런히 군비를 보충하였으니
길이 그 복을 누리리라

강희 51년 임진년(1712) 9월 일 두 관아 일대에서 세움.



13. 수사(水使) 황수담(黃壽聃)³²⁶⁾ 애홀군졸비(愛恤軍卒碑)

水使黃公壽聃愛恤軍卒碑

居官三朔 惠德兼備
均給代□ 毋吝賞賜
鼓舞人材 士卒且飽
及公之歸 如失父母

雍正六年 五月 日 營四隻射夫等 立



관직에 세 달을 있으면서
은혜와 덕망을 겸비하셨네
급여를 균등하게 주고 □를 대신하여
상을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고
인재들을 고무시키고
군졸들도 배부르게 했다.
수사(水使)께서 돌아가시자
부모를 잃은 것 같다네

옹정 6년(1728) 5월 일 영사척 사부 등이 세움.

326) 황수담 ; 1728년 3월 7일에 도임. 같은 해 6월에 대간의 장계로 인하여 파직됨.

14. 수사(水使) 이징서(李徵瑞)³²⁷⁾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水使李公徵瑞淸德善政碑

雍正十三年乙卯 九月 立

옹정 13년 을묘년(1735) 9월에 세움.



327) 이징서 : 1733년 9월 20일에 도입. 1735년 8월에 과만으로 교체됨.

15. 수사(水使) 최명주(崔命柱)³²⁸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水使崔公命柱淸德善政碑

雍正十三年乙卯 九月 日 海民 立

옹정 13년 을묘년(1735) 9월 일 바닷가 주민이 세움.



328) 최명주 : 1730년 4월 16일에 도입. 같은 해 11월에 우병사로 옮겨 임용됨.

16. 수사(水使) 이경철(李景喆)³²⁹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水使李公景喆淸德善政碑

莫高者山 莫深者海
我公之德 山高海深

崇禎再己未 四月 日 立

산보다 높은 것 없고
바다보다 깊은 것 없는데
우리 수사(水使)님의 은덕은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다네

승정후 두 번째 기미년(1739) 4월 일에 세움.



329) 이경철 : 1736년 10월 25일에 도입. 1738년 7월에 교체됨.

17. 수사(水使) 백동의(白東毅)³³⁰⁾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水使白公東毅萬古不忘□

籌策拔倫 民□其□

□□□□ 千秋頌德

乾隆四十二年 丁酉 三月 日 軍民立

치밀한 계책 무리 중에 뛰어났고

백성들은 □□

□□□□

천년동안 덕을 기리리라.

건륭 42년(1777) 정유년 3월 일 군영과 주민들이 세움.



330) 백동의 : 1776년 7월 13일에 도입. 1777년 4월에 부모의 연세가 많다고 사직하여 교체 됨.

18. 수사(水使) 유진항(柳鎭恒)³³¹⁾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水使柳公鎭恒善政不…

己亥四月 日

使令…

官奴…

軍牢…

기해년 4월 일

사령…

관노…

군뢰…



331) 유진항 : 1777년 4월 3일에 도입. 1779년 4월에 과만으로 교체됨.

19. 수사(水使) 유진항(柳鎭恒)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

水使柳公鎭恒萬古不…

□蠲痼弊

營□咸蘇

己亥 四月 日

고통과 폐단을 □ 덜어주시고

수영 □ 모두를 소생시키셨네

기해년 4월 일



20. 수사(水使) 신응주(申應周)³³²⁾ 천추만세유전불망비(千秋萬歲流傳不忘碑)
 不忘碑)

水使申公應周千秋萬歲流傳不忘…

邊城固禦 至矣邦忠
 我使之德 石腫乳生
 舟師解鬱 盛兮牟父
 功將被石 耄艾咸戴

乾隆四十七年壬寅 月 日



변방의 성곽을 굳게 지키고
 나라에 충성이 지극했다.
 우리 수사(水使)님의 덕은
 석종유(石鍾乳) 생겨남일 세³³³⁾
 배를 타는 군사 답답함 풀어주니
 성대하구나 위대한 아버지로다
 공로를 돌에 새기려하니
 노인들 모두 받들어 칭송하네

건륭 47년 임인년(1782) 월 일

332) 신응주 : 1780년 3월 30일에 도입. 동래부사 이문원(李文源)과 서로 다투어 같은 해 9월에 파직됨.

333) 석종유(石腫乳) : = 석종유(石鍾乳). 석종유는 깊은 종유석 동굴에서 생산되는 귀한 약재. 유종원(柳宗元)의 「연주군부유혈기(連州郡復乳穴記)」에 의하면, 연주의 자사(刺史)가 선정을 베풀자, 석종유가 나오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보고하던 백성들이 다시 석종유가 나온다고 자진해서 보고하였다고 한다.

21. 수사(水使) 유효원(柳孝源)³³⁴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水使柳公孝源善政不忘碑

恩暈補瘼 澤厚蘇枯
軍卒永賴 關防無慮

砲毛等立

丙午 七月...



폐단을 없애준 은혜가 빛나고
시든 것 소생시킨 은택이 깊도다
군졸이 영원히 의지하니
관문 방비 걱정 없다네
포수 등이 세웁.

병오년 7월...

334) 유효원 : 1785년 5월 12일에 도임. 통제사(統制使)와 부자(父子) 관계로 상피(相避)하여 1786년 윤 7월에 교체됨.

22. 수사(水使) 유효원(柳孝源)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水使柳公孝源善政不忘…

□□碑閣崩頽 □□重修 先考碑二坐具在路
上 移入閣中附左 乙丑 三月 日 子相□追刻 泣血謹識

丙午 七月 日

撫吏 官奴

軍牢

使令

□□비각이 무너져 □□ 중수하였다. 선친의 비석 두 개가 모두 길가에 있어서 비각 안으로 옮기고 왼쪽에 부기한다. 을축(乙丑)년 3월 아들 상□(相□)은 추가해 새기고 피눈물 흘리며 삼가 기록한다.



병오년 7월 일

무리 관노

군뢰

사령

23. 수사(水使) 이욱연(李郁延)³³⁵⁾ 거사단(去思壇)

水使李公郁延去思壇

嘉慶十一年丙寅 六月

가경 11년 병인년(1806) 6월

335) 이욱연 : 1804년 5월 4일에 도입. 1806년 4월 1일에 과만으로 교체됨.

24. 수사(水使) 조희원(趙羲元)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使趙公羲元永世不忘…

矯革卜賞 三房恩有
有口成碑 一片其石

崇禎紀元後四己巳 六月 日

使令房

軍牢房 立

官奴房



짐값을 바르게 고쳐서

삼방(三房)³³⁶이 은혜를 입었네

칭송의 말 비석이 되었으니

한 조각 바로 이 돌이라네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기사년(1809) 6월 일

사령방

군뢰방

관노방 세움.

336) 삼방(三房) : 사령방과 군뢰방과 관노방을 가리킨다.

25. 수사 구주원(具胄元)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相國具公胄元永世不忘碑

刷逋矯揉 捐廩多難
啓科養武 繕械備邊
復設料米 益置屯田
五載爲政 永世其恩

崇禎紀元後四辛未 七月 日 立



밀린 세금 고쳐 얹어주고
창고 풀어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과거 열어 무사(武士)를 기르시고
기계 고쳐 변방 일을 대비하였다.
급료로 쌀 주는 것 다시 설치했고
둔전(屯田)을 늘려 설치했다.
오 년 동안 다스리시니
그 은혜 영원하리라

송정 기원 후 네 번째 신미년(1811) 7월 일에 세움.

26. 수사 김동수(金東壽)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相國金公東壽永世不...

蕩逋救千 減還八百
民無斂米 惠不泐石

崇禎紀元後四癸未 四月 日 南村面 立

밀린 세금 탕감하여 천 냥이나 구해주고
밀린 환곡 덜어준 것이 팔백 섬이네
백성들에게 거둔 쌀 없으니
그 은혜 돌처럼 마모되지 않으리

송정 기원 후 네 번째 계미년(1823) 4월 일 남촌면에서 세움.



27. 부사(府使) 이규현(李奎鉉)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³³⁷⁾

府使李公奎鉉萬古不忘碑

□□□四面海民 弊痼層□□□ □年□前倍蓰 收斂魚供 非徒
□□□爲罄竭 浮於弩末 幸賴明府李公奎鉉 憐我□□之傷 論
報巡相 查□□□ 請錢四千五百兩 爲矯揉之方 七百兩爲先□
給 用下急務 八百兩取五年殖報營 本錢元錢 仍付海四面 永爲
防弊之資 同錢馱來 各項欠□亦自當 後有漂差倭 自其處直送
事措報備局 永革大弊恩重如山 勒銘盤石 □□哉

崇禎 紀元後 四甲申 十月 日 海四面 立

都監 金錫麟

有司 金宗連



□□□사면의 해민(海民)들의 폐단과 고질이 쌓여 □□□했었다. □년 전보다 여러 배로 어공(魚供)을 거두니 비단 □□□ 일 뿐만 아니라, 쇠노 끝보다 심하였다. 다행히 부사 이규현 공의 은혜로 우리들의 □□ 상처를 불쌍히 여겨 순상(巡相)에게 보고하고 □□□를 조사하여 4,500냥의 돈을 청구하여 잘못을 바로잡는 방편으로 삼았다. 700냥은 □로 먼저 주어 급한 일에 쓰게 하고, 800냥은 5년 동안 이자를 취하여 감영의 본전을 갚도록 하고, 원전은 해사면(海四面)에 맡겨 길이 폐단을 방지할 자금으로 삼고, 동 원전을 말에 싣고 와서 각 항의 결손과 □도 스스로 감당하게 하였다. 이후부터는 표차왜(漂

差倭)³³⁸⁾가 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곳에서 곧바로 비용을 내는 것으로 말을 만들어

337) 동래구 ‘부사(府使) 이공(李公) 규현(奎鉉) 흥학평(興學坪)’ 참조.

338) 표차왜(漂差倭) : 표인영래차왜(漂人領來差倭). 표류하여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인솔해서 데리고 오는 왜인.

비변사에 보고하였다. 영원히 폐단을 고쳐주셨으니, 은혜가 산처럼 무겁다. 반석에
글을 새기니, □□하도다.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갑신(1824년) 10월 일 해사면 세움.

도감 김석린

유사 김종연

28. 수사(水使) 안광찬(安光贊)³³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使安公光贊永世不忘碑

挾海補軍 愛民拯弊
撫我恤我 我歌我使

道光十五年乙未 四月 日 立

바다를 옆에 두고 군비를 보충했고
백성을 사랑하여 폐단을 제거해주었다.
우리를 어루만져 구휼해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수사(水使)님 칭송하네.

도광 15년 을미년(1835) 4월 일에 세움.



339) 안광찬 : 1828년 10월에 부임하여 1830년(1830) 10월 조정으로 돌아감.

29. 수사(水使) 이신영(李信泳) 청덕비(淸德碑)

水使李公信泳淸…

皇祖嘉猷 曾孫有道
萇海益深 萇山益高

崇禎紀元後四丁巳 十一月 日

使令房

軍牢房 立

官奴房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사업
증손자에게 법도 있었네
장산(萇山) 바다 더욱 깊고
장산 산은 더욱 높으리라

승정 기원 후 네 번째 정사년(1847) 11월 일
사령방
군뢰방
관노방 세움.

30. 수사(水使) 이용순(李容純)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使李公容純永世不忘碑

徠咸云暮 去益見思
一暮爲政 百世有辭

咸豐三年 三月 日 立

오실 때에 모두 늦었다고 하고
떠났어도 더욱 그립고 생각나네
일년 동안 정치를 하였지만
백 대 동안 칭송의 말이 있으리

함풍 3년(1853) 3월 일에 세움.



31. 관찰사 서헌순(徐憲淳)³⁴⁰⁾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徐公憲淳永世不忘…

民蘇弊革 由我相公
千家活佛 一鎮文翁
恩如海廣 德比山崇
石猶有變 惠可無窮



백성들 다시 살리고 폐단을 개혁한 것
우리 상공(相公)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여러 집에게 살아 있는 부처였고
온 진영(鎭營)에 문옹(文翁)³⁴¹⁾이었네
은혜가 바다처럼 넓고
덕은 산처럼 높아라
비석은 오히려 변함이 있지만
은혜는 무궁하리라

340) 서헌순 : 1801~1868. 문신. 자 치장(稹章), 호 석운(石耘), 본관 달성, 시호 효문(孝文).
1863년(철종14) 3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하여 1865년(고종2) 3월에 이임됨.

341) 문옹(文翁) : 중국 한(漢)나라 때 문옹(文翁)이 촉군(蜀郡)의 태수가 되어 문교(文教)를
진흥했던 고사.

32. 수사(水使) 유기대(柳冀大)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相柳公冀大永世不忘碑

莅茲兩載 大我一營
設屯繕械 固壘增兵
海陸騰頌 草木知名
此石不泐 厥施永宏

崇禎紀元後五乙亥 四月 日 立



이 곳에 부임하여 두 해 동안
우리 수영(水營) 전체를 키우셨네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기계를 수선하고
진지를 견고하게 하고 군사를 늘렸네
바다와 물에 칭송이 비등하니
초목도 그 이름을 아네
이 비석은 마모되지 않을 것이니
그 은혜 길이 크게 남으리라

승정 기원 후 다섯 번째 을해년(1875)
4월 일에 세움.

33. 수사 윤영하(尹永夏) 거사비(去思碑)

水相尹公永夏去思碑

氷壺潔月 雲山仁風
捐廩勸農 備圉奉公

崇禎紀元後五乙亥 七月 日 別砲衛等 立

얼음 항아리처럼 깨끗한 달이요
구름 산처럼 인자한 바람이라네
재정을 출연하여 건물 지으시고
변방을 대비하고 나라 일에 애쓰셨네

숭정 기원 후 다섯 번째 을해년(1875) 7월 일 별포위 등이 세움.



34. 수사 양주화(梁柱華) 거사비(去思碑)

水相梁公柱華去思碑

容德日煩 面石時泐
願入正論 載傳方冊

崇禎紀元後五丁丑 七月 日 別砲衛等 立

송덕³⁴²⁾은 날이 갈수록 번잡하게 되고
다듬은 비석도 때가 되면 마모되는 것
원컨대 정론(正論)에 들어
방책(方冊)에 실려 전하기를

(비음)

송정 기원 후 다섯 번째 정축년(1877) 7월 일 별포위 등이 세움.



342) 용덕(容德); = 송덕(頌德).

35. 수사 김인호(金寅浩)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相國金公寅浩永世不忘…

服燦挾纊 土沃遺畚
賑有再生 料無一闕
臨歸捐廩 隨事祛瘼
德被培植 白山更鬱

丙戌 八月 日 立

使令 金宗得 趙有日 林春孫

軍牢 李得先

監董 金鎮伊 金性喆



좋은 옷에 숨을 끼워 입고
비옥한 토지에 전답이 남아 있네
구휼하여 다시 살아가고
금료는 한 번도 거르지 않았네
돌아가실 때 창고를 풀어
일 마다 폐단을 고치었다.
북돋우고 심은 은덕 입어
백산(白山)이 다시 울창해졌다.

(비음)

병술년(1886) 8월 일에 세움.

사령 김종득 조유일 임춘손

군뢰 이득선

감동 김진이 김성철

36. 수사 김인호(金寅浩)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水相金公寅浩淸德善政碑

捐廩九千 施惠十一
充補就緒 自辟疏鬱
堤屹蘇公 屯遵諸葛
活青保赤 恩與海濶

崇禎紀元後五丁亥 四月 日 立



구천 냥 재정을 덜어
스물 하나 진보(鎭堡)에 혜택 베풀었다
실마리를 찾아 보충해주니
저절로 많고 적음의 균형이 맞았다
소공제(蘇公堤)³⁴³ 우뚝 솟고
제갈둔(諸葛屯)³⁴⁴ 법도 따랐다
적자(赤子)를 보호하여 파랗게 살려내니
은혜가 바다처럼 넓도다

승정 기원 후 다섯 번째 정해년(1887)
4월 일에 세움.

343) 소공제(蘇公堤) : 송(宋)나라 소식(蘇軾)이 태수를 지내면서 제방을 높게 쌓아 치수(治水)를 잘 했으므로, 잘 쌓은 제방을 ‘소공제(蘇公堤)’라고 한다.

344) 제갈둔(諸葛屯) ; 촉(蜀)나라 제갈량(諸葛亮)의 둔법(屯法).

37. 수사(水使) 한홍렬(韓弘烈)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使韓公弘烈永世不忘碑

萬機從使 一心無私
甯可後有 實是前無
堅莫如石 質莫如金
僅此記石 去而益詠

崇禎紀元後五戊子 十月 吏廳 立



모든 일 수사로부터 시작되어
한 마음으로 사심이 없었네
훗날엔 있을 지 모르겠지만
실로 전에는 없었던 일
견고한 것은 돌만한 게 없고
바탕은 쇠 만한 게 없으니
삼가 이 돌에 기록하여
떠나가셔도 더욱 기리리라

승정 기원 후 다섯 번째 무자년(1888) 10월에
리청에서 세움.

38. 수사 이종순(李鍾順)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相李公鍾順永世不忘碑

千里委卑 一念忠良
軍需克軫 礮屯更張
回兆作笑 轉災爲祥
公恩永洽 石壽同長

光緒十六年庚寅 六月 日 立



천리 먼 곳 낮은데 맡으셔서
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셨네
군수장비를 극진하게 살피고
포대 둔전(屯田)을 다시 확장했다
밭미를 돌려 웃음거리로 만드시고
재앙을 돌려 상서로운 것으로 만들었다
공의 은혜는 영원히 젖어들어
돌처럼 오래가리라.

광서 16년 경인년(1890) 6월 일에 세움.

39. 겸감목관(兼監牧官) 임익준(任翊準)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兼監牧官任公翊準永世不忘…

牧今移附 公來亦時
祛瘼歸結 輸耗定規
樂哉輿望 普厥德施
永言仰慕 石銘在茲

甲申 十一月 五場吏民 立



목장을 이제 옮겨 귀속시키니
공이 오신 것은 때가 맞았네
폐단을 없애 결말을 지으시니
모곡(耗穀)을 운송하는 규정을 정하셨다.
즐겁다 우리의 여망이여
그 덕이 두루 펼쳐졌네
길이 받들어 사모하고
돌에 새겨 이 곳에 세운다.

갑신년 11월 다섯 장의 서리와 백성이 세움.

40. 수사 이희선(李熙善)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國李公熙善永世不忘…

禱有感天 賑無殍人
精需捐俸 減還安民
武修藏弓 士悅明倫
心懸北闕 名震南隣

… 十一年 乙酉三月 日 南村面立

面首 文光漢
公員 朴錫奎
有司 宋邦浩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켜서
구휼해 주어 굶어 죽는 자 없었네
비용을 절약하고 봉급을 덜어
환곡을 감해주고 백성을 편안하게 했다
무비(武備)가 닳아 없어 활을 갈무리하고
선비는 밝은 인륜(人倫)에 기뻐했다.
마음은 북쪽 대궐에 걸려있고
이름은 남쪽 마을에 진동했다

(비음)

… 11년 을유년 삼월 일 남촌면 세움.
면수 문광한
공원 박석규
유사 송방호

영도구 금석문

1. 첨사(僉使) 신응균(申膺均)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僉使申公膺均永世不忘碑

島鎮陞復 奚我使蒞

壘回鎖鑰 城鞏修雉

軍民再蘇 關防重新

壽公如石 永世頌仁

戊子十一月 日 軍卒等立



영도가 진영으로 다시금 승격되니
이에 우리 첨사께서 부임해 오셨네.
보루는 견고하고 관문 굳게 잠겼으며
담장을 수리하여 성곽도 단단하네.
군사와 주민들 다시 소생하였고
관문의 방비도 거듭 새로워졌네.
첨사공 비석처럼 장수하소서
영세토록 인덕을 칭송하리라.

(비음)

무자년 11월 군졸들이 세우다.

2. 겸감목관(兼監牧官) 임익준(任翊準)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兼監牧官任公翊準淸德善政碑

誠輸北宸 惠被南陲

捐金補廩 散穀賑飢

旣蠲考籍 亦防結菑

片石堪語 於千百斯

乙酉三月日島民等立

監董 張寅喜

金上老

頭民 河周鉉

朴文杓



충성은 북쪽 임금님께 바치시고
은혜는 남쪽 변방 땅에 베푸셨네.
금품 내어 창고를 보수하시고
곡식 풀어 주린이 먹여 주셨네.
장부에 밀린 세금 털어 주시고
목정밭에 건던 세금 막아주셨네.
한 조각 비석에 새긴 말
천년 백년 이어가리라.

(비음)

을유년 3월 도민들이 세우다.

감동 장인희

김상노

두민 하주현

박문표

3. 첨사(僉使) 임익준(任翊準)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僉使任公翊準永世不忘碑

地以人重 固我邊圉

恩推添賴 惠溢飢口

田旣停結 籍亦防戶

繕廨增耀 留賄施普

乙酉三月日鎮屬等立

監董 兵校 金圭錫

吏房 朴時東

青雁 李維昊

任錫球



땅이란 사람으로 인해 소중해지니
우리 변방 방비를 견고하게 하였네.
은혜는 의지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지고
혜택은 굶주린 사람에게 넘쳐난다네.
밭에는 이미 세금 징수 멈추었고
장부 또한 호구조사 그만두었네.
관청건물 수리하여 광채 더하고
재물 모아 두루두루 베풀었다네.
(비음)

을유년 3월 진속들이 세우다.

감동 병교 김규석

이방 박시동

청안 이유호

임석구

4. 관찰사 이호준(李鎬俊)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李公鎬俊永世不忘碑

設鎮復鎮 承宣有由

允協廟籌 克體邊憂

奠安關防 增重人地

積逋矯揉 是誰之賜

戊子九月日絶影島鎮屬等立



진영을 설치하고 다시 복원하시니
명을 받아 시행함에 이유가 있었도다.
조정의 계책을 성실히 도우시어
국경 방비 근심을 몸소 실천하셨네.
관문의 방비가 안정되어 가면서
사람과 토지가 더욱 늘어났다네.
누적된 포함을 바로잡아 구하시니
그 누가 내리신 은덕이던가?
(비음)
무자년 9월 절영도 진속들이 세우다.

해운대구 금석문

1. 해운대 각석(海雲臺刻石)

海雲臺



2. 부사(府使) 유심(柳滄)³⁴⁵ 만고청덕선정비(萬古淸德善政碑)

府使柳公滄萬古淸德善政碑



345) 유심 : 1649년(인조27) 11월에 동래부사로 부임하여 1651년(효종2) 7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이직됨.

3. 유학(幼學) 이모준(李帽俊) 송덕비(頌德碑)

幼學李公帽俊頌德碑
推己思人 公能先覺
力勤田疇 念及溝壑
賜食療飢 授衣釋凍
有子有孫 百祿是總

자신에게 비추어 남을 생각하니
이공은 능히 선각자시로다.
힘써 농사일에 부지런하며
생각이 도랑에까지 미치었다네
식량 내어 주린 사람 먹여주고
옷까지 주어 추운 몸 풀어주었네.
길이 자손들 번성하고
온갖 복이 그렇게 모여들리라.



기장군 금석문

1. 시랑대(侍郎臺) 각석시(刻石詩)

謫居猶得近蓬萊 人自天曹貳席來
三字丹書明翠壁 千秋留作侍郎臺

귀양온 이 곳이 봉래산과 가깝고
이 사람도 천조(天曹)의 이석(二席)³⁴⁶에서 왔다네.
석 자의 붉은 글씨 푸른 벽에 선명하니
천추에 전할 시를 시랑대에 남겨보네.

권적(權檣)³⁴⁷

侍郎寂寞騷人樂 更作吟風詠月臺

시랑은 어디가고 시인들만 즐거운가!
다시금 이 곳이 음풍영월대가 되었다네.

求仙此地望蓬萊 海氣汪洋滿眼來
盡日不逢無所證 春風空倚一荒臺

신선 찾아 이 곳에서 봉래산을 바라보니
넘실대는 바다가운 눈 안에 가득하네.
저물도록 기다려도 알아 볼 곳 없는데
봄바람만 공연히 거친 대로 불어오네.

이후서(李厚瑞)

346) 천조·이석 : 천조(天曹)는 이조(吏曹)를 지칭하고, 이석(貳席)은 시랑직을 가리킨다.

347) 권적 : 1675~1755. 문신. 자 경하(景賀), 호 창백헌(蒼白軒)·남애(南厓), 본관 안동, 시호 효정(孝靖). 시랑직에 있다가 기장군수로 좌천되어 내려왔다. 시랑대의 명칭이 그에게서 유래되었다.

三字書

千尋臺

茫茫銀闕迥

浩浩瓊濤開

一曲鸞笙人不見

翩翩雙鶴忽飛來

甲寅秋 □翁

석 자 글씨 써있는

천 자 높이 시랑대.

신선사는 은궐(銀闕)³⁴⁸은 아득히 멀고

구슬같은 파도는 도도하게 펼쳐있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 곡조 생황소리

훽훽 한 쌍의 학만이 홀연히 날아오네.

갑인년 가을 □옹

次權君 稿□□韻

嵬巖翠壁近蓬萊

前後人登幾箇來

學士侍郎先我訪

敢將荒韻詠高臺

권적의 □□시에 차운(次韻)함

높은 바위 푸르른 암벽 봉래산과 흡사하니

전후로 이곳에 오른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학사(學士)³⁴⁹와 시랑(侍郎)께서 나보다 먼저 들렀는데,

감히 거친 노래로 고매한 이 대를 읊조린다네.

348) 은궐 : 신선이 사는 곳을 은궐·은궁·은대라고 한다.

349) 학사 : 학사는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에 소속된 관직명인데, 여기서는 홍문관 교리였던 손경현을 가리킨다. 그가 기장현감으로 와서 시랑대에 올라 ‘학사암(學士巖)’이라 명명하고 각석까지 해두었다.

侍郎臺上一層巖 屹若支天何出凡
 上下千年長在石 東南大海自任帆
 民勤野壁秋將熟 郡小官閑事已監
 喧雷忽送人間雨 不妨須臾濕我衫

乙未 仲夏 學士 孫庚鉉

시랑대 위로 바위 높이 얹혔으니
 하늘을 버티는 듯 우뚝 얼마나 출중한가.
 지난 세월 천년 동안 바윗돌 그대로요
 동남쪽 넓은 바다에 돛단배 자유롭다.
 부지런한 농민들 들녘을 열어 곡식은 익어가고
 자그마한 고을 공무 한가로워 일은 이미 마쳤다네.
 갑작스런 번개소리 홀연 비를 뿌리니
 잠깐 새 내 적삼 적신들 어떠하랴.

을미년(1895) 중하 학사 손경현³⁵⁰⁾

地若賢儒隱草萊
 昔年何訪侍郎來

乙巳孟夏 尹天民

이 땅은 마치 어진 선비 숨어드는 곳이런가
 옛날 그 언제 시랑께서 찾아왔던가

을사년 초여름 윤천민

350) 손경현 : 1894년(고종31) 9월에 부임하여 1895년 11월에 합천군수로 이임됨. (<기장군 읍지>)

次權侍郎韻

□□□□接蓬萊

□□絕蹤□舟來

□□遺風□不盡

手摩□□陟高臺

戊辰冬 謫□

권시랑의 시에 차운함

(…………) 봉래산과 닿아있고,

(……) 인적 끊어진 곳 (……) 배만이 찾아오네.

(……) 남기신 풍모 (……) 다하지 않아

손으로 만지며 (……) 높은 시랑대에 오르네.

무진년 겨울 적□

2. 열녀(烈女) 월성 김씨(月城金氏) 정려비(旌閭碑)³⁵¹⁾

烈女月城金氏之閭

乾隆六年十月日 礪山宋十八世孫尙德配位

(비음)

건륭 6년(1741) 십월

려산 송씨 18세손 상덕의 배필이다.



351) 열녀 김씨 : 기장 상서면(上西面) 사람. 유학(幼學) 송상덕(宋尙德)의 처이다. 17세에 시집와서 예로서 시부모를 섬기고, 공경을 다해 남편을 섬겼다. 남편이 일찍 죽자 시아버지 역시 병으로 죽게 된다. 남편상을 마치자 액을 먹고 남편을 따라 같이 묻혔다. (<영남읍지·기장> 인물조)

3. 청강교 비문(淸江橋碑文)

淸江橋碑文
縣監金公受漢

夫物 有待時而後成 時亦待人而後作 時與人相合而後物成其形
蓋機縣之設 其來已久 川橋之役 其弊痼矣 每年修壞之際 衆皆
有志於此 欲成石橋之功 而物不得其時 時不得其人 人莫扼腕
今者朴昌輝 慨然於斯 募勸善導 以始大功 宋世興輸財補役 以
終其勳 大哉功之成也 噫 時將欲成此物而後 此二人以成其形也
予讚其功 美其事 壯其物 書有功之員 記施財之人 鑑來往之耳
目 表千年之不朽 橋之壯不壯美不美 不記不錄而播在衆覽焉

大施主嘉善宋世興 歲乾隆二十三年戊寅三月日

座首 金昌淮

吏房 張碩柱

施主 金贊重 宋弼三 宋世德

僧有侃 金檢東 李暹突

都監 金淵興

色吏 李純彬

別座 朴善作

東西洞首 尹興昌 金德潤

化主 朴昌輝 鄭斗三

현감 김수한(金受漢)³⁵²⁾

대개 사물이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법이고, 때도 또한 마땅한 사람을 만나야 마련되는 법이니, 때와 사람이 서로 만난 뒤에야 사물이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

기장현이 설치된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지만, 하천에 다리를 고치는 일이 고질적인 폐단이다. 매 해마다 무너진 것을 수리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이 일

352) 김수한 : 1755년(영조31) 12월에 부임하여 1758년 5월에 교체됨.

에 뜻을 두어 석교(石橋)를 만들고자 하였지만, 사물이 적당한 때를 만나지 못했고, 때 역시 마땅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누구도 팔을 걷고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오늘날에야 박창휘(朴昌輝)가 이 일을 개탄하여, 모금하고 권면하며 선도하여 큰 일을 시작하였고, 송세흥(宋世興)이 재산을 내어 이 일을 도와 그 업적을 마치게 되었다. 위대하구나! 이 일을 이루다니! 그렇다. 때가 이 다리를 이루고자 하니, 이 두 사람이 그 모습을 완성시킨 것이로다. 나는 그 공로를 찬양하고 그 일을 찬미하며 이 다리가 자랑스러워, 공로가 있는 사람들과 재산을 희사한 사람들을 기록하여 이 다리를 오고가는 사람들이 귀감으로 보도록 함으로서 오래동안 사라지지 않도록 드러내고자 한다. 다리가 자랑스러운지 아름다운지는 다 기록하지 않으나, 대중들의 이목에 전파되어 있다.



(비음)

대시주 가선 송세흥 건륭23년(1758) 무인년 3월 일

좌수 김창회

이방 장석주

시주 김찬중 송필삼 송세덕

승 유간 김검동 이섬돌

도감 김연홍

색리 이순빈

별좌 박선작

동서동수 윤홍창 김덕윤

화주 박창휘 정두삼

4. 객사건성비문(客舍建成碑文)

客舍建成碑文

縣監李公景烈

殿宇傾壓 迨近升祀

何幸賢侯 慨然有志

辦財募丁 不日易致

石勒其功 永世不墜

甲辰七□□

座首 鄭光益

都監 辛致和

監官 沈應澤

吏房 金□□

色吏 李□□

현감 이경렬³⁵³⁾

객사 건물 기울어 무너진 지

거의 이십 년이 되었더니

다행히 현명하신 현감께서

분연히 중건할 뜻 세우셨네.

경비를 마련하고 장정을 모집하니

하루도 되지 않아 가볍게 이루었네.

비석에 그 공로를 새겨두노니

영원토록 이 뜻이 사라지지 않으리!

갑진년(1784) 7월

353) 이경렬 : 1783년(정조7) 7월에 부임하여 1784년 10월에 파직됨.

(비음)

좌수 정광익

도감 신치화

감관 심응택

이방 김□□

색리 이□□



5. 연파당 대사(蓮坡堂大師) 쾌주비(快湫碑)

蓮坡堂大師快湫之碑

乾隆四十年乙未九月日

上左錦察允澤

(비음)

건륭 40년(1775) 을미년 9월 일

상좌 금찰 윤택



6. 선암당 명열대사비³⁵⁴⁾

仙巖堂明悅大師

嘉慶三年九月日

(비음)

가경 3년(1798) 9월

354) 비석의 내용은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7. 제석동(帝釋洞) 신축제언비(新築堤堰碑)

帝釋洞新築堤堰碑

行縣監通政大夫 李溶

座首 文漢謙

堤堰都監 金孝宸

監役都監 朴弼均

左右便長 李文道 金興宇

有司 韓思碩

吏房 黃禹臣

色吏 朴致觀 宋奎晏 金光弼

嘉慶十五年庚午仲秋始役 辛未孟夏訖(役)

監考 具旺大

현감 통정대부 이용

좌수 문한겸

제언도감 김효신

감역도감 박필균

좌우편장 이문도 김홍우

유사 한사석

이방 황우신

색리 박치근 송규안 김광필

가경 15년(1810) 경오년 중추에 역을 시작하여 신미년 초여름에 마치다.

감고 구왕대



8. 제석동(帝釋洞) 제언비(堤堰碑)

帝釋洞堤堰碑

歲在丙寅季冬重立
朴茂春 李思勳 李密實 羅守漢
行縣監通政大夫 李溶 右邊長 金興宇
座首 文漢謙
有司 韓思碩
堤堰都監 金孝宸
色吏 朴致觀
收物兼監役都監 朴弼均 金光弼
左邊長 李文道
監考 具旺大
嘉慶十五年庚午仲夏始役 辛未孟夏訖役
道光十一年辛卯仲春立 立石都監 羅允文

清道金奉珪謹書

(비음)

병인년 늦겨울 중립
박무춘 이사훈 이밀실 나수한
현감 통정대부 이용 우변장 김홍우
좌수 문한겸
유사 한사석
제언도감 김효신
색리 박치근
수물 겸 감역도감 박필균 김광필
좌변장 이문도
감고 구왕대

가경 15년(1810) 경오년 仲夏에 역을 시작하여 신미년 초여름에 마치다.
도광 11년(1831) 신묘년 중춘에 세우다. 입석도감 나운문

청도 김봉규 근서



9. 선교양종(禪敎兩宗) 월조당 대선사(月照堂大禪師) 탑비(塔碑)

禪敎兩宗月照堂大禪師之塔碑

師諱克存 俗姓張氏 車成人也 幼從粹寬定師落髮 長隨香坡
粗味敎儀 後隨靑霄 更參禪旨 老而彌傳來祖焰清虛七代 年臨
稀二卒恙 皈寂三日 周維禪光亘天 靈骨二枚 形具五色 一安長
安 一安雲興寺 世稀有 故樹塔焉

□□ 哲海平順 平學性玉 最屹有侃

(乾隆十九年)甲戌四月日立 都監通政眞札

道光二十四年甲辰二月日 改立 定林



(비음)

선사의 휘는 극존(克存)이오, 속성은 장(張)씨로
거성(車成) 사람이다. 어려서 수관정사(粹寬定師)를
따라 머리를 깎았고, 커서는 향파(香坡)를 따르며
대략 교종의 가르침을 맛보았다. 그 뒤 청소선사(靑
霄禪師)를 따르며 참선의 뜻을 알았으며, 늙어서는
조사 청허(淸虛)의 7대 뒤를 뒤이었다. 나이 72세에
병으로 죽었다. 선사가 입적한 지 3일 뒤에 선광(禪
光)이 주위를 두르며 하늘에까지 닿았고, 사리 2매
가 다섯 가지 색을 갖추고 있었다. 하나는 장안사
(長安寺)에 안치하고, 또 하나는 운흥사(雲興寺)에
안치하였다. 이는 세상에 드문 일이므로 탑을 세워

둔다.

철해 평순, 평학 성옥, 최흘 유간.

건륭19년 갑술년(1754) 4월에 세우다. 도감 통정 진찰

도광24년 갑진년(1844) 2월 다시 세우다. 정립

10. 수각교 중축문(水榭橋重築文)

縣監張公遺豐

水榭橋重築文

徒枉之成 王道一政 在乎邑治 可不勉歟 是橋之下 大川長流
乾隆戊寅 斷石虹之 十四年辛卯 被漲見頽 更難仍築 勒斫民木
間年修亘 山今皆赭 勢不取之 民庶病涉 官塗患阻 於是乎鄉武
作四廳捐助 兩饒人・八面舍施 錢爲八百緡強 徵工貫民 四閱月
臘望訖 匪虹伊平 噫 物待豈興 豈將人就 言其事功 豈不盛幸
肆鐫于斯 以資鑑後 銘曰 不以變濟 惠普德多 一片堪語 千
古不磨

咸豐五年乙卯獻歲

都監 李厚瑞記

座首 辛應浩

助役 金宗濂

色吏 金廷河

將官 朴文會

吏房 崔天柱

石工 金大先

현감 장유풍(張遺豐)³⁵⁵⁾

다리를 만드는 일은 왕도정치의 하나이니 읍을 다스리는데 있어 힘쓰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이 다리 아래로 큰 하천이 길게 뻗었다. 건륭(乾隆)연간 무인년(1758)에 돌을 깎아 얹었으나, 14년뒤 신묘년(1771)에 물이 불어나자 무너지고 말았다. 다시 그대로 축조하기 어려워서 백성에게 억지로 재목을 베어 해를 걸러 수리하도록 하였는데, 이제 산이 모두 벌거숭이가 되어 더 이상 나무를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355) 장유풍 : 무관. 1854년(철종5) 2월에 부임하여 1855년 12월에 강진 우후(虞侯)로 이임됨.

백성들은 강건너기가 고달프고, 관도(官途)마저 막히게 되었다. 이리하여 향청(鄉廳)³⁵⁶ · 무청(武廳)³⁵⁷ · 작청(作廳)³⁵⁸ 등 4청에서 의연금을 내고 두 부자와 여덟 면에서 희사하여 돈이 팔백 폐미가 되었다. 장인을 징발하고 현민(縣民)을 고용하여 넉달 만인 선달 보름에 완공을 보게 되었으니, 홍교(虹橋)가 아니요 평교(平橋)이다.

그렇다! 사물은 때가 되어야 변성하고, 때는 사람을 만나야 이루어진다. 이 일과 공로를 말하자면 어찌 성대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에 이 돌에 새겨 후세의 귀감으로 삼노라.



건너는 곳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은혜 두루 미쳐 공덕도 넉넉하다.
한 조각 비석에 새겨둔 말은
천년토록 길이길이 닳지는 않으리.

(비음)

함풍 5년(1855) 을묘년 정월 초하루
도감 이후서 기
좌수 신응호
조역 김종렴
색리 김정하
장관 박문회
이방 최천주
석공 김대선

356) 향청 : 조선시대 수령을 보좌하고 자문하던 기관. 조선초에 설치되었던 유향소(留鄉所)가 명칭이 바뀐 것이다.

357) 무청 : 각 감영이나 군 단위의 고을에 소속되어 있는 장교들의 근무처.

358) 작청 : 고을의 아전들이 근무하는 곳. 길청(吉廳) 또는 연청(掾廳)이라고도 한다.

11. 척화비(斥和碑)

洋夷侵犯 非戰則和 主和賣國

戒我萬年子孫 丙寅作辛未立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였으니 싸우지 않는 자는 화친하는 것이다.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비음)

만년 뒤의 우리 자손들에게 경계한다.

병인년(1866)에 짓고 신미년(1871)에 세우다.



12. 효자(孝子) 서홍(徐弘) 정려비(旌閭碑)³⁵⁹⁾

孝子徐弘之閭



359) 효자 서홍 : <읍지>에는 효자 서홍인(徐弘仁)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장현 상서면(上西面) 사람으로, 60리나 떨어진 부산까지 방어수역을 다녔는데, 낮에 갔다가 밤이면 돌아와 부모님을 섬기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조정에 알려져 상으로 직첩이 내리고 정려도 내려졌다. (<영남읍지·기장>인물조)

13. 포은 정선생(圃隱鄭先生) 유족비(遺躅碑)

圃隱鄭先生遺躅碑

此先生遺躅也 建院之議久而未遑 一鄉儒紳伐石記事 以俟百世
公議云

開國五百六十四年乙亥六月日立

後學承訓郎章陵參奉海州吳奉根書

(비음)

이 곳은 포은 정몽주³⁶⁰선생의 발길이 닿은 곳이다. 선생을 배향하는 서원을 세우는 의논이 오래되었지만, 아직 이루지는 못했다. 이에 온 고을의 유생들이 돌을 캐어 이 일을 기록해 둠으로서 백세 뒤의 공론을 기다리노라.

개국 564년 을해년 6월에 세우다.

후학 승훈랑 장릉참봉 해주 오봉근이 쓰다.



360) 정몽주 : 1337~1392. 고려조의 문신 학자. 자 달가(達可), 호 포은(圃隱), 본관 연일(延日), 시호 문충(文忠).

14. 남방 소보(南方沼沚) 수보기념비(修沚紀念碑)

南方沼沚修沚紀念碑

盤龍上下坪 土地質雖良沃 水源缺乏 少有旱魃 所謂作物 幾至枯死 此地營農者 未暇展愁眉久矣 至己卯大旱 道會議員鄭寅湊・面長尹□東・有志金周昊諸氏 酬議修沚 鳩財道費補助金二千五百四十五圓・地主負擔金一千六百九十八圓 橫鑿川底巖盤之陸 長九十尺幅七尺 深二十三尺 除去荒砂 取入粘土 引土地下流水 通灌上下金坪 解消小作之苦痛 保證大本之經營 其功也不少矣 吾人爲此如頌

乾川完沚 是誰之賜
道助多大 民功答易
鑿築浹固 潦旱便利
野水長在 惠澤不匱

昭和十五年五月日

南方沼沚沚小作人同建之建 故當時沚守護者
宋寅昌 金石柱 崔八龍 張殷五

반룡리(盤龍里) 상평(上坪)과 하평(下坪)은 토질이 비록 비옥하지만 수원(水源)이 모자라서 조금 가뭄이 들면 작물들이 거의 고사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이 곳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근심스런 눈썹을 펼 여유가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다. 지난 기묘년 큰 가뭄 때에 도회의원 정인주(鄭寅湊)와 면장 윤□동(尹□東)과 유지 김주호(金周昊) 등 제씨들이 보를 보수할 것을 의논하였다. 이에 도비 보조금 2,545엔과 지주부 담금 1,698엔의 자금을 모아, 하천 바닥 암반 가운데까지 가로로 파고드니, 길이가 90자요, 폭이 7자요, 깊이가 23자가 되었다. 거기에 황사(荒砂)를 제거하고, 점토를 주입시킨 다음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상하의 금평(金坪)에다 물을 대니, 비로소 소작농의 고통을 해소시켜 농사의 경영을 보증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공로가 적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칭송하는 바이다.

메마른 하천에 보가 완공되니
이 누가 내려준 일인가?
도내의 보조가 크고 많으니,
농민들 노력으로 보답하기 쉬워라.
깊고 견고하게 쌓아 올리니
장마와 가뭄에도 편리하다네.
들녘의 물들이 길이 있는 한
은혜와 혜택이 끝이 없으리.

소화15년(1940) 5월

(비음)

남방 소보담 소작인들이 같이 세우다. 당시 소보 수호자는 송인창 김석주 최팔룡
장은오이다.



15. 현감 강유후(姜裕後)³⁶¹⁾ 청덕선정만세불망비(淸德善政萬世不忘碑)

縣監姜公裕後淸德善政萬世不忘碑



361) 강유후 : 문관. 1652년(효종3)에 부임하여 1654년 이임됨.

16. 현감 백세전(白世傳)³⁶²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

縣監白公世傳淸德去思碑
化扇春仁 威肅秋刑
萬口爭頌 片石斯銘

孤水使守一己未建閣
崇禎後乙丑六月日立

봄별같은 사랑으로 교화를 선양하고
추상같은 형법에는 엄숙한 위엄있네.
모두들 한입으로 다투어 칭송하니
한조각 비석위에 그 이름 새기노라.

(비음)

고자(孤子) 수사 수일이 기미년에 비각을 건립하다.
송정 기원후 을축년(1685) 6월에 세우다.



362) 백세전 : 무신. 1685년(숙종11) 8월에 부임하여 1688년 2월에 교체됨.

17. 현감(縣監) 최진일(崔震一)³⁶³ 청덕비(淸德碑)

縣監崔公震一淸德碑
康熙五十五年

강희 55년(1716)



363) 최진일 : 무관. 1711년(숙종37) 2월에 부임하여 1713년 2월에 교체됨.

18. 병방(兵房)³⁶⁴ 정태망(鄭泰望) 무휼고정³⁶⁵만세불망비(撫恤庫丁萬世不忘碑)

兵房鄭泰望撫恤庫丁萬世不忘碑
雍正七年己酉正月 日

옹정 7년 기유년(1729) 정월 일



364) 병방 : 군영이나 지방 관아에서 병전관계의 일을 담당했던 부서나 그 사람.

365) 고정 : 창고를 지키며 관리하던 장정을 가리킨다. 고자(庫子)

19. 현감(縣監) 김성뢰(金聖賚)³⁶⁶ 청정홀민비(淸政恤民碑)

縣監金公聖賚淸政恤民碑
己酉五月日

기유년(1729) 5월



366) 김성뢰 : 1727년(영조3) 5월에 부임하여 1729년(영조5) 윤7월에 이임.

20. 현감 김성뢰(金聖賚) 무휼해맹선정비(撫恤海氓善政碑)³⁶⁷⁾

行縣監金公聖賚撫恤海氓善政碑

雍正七年四月日

(비음)

옹정 7년(1729) 4월 일



367) 비석에 송덕문이 있으나, 마모가 심해 해독이 불가하다.

21. 전이조참의(前吏曹參議) 현감 권적(權嫡)³⁶⁸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前吏曹參議行縣監權公嫡淸德善政碑
政淸淮陽 學闡潮州
維石一片 不忘千秋

色吏 許邦翊
都監 幼學 金澄
崇禎後再丁巳三月日

정사에 청렴하긴 회양후(淮陽侯)에 버금가고
학문을 드높인건 조주자사(潮州刺使) 같도다.
한 조각 돌 위에 새겨두는 뜻은
천추토록 길이 잊지 않기 위함일세.



(비음)

색리 허방익

도감 유학 김정

승정 기원후 두번째 정사년(1737) 삼월 일

368) 권적 : 1733년(영조9) 5월에 부임하여 1734년 11월에 다시 이조로 복직되었음. 시랑의 직책에 있었기에 그가 올라가 유람하였던 곳을 시랑대라고 부르게 되었다.

22. 현감(縣監) 송재우(宋載遇)³⁶⁹⁾ 훈민선정 만고불망비(恤民善政萬古不忘碑)

縣監宋公載遇恤民善政萬古不忘

崇禎紀元後三年癸酉十月日立

(비음)

승정 기원후 세번째 계유년(1753) 10월 일 세우다.



369) 송재우 : 무관. 1751년(영조27) 9월에 부임하여 1753년 6월에 사직 교체됨.

23. 현감(縣監) 이기수(李夔秀)³⁷⁰ 거사비(去思碑)

縣監李公夔秀去思碑
薄稅免我 捐廩活我
仁德德我 嚴明畏我

嘉慶二十一年丙子三月

세금을 덜어주어 우리 고충 면해주고
녹미를 털어서 우리를 살게 했네.
어지신 덕으로 우리에게 베풀고
엄격하고 현명하여 경외케 하였네.
(비음)

가경 21년(1816) 병자년 3월



370) 이기수 : 무관. 1813년(순조13) 8월에 부임하여 1815년 9월에 교체됨.

24. 현감(縣監) 이동설(李東高)³⁷¹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縣監李公東高永世不忘碑

恩深祛瘼 愛遺桐鄉

誠勤衛學 治並文翁

順治丁亥 自校中立矣 逮至道光辛卯春 偶值顛破之變 而一鄉
老少咸曰 世遠人亡 因公更豎 議論不一 莫如爲其血煦者 先倡
周旋云 故曾孫思根得重 募緣鴻財 招工監事 是年初秋 奉安於
本址 而前面字樣 依舊書之



깊으신 은혜로 폐막을 없애시니
동향(桐鄉)³⁷²에 자애하심 남기셨네.
성실과 근면으로 학문을 보위하니
그 치적 문옹(文翁)³⁷³과 나란하다네.
(비음)

순치 정해년(1647)에 향교에서 세운 비석이였다. 그러나 도광 신묘년(1831) 봄에 갑자기 엎어져 깨어지는 변고를 당했다. 그래서 온 고을의 노소(老少)들이 모두 말하기를 “세월이 멀어지고 사람은 사라져, 공론(公論)으로 다시 세우고자 해도 의론이 한결같이 못하다. 그러니 후손된 자가 먼저 주창하여 주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공의 증손 사근(思根)과 득중(得中)이 많은 자금을 모연(募緣)하여 석공을 부르고 일을 감독하여 이 해 초가을에 본래 자리에 봉안하게 되었다. 앞면의 글자모양은 옛 비석의 것을 본떠 썼다.

371) 이동설 : 무관. 1706년(숙종32) 7월 부임하여 1709년(숙종35) 2월 교체됨. (《기장읍지·읍선생안》, 이하 기장현감의 부임과 이임에 관한 사항은 같은 자료 참조)

372) 동향 : 본래 중국 안휘성(安徽省) 동성현(桐城縣)의 북쪽에 있는 지명. 한나라 때 주읍(朱邑)이 이 고을의 색부(宰夫)가 되어 송사와 부세를 맡아 잘 다스려 고을사람들이 무덤과 사당을 세워 모셨다고 한다. 이후 형벌을 내리지 않아도 아전들이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따르는 고을을 지칭하는 말로 통용되었다.

373) 문옹 : 한나라 경제(景帝) 말기의 인물. 촉군군수(蜀郡郡守)로 부임하여 그곳의 문학을 진흥시켰던 인물.

25. 관찰사 서희순(徐熹淳)³⁷⁴⁾ 거사비(去思碑)

巡相國徐公熹淳去思碑

道光十五年乙未正月日立

(좌측)

도광 15년 을미년(1835) 정월 일 세우다.



374) 서희순 : 1793~1857. 자 치회(稹晦), 호 우란(友蘭), 본관 달성(達城), 시호 숙헌(肅獻).
1833(순조33) 5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하여 1834년 12월에 이임됨.

26. 진상색(進上色)³⁷⁵⁾ 장성규(張性珪) 구해불망비(救海不忘碑)

進上色張性珪救海不忘碑

咸曰良吏 始觀超伍

自減任況 惠洽九浦

道光丙申九月日 九浦並立

현량한 아전이라 입을 모아 말하니
무리 중에 뛰어난 이 비로소 보았다네.

스스로 맡은 급료를 줄여서

그 은혜 아홉 포구를 흠뻑 적셨네.

(비음)

도광 병신년(1836) 9월 일 아홉 포구에서 함께 세우다.



375) 진상색 : 서울과 지방의 관원이 대전(大殿)과 공비전(恭妃殿)에 선물을 바치는 진상(進上)을 맡아 보았던 아전.

27. 현감(縣監) 함영석(咸英錫)³⁷⁶⁾ 거사비(去思碑)

縣監咸公英錫去思碑

道光十六年丙申八月日立

(비음)

도광 16년(1836) 병신년 8월에 세우다.



376) 함영석 : 무관. 1834년(순조34) 8월에 부임하여 1836년 12월에 교체됨.

28. 현감(縣監) 함영석(咸英錫) 구민선정비(揀民善政碑)

縣監咸侯英錫揀民善政碑

□貢替備 □民蘇醒

千秋不忘 片碣是銘

道光丙申元月日 九浦並立

과중한 공물 줄여 다른걸로 대체하니

고을의 백성들 죽음에서 깨어났네.

천추지난 훗날까지 잊지 않고자

한 조각 비갈에 그 이름 새겨두네.

(비음)

도광 병신년(1836) 정월 아홉 포구에서 함께 세우다.



29. 관찰사 조병현(趙秉鉉)³⁷⁷⁾ 거사비(去思碑)

巡相國趙公秉鉉去思□

道光十六年丙申八月□□

(비음)

도광 16년 병신년(1836) 8월 일 세우다.



377) 조병현 : 1791~1849. 자 경길(景吉), 호 성재(成齋), 본관 풍양(豐壤). <성재집(成齋集)>이 있다. 1834년(순조34) 12월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1836년(헌종2) 10월에 이임함.

30. 관찰사 홍재철(洪在喆)³⁷⁸⁾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洪公在喆永世不□□
軫彼邊需 掄此邑瘼
三五除納 一百補縮

道光二十一年十月日

변방의 물자부족 공황히 여기시고
이 고을을 폐막에서 구해주셨네.
삼분 오분 납세를 덜어주시고
모자란 것 일백을 채워주셨네.
(비음)

도광 21년(1842) 10월 일



378) 홍재철 : 자 치경(稹敬), 호 취구(醉裘), 본관 남양(南陽). 1840년(헌종6) 9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하여 1842년 4월에 이임함.

31. 수사(水使) 이기춘(李基春)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水相國李公基春永世不忘□

同治二年五月日

(비음)

동치 2년(1863) 5월 일



32. 관찰사 오취선(吳取善)³⁷⁹⁾ 이배유혜비(移配遺惠碑)

巡相國吳公取善移配遺惠碑



379) 오취선 : 1804~ ? , 1867년(고종4) 2월에 경상도 관찰사에 부임했으나, 공금낭비의 탄핵으로 물러났다.

33. 현감(縣監) 오윤영(吳胤泳)³⁸⁰ 생사단(生祀壇)

行縣監吳公胤泳生祀壇

省斂保邑 移配便民

一壇斯岌 千秋永禋

同治戊辰

生癸卯十一月十九日

세금을 줄여서 고을을 보호하니
배소(配所)를 옮긴 것이 백성을 편케 했네.
조출한 사단(祀壇)이나 이처럼 높으니
천추토록 영원히 기리오리다.

동치 무진년(1868)

(비음)

계묘년(1843) 11월 19일 생



380) 오윤영 : 1843~ ? , 무관. 1868년(고종5) 정월에 부임하여 1869년 2월에 하동부사와 교체되어감.

34. 현감(縣監) 정숙(鄭塾)³⁸¹ 거사비(去思碑)

縣監鄭侯塾去思碑

刪歛德曼 捐況恩宣

糾殖射券 一珉三鐫

同治九年庚午六月日

세금을 줄여주니 그 덕택 넘쳐나고
관황(官況)을 털어서 그 은혜 펼쳤네.
사정(射亭)의 기강을 바로잡아 세우니
한 조각 비석에 새길 공로 많도다.

동치 9년(1870) 경오년 6월 일



381) 정숙 : 무관. 1869년(고종6) 4월에 부임하여 1871년 8월에 교체됨.

35. 관찰사 김세호(金世鎬)³⁸²⁾ 추사불망비(追思不忘碑)

巡相國金公世鎬追思不忘碑

同治十三年四月日立

監役 宋仁坤

色吏 李完英

(비음)

동치 13년(1874) 4월 일 세움.

감역 이인곤

색리 이완영



382) 김세호 : 1806~1884. 자 치현(稚賢), 호 수재(修齋), 본관 청풍(淸風). 1869년(고종6)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됨.

36. 현감(縣監) 임백은(任百殷)³⁸³⁾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行縣監任公百殷淸德善政碑

同治十三年四月日立

座首 宋仁坤

吏房 金學默

監役 李完英

(비음)

동치 13년(1874) 4월에 세우다.

좌수 송인곤

이방 김학묵

감역 이완영



383) 임백은 : 1872년(고종9) 4월에 부임하여 1874년 8월에 교체됨.

37. 현감(縣監) 이노우(李魯宇)³⁸⁴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縣監李公魯宇永世不忘碑

同治十四年乙亥二月日

(비음)

동치 14년 을해년(1875) 2월



384) 이노우 : 1874년(고종11) 8월에 부임하여 1877년 정월에 교체됨.

38. 관찰사 박제인(朴齊寅)³⁸⁵⁾ 유애불망비(遺愛不忘碑)

巡相國朴公齊寅遺愛不忘碑

光緒三年十二月立

座首 鄭基龍

吏房 李完□

監役 朴善長

(비음)

광서 3년(1877) 12월 일 세움.

좌수 정기룡

이방 이완□

감역 박선장



385) 박제인 : 1818~1884. 1875년(고종12)에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됨.

39. 관찰사 이근필(李根弼)³⁸⁶⁾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巡相國李公根弼永世不忘碑
廉明痼癘 威制奸猾
如逢醫藥 辛苦民情
己卯十二月 日 八面立

청렴하심으로 어려운 폐막을 밝혀주시고
위엄으로 간교한 무리 제압하셨네.
마치 명의에 명약을 만난 듯
괴로운 민정(民情)을 고쳐주셨네.

기묘년(1879) 12월 여덟 면에서 세우다.

386) 이근필 : 1816~1882. 자 여해(汝諧), 본관 전의(全義), 시호 효문(孝文)

40. 경저주부(京邸主簿)³⁸⁷ 최동진(崔東鎭) 불망비(不忘碑)

京邸主簿崔東鎭不忘碑
侍蕩萬餘 善積一縣
古薛今機 遺名焚券

光緒六年庚辰九月日立

시탕금(侍湯金) 일만 여냥을
한 고을에 적선하셨네.
옛날 설(薛)³⁸⁸ 땅이 지금 기장에
채권(債券)을 불사른 그 명성 남겼네.
(비음)
광서 6년 병진년(1880) 9월 일 세우다.



387) 경저주부 : 경저(京邸)는 지방관청과 중앙의 업무 연락이나 지방 세공(稅貢)의 납부와 입역(立役) 등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그 곳의 속관인 주부(主簿)는 종 6품의 낭관 벼슬이다.

388) 설 : 중국 주나라 때 황제(黃帝)의 후예인 해중(奚仲)에게 책봉된 제후국.

41. 현감(縣監) 강유후(姜裕厚) 청덕선정(淸德善政) 만고불망비(萬古不忘碑)³⁸⁹⁾

行縣監姜公裕厚淸德善政萬古不忘碑

幸蒞茲土 祛瘼此境
鐫石永壽 遺愛追詠

光緒七年辛巳七月日
甲午十二月日



다행히도 이 땅으로 부임하시어
이 곳의 폐막을 없애주셨네.
비석에 새기어 오래토록 전하여
남기신 사랑을 기념하며 노래하리.

광서 7년 신사년(1881) 7월
갑오년 12월

389) '15. 현감 강유후 청덕선정만세불망비'가 있다. 참조 바람.

42. 현감(縣監) 홍찬영(洪贊永)³⁹⁰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縣監洪公贊永世不忘碑
我使仁政 恩洽九浦
一片磨石 千秋是銘

光緒八年壬午九月日 谷浦立

우리 사또 베푸신 어진 정치로
그 은혜 구포까지 두루 미쳤네.
다듬은 한 조각 돌비석 위에
천추토록 전하고자 그 이름 새겨두네.
(비음)
광서 8년(1882) 임오년 9월 일 곡포에 세우다.



390) 홍찬영 : 1880년(고종17) 6월에 부임하여 1882년 4월에 좌병영 우후(虞侯)로 이임됨.

43. 현감(縣監) 홍찬영(洪贊永)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縣監洪公贊永世不忘碑

運以良籌 整此欹器

遺愛千秋 後人猶指

光緒八年四月日立

座首 鄭光□

吏房 朴正□

監役 李完□

현명한 계획으로 고을을 운영하여
이 고을 잘못된 예기(禮器)를 정비했네.
자애로운 그 사랑 천추에 남으리니
후인들마저도 알아보리라.



(비음)

광서 8년(1882) 4월 일 세우다.

좌수 정광□

이방 박정□

감역 이완□

44. 진상색(進上色) 권의연(權義淵) 구해불망비(救海不忘碑)

進上色權義淵救海不忘碑
千金厚恩 何以報德
九浦咸眼 省此銘石

光緒八年壬午九月日 谷浦立碑

천금같이 후덕한 은혜
무엇으로 갚을런가
아홉 포구 모두들 눈이라도 모두어
그 은덕 새긴 비석 정성껏 살피세.
(비음)

광서 8년(1882) 임오년 9월 일 곡포에 비석을 세우다.



45. 어사 이도재(李道宰)³⁹¹ 생사단(生祀壇)

繡史李公道宰生祀壇
來何暮兮 天必佑之
百弊咸正 千祿永祀

光緒癸未春立

우리 고을에 왜 이리도 늦게 오셨나
그래도 하늘은 기필고 도우시네.
수많은 폐단들을 모두 바로 잡으시니
천추에 영원토록 기리오리다.

(비음)

광서 계미년(1883) 봄에 세우다.



391) 이도재 : 1848~1909. 자 성일(聖一), 호 심재(心齋), 본관 연안(延安), 시호 문정(文貞).
1883년(고종20)에 경상도 암행어사로 파견되었다.

46. 현감 이규선(李圭選)³⁹²⁾ 청덕불망비(淸德不忘碑)

行縣監李公圭選淸德不忘碑

捐銅菑罽 賜牛恤耕

片石特立 永壽令聲

光緒十三年丁亥九月日南面立

面首尹大奎 主事金成玉 □□□□

都監 盧光鼎

面吏 金完□

房□ 成大一

가진 재산 털어서 부족한 곳 매워주고

황소를 내려주어 밭갈이 구휼했네.

한조각 비석을 특별히 세워서

아름다운 명성을 영원토록 전하리라.



(비음)

광서 13년 정해년(1887) 9월 일 남면에서 세우다.

면수 윤대규 주사 김성옥 □□□□

도감 노광정

면리 김완□

방□ 성대일

392) 이규선 : 1886년(고종23) 9월에 부임하여 1887년 9월에 충청도 병영 우후(虞侯)로 이임됨.

47. 현감(縣監) 오영석(吳榮錫)³⁹³ 애민구해불망비(愛民拯海不忘碑)

行縣監吳公榮錫愛民拯海不忘碑

牟縣雉馴 潮州鰐退

一片貞珉 千古不晦

癸巳七月日立

監役 金□才 黃大申

頭民 金□在

모현(牟縣) 땅 꿩들이 순하게 길들 듯
조주(潮州)지방 악어들이 순순이 물러나 듯
한 조각 곧게 뻗은 옥 같은 돌비석
오랜 세월 지나도 흐려지지 않으리



(비음)

계사년 7월 일 세우다.

감역 김□재 황대신

두민 김□재

393) 오영석 : 1892년(고종29) 10월에 부임하여 1894년 9월이 이임함.

48. 현감 오영석(吳榮錫) 생사단(生祀壇)

行縣監吳公榮錫生□□

捐廩修廨 省斂極民

矯革諸□ 闔境咸□

光緒十九年癸巳秋

녹미(祿米)를 털어서 관청을 보수하고,
세금을 줄여서 백성에게 지극했네.
여러 가지 폐단을 바로잡아 고치시니
온 경내 사람들 모두 다
(비음)
광서 19년 계사년(1893) 가을



49. 현감(縣監) 손경현(孫庚鉉)³⁹⁴ 청덕선정비(淸德善政碑)

行縣監孫公庚鉉淸德善政碑

邑弊成痼 良手難醫
自公一視 吏民便宜
淸如秋水 藹似春陽
恩山德海 永世不忘

乙未五月日立

座首 金滌鍊

吏房 李秘信

色吏 金世洪



고을이 피폐하여 고질이 되어버려
좋은 수단으로도 고치기 어렵더니
손공께서 부임하여 훑어보신 그 뒤로
아전과 현민들 모두 편해졌다네.
청렴하신 마음은 가을날 강물 같고
온화하신 성품은 봄철 햇볕 같다네.
산과 같은 은혜와 바다 같은 덕택을
길이길이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

(비음)

을미년 5월 일 세우다.

좌수 김형련

이방 이필신

색리 김세홍

394) 손경현 : 1894년(고종31) 9월에 부임하여 1895년 11월에 함천군수로 이임됨. (<기장군 읍지>)

50. 관찰사 지식영(池錫永)³⁹⁵ 선정불망비(善政不忘碑)

觀察使池公錫永善政不忘□

欽器復正 弊機更張
表率十郡 興學一方
惠及于堤 德洽茲鄉
二天咸戴 片石難忘

丙申九月日

鄉長 鄭基龍

都監 鄭光震

監官 朴章夏



기울었던 예기(禮器)를 고쳐 바로 잡으시니
피폐했던 기장 고을 다시 새로 펼쳐졌네.
온 군현에 표상되어 이끌어주시고
경상도 도내에 학문을 일으켰네.
그 은혜 독방공사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덕택이 우리 고을 두루 적셨네.
이천(二天)³⁹⁶이신 관찰사를 모두들 공경하여
편석에 새겨두어 잊지 않고 기억하리.

(비음)

병신년 9월 일

향장 정기룡

도감 정광진

감관 박장하

395) 지식영 : 1855~1935. 자 공윤(公胤), 호 송촌(松村), 본관 충주(忠州). 저술로는 <우두신설(牛痘新說)>과 <자전석요(字典釋要)>가 있다.

396) 이천 : 관찰사의 별칭.

51. 관찰사(觀察使) 지식영(池錫永) 선정비(善政碑)

觀察使池公錫永善政碑

52. 군수 이경우(李敬佑)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郡守李公敬佑永世不忘碑

振刷蠲斂 一境晏兮

化臻興塾 澤及完堤

捐金貸捷 用刀割鷄

立德是石 山斗與齊

丙申九月日

鄉長 鄭基龍

都監 鄭光震

色吏 崔翊和



그릇된 일 혁신하여 세금을 줄이니
온 고을 경내가 편안히 지냈다네.
교화가 이루어져 학교를 일으키고
은택이 두루 미쳐 제방을 완성했네.
자금을 출연하여 부채를 없애니
크나큰 재능으로 작은 고을 다스렸네.
이루신 은덕을 이 돌에 새겨두니
태산과 북두처럼 높고도 밝다네.

(비음)

병신년(1896) 9월 일

향장 정기룡

도감 정광진

색리 최익화

53. 군수(郡守) 이해륜(李海崙)³⁹⁷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郡守李公海崙永世不忘碑

補修禮器 扶植士綱

清肅溫裕 遺愛桐鄉

庚子五月日

都訓長 金秉奎

都監 文象魯

예기(禮器)³⁹⁸를 고쳐 장만하니
선비들 기강을 받쳐 세우셨네.
맑고 엄숙하며 온화하고 너그러워
동향(桐鄉)에 자애하심 남기셨네.



(비음)

경자년 5월 일

도훈장 김병규

도감 문상로

397) 이해륜 : 1897년(광무1) 6월에 부임해 옴.

398) 예기 : 변두보궤(邊豆簠簋) 등과 같은 제향에 사용되는 기물.

54. 군수 이해륜(李海崙)³⁹⁹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

行郡守李公海崙淸德去思碑

福星垂衛 闔境煦濡

捐廩修廡 課講興儒

政淸彈琴 化洽還珠

萬口播頌 何獨龜趺

辛丑四月日

鄉長 鄭基大

首書記 金世洪

色吏 金璋洪



복스런 별하나 변방에 떨어져
온 지경이 따듯한 은혜로 적서졌네.
녹미(祿米)를 털어서 관청을 수리하고,
강학(講學)을 부과하여 유업(儒業)을 일으켰네.
탄금(彈琴)⁴⁰⁰의 정사(政事)가 청렴하고,
환주(還珠)의 교화가 두루 이르렀네.
모두가 한 입으로 드높여 칭송하니
어떻게 귀부(龜趺) 위의 비석만 그러하리.
(비음)

신축년(1901) 4월 일

향장 정기대

수서기 김세홍

색리 김장홍

399) 이해륜 : 1897년(광무1) 6월에 부임함.

400) 탄금(彈琴): 공자의 제자 복자천(宓子賤)이 단보(單父)의 수령으로 부임하여 당에서 내려오지 않고 거문고를 울리면서 고을을 잘 다스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55. 군수(郡守) 엄신영(嚴信永) 유애불망비(遺愛不忘碑)

行郡守嚴公信永遺愛不忘碑

瞻助享需 德重復乳

獎興士紀 恩洽還珠

光武八年十二月日

都訓長 鄭基大

鄉長 辛永壽

都監 金秉胄



향사(享祀)의 제수마련 넉넉히 도우시니
복유(復乳)⁴⁰¹처럼 그 은덕 두터웠다네.
선비들의 기강을 장려하여 일으키니
환주(還珠)⁴⁰²의 은혜 두루 흠족했다네.
(비음)

광무 8년(1904) 12월 일

도훈장 정기대

향장 신영수

도감 김병주

401) 복유(復乳) : 당(唐)나라 문인 유종원(柳宗元)의 <연주군복유혈기(連州郡復乳穴記)>에 나오는 고사. 석종유(石鍾乳)는 음식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연주(連州)에서 나는 것을 최상품으로 치는데, 가렴주구를 일삼는 사람이 수령을 하는 동안 나오지 않다가, 선정을 베푸는 사람이 와서 다스리자 다시 나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402) 환주 : 동한(東漢) 때 맹상(孟嘗)이 합포태수(合浦太守)가 되었는데, 전임 태수가 탐욕이 심하여 그 곳의 주생산물인 진주가 다른 고을에서 거래가 되어, 고을 사람들의 생활고가 극심하였다. 이에 맹상이 폐단을 개혁하고 청렴으로 정사를 다스리자 진주가 다시 그 곳으로 모여들고 백성들도 편히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환주(還珠)’는 관리가 청렴하고 정치가 훌륭한 것을 비유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후한서(後漢書)·순리전(循吏傳)>)

56. 군수 엄신영(嚴信永) 청덕거사비(淸德去思碑)

行郡守嚴公信永淸德去思碑

政勤滌逋 恩廣捐廩

萬口播頌 一境安寢

光武八年甲辰十月日

鄉長 金瑤鎬

都監 金秉胄

吏房 崔啓殷

色吏 金秉洪



정사(政事)에 부지런하여 포함(逋欠)을 소탕하고
은혜를 두루 펼쳐 녹미(祿米)마저 내놓았네.

모두들 한입으로 칭송하여 노래하고
온 고을 경내가 편안히 잠이 드네.

(비음)

광무 8년 갑진년(1904) 10월 일

향장 김우호

도감 김병주

이방 최계은

색리 김병홍

57. 좌우사 반수(左右社班首)⁴⁰³ 배상기(裵常起) 홀상영세불망비(恤商永世不忘) /
전주사(前主事) 접장(接長) 김상명(金相明) 출의영세불망비(出義永世不忘碑)

左右社班首裵常起恤商永世不忘
捐金數千 惠我行賈
片石嵬然 咸曰某甫

時班首 金應寬
接長 金世洪
監役 明奎員 崔學柱 金大洪

前主事接長金相明出義永世不忘
五百其緡 亦云不鮮
惟我賈民 豈忘少選

公員 朴璋鎭 朴泰邠 李起湊 張盛祚
甲辰四月日立

수천냥의 재산을 털어서
우리들 행상을 도와주셨네.
우뚝한 한 조각 비석도
한 입으로 반수어른 칭송한다네.

시반수 김응관
접장 김세홍
감역 명규원 최학주 김대홍

403) 좌우사 : 조선말기의 보부상 조직. 부상(負商)과 보상(裸商)은 각 별개의 행상조합으로 성장하였으나, 1883년 해상공국이 설치되면서 통합되었고, 1885년 상리국(商理局)으로 개칭되면서 부상을 좌단(左團)·좌사(左社)라 하였고, 보상을 우단(右團)·우사(右社)라고 하였다.

반수 : 보부상 조직의 우두머리. 그 아래에 부반수·주사·접장·감역·공원 등이 있다.

(비음)

오백 폐미의 돈이란

결코 적지 않나니

바라건대 우리 상인들

어찌 잠시라도 잊을소냐!

공원 박장진 박태분 이기진 장성조

갑진년(1904) 4월 일 세우다.



58. 군수 홍재규(洪在圭) 영세불망비(永世不忘碑)

行郡守洪公在圭永世不忘□

邑弊春歎 民儲罄空

捐廩谷布 立石頌公

光武十年丙午八月日立

都監 辛百容

고을은 피폐하고 어려운 춘궁기라,
백성들 쌀독은 텅비어 허전터니,
녹미마저 내어놓아 골짜마다 배푸시니
비석을 세워서 공의 업적 칭송하네.

(비음)

광무 10년 병오년(1906) 8월에 세우다.

도감 신백용



59. 군수 구연호(具然浩) 영세불망비

行郡守具然浩永世不忘碑
勸學勵俗 溫舊達新
惟德惟一 去若茲辰

隆熙四年二月立

監督 金斗昌

학문을 권장하고 풍속을 격려하며
옛 정신 되살려 새 풍토 이루었네.
오로지 한결같이 덕치에 전념터니
오늘 아침에 가신 마냥 기억이 생생하네.

(비음)

융희 4년(1910) 2월에 세우다.

감독 김두창



60. 통정대부(通政大夫)⁴⁰⁴ 배상기(裴常起) 창계홀리비(創契恤里碑)

通政大夫裴公常起創契恤里碑

坊境頌績 社旅豎功

養逆無憾 我深賴公

大正貳年癸丑六月貳拾日

機張郡中北面月內洞西里契立碑

有司 南順宗 朱仁權 李載成 韓桓 朴潤浩 金守萬



마을에는 그의 공적 칭송하고

결사의 사람들 공을 치켜 세우네.

여행객 숙박에 유감 없으니

우리가 공의 힘을 깊이 입었던 탓이라네.

(비음)

대정 2년(1913) 계축년 6월 20일

기장군 중북면 월내동 서리계에서 세우다.

유사 남순중 주인권 이재성 한환 박윤희 김수만

404) 통정대부 : 조선시대 문관 정3품 당상관의 품계

61. 통정대부(通政大夫) 배상기(裵常起) 창숙장학비(創塾獎學碑)

通政大夫裵公常起創塾獎學碑

疎財捐義 惠及我蒙

春秋絃誦 里巷西東

丁巳五月二十五日立

監董 秋斗高 金埰洙 朱在昊 張守珠

재화를 트이고 의연금 내놓으니
은덕이 우리 학생에게 이르렀도다.
춘추로 매번 책 읽고 외는 소리
골목마다 여기저기 들려온다네.

(비음)

정사년(1917) 5월 25일 세우다.

감동 추두고 김채수 주재호 장수주



62. 동래군(東萊郡) 장안면장(長安面長) 정인주(鄭寅湊) 근무기념비
(勤務紀念碑)

東萊郡長安面長鄭公寅湊勤務紀念碑

剛寬莅務 面規維新

創校獎學 護林利民

奮身防疫 捐俸助貧

匪我私議 頌溢境隣

壬戌秋七月旣望日民立



관대하며 굳건하게 책무를 다하시고
장안면 규범도 새롭게 혁신했네.
학교를 세워서 학문을 장려하고
임야를 보호하여 면민에게 유익했네.
몸소 분발하여 방역사업 지휘하고
봉급을 덜어서 가난한 이 도왔네.
우리들 사사로운 의논이 아니라도
칭송하는 소리가 이웃마을 넘쳐가네.

(비음)

임술년(1922) 가을 7월 기망일(16일) 마을
백성들이 세우다.

63. 금융조합 부이사 강신갑(姜信甲) 기념비(紀念碑)

金組副理事姜信甲紀念碑

冰玉清操 管理金融

忘勞視務 節費矯風

鷄豚蕃息 禾麥稔豐

矧吾部落 利澤偏蒙

昭和十二年十二月日

機張金融組合佐川支所

指導部落佐洞振興會立



빙옥같이 맑은 지조로
금융조합 관리하여
수고로움 잊은 채 근무하면서
경비를 절약하여 풍토를 바꾸었네.
닭·돼지는 나날이 번식해 가고
벼·보리 농사는 풍성히 익었네.
게다가 우리 부락에서는
그의 혜택 두루 입었네.

(비음)

소화 12년(1937) 12월 일
기장금융조합 좌천지소
지도부락 좌동진흥회 세우다.

64. 박규희(朴圭熙) 자선기념비(慈善紀念碑)

朴圭熙慈善紀念碑
獎學振興 出人風義
租稅減輕 耕作便利
仰哺而依 飽德而醉
伐石銘惠 匪我私議

昭和十五年十二月日小作人立



학문을 권장하여 진흥시키니
뛰어난 풍모와 의리였다네.
조세를 줄여서 가볍게 하니
농사짓기 한결 편리하였네.
우리러 받아먹고 의지하자니
덕택에 배부르고 흠뻑 취하네.
비석돌 캐어다 그 은덕 새긴 뜻은
사사로운 우리들 의논이 아니었다네.
(비음)
소화 15년(1940) 12월 소작인이 세우다.

65. 현감 함안(咸安) 조징당(趙徵唐)⁴⁰⁵ 불망비

行縣監咸安趙公徵唐不忘碑



405) 조징당 : 무신. 본관 함안. 1642년(인조20) 8월에 부임하여 1644년 9월에 파직됨.

66. 가선대부(嘉善大夫)⁴⁰⁶ 전내장원경(前內藏院卿)⁴⁰⁷ 오기영(吳璣泳)
불망비(不忘碑)

嘉善大夫前內藏院卿吳公璣泳不忘碑
積善是慶 享福亶厚
捐金救艱 鐫石垂久

乙巳三月日吏廳立

선업(善業)을 쌓으시니 이처럼 경사롭고
복락을 누림이 절로 두텁구나.
재산을 털어 어려운 이 구하시니
그 이름 돌에 새겨 길이 전하리.
(비음)
을사년 3월 일 이청(吏廳)에서 세우다.



406) 가선대부 : 조선시대의 문관으로 중2품 하(下)의 품계.

407) 내장원 : 왕실의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는 관부.

67. 처사(處士) 월성(月城) 최영수(崔榮壽) 공적비(功績碑)

處士月城崔公諱榮壽功績碑

轍彼紫陽 歸我里中
未見運動 蒙利無窮
伊誰之力 都在此公
銘於片石 不忘其功

壬寅正月十五日
內德部落一同建



높고 높으신 저 자양(紫陽)⁴⁰⁸ 선생이
우리 고을 가운데로 오신 것인가?
어떤 활동도 볼 수는 없었지만
이득을 입은 것이 무궁하여라
그것이 누구의 힘이었던가?
모두다 최공에게 있었던 것이라.
한 조각 비석 위에 새기는 뜻은
그 공덕 두고두고 잊지 않기 위함일세.
(비음)

임인년 정월 15일
내덕부락 일동 건립

408) 자양 : 중국 송나라 주희(朱熹)의 별호.

기타 금석자료 목록

< 강서구 >

1. 대저수리조합(大渚水利組合) 순직직원(殉職職員) 위령비(慰靈碑)
2. 사무소(事務所) 복구건축기념비(復舊建築記念碑)
3. 면장(面長) 문순민(文順敏) 공적비(功績碑)
4. 명월산(明月山) 흥국사(興國寺) 사적비(事蹟碑)
5. 항일무명용사(抗日無名勇士) 위령비(慰靈碑)
6. 육이오(六二五) 전몰장병(戰歿將兵) 충혼비(忠魂碑)
7. 국군 용사 충혼탑 비
8. 금단곶(金丹串) 보성지(堡城址)
9. 서해어룡동(誓海魚龍動) 맹산초목지(盟山草木知)
10. 독립유공자 김근도상
11. 가덕 이순신장군 전적비
12. 국군23용사충혼비
13. 국군(國軍) 22용사(二十二勇士) 묘(墓)
14. 남강(南岡) 조정환 선생(曹正煥先生) 상(像)
15. 이수강선생상
16. 입바위
17. 칠점산
18. 엄마의 품
19. 오막살이
20. 그네
21. 고향길
22. 낙동강
23. 완화삼과 나그네
24. 충효각(忠孝閣)
25. 침천재(枕泉齋)

< 금 정 구 >

1. 금정산(金井山) 범어사(梵魚寺) 담해당 대선사(湛海堂大禪師) 비(碑)
2. 어산계(魚山契) 보사유공비(補寺有功碑)
3. 사리탑(舍利塔) 시주방명(施主芳名)
4. 사리탑(舍利塔) 시주방명(施主芳名)
5.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 범어사(梵魚寺)
6. 금정산(金井山) 범어사선찰(梵魚寺禪刹) 개창주(開創主) 성월당(惺月堂) 일전대사(一全大師) 비(碑)
7. 김태원(金台原) 김상품행(金上品行) 공덕비(功德碑)
8. 사리탑(舍利塔) 시주방명(施主芳名)
9. 남천(南泉) 한규 대선사(翰圭大禪師) 비(碑)
11. 조계종사(曹溪宗師) 김하당(金河堂) 광덕 대선사(光德大禪師) 비
12. 여산당(黎山堂) 원오 대선사(爰梧大禪師) 비(碑)
13. 용성 대선사(龍城大禪師) 비명(碑銘)
14. 정희조(鄭禧朝) 박덕운화(朴德雲華) 공덕비(功德碑)
15. 세존사리탑(世尊舍利塔) 이건공덕비(移建功德碑)
16. 사리탑(舍利塔) 이건(移建) 시주방명(施主芳名)
17. 三一運動有功碑
18. 부산일신여학교 만세운동기념비
- 19 4.19혁명 신정용(辛政隆) 열사(烈士) 추모비(追慕碑)
20. 고 신정용 추모비
21. 삼일운동(三一運動) 유공비(有功碑)

< 동 구 >

1. 영가대기념비(永嘉臺紀念碑)
2. 소정(蘇庭) 최천택(崔天澤) 선생(先生) 비(碑)
3. 증좌승지(贈左承旨) 이정헌(李庭憲) 비(碑)

4. 전망제공비(戰亡諸公碑)
5. 열녀 애향비(烈女愛香碑)
6. 충복 용월비(忠僕龍月碑)
7. 부산진(釜山鎭) 매축기념비(埋築記念碑)
8. 부산진(釜山鎭) 지역(地域) 매축지(埋築地)

< 동래구 >

1. 사진작가 독보 허중배선생 기념비
2. 최계락시비
3. 동래부사(東萊府使) 송촌(松村) 지식영선생(池錫永先生) 공덕비(功德碑)
4. 고 정산 김병규 선생 추모비
5. 법륜사사적비(法輪寺事蹟碑)
6. 삼존석불조성기념비(三尊石佛造成紀念碑)
7. 금정사중창불사공덕비(金井寺重創佛事功德碑)
8. 단청불사공덕비
9. 방생지 공덕비문
10. 이영도 시비(詩碑)
11. 이주홍문학비
12. 일제만행희생자위령비(日帝蠻行犧牲者慰靈碑)
13. 자연보호현장

< 부산진구 >

1. 6·25참전 용사 기념비
2. 하마비(下馬碑)
3. 요산 김정한 문학비
4. 한국의 명수
5. 스웨덴 참전 기념비

< 북 구 >

1. 설립기성회장(設立期成會長) 오명구씨(吳命九氏) 기념비(記念碑)
2. 이춘길교사순직비
3. 고 권상덕교장선생 공덕비
4. 대천(大川)마을 연혁비(沿革碑)
5. 구포(龜浦)장터 삼일운동기념비(三・一運動紀念碑)
6. 수정(水亭) (水亭마을 내력비 및 연혁비)

< 서 구 >

1. 충무공 이순신 영모비(忠武公李舜臣永慕碑)
2. 대신동 전차종점 표지석
3. 별들을(시비)
4. 사모곡(시비)
5. 해변(시비)
6. 헌화각(시비)
7. 훈민가(시비)
8. 흑보석(시비)
9. 기다리는 마음(시비)
10. 아침(시비)

< 수영구 >

1. 정과정(鄭瓜亭)
2. 김달망(金達亡) (의용 25인의 비)
3. 김덕봉(金德奉) (의용 25인의 비)
4. 김옥계(金玉戒) (의용 25인의 비)

5. 김종수(金從守) (의용 25인의 비)
6. 김진옥(金進玉) (의용 25인의 비)
7. 김팽양(金彭良) (의용 25인의 비)
8. 김허농(金許弄) (의용 25인의 비)
9. 박임(朴林) (의용 25인의 비)
10. 박응복(朴應福) (의용 25인의 비)
11. 박지수(朴枝樹) (의용 25인의 비)
12. 신복(辛福) (의용 25인의 비)
13. 심남(沈男) (의용 25인의 비)
14. 이수(李壽) (의용 25인의 비)
15. 이실정(李實貞) (의용 25인의 비)
16. 이은춘(李銀春) (의용 25인의 비)
17. 이희복(李希福) (의용 25인의 비)
18. 정수원(鄭壽元) (의용 25인의 비)
19. 정인강(鄭仁疆) (의용 25인의 비)
20. 주난금(朱難金) (의용 25인의 비)
21. 최막내(崔莫乃) (의용 25인의 비)
22. 최곳양(崔耑良) (의용 25인의 비)
23. 최송엽(崔松葉) (의용 25인의 비)
24. 최수만(崔守萬) (의용 25인의 비)
25. 최한손(崔汗孫) (의용 25인의 비)
26. 최한연(崔汗連) (의용 25인의 비)
68. 수영(水營) 고당(古堂)의 유래(由來)
35. 경상좌도수군(慶尙左道水軍) 절도사영(節度使營) 선소유허비(船所遺虛碑)
32. 백산 첨이대(白山岾夷臺)
33. 백산 옥련선원사적비(白山玉蓮禪院事跡碑)
34. 임진왜란 좌수영 무주망령천도비(壬辰倭亂左水營無主亡靈遷度碑)

< 연제구 >

1. 무불성관대선사적조비(無佛性觀大禪師寂照碑)
2. 금용암사적비(金蓉庵事蹟碑)

< 중 구 >

1. 자갈치일대 매축지 - 남향매축지
2. 새마당매축지
3. 대한해협 전승비
4. 촛불(시비)
5. 에피소드(시비)
6. 세월(시비)
7. 잊을래도(시비)
8. 봄이 오면(시비)
9. 나는 꿈이로소이다(시비)
10. 원(시비)
11. 외갓길(시비)
12. 그리움(시비)

< 기장군 >

1. 삼일운동의거비(三一運動義舉碑)
2. 도산(桃山) 동래(東萊) 정인정 선생(鄭麟定先生) 사적비(事蹟碑)
3.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 통정대부(通政大夫) 사복시정(司僕寺正) 노봉 선생(老峯先生) 동래(東萊) 정언룡(鄭彦龍) 사적비(事蹟碑)
4. 산림계장(山林契長) 장일호(張日鎬) 공적비(功績碑)
5. 독립투사(獨立鬪士) 고 박영준 의사(故朴英俊義士) 기념비(紀念碑)

6. 대한민국(大韓民國) 호국무공수훈자(護國武功受勳者) 전공비(戰功碑)
7. 김기호 면장(金基浩面長) 순직추모비(殉職追慕碑)
8. 김의동 선생(金義東先生) 송덕추념비(頌德追念碑)
9. 손해중 선생(孫海鍾先生) 송덕추념비(頌德追念碑)
10. 동래군수(東萊郡守) 한기찬(韓基贊) 공적비(功績碑)
11. 김복동(金福東) 현공비(顯功碑)
12. 양산군(梁山郡) 번영기원(繁榮祈願) 일봉시비(一鵬詩碑)
13. 공덕비(功德碑)
14. 가산(珈山) 동래(東萊) 정인준(鄭寅準) 기공비(紀功碑)
15. 민초(民草) 정석균 선생(鄭錫均先生) 공덕비(功德碑)

탁본 사진

(탁본자료 생략)

색 인

(색인자료 생략)

책임연구원 ·

강대민(경성대학교 인문학부 사학전공 교수 / 총괄)

공동연구원 ·

정경주(경성대학교 인문학부 한문학전공 교수 / 교열 및 해제)

김철범(경성대학교 인문학부 한문학전공 교수 / 번역)

박준원(경성대학교 인문학부 한문학전공 교수 / 번역)

나철희(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상임연구원 / 자료정리)

연구보조원 ·

주진석(부산진여자고등학교 교사)

정수미(경성대학교 강사)

조창규(경성대학교 강사)

권승주(경성대학교 강사)

김성룡(경성대학교 강사)

부산뿌리찾기2

부산금석문

인 쇄 2002. 12. 15

발 행 2002. 12. 30

발행처 부산광역시 / 경성대학교 부설 한국학연구소

인쇄처 세한종합인쇄사(Tel. 051-557-3463)

< 비매품 >

이책자는 부산광역시와의 학술옹역에 의해 제작하였음.